

高陽

고양의 일과 역사



고양문화원

고양이 열과 역사

고양문화원



차 례

I. 우리가 사는 고양시는 이런 곳입니다.....	7
1. 시작하는 말	9
2. 고양시 개관	10
3. 고양시의 역사	14
4. 고양의 문화	17
5. 끝맺는 말	18
II. 고양군(시)청의 역사	21
1. 서 론	25
2. 본 론	26
3. 결 론	31
III. 일산(一山)의 유래.....	33
1. 일산(一山)의 유래	35
2. 일산(一山)의 역사	36
3. 신시가지 개발전의 일산	37
IV. 고양시 문화 유적지.....	39
1. 행주산성(幸州山城).....	41
2. 행주서원(杏州書院).....	48
3. 은영선생묘(殷影先生墓).....	49
4. 강매동 석교(江梅洞石橋)-해포교(醢浦橋).....	41
5. 류형(柳衍), 류림(柳琳)장군의 묘.....	54
6. 도라산과 장대비(將臺碑).....	55
7. 금표비(禁標碑).....	56
8. 필리핀군 참전 기념비.....	60
9. 최영 장군 묘(崔瑩將軍墓).....	62
10. 경안군(慶安君)과 임창군 묘(臨昌君墓).....	65
11. 대자사(大慈寺)와 대자동(大慈洞)의 유래(由來).....	66
12. 굴씨녀(屈氏女)와 묘(墓).....	69

13. 고양향교(高陽鄉校).....	72
14. 벽제관지(碧蹄館址).....	74
15. 고양동 송덕비(頌德碑) 7기(基).....	76
16. 고양동 은행나무 1그루.....	78
17. 혜음령 고개와 순이 이야기.....	79
18. 밥 할머니 석상(石像).....	81
19. 덕수자씨 교비명(德水慈氏橋碑銘).....	84
20. 방백 오정일 청덕홀민선정비(方伯吳挺一淸德恤民善政碑).....	85
21. 박태성 정려비 및 묘(朴泰星旌閭碑 및 墓).....	86
22. 한미산 흥국사 약사전(漢美山興國寺藥師殿).....	88
23. 북한산(北漢山) 역사기행.....	91
24. 고려 공양왕 고릉(高麗恭讓王高陵).....	104
25. 서삼릉(西三陵).....	107
26. 서오릉(西五陵).....	108
27. 청자요(靑磁窯).....	116
28. 영글이(永文里)와 단산부원군 묘.....	118
29. 월산대군 묘 신도비(神道碑).....	120
30. 송강정철시비(松江鄭澈詩碑)와 송강마을.....	122
31. 도내동 은지 및 이축 묘(道乃洞 隱池 및 李蓄 墓).....	124
32. 문봉(文峰書院)과 고양팔현(高陽八賢).....	126
33. 송포백송(松浦白松).....	142
34. 고봉 봉수대(高峰烽燧臺).....	143
35. 고봉산 한씨 미녀 이야기(說話).....	145
36. 용강서원(龍江書院).....	148
37. 부사문촌(婦死門村)과 열녀 임씨.....	149
38. 일산 밤가시초가.....	153
39. 백석동의 흰돌 이야기.....	155
40. 독산 봉수대(봉화뚝).....	157
41. 충신 이정암 정려각(忠臣 李廷鼐 旌閭閣).....	170
42. 태극단묘(太極團墓).....	172

IV. 참고자료.....174

고양시연혁.....	174
역대시장·군수.....	176
고양시문화재 목록.....	178

I. 우리가 사는 고양시는 이런 곳입니다.



一. 시작하는 말

二. 고양시 개관

1. 상징하는 것들/ 2. 위치, 지리
3. 고양팔현과 고양정신(고양의 사람들)

三. 고양시의 역사

1. 구석기 시대/ 2. 신석기 시대/ 3. 청동기 시대
4. 삼국시대~통일신라시대/ 5. 고려시대/ 6. 조선시대
7. 근·현대(개항이후~현재)

四. 고양의 문화

1. 민속놀이/2. 민간신앙

五. 끝맺는 말

I. 우리가 사는 고양시는 이런 곳입니다.

시작하는 말

한 지역에 대한 역사 연구, 유물·유적에 대한 조사는 그 지역에 대한 지역 연구에 가장 기초적인 작업이다. 그 지역에 대한 애정과 발전 도모의 의지로 표출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지방자치제와 더불어 최근에 지역 향토사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우리 고양시의 경우 일산 신도시를 비롯한 많은 곳이 개발되고 건설 중에 있어 이러한 지역의 역사 연구·조사가 더욱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무분별한 지역 개발은 외형적으로 볼때 기존의 모든 환경, 지형을 변화시키고 산, 강, 마을 등을 영원히 사라지게 만든다. 또 외형적 변화에 따른 내형적 변화는 수백 수십년동안 내려오던 전통문화를 변질시키거나 파괴시키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결국 급속한 환경 변화에 따른 한 지역의 경제·문화의 변질은 여러 가지 면에서 지역인에게 영향을 미치는데 우리의 기존 전통생활의 협동적 공동체생활에서 서구의 이질적인 문화에 대하여 우리는 우리 지역의 지리적 특성, 역사 등을 통해 주체의식을 확보하고 이러한 주체의식을 통하여 우리 지역에 대한 애함과 자긍심을 고취시켜야 할 것이다.

이에 본 글에서는 우리 고양지역의 역사를 통사의 형식을 빌어 살펴보고 우리 지역에 오래전부터 전래되어 오는 향토문화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I. 우리가 사는 고양시는 이런 곳입니다.

고양시 개관

1. 고양시의 상징물



시마크

▲ 시의 나무 : 백송(白松)

고양지역의 유일한 천연기념물이기도 한 백송 제60호

■ 시마크 특징

- 1) 세 개의 삼각형은 고봉산, 덕양산과 더불어 북한산의 우뚝 솟은 모양이며, 고양 시민의 높은 기상을 의미한다.
- 2) 중앙 둥근 원은 고양 시민들의 화합과 단결로 통일된 하나를 이룩하자는 의미이다.
- 3) 원을 감고 도는 소용돌이는 울렁이는 한강을 의미하며, 진취적이며 발전하는 시민상을 의미한다.



▲ 시의 꽃 : 장미

아름다움과 사랑을 상징하는 꽃
특히 이 사랑의 꽃을 우리 고양시에서
가장 많이 길러내고 있다.

■ 작도 방법

- 1) 정삼각형을 그리고 중심점을 설정한다.
(한 변의 길이 20cm 기준)
- 2) 중심점으로 삼각형을 3등분한다.
- 3) 중심점에서 삼각형 한번 길이의 1/4 크기의 원을 그린다.
- 4) 중심원을 이용, 바깥선을 반지름 4.5cm를 이용하여 그리고, 안쪽선은 반지름 4cm를 이용하여 작도한다.
- 5) 전체 삼각형과 접하는 원을 연결하고, 맞은편 선은 반지름 1.4cm를 이용하여 자연스럽게 굽혀준다.



▲ 시의 새 : 까치

이른 아침 뒷동산에서 들려오는 반가운
까치소리, 옛부터 우리는 이 소리를 들으면
반가운 손님이 온다고들 했다.

I. 우리가 사는 고양시는 이런 곳입니다.

2. 위치와 지리

고양시는 경기도 전체로 볼때 서북쪽에 위치하며 동남쪽으로는 서울특별시와 인접하고, 북동쪽으로는 양주군, 북서쪽으로는 파주시, 남서쪽으로는 한강을 사이에 두고 김포군과 인접하고 있다. 고양시의 남단은 옛 화전읍 현천리(현천동), 북단은 벽제읍 벽제리(벽제동), 서단은 송포면 구산리(구산동), 동단은 신도읍 효자리(효자동)로써 면적 266.49km에 달하고 있다.

고양시의 지리적 위치는 한반도의 중심부, 서쪽 지역으로 그 지세가 동북부가 높고 서남부가 완경사로 되어 인근 한강까지 평야 지대가 발달되어 있다.

산세의 형성은 광주산맥의 한 여맥이 고양 근교에서 북한산 등이 준봉을 이루고 있다. 그중 북한산의 험준한 산세로부터 뻗어 나온 낮은 구릉성 산지가 고양 일대에 산재되어 있으며 한강이 고양 지역의 남서부를 관통하므로써 이 유역은 넓은 평야로 이어져 있다.

이러한 평야 지역은 주로 옛 일산읍, 송포면, 지도읍 등에 발달되어 있는데 그중 그 규모가 가장 큰 퇴적평야인 일산지역은 신도시가 건설되었다. 특히 옛 지도읍 신평리(신평동)에서 송포면 법곶리(법곶동) 일대에 걸쳐 폭넓은 충적지가 형성되어 토지가 매우 비옥하며 이 곳에서 산출되는 쌀은 매우 유명하다.

그리고 한강의 지류인 곡릉천 일대는 충적층으로 덮혀있고 해발 고도가 매우 낮기 때문에 항상 침수의 위협을 안고 있다. 그러나 현재 토양이 비옥하여 재방을 쌓아 최고의 농경지를 이룬다.

또 시의 동남쪽으로 창릉천이 흐르고 있

는데 하천 주변에 소규모의 평야가 형성되어 있다. 하천이 발원하는 산지는 남동쪽의 북한산, 북동쪽의 우암산과 서북쪽의 고봉산, 그리고 서남쪽의 덕양산 등이 주봉을 이루어 낮은 구릉성 산지의 형태로 한강 방면에 이어져 있다.

고양시의 행정 구역은 시 승격 이전까지 6읍(원당, 신도, 일산, 벽제, 지도, 화전), 1면(송포)으로 나뉘어져 있었으나 현재는 행정동 37개동으로 분할되어 있다. 시승격과 함께 고양시는 그 면적에 있어 우리나라에서 특별시, 직할시를 제외하고 가장 큰 광역 도시가 되었다.

이것을 일산구와 덕양구 2개구로 나누었는데 일산구청은 일산신도시 마두동 정발산 전철역 앞에 있고, 덕양구청은 화정동 화정 전철역 앞에 위치해 있다.

○○덕양구

(주교, 원신, 홍도, 성사1, 성사2, 효자, 신도, 창릉, 고양, 관산, 능곡, 화정1, 화정2, 행주, 행신1, 행신2, 행신3, 화전, 대덕동)

○○일산구

(식사, 일산1, 일산2, 일산3, 일산4, 탄현동, 풍산, 백석, 마두1, 마두2, 주엽1, 주엽2, 대화, 장항1, 장항2, 고봉, 송포, 송산동)

3. 고양팔현(高陽八賢)과 고양정신(高陽正心)

임진왜란의 많은 전투에서 대부분 승리로 장식한 경우는 관군보다도 의병들의 역할이 지대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석탄 이 신의 장군도 고양팔현의 한 사람인 민 순의 제자로서 스승에게서 영향을 받았을 것이고, 그 밖에도 많은 민병들이 여기저기서 창궐하여 임진왜란을 승리로

이끄는 주역이 되었던 것이다. 이보다 앞서 고양 땅에는 많은 제자를 선비들이 가르치며, 조선의 학문을 계도하고 있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이제 『문봉서원과 고양팔현』에 실려있는 윤사순 교수의 글을 참고로 그 정신세계를 더듬어 보기로 한다.

추강 남효온 행촌 민 순
사재 김정국 모당 홍이상
복재 기 준 석탄 이신의
추만 정지운 만해 이유점(임진왜란 뒷세대)

이 중에 정지운, 홍이상 같은 분은 이 곳이 고향이었고, 이신의나 남효온은 20대 혹은 30대에 이 곳을 찾아든 학자들이며 민순, 이유점 등도 역시 이 곳 출신이거나 적어도 이곳에 이사와서 살았을 것이다. 민순 같은 이의 묘가 이 곳 현천동에 있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해 준다. 그리고 사제지간의 연원을 따지자면 이들이야말로 당시 사람의 주요 인물들과 직접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

남효온은 정필재, 김종직의 문인이고, 김종직은 한훤당 김굉필의 문인이며, 기준은 조광조의 영향을 받은 인물들이었다. 또 정지운은 김안국과 김정국 현제의 문인으로서 퇴계의 학문에 깊은 영향을 주었고, 민순은 화담 서경덕의 문인이다.

김안국이나 김정국 역시 조광조의 정신을 따라 행동하다가 기묘사화에 연루되어 파직당했던 인물로서 전형적인 선비정신의 소유자이자, 학자들이다. 그리고 홍이상, 이신의, 이유점은 각기 민순과 허협의 문인들이다. 이러한 관계를 살펴보면 이들이 거의 모두 조선조를 대표할 만 한 학자들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고양팔현의 8명은 조선조 선비의 대명사라고 해도 가능하지 않을까 한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팔현으로 일컬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과연 어떤 점에서 선비라고 할 수 있느냐는 것이고 그들이 어떤 점에서 행주대첩의 정신에 연결되는 것인가이다.

위의 8명은 모두 문봉서원에 모셔진 분이다. 그들이 단순히 고양땅과 연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 서원에 모셔진 것은 아니다. 그보다는 이들의 인품과 업적이 당시 선비로서 인정을 받을만 하기 때문에 오히려 귀감이 되기 때문에 말미암은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선비라고 하는 의미는 일정하게 규정짓기 어렵다. 어떻게 보면 글이나 읽고 지내는 단지 양반이라는 신분상에서 오는 지식인이라는 의를 내포할 수도 있다.

선비란 예를 지킬 줄 알아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선비가 예만을 강조하는 것은 아니다. ‘형식적으로 지나치게 차리는 예는 오히려 두려워함이다’라는 말을 내포하는 말이 『논어』에도 나오듯이 ‘지나친 것을 삼가는 절도야말로’ 선비의 정신이라 한다. 그보다는 지나침이나 모자라는 것이 없는 즉 밖으로 드러나는 것과 속으로 지니고 있는 바탕의 조화야말로 선비들에게 중요한 정신인 것이다.

이것이 바로 중용의 정신이며 어느 한 편에 치우침이 없는 부편 부당의 정신이다. 즉, 공자의 말대로 한다면 “군자는 남과 잘 조화롭게 지내지만 패거리를 짓지는 않는다”(화이부동)의 정신이고 군자의 태도이다.

그러나 선비가 중용의 도를 지킨다고 해서 우유부단하고 지조가 없는 성격의 소유자라는 말은 아니다. 오히려 이러한 성격의

I. 우리가 사는 고양시는 이런 곳입니다.

소유자야말로 뚜렷한 지조와 주관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추강 남효온이 자신의 생각을 임금에게 상소하다가 죽음을 당한 생육신의 한 사람이었음은 이를 증명하고도 남는다.

“삼군을 거느린 장수의 뜻은 빼앗을 수는 있어도 필부의 뜻은 빼앗을 수 없다.”고 한 공자의 말은 바로 이러한 맥락으로 이어진다. 선비야말로 그 절개와 기개가 단순히 맹목적으로 발휘되는 것이 아니라 선비의 정신이 행동으로 이어지는 바탕이 되는 것이다. 물론 이때의 행동이 사적인 경우가 아니라 공적인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이로움을 보면 그것이 의인가 아닌가를 생각하라.”(견이사의)는 말과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인을 실천한다는 살신성인의 정신이 바로 선비의 정신인 것이다.

곧, 봉공의 정신이 선비의 정신이 된다. 봉공에 투철한 까닭에 선비가 곧 나라의 으뜸되는 힘(국지원기)이라고 믿게 된다. 나라를 떠받드는 힘, 그것이 곧 선비라고 옛분들은 확신하였다.

이러한 선비정신이 나라의 운명이 풍전

등화에 처해 있을 때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던 것이고, 이분들께 교육을 받은 석탄이신의 같은 분이 의병을 일으켜 왜군에 대적했던 것은 어찌면 당연한 귀결이 되는 것이다. 이제 고양정신의 하나인 행주열에 대한 정의를 내릴 때가 되었다.

앞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행주대첩은 권을같은 관군의 지휘자와, 선비정신을 모태로 한 고양지역의 민간인이 하나가 되어 승리로 이끈 역사적인 업적이다. 다시 말하면 관과 민의 조화가 기본적인 정신이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행주열이란 꼭 관과민을 전제로 하지 않더라도 고양과 국가를 사랑하는 모든 이들의 ‘조화’에서 나온 결과였고 이것이 행주열 내지는 고양열의 정신이 되어야 한다고 결론지을 수 있을 것이다.

훌륭한 스승은 뛰어난 제자로 가르쳐 기르고, 훌륭한 제자는 스승의 가르침을 뛰어넘게 배워 실천한다는 것도 기억하여 팔현의 얼을 우러러 배우고 실천에 힘쓸 때, 국가와 세계사의 주역이 우리 고양시에서 태어난다는 것도 명심하기 바란다.

I. 우리가 사는 고양시는 이런 곳입니다.

고양시의 역사

1. 구석기 시대

고양지역의 구석기시대 유적이 일산신도시 발굴단에 의해 발굴되었는데 발견된 유적 자리는 옛 송포면 일산읍 지역이었다.

이 지역에서 발견된 유물은 대부분 석기류인데 옛 일산읍 마두2리 지역에서는 구석기 유물 중에서 찌개가 발견되었고 마두3리에서는 끌개, 그리고 주엽1·2리 지역에서는 몸돌, 찌개 등이 모두 발견되었다. 유물이 발견된 지역에서는 대부분 야산의 잔구릉지인데 형태가 완전한 석기도 다수 발견되었다. 이로써 고양시에 사람이 처음 살기 시작한 것이 적어도 5만년 이전으로 올라간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2. 신석기시대

현재까지 발견된 고양시의 신석기시대 유적은 일산신도시 지역과 옛 벽제읍 지영리, 원당읍 신원리, 신도읍 지축리 오부자동 유적이 있다. 일산신도시 지역에서 발견된 유물은 대부분 주엽1리(현, 신촌초등학교 지역)와 옛 송포면 대화리 가와지 마을에서(현, 성저마을)에서 발견되었다.

이 두 지역에서 발견된 주요 유물은 신석기시대 토기와 자연환경을 알 수 있는 나무, 벼씨, 나무열매 등인데 특히 성저마을에서 발견된 벼씨는 연대 측정 결과 지금부터 4천4백60년전으로 판정되어 신석기시대의

농경에 대한 새로운 연대와 기원에 대해 중요한 자료를 제시해 주었다. 이곳에서 출토된 토기는 모두 새김무늬 종류로써 중부 서해안 일대에서 보고된 신석기시대의 토기와 매우 닮은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지영리 유적은 곡릉천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곳에서는 신석기시대의 즐문토기가 발견되었다. 가좌동 유적은 곡릉천 중류지역에 위치하고 있는데 일본인 고고학자에 의해 즐문토기가 발견되었다. 지축리 오부자동 유적은 북한산에서 발원하는 창릉천 주변에 있는 신석기시대 유적인데, 즐문토기, 청동기시대의 토기, 석기가 발견되었다.

3. 청동기시대

무문토기, 고인돌의 출토를 특징으로 하는 청동기시대 유적은 주로 한강의 하류유역이나 그 지류인 곡릉천, 창릉천, 원당천, 장진천 등 하천에 따라 펼쳐진 언덕진 곳에서 발견되고 있다.

이러한 입지적 조건은 청동기인의 식생활이 농경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인데, 옛 송포면 가와지 유적과 성저마을에서 발견된 벼씨들은 신·청동시대 고양의 농경생활을 증명해 주는 역사유물이다.

고양시 지역의 청동기시대 유적, 유물은 문봉리, 화정리 지역의 지석묘군, 성사리 출토 동모용범편, 사리현리 출토 마제석부 등 약 20여곳이 보고되어 있다.

I. 우리가 사는 고양시는 이런 곳입니다.

4. 삼국시대~통일신라시대

고양지역이 선사시대에 이어 역사무대에 기록되기 시작한 것은 벽제가 한강유역을 중심으로 고대국가로의 건국·성장하는 과정이었다. 벽제는 당시 하북위례성을 삼각산(백운봉, 인수봉, 만경봉) 아래 만들고 한강유역을 경략하였으나 서기 475년에 고구려의 장수왕이 백제의 수도성을 함락시킨 이후에는 고양지역도 고구려의 영토로 귀속되었다.

고구려는 지금 고양지역내에 달을성현과 개벽현을 설치하였다. 그리고 달을성현은 후에 고봉현으로, 개벽현은 우왕, 왕봉·행주 등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이 두 현은 고구려의 북한산군과 함께 백제, 신라를 경략하는 거점의 하나가 되었다. 그 뒤 신라 진흥왕이 백제와 연합하여 고구려의 세력을 한강유역에서 몰아낸 후 진흥왕 16년(555)에 북한산에 행차하여 순수비를 세웠으며 고양지역에 북한산주를 설치하여 군사적인 요지를 삼았다.

신라는 삼국을 통일한 후 전국을 9주5소경으로 재편성 하였는데, 당시 고양지역은 646년에 설치된 한산주에 소속되었다. 그리고 달을성현을 고봉으로 개벽현을 우왕(일명 왕봉)으로 개칭하였다.

5. 고려시대

고려조는 통일한 후 태조23년(940)에 우왕현을 행주로 바꾸고 별호로 덕양이란 명칭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중앙집권적인 지방통치체제가 확립된 현종 9년(1018)에 고봉현과 행주현 두현을 양광도의 양주에 속현으로 예속시켰다. 공양왕 2년(1390)에 경기도를 좌도와 우도로 나누면서, 문종 때의 제도에 따라 본래 양광도에 속해 있던 고봉현을 경기좌도에 소속시켰다.

6. 조선시대

조선왕조가 건국된 후 태조3년(1394)에 비로소 고봉감무를 설치하고 부원현과 황조향을 고봉현에 예속시켰다. 이로써 고봉현은 종래 속현의 위치에서 벗어나 지방관이 파견되는 주현의 지위로 승격되었다. 이 중에서 부원현은 지금의 용산, 과천지역이었으며 황조향은 옛 일산을 주읍리 일대가 되는 곳이다.

이리하여 비로소 오늘날의 고양지역과 대략 비슷한 지역으로 이루어졌고 태종 13년(1413)에 전국을 8도로 재편성한 후 덕양에 사는 백성의 요청에 따라 현의 명칭을 고봉과 덕양 두 현의 이름을 한 글자씩 따서 고양현이라 바꾸고 종6품관인 현감을 두었다.

성종 원년(1470)에 덕종의 능인 경릉과 예종의 능인 창릉(두곳 다 서오릉에 있음)이 있는 지역이라 하여 관례에 따라 현에서 군으로 승격시켰다. 그러나 연산군10년(1504)에는 지연, 이오을, 미장수 등이 국왕을 모독했다는(금표지역 침범)죄로 처벌당하는 사건이 일어나면서 그 죄인이 살던 곳이라 하여 고양군이 광주군과 함께 혁파되었다. 이때 관아가 있던 곳은 놀이터로 만들고 모든 백성은 내쫓고 민가까지 헐어 내수사의 노비들만 살게 되었다.

그 뒤 중종 원년(1506)에 군으로 복구되었다. 인조3년(1625)에 고양군수 심창이 관사를 벽제관이 있는 곳으로 옮겼으며 이후 고양군 지역은 큰 변화없이 조선말기에 까지 이른다.

7. 근·현대(개항이후~현재)

조선조 말엽에 오면 근대적인 개혁의 일환으로 지방행정제도가 자주 변화하는데

따라 고양군의 소속도 여러차례 바뀌었다. 고종 32년(1895) 5월 26일 칙령 제98호로 고양군은 한성부 관찰사의 통지를 받게 되었다. 그러나 이듬해에는 경기도 관찰사에 귀속되었으며 9월에는 양주군의 신혈면이 고양군으로 편입되었다.

일본제국주의에 의해 식민통치가 시작된 이후 경성부 행정구역의 잦은 변화에 따라 고양군의 관할구역도 확대 또는 축소되었다. 1911년 4월 경기도령 제3호로써 경성부의 부와 면의 명칭 및 구역을 정한 이후, 조선시대 이래 한성부에 소속되었던 한양도성밖 10리 지역, 즉 (성저십리)의 일부가 따로 고양군에 편입되었다가 다시 경성부로 이속되었다.

이어 1914년 두 차례에 걸쳐 경성부의 관할구역이 축소되면서 「성저십리」의 일부, 양주군의 일부, 경성부의 일부가 새로이 고양군에 편입되었다.

이리하여 고양군은 관할 구역이 거의 2배로 확장되었으며 경성부를 에워싼 군이 되었다. 이때 모두 12개면 155개리로 구성되었으며, 용강면, 연희면, 은평면, 송인면, 독도면, 한지면, 벽제면, 신도면, 원당면, 지도면, 송포면, 중면으로 구성되었다. 당시 고양군청은 고양리에서 지금의 충정로 1가(현, 서대문 적십자병원)로 이전하였다.

그후 1936년 조선총독부령으로 경성부의 관할구역이 확대되면서 용강면, 연희면, 한지면이 없어져 한성부로 편입되어 그 면적

이 대폭 축소되었으며 고양군청도 지금의 동대문 부근인 을지로 5가로 옮겨졌다.

1945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후, 서울시의 행정구역 팽창에 따라 은평면, 송인면, 독도면 일부가 서울시에 편입되어 다시 고양군 관할구역이 축소되었다. 이리하여 고양군은 경기도내에서 가장 적은 면적으로 이루어진 군이 되었고 고양군은 당시 서울시의 서북쪽에만 인접하는 원당, 벽제, 신도, 지도, 송포, 중면의 6개면만을 관할하게 되었다.

이어 1961년 8월 군청의 위치를 서울에서 원당면으로 옮겼고 1967년에는 신도면에 화전출장소가 설치되었다. 1973년 7월 법률 제2596호에 따라 신도면의 일부가 서울시에 편입되었다. 이 해에 신도면이 읍으로 승격되었고, 이어 1970년대 말부터 1980년대 중반에 이르기까지 벽제, 지도, 화전, 일산, 원당이 읍으로 승격되었으며 능곡, 원당, 일산을 중심으로 급격하게 도시화 작업이 이루어졌다.

이후 1989년 4월에 일산신도시 건설계획이 발표되면서 옛 일산을 일산리, 마두리, 장항리, 백석리, 주엽리 일대에 560여만평의 일산 신도시 건설이 시작되었고 이어 중산, 탄현, 성사, 화정, 능곡, 행신지구의 모두 6곳의 택지개발지구가 추가로 발표되었다. 1992년 10월 고양시로 승격하면서 인구의 점진적 증가는 2003년 12월 현재 약 86만에 이르고 있다.

I. 우리가 사는 고양시는 이런 곳입니다.

Ⅳ. 고양의 문화

1. 민속놀이

민속놀이는 민간에 전승되어 오는 여러 가지 놀이를 말하는 데 각 민속놀이의 주된 특색은 민속적, 향토색을 가지며 전통적으로 행하여져 오는 데 있다. 여러 가지 민속놀이는 놀이의 주체에 따라 혹은 그 놀이가 주로 실시되는 계절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되어진다. 즉, 나이나 성별에 의해 구분되어지기도 하고 또 지방에 따라 차이가 생기기도 한다.

우리 고양지역에도 옛부터 많은 사람들이 살았고 농경위주의 생활을 중심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자연적인 민속놀이가 발생하였다. 특히 농경지와 한강이 인접되어 있는 송포지역에는 대화리, 가좌리 등을 중심으로 농악놀이 계통의 민속놀이가 발달하였다. 대표적인 놀이로는 대화리의 호미걸이, 용구재 이무기제, 멧개안사줄다리기, 싱아

대(말장박는)소리, 성석동의 진발두레패 등이 있다.

2. 민간신앙

민간신앙은 개인을 포함하여 한 가정을 위한 개인 및 가정신앙과 각 개인 및 가정이 소속해 있는 마을공동체를 위한 공동체 신앙으로 나눌 수 있다. 고양 지역에서는 이러한 신앙의례로 현재는 많이 사라졌지만 아직도 각 자연촌락별로 마을공동체 신앙이 행하여지고 있다. 마을 뒷동산에서는 도당굿이 올려지고 가정개인신앙으로 터주, 조왕, 성주, 칠성, 상신 등을 개인적으로 모셨다. 그러나 이러한 개인, 가정신앙은 그 흔적을 보기가 매우 어렵게 되었다. 지금까지 전승되고 있는 민간신앙 중 주목할만한 것은 북한산의 산신굿과 관산동의 산신제와 정발산 도당굿을 들 수 있다.

I. 우리가 사는 고양시는 이런 곳입니다.

III. 끝맺는 말

이상에서 우리는 고양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각 시대에 따라 간략히 살펴보았다. 결국 우리 고양지역에도 한국사에서 보이는 구석기시대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단절 없이 역사가 이어왔고 일반 민중들이 믿고 즐겨왔던 향토문화 역시 잘 유지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이 글의 맺음말에서는 이러한 고양지역의 역사와 향토문화를 보존 전승하기 위한 몇가지 방법을 제안하도록 하겠다.

첫째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많은 유물을 보존·연구하기 위하여 박물관, 전시실이 건립되어야 할 것이다. 각 신도시 개발 이전에 실시된 지표조사, 발굴조사에서 발견된 수만점의 유물을 우리 고양지역으로 되돌려받고 우리의 후손들에게 전해주기 위해서도 반드시 박물관과 같은 보존시설은 건립되어야 할 것이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본 무형민속놀이 등을 전승·보존시켜야 할 것이다. 앞에서 본 대화리, 가좌리 지역이 일산신도시 지역에 일부 포함되고 정발산 도당곳의 경우 일산신도시에 완전히 편입되어 현재로선 전

승·보존이 힘든 상태이다.

세번째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개발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연구가 이루어져 역사적 기록으로 남겨야 할 것이다. 영원히 사라지는 우리 고양땅 사람들에 대한 모든 것을 역사적 기록으로 남기고 책자나 사진, VTR 등으로 보존해야 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무형문화재에 대해서도 이를 위한 보존이나 전승단체를 육성, 지원해야 할 것이다.

네 번째로 고양의 역사와 문화를 널리 알리고 지역 청소년들에게 교육시켜야 할 것이다. 행주산성 부근에는 행주의 얼을 계승할 수 있는 청소년 교육원을 만들어 향토역사·문화 등을 교육시키고 현장답사 등을 통해 고양지역에 대한 현장교육으로 향토에 대한 애향심을 갖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 기타 지역의 향토역사와 문화에 대한 교육을 일선학교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향토사 연구가와 현직 교사간의 교류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I.우리가 사는 고양시는 이런 곳입니다.

조선시대 고양군의 면, 리, 촌의 조직

조선 영조 31년(1755년)

面	理	村
沙里大面	邑內里 大慈里 館山理 沙峴里 奈山里 竹院上牌里 竹院下牌里	梧里洞 龍伏院 沃彌池官村 古郡村 侍慕洞 麻根浦 瓮岩洞 舊書院村 內洞村 鷄基洞 卽榮洞 氷石村 銀杏村 於堰洞 新村 東山後村 伐乙村
元堂面	新一里 二牌里 木牌稀里 道乃洞	寒井村 蛤陵皮村 莫地村 靑大洞村 島村 勿古里村 新村 樓陵谷 朴齋宮村 舟橋村 利祁谷 沙斤寺 星羅山村 松峴村 蘇洞村 宮村 해浦 東頭內村
九耳洞面	城洞里 食寺里	婦死門村 甘露村 馬位谷 泥田村 英水味村 五籠谷 見達山村 都監村
松山面	德耳里洞 加佐洞里 龜山里	炭峴村 寒山村 道里谷 翌安山 唐盲島 右音梁谷 中山 夜味村 獐山村 龜山村
中面	楮田一牌里 楮田二牌里 注葉洞里 楓洞黃石中 白島	後谷村 舟鴉谷村 瓦野村 馬頭里 獐項里 內谷村 禿宗村里 植谷村 石串村 方基里 萬頭里 泉草里 上島村 無劫村
已浦面	城底里 大二化山里	場里村 新村 江西洞 浦邊里 島村 東書村
求知道面	大壯里 土堂里 江古山里 加羅山里 東幸信里 西幸信里 內城洞里 外城	內谷村 葛山里 冷井村 花水村 三昌堂里村 氷石里 陵谷村 麻桑鍾里 加羅山村 柎匠里 藩水里 城谷里 梁田村 杏州小兒洞 結石村
下道面	清潭里 龍頭里 花香洞里 亂池島	沙器幕村 柎里村 三松里村 紙亭里村 新村 牛羅里村 地石山村 新草里村 德斤里村

참 고 자 료

- 삼국사기
- 고려사
- 조선왕조실록
- 증보문헌비고
- 세종실록지리지
- 신증동국여지승람
- 대동지지, 김정호편, 아세아문화사 영인
- 여지도서, 국편위
- 고양군지, 고양군지 편찬위원회, 1987
- 고양군지, 이석희 편, 1755
- 고양군읍지 (규 12706)
- 고양군읍지 (규 17359)
- 고양군여지승람 (규 10709)
- 한말근대령자료집, 국회도서관 편
- 행주얼지, 고양문화원, 1992, 1989
- 문봉서원과 고양팔현, 1992, 고양문화원
- 행주얼의 의미와 계승방안, 1993, 정후수
- 고양시 향토사 전문위원 정동일씨 향토사 연구논문

우리가 사는 고양 뜻깊은 역사와 환경으로 후손에게 물려주자!!

Ⅱ. 고양군(시)청의 역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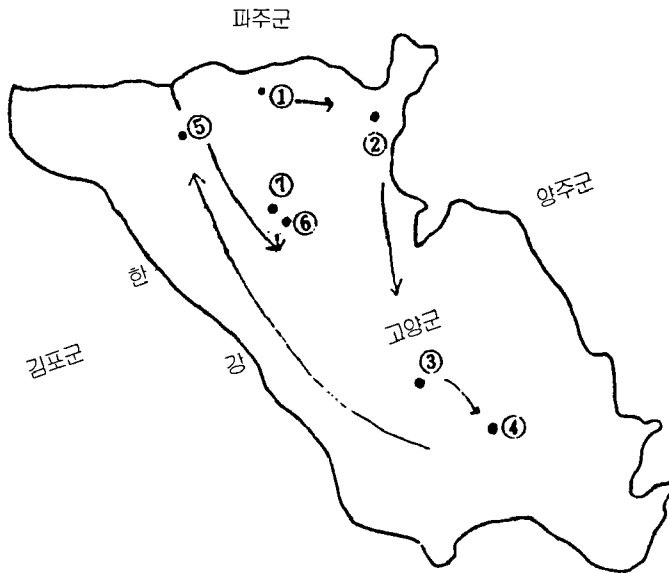
一. 서 론

二. 본 론

1. 고봉(高峰)과 덕양(德陽)을 합쳐 고양(高陽)으로
2. 대자1리 고읍(古邑) 군청시대
3. 옛 벽제읍 고양리 군청시대
4. 서대문 충정로1가 군청시대
5. 동대문운동장 부근 을지로6가 군청시대
6. 원당읍 성사리 군청시대
7. 원당읍 주교리 군청시대
8. 고양시청시대

三. 결 론

✧고양군(시)청의 역사 변동✧



- ① 고양현(군)청 대자동 고읍(古邑) 군청사
(1428~1625년, 197년간)
- ②고양동 읍내(邑內) 군청사
(1625~1914년, 289년간)
- ③ 서대문 충정로1가 군청사
(1914~1936년, 22년간)
- ④ 동대문 부근 을지로6가 군청사
(1936~1961년, 25년간)
- ⑤ 중면 일산리 임시군청사
(1951년 1년간)
- ⑥ 월당면 성사리 군청시대
(1961~1963년, 3년간)
- ⑦ 월당면 주교동 군(시)청사
(1963~현재)

Ⅱ. 고양군(시)청의 역사

세론

아 주 오랜 옛날부터 우리 고양땅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아왔다. 그리고 자신이 사는 마을을 구분하고 세분하여 행정 구역으로 나누고, 각 지역별로 명칭을 붙여 사용해 왔다. 왕조가 바뀌면서 새로운 지배층에 의해 여러번 행정 개편이 이루어졌고, 특히 일제 식민지시대 때에는 일본인들에 의해 수도인 경성부가 고양의 행정구역에 편입되기도 하였고 고양땅이 경성부에 편입되기도 하였다.

현재의 고양시 관할구역은 본래의 면적에 비해 축소된 것으로 이 중 많은 지역이 서울시에 편입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행정구역의 변경이나 전란 등으로 고양지역을 관할하는 관청 또한 조선조에 들어서만 다섯 번 이상 옮겨야 했다. 이에 이번에는 고양(高陽)이라는 명칭이 처음 사용된 조선조 태종 13년(1413)부터 579년이 지난 1992년 2월 1일 고양시로 승격되기까지 주로 고양군청의 변동사(史)를 중심으로 서술해 보고자 한다.

Ⅱ. 고양군(시)청의 역사

문물

1. 고봉(高峰)과 덕양(德陽)을 합쳐 고양(高陽)으로

조선이 건국되자 태조 이성계는 고려시대 지방통치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각 지방에 관리를 파견하여 지방세력을 통치하게 하였다. 즉, 태조 3년(1394)에 대대적인 행정개편을 통하여 지금의 고양지역과 비슷한 행정구역이 완성되었다. 그러나 지역실정을 무시한 많은 수의 지방관 파견은 시간이 흐르면서 지방행정의 비능률화를 가져와 적절한 선에서 고을 통·폐합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태종 13년(1413)에 고봉의 머리글자와 행주의 옛 지명인 덕양의 끝자를 따서 고양으로 고치고 현감을 두었다. 이때 명칭의 변경은 예로부터 고을의 통·폐합과 읍 명칭의 변경 때 마을 주민들의 큰 반발을 샀기 때문이다.

당시 고양땅의 사방 경계는 동쪽으로 양주까지 6리(里), 서쪽으로 교하까지 30리, 남쪽으로 한강까지 15리, 북쪽으로 파주에 이르기까지 15리 지역이었다.

2. 대자1리 고읍(古邑) 군청시대 (1428~1625년, 197년간)

고읍에 있던 이 관청 터는 조선조 제4대 세종 10년(1428) 당시 고양현감 하부(河傅)의 노력으로 건립되었다.

처음 건립될 당시 이 객관은 동헌(東軒)·

서헌(西軒)을 비롯하여 문묘(文廟)·향교(鄕校) 및 남별관(南別館) 등을 갖추 그 모습을 도(道) 전역에 자랑할 정도로 위치나 규모가 거대하였다. 당시 고양관아의 설립 경위를 적은 정이오기(鄭以吾記)가 『신증동국여지승람』에 기록으로 남아 당시의 모습을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다.

이를 간략히 소개하면, ‘홍희(洪熙) 기원 갑진년 8월에 현감 하군(河君)이 와서 관청이 무너지고 더러워도 수리하지 않는 것을 돌아보고 하전은 “이렇게 되어서는 왕의 사신을 예대할 수 없다” 하였으며, 다음 병오년 봄에 거의 다 무너졌으므로 감사 심도원(沈道源)에게 고하여 조정에 이를 알리게 하니, 윤허하여 교지(敎旨)를 받들었다. 재물을 모으고 일꾼을 불러서 가을 8월에 역사를 시작하였다. 건물이 웅려하고 제도가 정장하며, 질서가 있고 단단하였다. 담장을 두르고 꽃나무를 섞어 심고, 동헌앞에는 연못을 파서 연을 심었다. 또 서헌 앞에는 우물을 팠다. 무신년 11월에 공사를 마치니 문묘와 학교 남별관과 옛 관아를 합치니 과연 고양관청은 도내에서 으뜸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곳 대자리 고읍에 고양관청이 있던 세종 때의 고양땅에는 6백79호(戶)에, 인구는 1천3백14명, 전지(田地)는 6천3백256결(結)이었다.

이후 성종 2년(1471) 10월 13일 고양현내에 서오릉의 경릉, 창릉이 있다는 이유로

옛 관습에 따라 현에서 군(郡)으로 승격되어 비로서 고양군(高陽郡)이 되었다. 그리하여 수령의 품계도 종6품의 현감에서 종4품인 군수(郡守)로 바뀌었고 따라서 고을의 위치가 격상되었다.

그러나 성종을 이은 연산군조에 이르러 고양땅은 완전히 군 자체가 혁파되고 만다. 연산군 말년에 극악무도한 정치로 일반 백성들까지 정치와 임금에 대한 욕을 하게 되었는데, 마침 광주와 우리 고양땅에 살던 심언·이오을·미장수 등이 무도한 말을 했다고 하여 참사시키고 그들이 살던 광주·고양땅을 연산군 10년 4월 혁파해 버리고 말았다. 이어 8월에는 고양땅을 수렵장으로 만들어 통행을 금하고 군창(軍倉)을 파주로 옮기었다. 그리고 연산군 11년 7월에는 고양땅에 수렵지역을 더욱 확대하여 수렵지역의 주민들을 모조리 내쫓고 이곳에 출입하는 사람들은 죄를 알지도 못하고 죽임을 당하니 온 땅이 폐허가 되었다.

이 외에도 한양에서 가까운 관계로 대궐에서 키우는 양과 돼지의 사료재배지 농장이 설치되어 재배, 수확한 사료의 수송 등을 주민이 담당하게 되었다. 이후 1506년 중종반정으로 고양군 명칭이 회복되어 임진왜란을 치룬 뒤 고양리(高陽里) 군청시대를 맞게 된다.

3. 옛 벽제읍 고양리 군청시대 (1625년~1914년, 289년간)

대자리 고읍군청시대는 인조 3년(1625) 당시의 고양군수 심창에 의해 막을 내리게 된다. 즉 인조 2년(1624)에 새로 부임한 심군은 군청 이전 준비를 마치고 다음 해에 종전의 벽제읍 고양리로 군청을 옮긴 것이다.

그리고 구 군청 자리를 효종의 부마인 정제현(鄭濟賢)이 백련암(白蓮庵)이라 고쳐 부

르며 제당으로 사용하였다. 현재는 이 군청터에 재벌 총수의 별장이 자리잡고 있다.

새로 이전한 군청 자리는 지금의 벽제관지에서 관산동으로 이어지는 67번 도로 좌측인데, 현재는 벽제빌라와 테니스장 등 새로이 건물들이 들어서 그 흔적을 쉽게 알아볼 수 없다. 당시 고양군청이 고양리로 옮길 때 벽제관지도 함께 이전하여 세웠으며 숙종 15년(1689) 관아 서쪽에 고양향교를 중건하였다.

그후 영조 31년(1755) 「고양군지」의 기록을 보면 고양리 군청에서 경성(지금의 서울)까지는 남쪽으로 40리, 양주까지는 3리, 양주관문(官門)까지는 40리, 교하 관문까지는 30리, 파주 혜음령까지는 5리 정도 떨어져 그 경계로 하고 있다.

당시의 행정구역은 사리대면(沙里大面, 구 벽제읍 지역)·원당면(元當面, 구 식사리를 제외한 원당읍 지역), 구이동면(九耳洞面, 구 벽제읍 성석리, 원당읍 식사리 지역), 송산면(松山面, 구 송포면 덕이리·가좌리·구산리 지역), 중면(中面, 구 일산읍 지역), 구지도면(求知道面, 구 지도읍 지역), 하도면(下道面, 구 효자리, 북한리를 제외한 신도읍·화전읍 지역), 사포면(巳浦面, 구 송포면 대화리·법곡리 지역) 등 8지역으로 총 3천5백8호(戶) 1만3천8백61명의 군민이 살고 있었다. 또 총 군인의 수효는 1천9백96명이고 논밭은 3천9백37결이었다.

그후 고양군은 조선후기를 지나 근대에 들어서기까지 큰 변화가 없다가 1906년(광무 10년) 9월 24일 종래 8개면에 양주군 신현면(구 벽제읍 일부와 신도읍, 지축, 효자, 북한리 지역)을 편입시켜 9개 면이 되었다. 그리고 1910년에 대자리·관산리·내유산리·문봉리·지영리·설문리·원당리·벽제리·지축리·원흥리·

주교리·도내동·대장리·현천리·덕은리·행신리·대화리·토당리·내곡리·화정리 등 시 승격 전까지 사용되던 지명과 거의 비슷한 동리 명칭이 결정되었다.

결국 고양리 군청시대는 인조 3년(1625)부터 서대문 부근으로 이전하기 전인 1914년까지 289년간 이어졌고, 이 기간동안 2백6명의 고양군수가 있었다. 한일합방 이후로 일본인들에 의해 국가의 모든 권력이 외세에 들어가고 행정구역을 개편하여 한성부 부근의 6면(面)이 고양군에 편입되자 고양리 군청사도 서대문 부근으로 이전하였다.

4. 서대문 충청로1가 군청시대 (1914~1936년, 22년간)

고양리 군청시대에 이어 1914년 1·2차에 걸쳐 행정구역이 개편되고 이에 따라 한성부 4대문 밖이 모두 고양군에 편입되고 새로이 고양군청이 지금의 서대문 부근인 충청로1가로 옮겨졌다. 이때 새로이 한성부로부터 편입되어 확정된 고양군 관할구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용강면(龍江面)

용강면은 지금의 서울시 은평구·서대문구·마포구 지역으로 가깝게 당인리로부터 아현동·공덕동·여의도동 등 17개 리를 관할하였다.

② 연희면(延禧面)

연희면은 지금의 서울시 서대문구·은평구·마포구 지역으로 현재의 신촌·연희동·수색·아현동·서교동 등 18개 리를 관할하였다.

③ 은평면(恩平面)

은평면은 지금의 서대문구·은평구 지역

으로 현재의 홍제동·역촌동·불광동·평창동 등 15개 리를 관할하였다.

④ 숭인면(崇仁面)

숭인면은 지금의 성북구·도봉구·동대문구 지역으로 현재의 성북동·안암동·수유리·우이동·청량리·회기동·정릉동 등 22개 리를 관할하였다.

⑤ 독(毒)도면(蘇島面)

독도면은 지금의 동대문구·정동구·송파구 지역으로 현재의 화양동·광장동·잠실동·면목동 등 모두 14개 리를 관할하였다.

⑥ 한지면(漢芝面)

한지면은 지금의 용산구·성동구·서대문구 지역으로 현재의 이태원동·한남동·왕십리동·마장동 등 16개 리를 관할하였다.

이 밖에 기존의 관할구역인 벽제면·신도면·원당면·하도면·지도면·송포면·중면을 합쳐 고양군은 종래 9면 50개리, 면적 231.39km²로부터 12면 1백55개리, 면적 454.30km²로 확대되어 면적이 거의 2배로 확장되었다. 그리고 고양군의 인구는 12만 3천1백78명이었고 경성부는 24만8천2백68명이었다. 즉 고양군의 군세 확장과 면적의 증가는 경성부의 관할구역을 거의 4대문 안의 성곽안으로만 국한시켰으며 당시 고양군은 경기도의 일등군이 되었다.

당시 지금의 고양시 지역과 서울로 편입되어버린 고양군 지역과는 경의선·1번국도·한강의 해로 등을 통해 왕래가 이루어졌으며, 현재의 고양시 지역에서는 주로 곡물·나무·옹기 등을 영천(독립문 부근지역)에 내다 팔아 생활하였다.

결국 1914년부터 1936년에 이르는 서대문 충청로 군청시대는 22년간 존재하게 되었고 우리나라의 역사가 그러하듯이 우리

고양지역의 행정수반·경찰간부 등은 모두 일인에 의해 장악되고 강력한 일제식민지 정책이 전개되었다. 이어 을지로 군청시대로부터 고양시의 승격에 이르기까지 고양 청사의 역사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5. 동대문운동장 부근 을지로6가 군청시대 (1936~1961, 25년간)

일본제국주의의 민족말살정책이 한창 진행되던 1936년 2월 4일 조선총독부는 부령(府令) 제8호로써 경성부 관할구역의 변경을 공포하여 동(同) 4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 이러한 관할구역의 변경은 경성부 관할지역의 확대와 상대적으로 우리 고양군의 축소를 가져왔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동쪽으로는 경성부와 인접한 송인면 가운데 중량천 우측 일부와 남쪽의 한지면, 서쪽으로는 홍제원천 우측 연희면의 일부와 용강면 일원, 북쪽으로는 은평면의 일부 지역이 고양군으로부터 경성부에 편입되었다. 이리하여 우리 고양군은 종래 12면155리(里) 면적 473.89km²에서 9면94리 면적 402km²로 감소되고, 인구는 23만9천9백61명에서 7만6천6백72명으로 줄어들었다.

이때 우리 고양군청은 서대문 부근에서 지금의 을지로6가로 이전하였다. 이때 군청자리는 현재 동대문야구장 건너편 을지로와 청계천 사이였다. 1945년 광복 후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됨에 따라 수도인 서울이 더욱 팽창하게 되고 고양군은 날로 면적, 군세가 축소되었다. 즉, 1949년 8월 15일 송인면·은평면·독(독)도면의 3개면이 서울시로 편입되어 고양군은 서울시의 서북쪽에만 인접한 지역만을 관할하게 되었다. 이때 서울시로 편입된 지역은 지금의

은평구, 종로구, 도봉구, 성동구, 중랑구에 해당하는 지역이다.

이리하여 우리 고양군은 지금의 행정구역과 거의 비슷한 면적을 관할하게 되었다. 한편 1950년 6·25 동란은 고양군의 행정을 일시적으로 중단케 하였는데 1·4후퇴 후에 아군이 서울을 탈환함에 따라 1951년 6월 23일 고양군청을 임시로 일산(一山)에 정하고 사무를 개시하였다. 그런데 고양군에서는 군 청사를 사용하려던 미군부대의 면쓰기대령과 만나 군청의 재입주 허가를 받게 되었다. 기존 건물 이상의 완전 정비된 청사에서 업무를 볼 수 있었는데, 을지로 청사에서는 25년간 일본인 군수를 포함하여 17명의 군수가 재임했었다.

6. 원당읍 성사리 군청시대 (1961~1963, 2년간)

고양군의 남동쪽 지역이 모두 서울시로 편입되자 고양군청도 1961년 8월 7일 서울시 을지로 6가에서 원당읍 성사리(현재 성사동사무소)로 이전하였다. 당시 관할하던 행정구역은 원당면, 신도면, 중면, 지도면, 벽제면, 송포면의 6개 면으로 경기도내에서 가장 작은 면적을 관할하는 군이 되었다.

7. 원당읍 주교리 군청시대 (1963~1992, 29년간)

1963년도엔 성사리에 있던 군청이 원당읍 주교리(배다리)의 원당국민학교 뒷편으로 이전하였다. 군 청사가 새로 이전한 장소는 일제시대 때 우리민족에게 신사참배를 강요하던 신궁이 있던 곳으로 흔히 신궁산으로 불리던 장소였다.

1967년 3월에는 신도면 화전출장소가 설치되었고 1973년 7월 1일에 신도면 구파발리·

진관내리·진관외리가 서울시에 편입되어 고양군 관할지역은 다시 축소되었다. 그리고 이때 대통령령에 의해 신도면이 읍으로 승격되고, 1979년에는 원당면이, 80년에는 중면이 일산읍으로, 벽제면이 벽제읍으로 승격되었다.

이후 고양군은 원당·능곡·일산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도시개발이 시작되어 많은 인구가 유입되게 된다. 또 1985년 10월 1일 지도면과 화전출장소가 읍으로 승격되어 고양군은 6읍 1면으로 관할하게 되었다. 그 후 1989년 일산 신도시지역(장항, 백석, 마두, 주엽, 일산, 대화리지역)이 발표되고 이어 행신, 능곡, 화정, 성사, 중산, 탄현지구의 신도시지역이 추가로 결정되어 급격한 광역도시화의 작업이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이 29년동안 고양군청에는 모두 22명의 군수가 재임했었다.

8. 고양시청시대(1992. 2. 1~)

1992년 2월 1일부터 옛 고양군청이 고양시청으로 새롭게 역사에 기록됐다. 단순한 군 청사의 시 청사로의 전환이 아니라, 고양군 전체가 고양시로 승격된 것인데 이는 건국 이후 처음 있는 일이며 특별시·직할시를 제외하고는 전국에서 가장 큰 면적의 우리 고양시가 된 것이다. 더욱이 신도시들이 완성될 경우 인구 100만에 이르는 광역도시가 될 전망이어서 지금부터 철저한 계획 아래 시 행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초대시장으로는 전 고양군수였던 송달용 시장이 역사에 처음으로 임용되었다. 그 후 최병호 시장, 1995년에는 최초의 민선 시장인 신동영 시장에 이어 제5대 황교선 시장, 현재에는 제6대 강현석 시장과 86만 여의 시민이 교육과 문화, 쾌적한 환경의 도시를 지향하며 살아가고 있다.

II. 고양군(시)청의 역사

결론

이상으로 고양군(시)청사에서는 고양군청의 이전사를 통하여 ‘고양’이란 명칭이 처음 사용된 조선 초기시대부터 현재의 고양시 승격에 이르는 고양의 역사를 군 청사의 시기 구분에 의해 살펴보았다.

이를 통하여 나타난 고양 역사(歷史)의 특징을 보면,

첫째, 고양땅은 옛부터 한반도의 중심지 역할을 충실히 이루어냈으며 중앙집권의 왕권정치에서 그 부작용 등 많은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았다는 것이다.

두 번째, 군(郡)의 행정이 중앙기관의 통제권 아래 있어 지배층 중심의 행정이 지나치게 많이 관여했고 지배층의 능력·사패지지가 넓은 면적을 차지하여 독자적인 지역발전에 많은 장애가 있었다.

세 번째, 근·현대에 들어서는 일제에 의해 지명·행정구역들이 철저히 파괴되었고 독재정권의 장기집권으로 고양지역은 독자적인 한국역사의 기록에 포함되지 못했다.

네 번째, 현대에 들어서는 서울 주변의 지역으로 고양의 자주적인 계획·준비에 의한 시 승격·도시개발보다는 중앙인 서울의 단순한 위성도시로 소비지향·서구지향·개발파괴지향적인 기형적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우리 고양시는 기존의 군시대와는 달리 새로운 시대를 맞은 것이 사실이다.

우리는 앞에서 지직한 우리 역사를 교훈삼아 고양시 역사를 보다 자랑스럽게 하고 역사를 책임지기 위해서는 위정자로서가 아닌 우리 고양시민의 독자적인 역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역사가는 이를 아주 객관적으로 기록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고양시민 모두는 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우리 고양의 역사는 우리가 만들고 책임지기 때문이다.

참고한 문헌은 다음과 같다.

참 고 자 료

- 이석희 편 고양군지(1755)
- 고양군지(1987)
- 조선왕조실록
- 신증동국여지승람
- 구한국판보
- 경성부사
- 동국여지승람
- 세종실록지리지

Ⅲ. 일산(一山)의 유래



一. 일산(一山)의 유래

二. 일산(一山)의 역사

1. 연혁
2. 지명 유래

三. 신시가지 개발전의 일산

Ⅲ. 일산의 유래

일산(一山)의 유래

일

산이란 명칭이 처음 공식적인 지명으로 등장한 것은 일제가 경의선을 부설하던 1904~ 1905년 경이다. 즉, 현재의 일산역을 만들면서 그 명칭을 인근의 한산(韓山 또는 寒山)의 명칭을 따 일산이라 한 것이다.

이 이름에는 일본식 한자명이라는 것 이외에 1914년도 일제의 제3차 행정구역 때 이 명칭이 공식적인 ‘일산리’라는 행정구역 명칭으로 정해졌으므로 일제의 잔재인 것이다. 본래 이 지역의 옛 기록은 와야촌(瓦野村) 또는 와동(瓦洞) 마을이었다.

신라 진흥왕 때는 전국을 9주5경으로 나누어 다스릴 때 고양지역을 ‘한산주’라고 했다는 것과 후에 ‘고봉현’으로 개칭했다는 기록으로 보아 ‘한산’과 ‘고봉’은 상당히 같은 뜻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국어 발달과정상 한민족 → 위대한 민족, 한글 → 큰 글, 위대한 글, 훌륭한 글, 높은 글, 한강 → 큰 강, 넓은 강 등의 뜻으로 볼 때, 한산(큰산) → 고봉산 → 일산으로 났음이 옳고 모두가 같은 의미를 가진 것으로 봄이 옳다고 생각한다.

(편집자 주)

Ⅲ. 일산의 유래

二 일산(一山)의 역사

일산은 옛부터 고양지역에 포함되었던 곳이다.

고구려시대부터 연혁은 다음과 같다.

1. 연혁

- 고구려 : 개백현, 달을성현
- 신라조 : 고봉현 우왕현
- 고려조 : 행주, 덕양
- 1413년 : 조선조 태종 13년 고양현
- 1417년 : 조선조 성종 2년 고양군
- 1936년 2월 14일 : 연희, 한지, 용강면, 경성부로 편입
- 1949년 8월 15일 : 은평, 송인, 푼도면이 서울시로 편입
- 1961년 8월 7일 : 을지로 6가에서 고양시 주교동으로 청사 이전
- 1973년 7월 1일 : 신도면의 구파발리, 진관내리, 진관외리가 서울시로 편입
- 1989년 6월 13일 : 일산지구개발 지원 사업소 설치
- 1990년 5월 18일 : 고양군 공영개발 사업소 설치
- 1992년 2월 1일 : 고양군이 고양시로 승격
- 덕양구, 일산구로 나누어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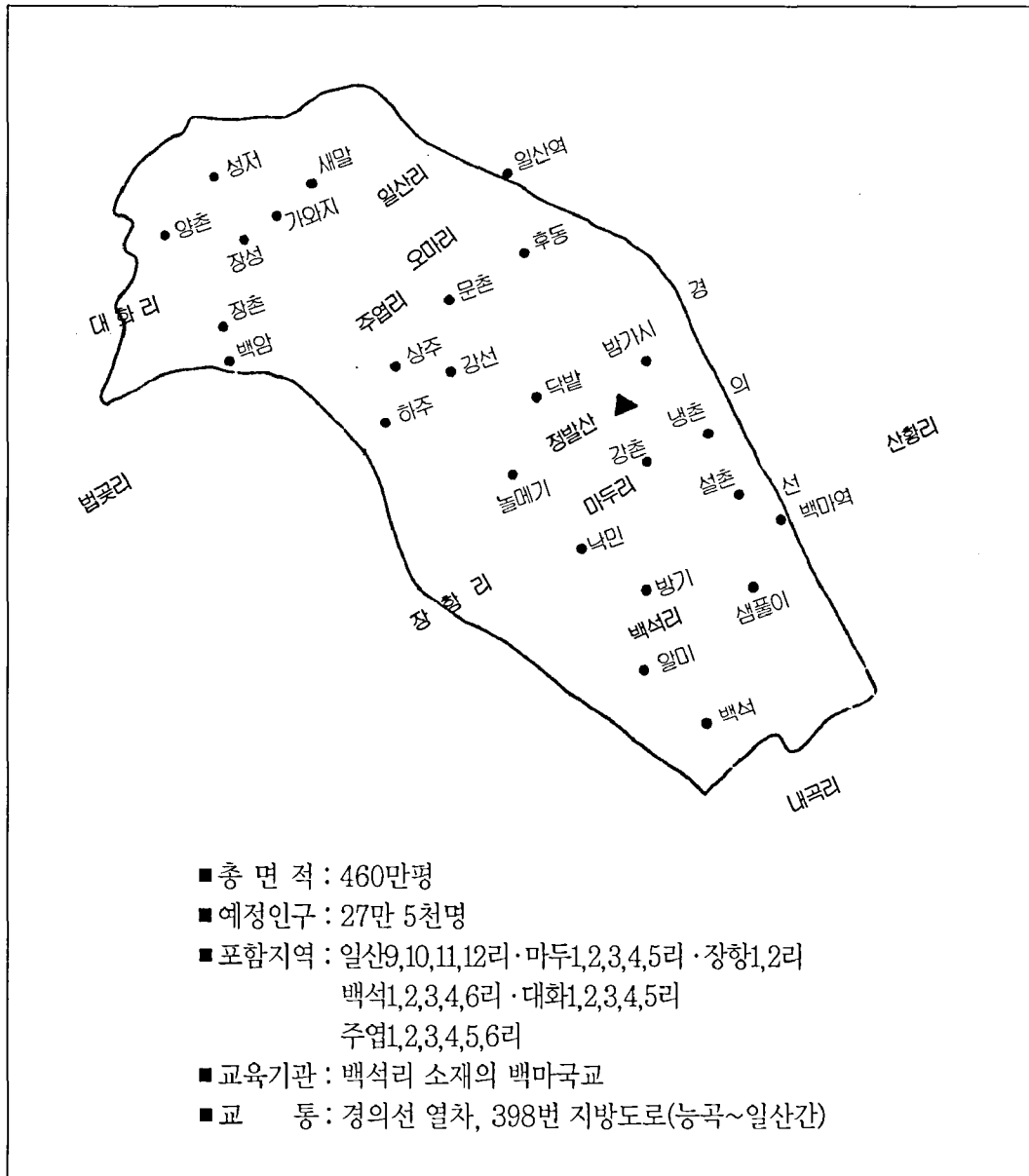
2. 지명 유래

조선조 태종 13년(1413) 고봉현과 덕양현의 앞자와 뒷자를 따서 고양현으로 정하였는데 일산의 옛 이름은 중면(中面)이다. 그 이전에는 고봉현에 속해 있었으며 이 속에는 주엽동에 있던 황조향 역시 포함된 것이었다.

『신증동국여지승람』, 1755년 『고양군지』 등에는 모두 중면이란 명칭으로 이 구역이 정하여져 있는데 일산은 보이지 않는다. 1755년 당시 중면에는 저전일패리 84호, 저전이패리 90호, 주엽리 105호, 풍동리 45호, 산항리 54호, 백석리 114호, 도중리 41호 등 총 533호에 남자 1,088명, 여자 1,026명이 살고 있었다. 그러다가 1980년 중면이 읍으로 승격되면서 그 명칭이 일산읍으로 되었고, 1989년 일산 신도시가 발표된 것이다.

Ⅲ. 일산의 유래

도. 신시가지 개발전의 일산



IV. 고양시 문화 유적지

덕양구

1. 행주산성(幸州山城)
2. 행주서원(杏州書院)
3. 은영선생묘(殷影先生墓)
4. 강매동 석교(江梅洞 石橋)-해포교(鹽浦橋)
5. 류형(柳衍), 류림(柳琳)장군의 묘
6. 도라산과 장대비(將臺碑)
7. 금표비(禁標碑)
8. 필리핀군 참전 기념비
9. 최영 장군 묘(崔瑩將軍墓)
10. 경안군(慶安君)과 임창군 묘(臨昌君墓)
11. 대자사(大慈寺)와 대자동(大慈洞)의 유래(由來)
12. 굴씨녀(屈氏女)와 묘(墓)
13. 고양향교(高陽鄉校)
14. 벽재관지(碧蹄館址)
15. 고양동 송덕비(頌德碑) 7기(基)
16. 고양동 은행나무 1그루
17. 해음령 고개와 순이 이야기
18. 밥 할머니 석상(石像)
19. 덕수자씨 교비명(德水慈氏橋碑銘)
20. 방백 오정일 청덕흙민선정비(方伯吳挺一淸德恤民善政碑)
21. 박태성 정려비 및 묘(朴泰星旌閭碑 및 墓)
22. 한미산 흥국사 약사전(漢美山興國寺藥師殿)
23. 북한산(北漢山) 역사기행
24. 고려 공양왕 고릉(高麗恭讓王高陵)
25. 서삼릉(西三陵)
26. 서오릉(西五陵)
27. 청자요(靑磁窯)
28. 영글이(永文里)와 단산부원군 묘
29. 월산대군 묘 신도비(神道碑)
30. 송강정철시비(松江鄭澈詩碑)와 송강마을
31. 도내동 은지 및 이축 묘(道乃洞 隱池 및 李蓄 墓)

일산구

32. 문봉(文峰書院)과 고양팔현(高陽八賢)
33. 송포백송(松浦白松)
34. 고봉 봉수대(高峰烽燧臺)
35. 고봉산 한씨 미녀 이야기(說話)
36. 용강서원(龍江書院)
37. 부사문촌(婦死門村)과 열녀 임씨
38. 일산 밤가시초가
39. 백석동의 흰돌 이야기
40. 독산 봉수대(봉화독)
41. 충신 이정암 정려각(忠臣 李廷龜 旌閭閣)
42. 태극단묘(太極團墓)



IV. 고양시 문화 유적지

행주산성 (熊川山城)

- 지 정 번 호 : 사적 제56호
- 지정년월일 : 1963년 1월 21일
- 시 대 : 조선시대
- 소 재 지 : 행주내동
- 소 유 자 : 국유 및 사유
- 관 리 자 : 행주산성 관리사무소
- 규 모 : 108,098평

권율 장군(權慄將軍)은 1592년 7월 8일 이치(梨峙)에서 왜군(倭軍)을 크게 격멸하여 대첩을 이루고 12월에 수원(水原) 독산산성(禿山山城)에서 또 왜적을 무찌른 후 한성(漢城)을 수복하고자 작전을 개시하였다.

전라병사 선거이(宜居怡)는 수원 광고산에, 전라 소모사(召募使) 변이중(邊以中)은 양천(陽川)에, 창의사(倡義使) 김천일(金天鎰)은 통진(通津)에, 충청감사 허옥은 파주와 양주를 연결하는 전선(戰線)을 펴고 명나라 군사와 협공하고자 하였다.

1593년 1월 8일 조선과 명나라 연합군은 평양성을 탈환하고 그 여세를 몰아 한성으로 내려오다가 1월 28일 벽제관(碧蹄館) 부근 숫돌고개에서 왜장 소조천융경(小早川隆景)의 북병에게 패하여 북으로 후퇴하기 시작하였다. 조선군은 단독으로 한성에 집결한 왜군을 공격할 교두보를 확보하기 위하여 권율 장군은 조방장(助防將) 조경(趙徽)과 승장 처영(處英) 등 정병 2천여 명을 거느리고 한강을 건너 행주 덕양산(德陽山)에 진을 구축하기 시작하였다. 처음에 권율 장군은 아현 고개를 정하려 하다 조경이 행주 덕양산을 물색하여 권율에게 아뢰어 성지로 결정하니 이곳이 바로 행주산성이다.

권율은 해발 124m의 덕양산 중턱에 이중의 튼튼한 목책성

(木柵城)을 쌓았다. 전투준비가 끝난 1593년 2월 12일 새벽 6시경 왜군 총수(倭軍總帥) 우희다수가(宇喜多秀家)는 3만명에 이르는 7개 부대를 거느리고 행주산성에 대한 공격을 개시하였다.

제1대는 소서행장(小西行長)의 군사로 조총을 쏘면서 목책까지 접근하자 화포(火砲)와 수차석포(水車石砲)의 공격을 일시에 퍼부어 말과 사람이 뒤범벅이 되어 궤멸되었다. 제 2대는 석전삼성(石田三成)의 군대로 역시 화살과 화포의 공격을 받아 많은 살상자를 냈으며 적장 전야장강(前夜長康)은 가슴에 화살이 꽂혀 중상을 입고 물러났다. 제 3대는 흑전장정(黑田長政)의 군사로 누대(樓臺)를 만들어 성책을 공격했으나 석포와 화전의 공격에 견디지 못하고 패퇴하였다. 제 4대는 22세의 젊은 총사 우희다수가 선봉이 되어 성책을 무너뜨리고 내책(內柵)까지 들어왔으나 화포의 공격을 받아 우희다수는 부상을 입고 물러났다. 제 5대는 길천광가(吉川廣家)의 군대로 내책까지 들어와 불을 지르고 넘어들려 했으나 우리 군사의 집중적인 공격을 받고 적장 길천광가는 중상을 입고 죽어가면서 물러났다. 제 6대는 모리원강(毛利元康)과 소조수포(小早秀包)의 군사로 산성의 서쪽 완만한 비탈로 쳐들어 왔다. 이때 처영이 거느리는 1천의 승군이 재 주머니를 터트려 눈을 뜨지 못하게 하고 백병전을 전개하여 적을 물리쳤다. 제 7대는 60세의 소조천용경의 군사로 제 6대의 뒤를 이어 승군 진영을 뚫고 성내에 들어왔다. 권율 장군과 승장 처영은 필사 항전의 돌격 명령을 내려 베고 찌르는 치참한 접근전이 벌어졌다. 치열한 공방전이 있은 후 드디어 적은 많은 사상자를 내고 물러났다. 이때가 어둠이 깔려드는 6시 경이었다. 이 대첩이 충무공의 한산대첩과 아울러 길이 빛나

는 행주대첩(幸州大捷)이다.

이 대첩에는 고양의 부녀자까지도 치마폭에 돌을 날라 석전을 전개하였던 것으로 그 치마를 행주치마라고 한다. 지금도 산 중턱에 목책자리가 남아 있고 삼국시대 토기(土器) 조각이 출토되어 옛날에도 군사기지였던 것을 알 수 있다.

1603년 건립한 행주대첩비가 비각(碑閣) 속에 남아 있으며 1963년 세운 대첩비도 서 있다. 이 비의 전면 글씨는 박정희 대통령이 썼다. 1970년 대대적인 정화공사를 하면서 권율 장군의 사당인 충장사(忠莊祠)를 다시 짓고 정자(亭子)와 문(門)을 세워 경역을 규모있게 조성하면서 1842년에 세운 행주 기공사 경내의 대첩비는 충장사 옆에 옮겼다.

▣ 행주대첩(幸州大捷)과 권율(權慄)

李章熙(성균관대 사학과 교수)

주지(周知)하는 바와 같이 행주대첩은 전라도 관찰사 권율이 주도한 싸움으로 임진왜란(壬辰倭亂) 삼대첩(三大捷)의 하나로 꼽힌다.

우리는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역사가 인물을 만드는 것이냐, 인물이 역사를 만드는 것이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는 때가 가끔 있다. 이럴 때마다 어느 것이 우선하는지 가늠하기 어려운 적이 많지만,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역사가 인물을 만들 수도 있고, 인물이 역사를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렇다면 권율은 어느 쪽에 해당될까. 아마도 권율에 있어서도 인물이 역사를 만들었다고 보는 것이 옳을 듯싶다. 그의 행적을 통해서 보면 그렇다는 것을 충분히 느낄 수 있다.

권율은 45세 때 문과(文科)에 급제하여 늦게 벼슬에 진출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광주목사에 제수되어 바로 임지로 떠났다. 왜병에 의해 서울이 함락된 뒤 전라도 순찰사 이광(李光)과 방어사 곽영(郭嶸)이 4만여 명의 군사를 모집할 때 광주목사로써 곽영의 휘하에서 중위장(中衛將)이 되어 서울의 수복을 위해 함께 북진하였다. 이광이 수원과 용인 경내에 이르러 이곳에 진을 친 소규모의 왜적을 공격하려 하자 극력 반대하면서 자중지책을 말하였으나 이광이 이를 듣지 않고 무모한 공격을 하여 대패하였다. 이광 휘하의 많은 장졸이 전사하거나 모두 흩어졌으나, 오직 권율만이 흐트러짐 없이 휘하의 군사를 이끌고 광주(光州)로 퇴각하여 뒷일을 계획하였다.

그후 남원에서 1천여 명의 군사를 모집하여 다시 북진, 금산에서 전주로 들어오려는 고바야카와의 정예부대를 맞아 동북현감 황진(黃進)과 함께 이치(梨峙)에서 싸웠다. 이 싸움에서 황진이 조총탄을 맞아 사기가 저하되었으나 굴하지 않고 군사들을 독려하여 왜군을 격퇴시켜 호남을 보존하였다. 그해 가을 이치 싸움의 공으로 일약 전라감사에 승진하였다.

이 해 12월에 전라감사 권율은 서울의 수복을 위해 1만여 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북진길에 올라 직산에 이르러 잠시 머물다가 체찰사 정철(鄭澈)이 군량미 마련 등에 어려움이 있으니 돌아가 관내(管内)를 지키는 것이 좋겠다고 하자 잠시 주저하였으나, 북상하라는 행재소(行在所)의 전갈을 받고 북진을 계속하였다. 그러나 앞서 광교산(光敎山)에서 크게 패한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바로 북상하는 것을 피하고 수원 독성산성에 들어가 진지를 구축하였다. 대군이 그곳에 와 있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왜군의 총

사령관 우키타는 후방의 연락이 단절될 것을 염려한 나머지 도성에 주둔한 왜군을 풀어 삼진(三陳)으로 만들고 오산 등 여러 곳에 진을 친 다음, 서로 내왕하며 독성산성의 아군을 밖으로 유인하려 하였다. 그러나 성책(城柵)을 굳게 하여 지구전(持久戰)과 유격전을 전개하면서 그들에게 타격을 가하자 몇날이 지난 다음 영책(營柵)을 불사르고 도성으로 퇴각했다. 적이 물러갈 때 정예기병 1천을 풀어 적의 퇴로를 기습하여 많은 왜군을 참수했다.

관군과 명나라 원군이 평양을 수복하고 남진을 속행했다는 소식을 듣고 명의 원군과 호응하기 위해 다시 서울 근교 서쪽으로 옮기기로 하고 조방장 조정(趙儆)을 보내어 적당한 지역을 물색하라고 하였다. 이에 조경은 양천(陽川)에서 한강을 건너 고지를 올라보고 병력을 주둔시킬 만 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본진에 들어와 주장(主將)인 권율에게 보고하였다. 권율은 서울 주변인 안현(鞍峴)에 진을 칠 것을 원했으나 막하 장수들의 반대로 조경이 물색한 곳으로 결정하게 되었으니 이곳이 곧 행주산성이다. 권율은 행주산성에 조경을 시켜 목책(木柵)을 설치하도록 하고 은밀히 이곳으로 군사를 옮긴 뒤 휘하병력 가운데서 4천명을 뽑아 전라병사 선거이(宣居怡)로 하여금 금천(衿川, 지금의 시흥)에 주둔케 하고 서울의 왜군을 견제하도록 하였다. 이때 죽산에서 패한 소모사(召募使) 변이중(邊以中)도 정병 1천을 거느리고 양천에 주둔, 행주산성과 금천 중간 위치에서 왜군을 견제토록 하는 한편,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여 행주산성의 배수진을 친 권율을 돕도록 하였다.

권율은 잔여 군사를 이끌고 조정 등과 함께 행주산성에 진을 설치하였는데, 이때 서산대사의 고제(高弟)인 의승장 처영(處英)

도 의승병 1천명을 이끌고 권울을 따라 강을 건너니 이 산성에 포진한 군사는 3천여명을 헤아릴 뿐이었다. 그후 권울이 정예병을 뽑아 서울에 보내는 등 전투태세를 갖추자 왜장들은 이치와 독성산성에서 치욕적인 패배를 경험한 지라 일격(一擊)에 침공하여 권울의 관군을 몰살하여 위협을 배제하자는 자세로 임하였다. 출정에 한번도 진두에 나서본 일이 없던 총대장 우키타를 비롯해서 이시다(石田三成)·마시타(増田長盛)·오타니(大谷吉繼)의 삼봉행(三奉行) 등 본진의 장수들까지 7개대로 나누어 행주산성으로 진군하였는데 전 병력은 3만 명이 넘었다.

행주성 안에 우리 관군이 소지한 무기로는 궁시(弓矢), 도창(刀槍), 총통(銃筒) 외에 변이중이 만든 화차(火車), 권울의 지시로 만든 수차석포(水車石砲)라는 특수한 무기로 왜군의 침공에 대처할 수 있었다. 또 성 안에는 일시에 왜군이 물려들 것에 대비하여 성책을 내외에 이중으로 만들고 토제(土堤)를 쌓아 조총탄환을 피할 수 있게 하였으며, 병사에게 재가 들어 있는 주머니를 허리에 차게 하였다. 왜군이 침입해 온다는 정보를 입수한 권울은 일장훈시를 통해 이번 일전(一戰)이 병사들의 생사에 관계한 것도 중요하지만, 국운(國運)이 이 한판 승부에 달려 있다는 것을 주지시켜 용기를 북돋아주었다.

선조 26년(1953, 癸巳年) 2월 12일 오전 6시경 왜군의 선봉 1백여 기(騎)가 나타나더니 뒤이어 대군이 밀려왔다. 선봉에 나선 것은 제1대장 고니시였다. 그는 평양싸움에서 대패한 이후 벽제관 부근 여석령(礪石嶺) 싸움에도 참전하지 않고 있다가 마침내 설욕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생각하고 가장 먼저 산성 공략에 나섰다. 그러나 성 안에서 한꺼번에 화차에서 포를 쏘고, 수차

석포에서 돌을 뿜아내며, 진천뢰(震天雷) 총통 등을 쏘아대고 강궁(強弓)의 시위를 당기자 물려들었던 적의 병마가 맞아 혼비백산하니 고니시의 제 1대는 궤멸상태에 빠져 물러났다. 다음에 나섰던 이시다가 이끈 제 2대도 공격에 실패했다. 다음은 제 3대를 이끄는 구로다의 차례였다. 구로다는 전년 9월 연안성(延安城) 싸움에서 의병에게 대패한 경험이 있어 장제(長梯) 위에 누대(樓臺)를 만들고 그 위에 총수(銃手) 수십명을 올려놓고 성안을 향해 조총만 쏘게 하고 병졸을 접근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에 조방장 조경은 대포를 쏘아 이를 깨뜨리고 또 포전(砲箭) 끝에 칼날 두 개씩을 달아 쏘게 하니 맞는 자는 즉사하였다.

제 1대부터 3대까지 연패하는 광경을 지켜본 총대장 우키타는 크게 노하여 선두에 나서자 소속된 제 4대 장졸들도 모두 그의 뒤를 따랐다. 그들은 많은 희생자를 내면서도 계속 전진, 마침내 제 1성책을 넘어서 제 2성책까지 접근하자 관군은 한때 동요하기 시작했으나, 권울의 독전으로 이를 극복하고 전세를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 갔으며, 화차의 총통이 적장에게 집중 사격되어 우키타는 부상을 입고 부하의 부축을 받으면서 퇴진하였다. 그리고 이때까지 남아 선두에서 지휘하던 제 2대장 이시다 역시 부상으로 후퇴하였다. 제 5대장 요시카와(吉川廣家)는 제 4대의 뒤를 이어 화통(火筒)으로 성책의 일부를 집중 발사 불이 붙게 하였으나, 관군은 미리 마련한 물을 뿌려 꺼버리고 시석(矢石)을 퍼부어 그는 큰 부상을 입고 물러나니 그 부하 병졸들의 사망자만도 1백60명이나 발생했다. 두 대장의 부상에 분노한 제 6대장 모리(毛利秀元)와 고바야카와(小早川秀秋) 두 장수는 제 2성책을 점령하려고 공격을 가하여 왔다. 이

때 처영은 의승군을 이끌고 용감히 맞서면서 차고 있던 재주머니를 풀어 뿌리게 하자, 눈을 뜰 수 없게 된 적군은 달아나고 말았다.

왜군은 마지막 남은 제 7대로 바꾸어 계속 공격했다. 대장 고바야가와는 노장으로 선두에 서서 서북쪽 자성(子城)을 지키던 의승군의 일각을 뚫고 성 안에까지 돌입하려 하자 의승군이 동요하기 시작하여 급박한 상황에 이르렀다. 이때 주장 권율은 대검을 빼어들고 의승군의 총 공격을 호령하자 다시 돌아서서 왜군과 치열한 백병전에 돌입하였고, 옆 진영의 관군도 화살이 다하여 투석전을 폈는데, 이때 부녀자들까지 동원되어 관민이 일치단결하여 싸웠으며, 특히 부녀자들은 긴 치마를 잘라 짧게 만들어 입고 돌을 날라서 적에게 큰 피해를 주었다. 여기에서 ‘행주치마’가 유래되었다고 한다. 왜군이 이것을 알고 기세를 올리려 하였으나 마침 경기수사 이빈(李蘋)이 수만 개의 화살을 실은 배 두척을 몰고 한강을 거슬러 올라와서 적의 후방을 칠 기세를 보이자 적은 이에 당황하여 내성에서 물러가기 시작했다. 성 안에 있던 관군은 이것을 알아차리고 추격하여 적의 머리 130급(級)을 베고 파괴된 내성도 급히 보수하였다.

왜군은 물러가면서 사방에 흩어진 시체들을 모아 불태웠는데, 아군은 그들이 버리고 간 갑위(甲冑), 도창(刀槍) 등 많은 군수물자를 노획하였다. 이중에 중요한 것만도 272건이었고, 미처 태우지 못하고 버리고 간 시체가 많아서 그 수를 헤아리지 못할 지경이었다고 한다. 이것이 유명한 임진왜란 3대첩의 하나인 행주대첩이다.

한편, 명나라 제독 이여송(李如松)은 벽제관 부근 여석령에서 대패하고 평양으로 회군하던 중 행주대첩의 소식을 듣고 서둘러

회군한 것을 크게 후회하였다고 한다. 이 대첩이 있는 지 4일 후인 16일에 전라감사 권율은 휘하 병력을 이끌고 파주산성(坡州山城)으로 옮겨져서 도원수 김명원(金命元), 부원수 이빈(李蘋) 등과 같이 본성(本城)을 지키면서 정세를 관망하였다. 그 후 권율이 김명원의 뒤를 이어 도원수에 임명된 것은 행주대첩의 공이 많이 작용한 것이었다.

▣ 행주대첩의 의의(意義)

왜란초 수개월간은 우리 관군이 약전고투하며 패전을 거듭했으며, 반대로 일본측에서 보면 승승장구의 위세를 떨친 기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가운데 일본은 전쟁에 헛점을 들어내기 시작했다. 즉, 그들은 호남지방이 건재하다는 것을 외면하고 또 후방지역의 경계를 경시하면서 관군만 물리치고 수도만 장악하면 조선이 스스로 항복을 할 것이라고 믿었다는 것이었다. 그들은 점령지역에서 의병이 일어날 것을 전혀 예측하지 못하였다.

행주대첩이 있기 전까지 의병이나 관군에 의한 크고 작은 많은 싸움 중에서 우리가 이긴 싸움도 적지 않았다. 특히 의병들의 활약이 대단했는데, 우리 의병이 크게 이긴 싸움만 보더라도 의병장 광재우의 정암진 승첩(鼎岩津勝捷), 권응수의 영천수복전(永川收復戰), 초토사(招討使) 이정암의 연안대첩(延安大捷), 정문부의 북관대첩(北關大捷) 등을 꼽을 수 있으며, 관군에 의한 진주대첩(晋州大捷)은 임진왜란 3대첩의 하나로 꼽히는 큰 싸움이였다. 그런데 이러한 싸움은 왜군에게 큰 타격을 주었지만, 전세를 역전시키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했으며, 난국을 만회하여 관군이 재기할 수 있는 시



간적 여유를 얻게 하는데 그쳤다. 그러나 행주대첩은 우리 관군이 재기하였다는 것을 싸움으로 실증한 것이며, 관군의 역전이 이 대첩으로 확실해졌다.

특히 행주대첩은 서울의 수복을 목전에 두고 전의를 상실한 명나라 원군에게 반성과 용기를 촉구하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으며, 평양패전 이후 복수전이라 할 수 있는 행주대첩에서의 왜군 재패는 왜군의 서울철수를 촉구하는 원인의 하나가 되었다는 점에서 더욱 그 의의가 있는 것이다. 일본 측이 강화(講和)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인 것도 행주대첩 직후였다는 것은 많은 시사를 준다.

오늘도 행주산성에는 고양인의 숨결이 숨 쉬고 있으며, 민족혼이 깃들어 있다는 사실을 행주대첩 4백여 년을 맞는 지금 다시 한번 마음속 깊이 새겨두어야 할 것이다.

- (1) 행주대첩비 : 산의 정상에 우뚝 솟은 비는 1963년 8월 15일 세워졌는데 각계 유지들의 뜻을 모아 건립되었다. 높이는 50尺(15.2m)이다.
- (2) 대첩비와 비각 : 이 비를 세운 것은 선조 38년(1603년)이었는데, 비의 보호를 위하여 일제시대 세워졌던 비각은 조잡하고 퇴색하여 산성의 정화사업을 시작한 1970년에 다시 건립하였다.
이 안에 있는 비는 물론 행주대첩의 큰 뜻을 기리는 내용이다. 글은 최립이 짓고 글씨는 한석봉이 썼다.
- (3) 충의정 : 충의정은 산성정화사업에서 기념관의 목적으로 건립하였으나 그 위치가 부적당하다고 생각하여 별도로 지었다. 이곳은 휴게소 및 대첩교육관으로 사용되어 행주전투의 영상물(VTR)을 볼 수 있다.
- (4) 덕양정 : 정상에 대첩비를 오르면서 왼

쪽에 있는 정자로, 전적지 순례자들이 한강과 펼쳐진 자연풍광을 감상하며 승첩에 대한 감회를 새롭게 하는 뜻에서 신축된 것이다. 3단의 평면기단이 꽃받침 같은 형태의 8모로 된 13.3평의 집으로, 8모 모두 지붕이다.

- (5) 진강정 : 정상에서 동남쪽 비탈에 있는 정자로 신축된 정자의 목적과 모습은 같으나, 다만 난간이 있고 규모는 10.9평이다.
- (6) 대첩기념관 : 이 건물은 1979년에 세워진 것으로 기념관의 내용물은 임진란에 행주산성 전투에서 사용됐던 각종 무기와 제 기구를 전시하여 관람인들로 하여금 행주전투의 역사적 상황과 시대적 사실을 알게 해준다.
- (7) 충장사 : 이 건물은 6·25 사변으로 인하여 불탄 강변의 기공사(紀功祠)를 대신하여 대첩지인 산성 경내에 복원 신축한 것이다. '충장사'란 편액은 당시 대통령 박정희대통령이 쓴 휘호이다.

이 충장사에서는 매년 3월 14일에 고양시 주최 고양문화원 주관으로 행주대첩제를 올리고 있는데, 이 날은 행주대

첩 당시 음력일자를 양력으로 환산한 날이다.

충장사 삼문 왼쪽에는 현종임금 11년(1845년)에 행주대첩비를 증건한 것이 있는데 정상비각안에 있는 비의 내용을 그대로 쓴 것이다. '기공사' 주변에 있던 것이 이곳으로 옮겨진 것이다.

- (8) 권율장군 동상 : 대첩문 바로 앞 우측의 동상은 장군의 투구, 갑옷, 무기류 등을 문헌고증으로 만든 것이다.
 - 제작년대 : 1986. 4. 30
 - 동상높이 : 5m
 - 좌 대 : 3.35m
 - 제 작 자 : 김세중(金世中)
- (9) 충훈정 : 대첩문을 들어서면서 우측으로 접어들어 100m지점에 2층으로 된 한국식 팔작(八作)지붕으로 단청된 건물인데 전적지 순례인들께 행정대첩때 전투의 주무기인 활을 통한 방어정신의 함양을 위하여 1986년 2월 17일 준공한 것으로 '충훈정'이란 현판은 권율장군의 후손인 권찬赫(權纂赫)이 쓴 것이다.

Ⅳ. 고양시 문화 유적지

행주서원(杏州書院)

- 경기도 문화재 71호
- 소재지 : 행주외동
(행주산성 서쪽 200m지점 한강변)
- 시 대 : 조선조
- 관 리 : 행주산성 관리사무소
- 행사주관 : 행주서원장 이영찬

행주서원은 조선조 헌종왕 8년(1842년)에 행주 기공사(紀功祠)와 함께 세워진 것인데, 권율장군의 위업을 추모할 제당이 없음을 안타까이 생각한 헌종왕은 명하여 '기공사'를 짓게 하였다. 더불어 행주서원을 세우고, 위당(威堂) 신헌(申櫺)이 쓴 현판(懸板) 「杏州書院」을 부착했던 것으로 추

측되나 수차에 걸친 변화속에 현판이 분실되었다가 1985년 어느 창고에서 찾아내 현재 중수된 서원 삼문(書院三門)에 현판하게 되었다. 당시에는 서원을 강변에 지었기에 지형의 변화로 인한 홍수의 범람으로 인한 피해로, 현재의 위치로 옮겨 중건하였으나 6·25 사변으로 불탄 기공사를 1998년에 중건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서원의 역할이 끊겼고, 봉향도 중단됐던 것을 '충장사'를 짓고 제전위원회를 결성 제행하였다. 그러던 것을 2002년부터 행주서원 제전위원회를 만들어 춘추로 봉향제를 시행하고 있다.



답사안내도

행주서원



IV. 고양시 문화 유적지

은영선생묘(殷影先生墓)

- 소재지 : 고양시 덕양구 행주외동177-2
- 시 대 : 이경덕외 1인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 609-35번지)
- 관리자 : 행주 은씨 종중(杏州殷氏宗中)
- 시 기 : 조선시대(인물은 통일신라시대)
- 규 모 : 높이 115cm, 폭 43cm(묘비)

묘는 행주외동 한강변의 갯뚝마을 북쪽 산등성이에 위치하고 있다.

묘는 배(配)없이 단분으로 되어 있는데 묘의 앞쪽으로는 동자상 2기와 문인석 2기, 그리고 근래에 세워진 오석의 묘비, 상석, 향로석 등이 배치되어 있다.

이 중 상석 앞쪽에 세워져 있는 동자 상은 조선조에 새로이 만들어 세운 것으로 여겨 지는데 절반 정도는 땅에 묻혀진 상태로 서 있다.

묘아 권 손에 맞추어 얼굴 부분이 앞으로 나와 있으며 얼굴 표정 또한 세밀하게 조각 되어 매우 독특한 인상을 주고 있다. 문인 석 또한 조선조에 들어 동자상과 같은 시기에 세워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묘비는 높이 115cm, 폭 43cm의 규모 인데 비문에는 '신라상대등고려증태보충숙공은영지묘(新羅上大等高麗贈太保忠肅公殷影之墓)'라 기록되어져 있다.

은영에 관한 기록은 [동사강목(東史綱目)]과 [삼국사기(三國史記)] 등의 기록에 표기

되어 있는데 통일신라시대(統一新羅時代) 후기의 인물로 출생 및 돌아간 시기는 정확히 알 수 없다. 신라말기인 효공왕 15년(911) 왕권이 약해지고 각지에 호족들이 할거하여 나라가 어지러울 때 왕이 추월이라는 애첩에 빠져 정사를 돌보지 않고 주색으로 일관하고 있었다.

이에 은영이 힘써 간(諫)하였으나 왕이 쫓지 않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애첩을 죽인 충신(忠臣)이다. 고려 건국 후 태보(太保)로 추대되었으며 시호는 충숙(忠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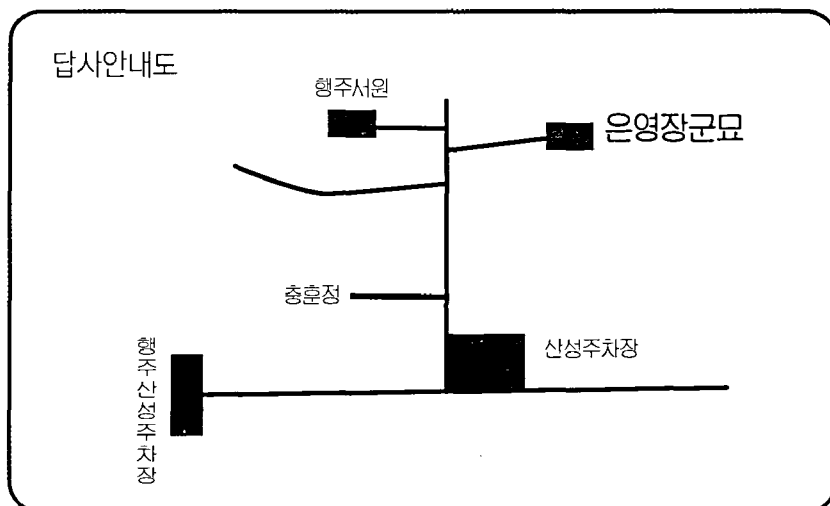
행주 은씨(杏州 殷氏) : 신라 문성왕(850년) 때 당나라에서 신라로 건너온 8학사(은(殷), 홍(洪), 육(陸), 기(奇), 길(吉), 방(房), 태(泰))중의 한 사람인 은홍열이 행주에 기거하면서 본관을 행주로 하게 되었고 신라 시대에 높은 벼슬을 하였다고 함.

은영(殷影) : 생몰년 미상, 신라 효공왕 때의 대신, 당시는 이미 견훤(甄元)과 궁예(弓裔)가 각각 후백제와 태봉을 세워 왕이라 칭하면서 신라의 변경을 크게 침식하고 있는 때였다. 이에 은영은 991년(효공왕 15)에 왕에게 정사에 힘쓸 것을 간하였다. 그러나 왕이 간교한 한 궁녀의 치마폭에서 벗어나지 못하자 은영 장군은 나라 운명을 생각하여 그 궁녀를 잡아죽였다.

《참고문헌》 三國史記



▲ 은영장군묘



IV. 고양시 문화 유적지

강매동 석교(江梅洞石橋) · 해포교(醴浦橋)

- 향토유적 : 제33호
- 소재지 : 고양시 덕양구 강매동 창릉천(昌陵川)
- 관리자 : 고양시
- 규모 : 총길이 14.08m, 높이 3.55m, 높이 1.6m
- 모양 : 4각 18개의 돌기둥(교각) 위에 교판석(橋板石)을 깔았고, 교각과 교각 사이에는 6개 板石이 2열로 놓여져 있다. 다리는 남북을 가로지르는 것이 약간의 곡선(曲線)으로 뒀으며, 각 부재로 사용된 석재들이 장대하며 안정된 느낌을 준다. 현재 남쪽으로 3m 정도는 시멘트로 보수하였으나 나머지 부분은 견고한 모양이다.
- 기록 : 1755년 영조시대에 발간된 이석희 편 “고양군지”에는 이 다리를 해포교(醴浦橋)라 기록했는데 이 때의 다리는 목교(木橋)였던 것이다. 그것은 현재의 교각에 음각 기록된 내용이 강매리교 경신신조(江梅里橋 庚申 新造)라고 했으니, 1920년에 새로 축조된 것이다. 따라서, 해포교의 역사는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보여진다. 다리의 옆에는 오석비(烏石碑)가 있었는데 6·25 당시의 충

격으로 많이 훼손된 것이 있었다. 그러나 옆의 도로 확충시에 묻혔다고 하는데 정확한 사실을 알 길 없다.

■ 해포교(醴浦橋)의 역사적(歷史的) 의의

우리나라 西海는 밀물, 썰물의 차이가 매우 심한 곳이다. 이 영향은 한강에까지 큰 영향을 미친다. 밀물 때에는 행주산성 위쪽 성산대교 부근까지 밀려 올라오고 썰물 때에는 흐름의 속도가 빨라졌기 때문에 조선시대 한양(현 서울)의 중심교통로인 한강을 오르내리는데 있어 당시 뚝단배로는 밀물, 썰물의 영향이 매우 컸던 것이다. 그래서 행주는 당시에 김포로 오가는 나루터로 또는 밀물, 썰물을 이용하여 쉬어가는 포구로서 발달하였다. 따라서 이 곳은 객사와 주점 그리고 상거래가 이룩되고 성업하게 되니 자연 주민 밀집지가 됐던 것이다. 물론, 경의선 철도가 신막까지 1907년에 완선에 따라 능곡이 시장화되고 주민의 이전이 이룩되면서 행주는 쇠퇴하게 됐다. 현재의 자유로가 된 한강제방(1927~1934)이 이룩되기 전의 강매동에서 행주, 능곡 등지의 지형은 행주산성(덕양산) 동쪽벽을 기점으로 내리 지르는 한강 물줄기는 현재의 강줄기와 한줄기는 셋강이 되어 강매동과 행주 사이로 흘러 능곡역 앞을 통하여 현재 흰돌

마을의 공원을 빙기며 주엽동, 대화동으로 흘러던 것이다.

행주의 맨돌(결석)으로부터 능곡 삼성당을 걸쳐 섬말다리 이하 일대는 퇴적 구릉(丘陵)의 띠를 이루었다. 물론 그 구릉지로서의 띠는 지금의 장항동으로부터 대화동까지 이루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 구릉지를 중심으로 한 변방은 퇴적지로 비옥하고 수분이 충분하여 곡식 채소가 잘 된 것이다.

그리하여, 이곳에서 생산된 농작물(각종 채소와 과일 곡물)과 갈대(한옥을 짓는데 있어, 벽에 외를 엮거나 지붕에 외를 엮어 엮는데 사용했음)와 인근지역에서 생산되는 뽕감 등을 한양(서울)의 염천시장이나 공덕시장에서 거래했던 것이다.

그런데, 이런 것을 운송하는 수단은 달구지나 마차를 이용했으니 언덕이 없는 길을 택해야만 했다.

현재 능곡에서 행신동을 거쳐 화전으로 가는 오늘날 4차선(승전로)으로 확장된 직행도로가 2차선으로 생긴 것이 1970~1972년이었으니, 그 이전에는 행신동 입구에서 도내동으로 통해 현 화전 30사단 앞으로 건넌고 이후 그 자리에 다리를 놓아 사용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앞에서 지적했던 바와 같이 한강변 비옥한 땅(장항동 지역)에서 생산물과 기타의 산물은 직행 수송을 위하여 해포교를 놓아 한양(서울)으로 운반코자 했을 것이고 운송시간의 감축과 운송의 편이를 택하게 된 것이다.

▣ 해포(醴浦)와 회포(檜浦)의 관계 ▣

1755년 이석희가 편찬한 고양군지에 나타난 두 낱말이 갖는 관계를 살펴본다.

1. (구지도면(求知道面)편의 기록에서)

해포(醴浦) : 포구의 물은 곧 정천(菁川)의 하류인데 대강(大江)으로 들어간다.

해포봉수(醴浦烽燧) : 구지도면 25리 지점에 있는데 북쪽으로 독산(문봉동)에 응하고 동쪽으로 모악(慕嶽)의 육로 - 해포봉수란 해포교를 배경으로 한 덕양구 강대동 뒷산 봉수를 말한다.

2. (원당면(元當面)편의 기록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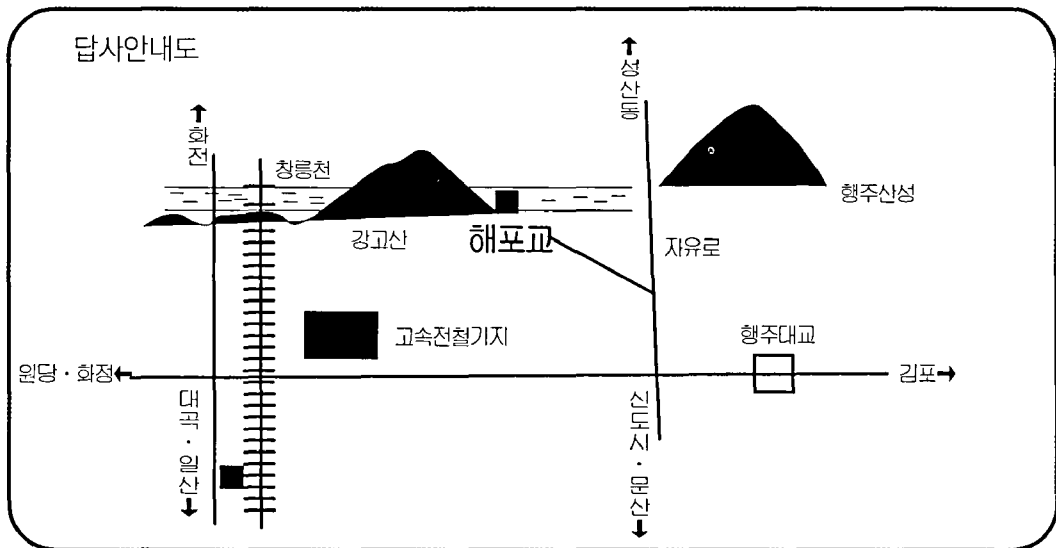
회포교(檜浦橋) : 정천(菁川) 하류에 있는데 길이 교하(敎河)와 파주(坡州)로 통한다. 옛날에는 판자로 된 다리가 우뚝하여 이웃고을까지 이름이 났는데, 해마다 홍수로 파괴되면 간간히 수리하여 행인이 통행하였다. 그러나 물길이 변하고 지면이 침몰된대다 큰물에 다리가 모두 떠내려가 냇물에 다리가 없는 것을 한탄하며 행인중 나무터를 가리키는 자들은 아직도 회포교라 한다.

※ 정천(菁川)이란 같은 책에서 “삼각산(三角山)에서 발원하여沮州大江)에 닿는다.”하였으니 오늘날의 창릉천(昌陵川)의 옛말임을 말해두며, 해포와 회포는 같은 것인데 발음상 변화를 일으킨 것이요, 당시 글을 쓰던 사람들이 아마도 나름의 표기에 엇갈린 한자(漢字)로 썼던 것이라 보고, 사실상은 다리를 나무로 놓았던 것으로 보아 회포교(檜浦橋)가 해포교(醴浦橋)로 잘못 기록되어 전해온 것으로 여겨진다.

Ⅳ. 고양시 문화 유적지



▲ 강매리 석교



Ⅳ. 고양시 문화 유적지

Ⅲ. 류형(柳珩), 류림(柳琳) 장군의 묘

▣ 류형(柳珩) 장군의 묘와 비 ▣

- 종 류 : 도지정문화재 제50호
- 시 대 : 조선명종21년(1566)~광해7년(1615)
- 장 소 : 덕양구 행신동
- 호 : 석담(石潭)
- 시 호 : 충경(忠景)

• 행 적 : 임진왜란때 의병장(義兵將) 김천일의 휘하에 들어가 강화도에서 의병활동을 하였으며, 의주에 선조대왕이 머물던 곳. 행재소(行在所)에서는 선전관(宣傳官)이 되었고 1594년에 무과에 급제하여 황해도 해주 현감이 되었다. 1597년 정유재란(丁酉再亂)이 일어나서는 이순신의 막료로서 노량해전에서 싸우다 부상을 입었으나 끝까지 전투를 지휘했다. 이 사실로 하여금, 이순신 장군의 대을 이어, 선조 34(1601) 삼도수군통제사(三道水軍統制使)가 되었고, 광해 1년(1609) 함경북도 병마절도사로서 회령부사를 겸직했고, 이어 경상도, 평안도, 황해도의 병마절도사가 됐다. 지금 해남(海南) 민충사(愍忠祠)에 제향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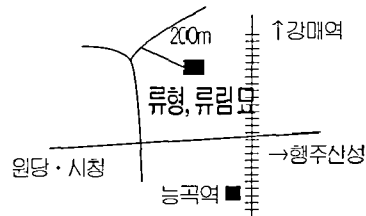


▣ 류림(柳琳) 장군의 묘와 비 ▣

- 시 대 : 조선중기~인조 21(1643)
- 장 소 : 덕양구 행신동
- 시 호 : 충장(忠壯)

• 행 적 : 선조 36년(603) 무과급제, 충청도 병마절도사, 전라 우도 수군절도사를 지냈고, 인조 14년(1636) 병자호란 때는 평안도 병마절도사로서 청군의 공격을 무찔러 무사히 넘겼을 뿐 아니라 남하하는 청군을 추격하여 금화(金化)에서 큰 전공을 세웠다. 청군과의 화의 후, 청군의 요청에 따라 명나라 정벌의 청과 연합군으로 공을 세우게 되니, 전승을 기리는 뜻으로 창(창)의 심양에 초청됐으나 이를 거절함에 오히려 유배를 당하기도 했다. 인조 19년(1641)에 청이 또 명나라 정벌에 출정을 요청해 음에 어쩔 수 없이 출정하였으나 몸이 아프다는 핑계로 전투에 참여치 않고 군사들에게 공포만 쏘게 명했다. 이로 인해, 부장들이 죄를 입었다고 한다. 장군의 청에 대한 중요심을 알게 하는 일화가 전한다.

류형, 류림의 묘역 탐사 안내도



Ⅳ. 고양시 문화 유적지

도라산과 장대비(將臺碑)

- 지정번호 : 향토유적 제 34호
- 소재지 : 덕양구 도내동
- 관리자 : 고양시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선조임금은 한양을 내놓고 평양성 마저 뒤로하고 의주에까지 몽진하게 되니, 우리 백성들은 나라를 빼앗긴다는 울분과 적개심이 불탔을 때, 당시 사회적 지도층은 충효사상을 근간으로 하는 유학자였으니, 유학자들이 전국 각처에서 의병을 일으켜 싸웠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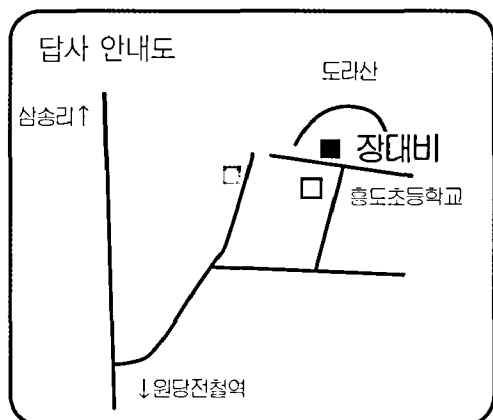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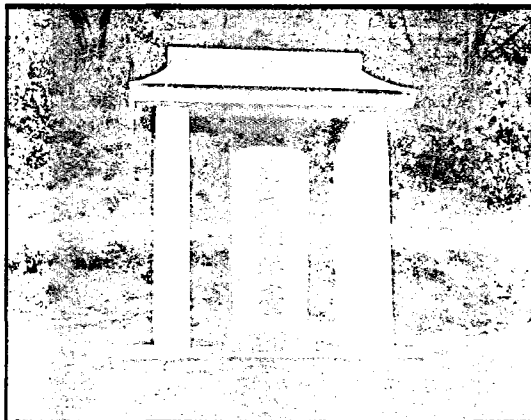
고양에서는 행주산성에 의병으로 승군대장인 최영이 그리고 민간인과 더불어 아녀자까지 참전했던 것이다. 석탄 이신익은 유학자 행촌 민순선생의 제자로서 오늘날의 도내동 도라산을 정점으로 의병 3백여명을 모집하여 창릉천 건너편의 현 용두동에 포

진한 대대 연대 병력의 왜군을 상대로 싸우게 된 것이다. 병력상으로는 상대할 수 없을 정도의 큰 차이가 있게 되니, 우선 작전상 왜군의 기를 꺾어야 했다. 그래서, 300여명의 병사 대열로 하여금 산을 계속 돌도록 했다. 그렇게 하여 왜병이 감히 공격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왜란이 끝난 후에, 석탄 선생의 높은 지휘력에 감복한 나머지 도라산의 정상에 '석탄 이신의 장대비(石灘 李愼儀 將臺碑)'를 세워 그 뜻을 기렸는데, 언제부터인지 산 아래 모퉁이 흥도초등학교 건너편에 세워져 있다.

그리고 산의 이름도 병사가 돌았다고 하여 도라산이라 부르게 되었고, 마을 이름도 어떤 변화 가운데 도내동이라 불리게 됐다는 것이다.

장대비 사진



IV. 고양시 문화 유적지

금표비(禁標碑)

- 종 류 : 도문화재 88호
- 시 대 : 조선시대
- 소재지 : 대자동
- 소유자 : 전주 이씨 종중(全州李氏宗中)
- 관리자 : 전주 이씨 종중
- 규 모 : 높이 147cm, 가로 55cm, 두께 23cm

금표비는 대자동 간촌(間村) 마을 금천군(錦川君) 묘소에 오르는 길 옆에 위치하고 있다.

비 주변에 다른 건축물이나 표시는 보이지 않는다. 현재 비는 땅 속에 오랜 기간 묻혀 있다가 출토되어 황토빛이 뚜렷하게 남아 있다. 비의 대좌는 장방형이며 후에 새롭게 세운 것으로 보이는데 비신의 앞면에는 ‘금표내범입자논기훼제서울처참(禁標內犯入者論棄毀制書律處斬)’이라 표기되어 있다.

비문의 내용을 통해 볼 때 이 금표비는 조선 조 연산군때 세워진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비문은 ‘금표 내에 들어온 사람은 기훼제서울에 의해 처참한다’는 것으로 당시 금표 구역은 지금의 고양시·파주시·양주군·포천군·남양주시·광주군·미금시·김포군 등이 포함된다. 한편 「연산군일기」에는 연산군 10년(1504)부터 동왕 12년에 이르기까지 금표에 대한 내용이 자세히 수록되어 있다.

이 금표비는 1980년대 중반 인근의 전주 이씨 자손들이 묘역 정화사업을 벌이던 중 발견되어 이곳에 세워진 것인데, 우리나라

에서 금표비가 현존하는 것이 매우 드물다. 특히 고양시는 연산군(燕山君)대에 금표를 세우고 일반 백성의 출입을 금지시키며 고양군 자체를 혁파했던 역사적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 금표비의 의미와 가치는 더욱 크다고 하겠다.

금표는 처음 도성 주변에 금장 금성 등으로 세워지기 시작하였다. 그후 인근의 도성 30~40리 외곽까지가 금표에 포함되었는데 당시에는 목책을 만들어 그 경계로 삼았다. 이중 고양에는 창·정릉부터 행주에 이르는 구간이 이 금표에 포함되었다. 금표 안에는 내수사의 관리, 노비 등과 함께 의



금부, 궁녀 등만이 출입이 허락되었으며 이 금표 내에서 비판을 하거나 이의제기하는 사람, 출입하는 사람 등은 기궤제서울에 의해 철저히 처벌을 받게 되었다.

금표 구역은 그후 연산군 10년부터 급속히 팽창되어 12년에는 도성으로부터 100리까지를 경계로 하여 금표 구역으로 설정하였는데 침입자는 3족을 멸하는 법령에 의해 처벌받기도 하였다. 연산군 금표 내에서 주로 임사홍과 함께 시녀, 기녀, 궁녀 등을 거느리며 유흥과 향락을 즐겼다. 그후 이러한 폐단은 중종반정을 있게 하였다. 그 결과 금표는 철거되고 연산군도 교동도에 유배되었다.

이 금표비는 고양시 문화원이 처음 발견하여 고증을 받은 것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연산군대 금표비가 유일한 것이다. 특히 고양시는 연산군대에 금표를 세우고 일반 백성의 출입을 금지시키며 4년간 고양군 자체를 혁파했던 역사적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 금표비의 의미와 그 가치는 더욱 크다고 하겠다.

▣ 연산군 참고자료

연산군은 1476(성종 7)~1506년(중종 1) 조선의 제10대 왕. 재위 1494~1506년.

휘는 융, 성종의 아들이며, 어머니는 우의정 윤호(尹壕)의 딸로 정현왕후(貞顯王后)이다. 성종에게는 정실 소생으로 뒤에 11대 왕이 된 중종이 있었으나, 1483년(성종 14) 연산군이 세자로 책봉될 때에 중종은 아직 태어나기 전이라 그의 무도함을 알면서도 그냥 세자로 삼았다 한다.

그리하여 1494년 12월에 성종의 승하와 함께 왕위에 올랐는데, 재위 12년동안 너무도 무도한 짓을 많이 하였으므로 폐위, 교동(喬桐)에 안치되어 있다가 그해 11월에

죽었다. 15대 광해군과 함께 조선시대 두 사람의 폐주(廢主) 가운데 한 사람이며, 따라서 <선원계보(璿源系譜)>에도 묘호와 능호없이 일개 왕자의 신분으로만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그의 재위기간의 실록 역시 <연산군일기>로 통칭된다.

실록 첫머리에 있는 사평(史評)도 그의 일기에서는 “... 만년에는 더욱 황음하고 패악(悖惡)한 나머지 학살을 마음대로 하고, 대신들도 많이 죽여서 대간과 시종 가운데 살아난 사람이 없었다. 심지어는 포락(단글질하기)·착흥(가슴 빠개기)·촌참(토막토막 자르기)·쇄골표풍(碎骨飄風: 뼈를 갈아 바람에 날리기) 등의 형벌까지 있어서...” 운운하는 말로 되어 있을 만큼 그는 조선조의 대표적인 폭군이였다. 같은 폐주라 하더라도 광해군에 대해서는 사고(史庫)의 정비라든가 성지(城池)·병고(兵庫)의 수리, 또는 대륙정책에 있어서의 현명하였던 외교 정책 등을 들어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수도 있지만, 연산군은 이러한 긍정적 요소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기도 하다.

왜인과 야인의 입구(入寇)를 의식한 끝에 비용사(備戎司)를 두어 병기를 만들게 하였는대든가, 또는 변경지방에로의 사민(徙民)의 독려, 기타 <국조보감(國朝寶鑑)>·<여지승람(輿地勝覽)> 등의 수정 등 치적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은 무도하기 이룰 데 없는 폐정(弊政)에 비한다면 보잘 것 없는 일인 것이다.

그런데 즉위 초에는 아직 전조(前朝)의 치평기운이 남아 있고 또 인재와 사람이 성한 가운데 어느 정도의 질서는 유지되고 있던 것이 사실이었다. 그러나 4년째부터는 드디어 패악한 본성이 나타나기 시작, 5~년 동안에 두 차례나 큰 옥사를 일으켜 많은 사류(士類)를 희생시키는 참극을 벌였다.

1498년(연산군 4)의 무오사화와 1504년의 갑자사화가 그것이다. 이 두 사화는 물론 당대 정계의 난맥상 속에서 생겨났던 것이기도 하지만, 여기에는 또한 연산군 개인의 성품이 많이 작용하고 있었다는 점에도 문제는 있었다.

무오사화는 <성종실록> 편찬 때 그 사초 중 김종직(金宗直)의 ‘조의제문(弔義帝文)’이 발견됨으로써, 이에 관련되었던 사건이다. 그러나 이때 그렇게 많은 사류들을 희생시키게 되었던 것은, 본래 학자들을 싫어하는 연산군의 성품을 이극돈(李克墩) 등 훈구 재상들이 교묘히 이용, 그들의 정쟁에 이용하였기 때문이기도 하였다. 그리고 갑자사화도 결국은 연산군의 사치와 향락 때문에 그토록 큰 옥사가 벌어졌던 것이라는 측면이 더 큰 비중을 가진다. 즉, 그의 방탕한 생활에서 오는 재정난을 메우기 위하여 훈구 재상들의 토지를 몰수하려는 기미가 보이자 그들은 왕의 이러한 횡포를 억제하려 하였고, 그리하여 여기에 또 한번의 사화가 벌어졌던 것이다. 그리고 이 사화의 직접적인 구실은 물론 생모 윤씨의 폐비사건으로 소급이 되지만, 이 역시 그의 포악한 성품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던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어쨌든 이 두 사화의 양상은 모두가 참혹을 극했던 것으로서, 김종직의 경우는 부관참시(副棺斬屍)하였고, 폐비 당시의 두 숙의(淑儀)는 타살을 하였으며, 할머니인 인수대비(仁粹大妃)도 구타, 치사하게 하였고 기타 윤필상(尹弼商)·김굉필(金宏弼) 등의 사형을 필두로 한명회(韓明會)·정여창(鄭汝昌)도 모두 부관참시를 당하는 등 패륜과 무도함을 극한 사건이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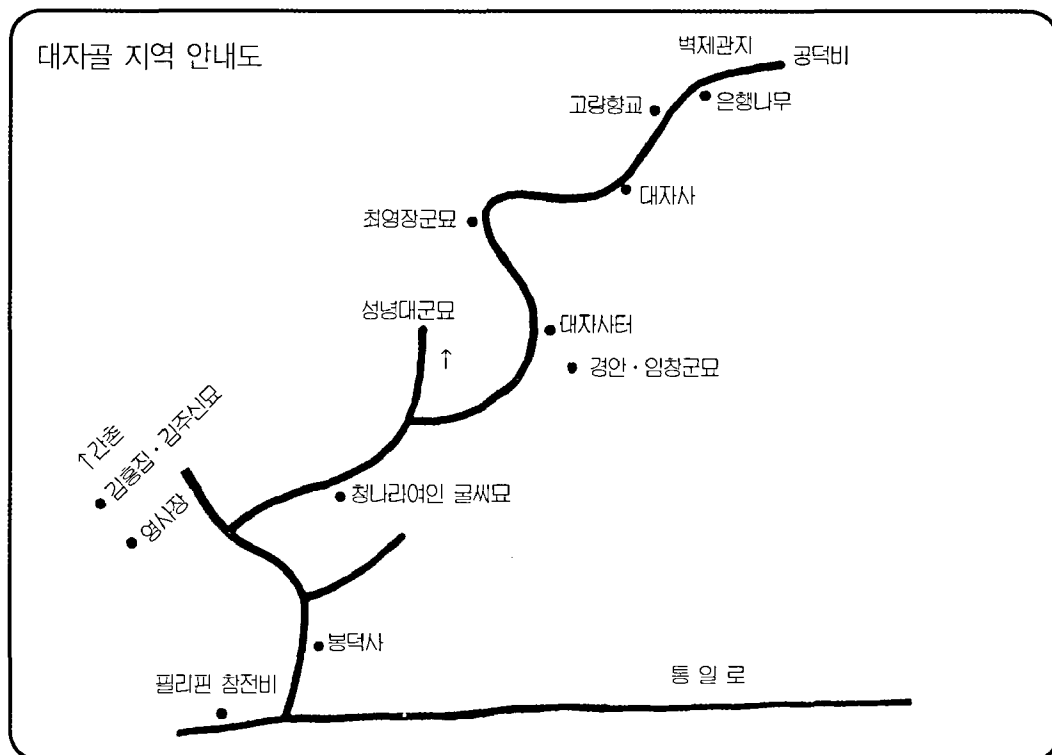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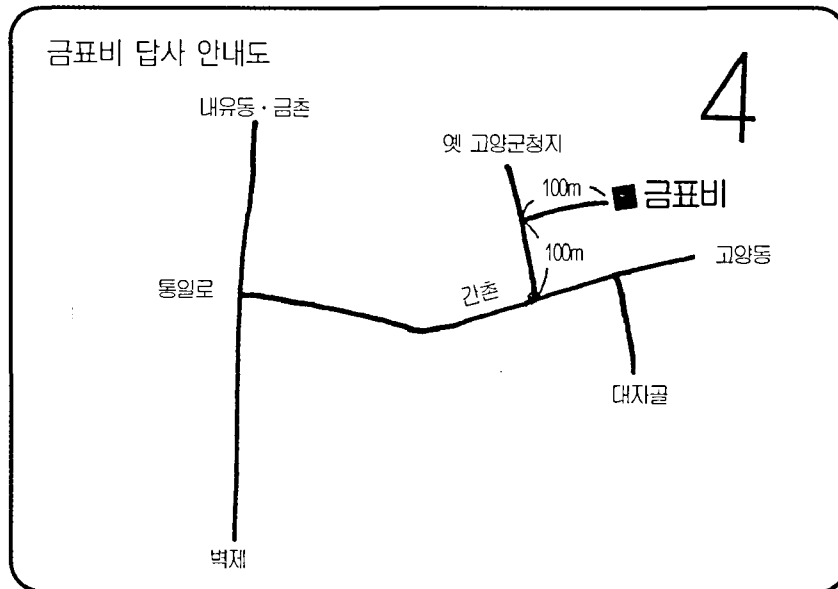
학자에 따라서는 그가 그토록 광포하고 난잡스런 성품을 가지게 된 동기를 주로 생모를 잃었던 사실에서 찾으려는 경향도 없지는 않다. 그러나 비교적 체통을 유지하고 있는 실록 <연산군일기>에서도 그는 원래 시기심이 많고 모진 성품을 가지고 있었으며, 또 자질이 총명하지 못한 위인이어서 문리(文理)에 어둡고 사무 능력도 없던 사람으로 서술되어 있다. 그리하여 당시의 정계와 연산군과의 사이에는 부지불식간에 갈등이 일어났고 여기서 그는 문신들의 직간(直諫)을 귀찮게 여긴 끝에 경연과 사간원·홍문관 등을 없애버리고, 정언 등의 언관도 혁파 또는 감원을 하였으며 기타 온갖 상소와 상언·격고 등 여론과 관련되는 제도들도 모두 중단시켜 버렸다.

당시로서는 가장 패륜스러운 일로 생각되던 이른바 ‘이일역월제(以日易月制)’라는 단상제를 단행한 일도 있었다. 뿐만 아니라 성균관·원각사 등을 주색장으로 만들고, 선종(禪宗)의 본산인 흥천사(興天寺)도 마굿간으로 바뀌며, 민간의 국문투서사건을 계기로 한글의 사용을 엄금한 일도 있고 기타 이러한 관리들과 관련되었던 이야기들이 무수히 많다.

어쨌든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민심은 소란해지기 시작했고 마침내 1506년(연산군 12) 9월 성희안(成希顔)·박원종(朴元宗)·유순정(柳順汀) 등의 주동으로 연산군 폐출운동이 일어남과 함께 성종의 둘째아들 진성대군(晉誠大君)이 옹립되어 이것이 곧 중종반정이었다.

묘는 양주군 해등촌(海等村 : 지금의 서울시 도봉구 방학동)에 있는데, ‘연산군지묘’라는 석물이외는 아무런 장식도 없다.

IV. 고양시 문화 유적지



IV. 고양시 문화 유적지

필리핀군 참전 기념비

- 소재지 : 덕양구 대자동 산97-6(통일로번)
- 건립일자 : 1974년 10월 2일
- 제 작 : 전 남산 미술원장 이일영
- 휘 호 : 고 박정희 대통령

1950. 6. 26 새벽 북한 공산당의 기습 남침에 서울은 삼시에 초토화 됐고 국군은 파죽지세로 밀려 낙동강 너머로 후퇴하니 국가의 운명은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렀다.

이에 UN안전보장이사회는 불법남침으로 단정하여 UN군을 한국 전선에 파병케 됐다. 공산당을 무찌르는데 큰 희생과 공을 세우고 5년을 경과하여 본국으로 돌아갔으나 우리 정부는 용감히 싸우고 공을 세운 공로를 치하하며 싸워준 역사를 두나라 국민에게 전하며 국가간의 우의를 기리기 위해 국방부 주관으로 기념비를 세운 것이다. 기념비의 내용과 전력(戰力)은 아래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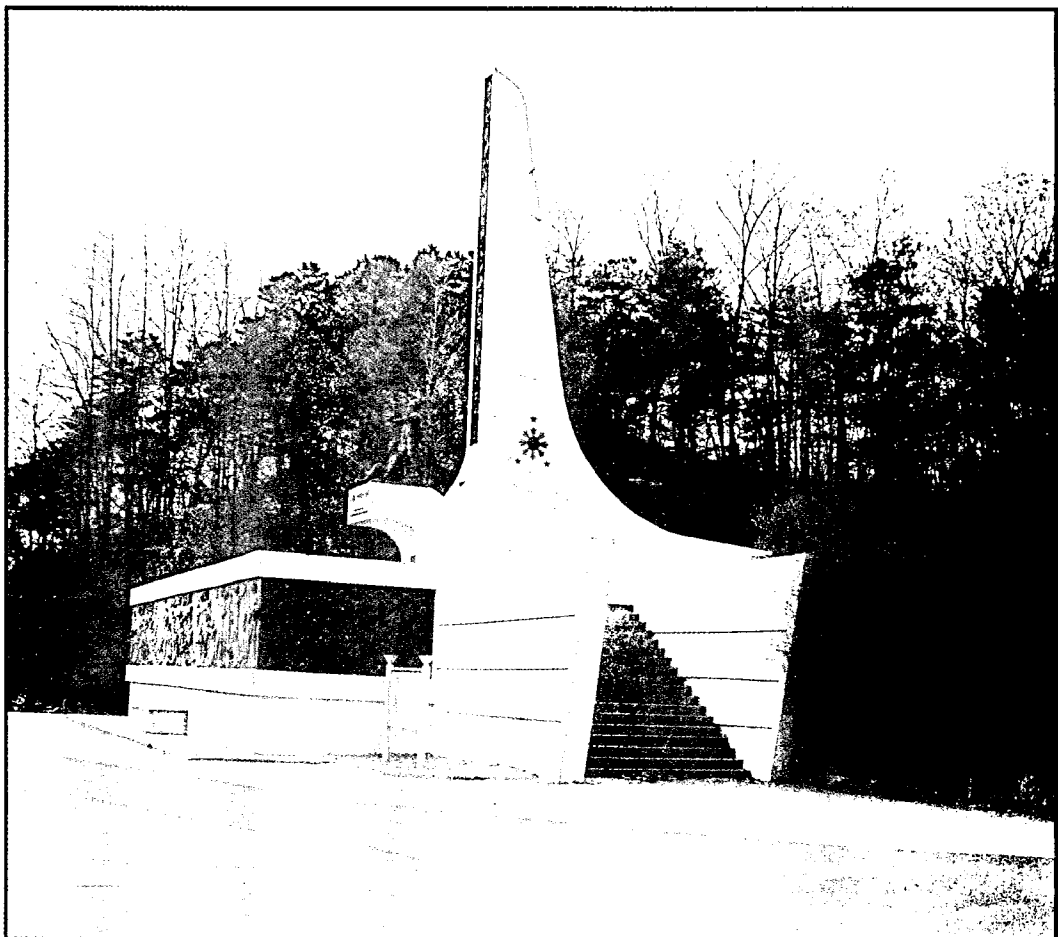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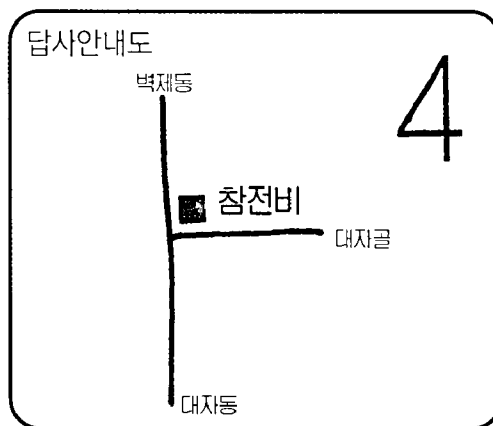
- 아 래 -

太陽같이 밝고 불타는 情熱의 氣象을 지닌 三星座의 勇士들!
韓國의 平和와 自由를 爲해 피흘린 488名의 高貴한 靈魂위에 하나님의 加護 永遠하리라

戰 歷

- | | |
|-----------------------------|-----------------------------|
| • 1950. 9. 7 | 필리핀 政府 韓國戰 派兵決定 |
| • 1950. 9. 19 | 釜山 到着 |
| • 1950. 10. 10~1950. 10. 31 | 倭館地區 主補給路 警戒 및 금천지구 전투 |
| • 1950. 11. 1~1950. 12. 1 | 開城·平壤, 군우리 地區 戰鬪 |
| • 1950. 12. 14~1951. 3. 3 | 水原, 金川, 大邱, 永同地區 主補給路 警戒 任務 |
| • 1951. 3. 3~1951. 4. 10 | 臨津江邊 전곡 낙태동地區 戰鬪 |
| • 1951. 4. 22~1952. 5. 21 | 栗洞(連川), 사기막 애리高地(鐵原) 戰鬪 |
| • 1952. 6. 10~1952. 6. 17 | 애리高地, 191高地(鐵原) 戰鬪 |
| • 1952. 6. 18~1955. 5. 12 | 유엔軍 防禦作戰地域(鐵原) 警戒任務 |
| • 1955. 5. 13~ | 歸國 凱旋 |

IV. 고양시 문화 유적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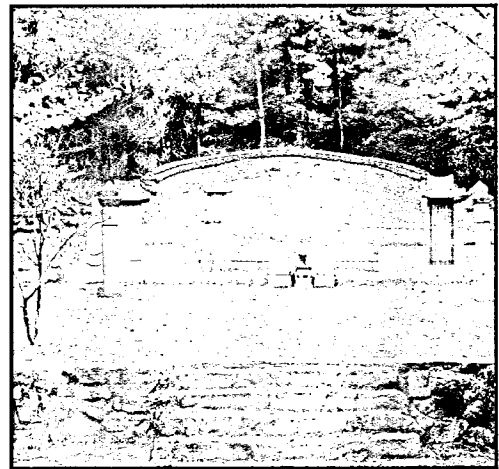
IV. 고양시 문화 유적지

九. 최영장군 묘(崔瑩將軍墓)

- 지 정 번 호 : 향토유적 제23호
- 지정년월일 : 1975년 9월 5일
- 시 대 : 고려시대
- 소 재 지 : 대자동(大慈洞)
- 소 유 자 : 동주 최씨 종중(東州崔氏宗中)
- 관 리 자 : 김자경
- 규 모 :
- 재 료 : 토분 및 석물(土墳 및 石物)

묘는 대자산 기슭에 자리잡고 있는데 부인 문화 유씨(文化柳氏)와 합폄(合窆)한 1기(基)의 묘로 만들었다. 장방형(長方形)의 2단 호석(護石)을 두른 방형묘(方形墓)로서 곡장(曲牆)을 설치하였다. 묘 앞에는 좌우에 묘비와 충혼비가 있으며 상석, 혼유석(魂遊石), 향로석(香爐石)이 있고 망주석(望柱石)과 문인석(文人石) 각 한 쌍이 좌우에 배열되어 있다. 봉분은 사각이며 윗편에 아버지 최원직(崔元直)의 묘가 있다.

최영은 충숙왕 3년(1316)에 동주(東州 : 지금의 철원)에서 출생하였다. 본관은 철원(鐵原)이며 어릴 때부터 뛰어난 재주와 위엄이 있었고 기골이 장대하였다. 장군이 무인으로서 두각을 나타낸 것은 양광도 순문사(楊廣道巡問使)의 휘하에서 여러 차례 왜구를 토벌하여 공을 세운 때부터였다. 공민왕 3년(1354) 원나라에 속했던 압록강 남쪽의 8참(站)을 수복하고 1358년에는 왜구의 배 400여 척을 격파한 뒤, 이듬해에는 홍건적(紅巾賊) 4만이 서경(西京)을 함락하자 이를



물리치고 서북면 도순찰사(西北面都巡察使)가 되었다. 1361년 홍건적이 일어나서 개성까지 점령하자 이를 격퇴하여 수도를 수복한 공으로 훈일등(勳一等)에 전리판서(典理判書)가 되고, 1364년에는 덕흥군(德興君)의 왕위쟁탈 반란군을 거의 전멸시켰다.

우왕 2년(1376) 왜구가 삼남지방(三南地方)에 침입했을 때 홍산(鴻山) 싸움에서 적을 크게 무찔러 그 공으로 철원부원군(鐵原府院君)에 봉해졌다. 1388년에 요동 정벌을 결정 팔도도통사(八道都統使)가 되어 평양에서 군사를 독려하였으나, 이성계의 위화도 회군(威化島回軍)으로 요동 정벌은 좌절되었다. 이성계 군이 개성에 들어와 장군을 체포하여 고양 고봉(高峯)에 유배시키고 다시 합포(合浦 : 지금의 마산)에 옮겼다가 창왕 1년(1388)에 개성에 압송해 참형시켰다. 그가 처형되던 날 도성의 사람들은 일

제히 모든 일을 그만 두고 원군의 어린아이를 비롯하여 부녀자들까지도 눈물을 흘렸다. 장군은 고려를 지키려는 마지막 보루로서 일생동안 80여회의 전투에서 항상 승리한 명장이었고, 강직하고 용맹하며 청렴결백한 인물이었으나 그가 죽자 고려 왕조는 몰락하였다. 시호는 무민(武愍)

■ 최영(崔瑩)장군의 생애(生涯)

• 인물됨

최영(1313~1388)의 호는 기봉(寄峯)으로 천원에서 출생하셨고 어린 시절부터 풍채가 준결하고 힘이 뛰어났다. 장성하여는 양광도 도순문사의 말단군인으로 들어갔고 수차에 걸쳐 왜구(倭寇)를 토벌하는데 공을 세우면서 직위가 올랐으며 몇번에 걸쳐 난을 평정함으로써 보다 높은 직위에 올랐다. 끝내는 왕을 직접 친히 모실 수 있는 직위(시중)와 군대의 전령권을 잡는 최고 직위에 올랐다. 시호는 무민(武愍)으로 평생을 재물과 멀리하고 청백함이 돋보였으며 오직 나라를 지키기에 온 정열을 기울여 크고 작은 100여 차례의 전쟁을 모두 승리로 이끈 신장(神將)이었다.

이성계에 의하여 1388년 12월 개성의 순군옥에서 참화를 당하였으니 이때 나이 73세였다. 침략한 인간상과 불굴의 기개와 충절은 가히 전형적인 인물로 숭앙될 분이다.

• 업적

1. 1354년(공민왕 3) 중국 원나라의 요청에 의하여 원에 파병되어 27번의 전쟁을 거듭하면서 장사성(將士城)의 난을 토벌하였다.
2. 1357년 원나라에 속했던 압록강 서쪽 8점(站)을 쳐서 수복했으며

3. 1358년 전라도 오예포에 침입한 왜선 40여척을 대파하여 대승을 거두었고
4. 1360년 4만의 홍건적이 서경(평양)을 함락시키자 이방실과 함께 이를 물리치고 전쟁의 상처로 굶주리는 백성이 많으므로 널리 구제소를 설치하여 양식을 나누어 주었고 농사를 독려했다. 그리고 전사자들을 위무하여 묻어 주었다.
5. 1361년 홍건적이 크게 떨어져 개경(개성)까지 점령지경에 이르자 이방실과 더불어 이를 격퇴시켰다. 따라서 왕은 1등공신으로 삼고 벽상에 영상(影像)을 붙이고 전리판서(典理判書)로 제수됐다.
6. 1363년 김용(金鎰)이 난리를 일으켜 홍왕사의 행궁(行宮)을 범하자 이를 쳐서 진압했고
7. 1364년 최유(崔濡)가 원나라에 있던 충숙왕의 아우 덕흥군(德興君)을 왕으로 추대하고 압록강을 건너 쳐들어오자 도순위사(都巡慰使)로서 여러 장수와 더불어 섬멸시켰다.
8. 1365년 왜적이 교동과 강화에 침입하자 군사를 거느려 이를 진압하였으나 신돈의 모함으로 좌천됐고, 훈작이 삭탈당했다. 신돈의 모함은 일찍이 김란이란 사람이 그의 딸을 신돈에게 주었음을 꾸짖은 바 있어, 신돈이 장군의 강직함을 미워해서 일어난 일이었다.
9. 1373년 신돈의 모함이 탄로되어 신돈이 처형되면서 육도 도순찰사(六道 都巡察使)가 되어 군부의 호적을 편찬하고 전함(戰艦)을 만들었다.
10. 1374년 탐라(耽羅) 제주도가 반역하였다. 최영은 여러 제장과 더불어 전함 314척과 군사 25,600명을 거느리고 난을 평정했다. 10월에 돌아와보니 왕이 이미 운명하셨기에 영위전에 복명하고 통곡하셨다.
11. 1357년 판삼사사(判三司事)가 됐을 때

조카사위 판사 안덕린이 사람을 죽인 죄로 가두었는데, 주위에서 덕린의 죄를 가볍게 하려 함을 알고 법대로 처단케 한 법의 평등성을 보여주었다.

같은해 왜구가 삼남지방을 침범했을 때 이를 무찔러 대과합에 따라 시중(侍中)을 맡기려 함에 장군은 '시중이 되면 가볍게 밖에 나가지 못하니 왜구가 완전 평정된 후에야 맡겠습니다.' 하고 사양했다.

12. 1377년 강화에 1378년 풍덕에 쳐들어온 왜구를 섬멸하니 왕은 '그대의 공은 재상 중의 재상이라 전민(田民)을 상으로 주려니와 그대의 청렴함은 타고난 성품이라 철권(鐵拳)을 내리되 축(軸)을 옥으로 하여 특별히 뛰어난 공을 표하노라' 하였다. 그리고 고양현 아버지 묘 곁에 밭 230결과 장원장의 밭 30결을 내렸다.
13. 1385년 우왕 11년 국정을 우려하여 임금에게 '왜구가 자주 침범하고 전제(田制)가 문란하여 백성의 삶이 곤궁한데 대신과 더불어 국정을 의논하여야 할터인데 적은 무리들과 가까이 하여 즐기시니 신이 어찌 신하의 직분을 다하겠습니까' 하고 직간함에 왕은 '근신하여 경의 말을 들겠노라' 했으니 생명을 건 충정을 서슴치 않았다.
14. 1387년 명나라는 온갖 횡포와 갈취의 속셈을 드러내고 요동땅 전체를 귀속시키려 하므로 조민수를 좌군도통사 이성계를 우군 도통사로 군사 38,800여명과 사역자 11,600여명으로 요동정벌의 큰 뜻을 폈으나, 이성계의 위화도 회군에 따라 고구려의 옛 영토회복의 큰 뜻을 이루지 못하고 고려의 운명과 더불어 끝이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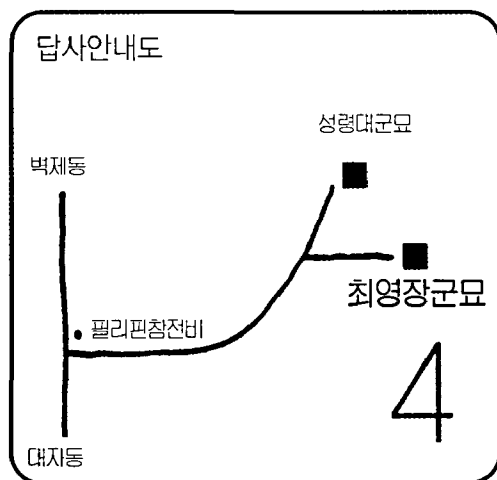
• 장군의 위상

개경에 진입한 이성계에게 마침내 칼을 던지며 '너희가 찾는 최영이 여기 있다. 폐하께 아무도 손대지 말라' 하며 체포되어 고양(高陽)에 유배되었고 명나라에 죄를 범했다는 죄목으로 73세에 처형되면서도 언사나 안색이 변하지 않았다니 충신 중의 충인이며 대인 중의 대인이었다.

참화를 당하던 날은 개경의 저자(상점)는 문닫고 모든 시민들이 장군의 명복을 빌며 눈물을 흘리고 곡성이 컸다고 하며, 지금도 남해군 삼동면 미조리 성터에 무민사(武愍祠)를 세워 신장(神將)으로 추앙받고 있으니, 장군은 민족 가슴속에 있는 만세의 영웅이요, 스승으로 영원히 우러러 모실 분이다.

※ 장군의 제삿날은 개풍군 덕물산에 전국 무속인들이 모여 일정한 의례를 올린후 성계육(成桂肉)이라 하여 돼지고기를 돌려 먹는다고 하니 최영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한이 맺힌 의례라 하겠다.

- 〈고양군지〉 참고 -



IV. 고양시 문화 유적지

경안군 묘역 (경안군부인 박씨와 임창군 묘) 墓域

- 지정번호 : 향토유적 제5호
- 지정년월일 : 1986년 6월 16일
- 시대 : 조선시대
- 소재지 : 대자동
- 소유자 : 전주이씨 종중
- 관리자 : 이우연
- 재료 : 토분 및 석물

경안군의 묘는 대자동 대자골에 위치하며 분성군부인(盆盛郡夫人) 김해 허씨(許氏)의 묘와 합부(合祔)되어 있다.

묘 둘레의 뒷면은 증축된 붉은 벽돌의 곡장(曲牆)으로 조성되어 있다. 묘 앞 우측에는 ‘조선국 왕손 증현록대부 경안군 겸 오도위도부총관 행승현대부 경안군 휘회지묘 분성군부인 허씨부좌(朝鮮國王孫 贈顯祿大夫慶安君兼五衛都摠府都摠管行承憲大夫慶安郡諱檜之墓盆盛郡夫人 許氏祔左)’라 새겨진 묘비가 있다.

중앙에는 상석, 향로석, 그 좌우에는 망주석, 동자상, 문인석을 배치해 놓았다. 묘비는 숙종 30년(1704) 3월 아들 임창군이 건립한 것으로 이수(螭首)와 장방형 비좌를 갖추었고, 총 높이는 196cm, 폭 60cm, 두께 26cm의 규모이다.

경안군은 조선 제16대 인조의 장남인 소현세자(昭顯世子)의 셋째 아들로 인조 22년(1644) 10월 5일에 출

생하여 현종 6년(1665) 9월 20일에 돌아갔다. 이름은 회(檜).

경안군 묘역 언덕 아래에 위치한 임창군의 묘는 응천군부인(凝川郡夫人) 박씨와 합부되어 있다. 봉분의 주위에는 묘비, 상석, 향로석, 망주석, 문인석이 있는데, 특히 장명등(長明燈)은 중국에서 가져온 것이라 하여 당시 화제가 되었다고 한다.

영조 1년(1725)에 건립된 묘비는 팔작 지붕형의 옥개와 장방형의 비좌를 갖추었고 높이 215cm, 폭 82cm, 두께 34cm의 규모이다.

비문은 박사수(朴師洙)가 글을 지었고, 임창군의 아들 밀남군(密南君) 이감(李堪)이 글씨를 썼다. 임창군 이훈(李焜)은 경안군의 장남으로 현종 4년(1663) 7월에 출생하여 경종 4년(1724) 2월에 돌아갔다. 자는 휘경(輝卿)이다.



IV. 고양시 문화 유적지

11 대자사(大慈寺)와 대자동(大慈洞)의 유래(由來)

■ 대자사(大慈寺)와 터

통일로변 필리핀 참전비를 옆에 두고 관청령을 향해 가다가 최영장군 묘를 가르키는 이정표를 향해 가면, 최영장군 묘가 있는 대자산을 향한 마을 끝 대여섯 계단을 올라 바로 오른쪽 50여개 지점이 대자사 터였던 것으로 기록이 전해지며, 자세히 살펴보면 깨어져 흩어진 기와 조각을 발견하여 “이 곳이 대자사 지였구나!”하는 것을 짐작해 보게 된다.

이 터의 산을 향한 바로 앞에는 묘와 석비(石碑)가 있는데, 그 기록을 살펴보니, 역사에 많은 사연을 남기고 일찍 유명을 달리한 소현세자(昭顯世子)의 셋째아들 경안군(慶安君)과 부인의 묘가 위에 있고, 그 아래로 경안군의 장남 임창군(臨昌君)과 그 부인의 묘임을 알게 해 준다.(※ 벽제 대자2리 산 65의 1)

그런데 대자사의 흔적은 오직 와편(瓦片)으로 보여지고 마는 것은 임진난때 병화(兵火)에 의한 것으로 알려진다. 다만, 이 대자사가 이 곳에 있어 웅장하고 화려하기가 회암사(檜巖寺)와 우열을 다투었다하고 기록돼 있다. 그리고 많은 문객(文客)이 다녀갔던 기록이 있으니, 성종때 유학자 서거정(徐居正)의 시 한 수를 적어 본다.

산 속에 여윈 말 채찍질하고
절안에 고승(高僧)과 이별한다.

뻥뻥한 수목에 구름이 어둡고
명랑한 모래에 몸이 절로 맑다.
거친 둔덕에 예전 비(碑)들을 찾고
기우는 날에 전조(前朝)의 룡을 조문(弔問)한다.
가을을 슬퍼하는 객(客)이라 마소
다락집 오르니 한이 없네.

대자사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기 전에는 대자암(大慈庵)이라 불리었는데(※ 태종실록(太宗實錄),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후일 대자사로 바뀌 불려지게 된 것이다.

대자암(대자사)이 서게 된 것은 대자암(대자사)지에 거의 닿는 길 왼편에 성녕대군의 제당이 보이고, 제당 뒤 산을 오르는 곳에 성녕대군의 묘가 있다. 성녕대군은 태종 넷째 아들로 세자 양녕대군이 세자 직위를 사양함에, 태종은 세자를 다시 정하는 일에 고심하던 끝에 성녕으로 택할 것을 생각했다는 것이다. 그것은 성녕이 총명하고 성품이 웅대하면서도 겸양하였기에 말이다. 그런데, 성녕은 13세에 무서운 열병으로 타계하고 말았다. 태종과 왕비 민씨는 사적인 정으로는 어느 아들보다 제일로 귀엽게 여겼음은 물론이려니와 그 총명함, 온후, 겸양한 아들이 요절을 함에 애통함이 극에 달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기에 명복(冥福)을 빌기 위한 암자(庵子)를 짓게 된 것이다. 그리고, 이 암자에 태종이 들렀고 민비는 수없이 들

렀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 골짜기(현, 대자골)는 왕이 다녀간 골짜기이라 하여 왕래(王來)골이라 불려지기도 했다는 것이다.

▣ 대자동(大慈洞)의 유래(由來)

최영장군의 묘가 있고 성녕군의 묘가 있는 대자산 아래 동네를 대자골이라 하고, 법정 마을로 대자동이라 하는데, 대자동(대자골)이란 이름이 생겨나 유래는 다음과 같다.

조선조 4대 임금 세종대왕은 집현전을 설치하여 많은 학사들과 더불어 여러분야의 학문에 몰두하시기에 밤낮이 없었다.

이렇게 잠을 제대로 못자고 피곤이 쌓이다 보니 눈병이 나서 고생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전국의 이름난 의원을 불러 치료를 했으나 백약이 무효였다. 병은 점점 악화되어 그 고통은 말이 아니었다. 궁중에서는 걱정들로 수련수련한 분위기였다. 집현전의 학사나 궁인들이 매우 걱정을 하던 중에 집현전의 어느 학사가 어전에 부복하여 아뢰었다.

“대왕마마! 아뢰옵기 황공하오나, 듣자옵건대 고양의 깊은내골에 성녕대군의 위패를 봉안한 암자에서의 기원(祈願)이 신통하다 하옵니다.” 대왕마마께서 그곳에 한번 나심이 어떠하올까 하여 아뢰옵나이다. 이 말을 들은 세종은 잠시 웃음을 입가에 띄우며 “그래, 공의 그 말을 들으니, 그간 일에 여념이 없어 부모님의 정성을 잊고 먼저 간 아우에 대한 회심을 잊었었구려” 허공을 헤매듯한 눈길로 잠시 천장을 바라보던 세종대왕은 “공이 나를 깨우쳐준 바 크구려! 그 래, 짐은 경의 뜻을 깊이 받아들이기로 하 겠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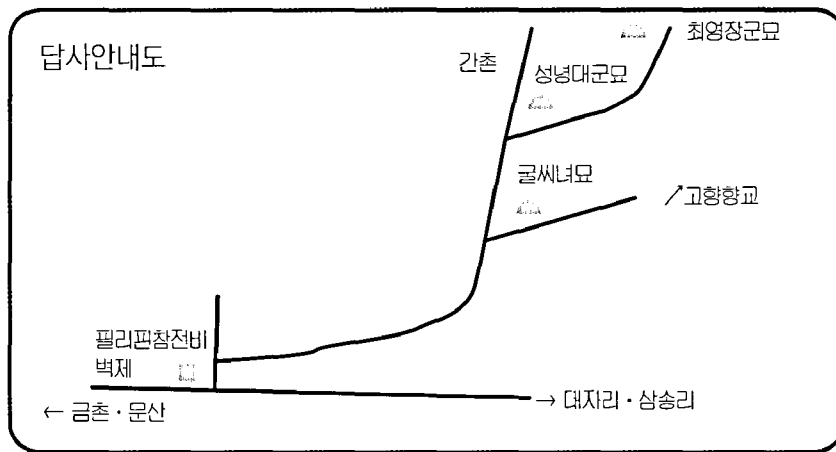
이런일이 있는지 며칠 후 왕의 어가(御駕)는 고양 깊은내골(대자골)을 향하게 되었다. 옛날의 길은 오늘날과 같지 않았으니

한양에서 출발한 어가는 산을 넘고 좁고 굽은 길을 따라 송강고개(신원동 송강마을)까지 다다랐다. 왕은 오랜시간의 행차에서 오는 지루함과 고생이 되었기에 “여봐라! 그 래 아직도 멀었느냐?” 어가 주위의 별배(別陪)에게 물었다. 그때, 신하는 눈가에 손을 차양(撐)으로 하여 깊은내(곡릉천) 건너 골짜기를 바라보던 끝에 “마마! 거의 다 온 듯 하옵니다. 그 암자의 지붕끝이 숲그늘 사이로 보이옵니다.”했다.

이 말에 세종대왕은 지리함 끝에 희망을 찾은 듯한 기쁨으로 “그래, 어디어디 보인단 말이나?”하며 신하가 하듯이 손을 눈가에 췌하여 신하가 가리키는 곳을 향하여 바라보았다. 세종은 순간 이상한 조짐이 느껴졌다. 아니, 것처럼 쓰리고 아픈던 눈이었는데... 순간, 고통이 사라지고 부드러운 눈길로 암자의 지붕끝을 바라볼 수 있었다. 참으로 신기한 일이었다.

물론, 어가는 그 암자에 다다라 의식을 치루고 돌아서는 길에 올랐다.” 세종의 가슴에 회오리쳐 오는 것은 아버지의 지극한 사랑이었다. 흐르는 개울물 소리에도 스치는 바람결 나뭇잎의 속삭임에도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 듯 했다.

“여봐라! 이 골짜기는 아버지의 사랑과 숨결이 숨쉬시는 곳이 아니겠느냐? 그렇거늘, 암자의 이름을 대자암(大慈庵)이라 부르도록 하라!” 하였기에 그 후부터 임진란으로 소실되기 전까지는 대자암이라 불려지게 됐고, 이 암자가 있는 곳이라 대자골이라 하였다는 것이다. 이것이 오늘날 대자동이란 법정동으로 오늘에 이르게 된 것이라 한다.



MEMO

IV. 고양시 문화 유적지

굴씨녀(屈氏女)와 묘(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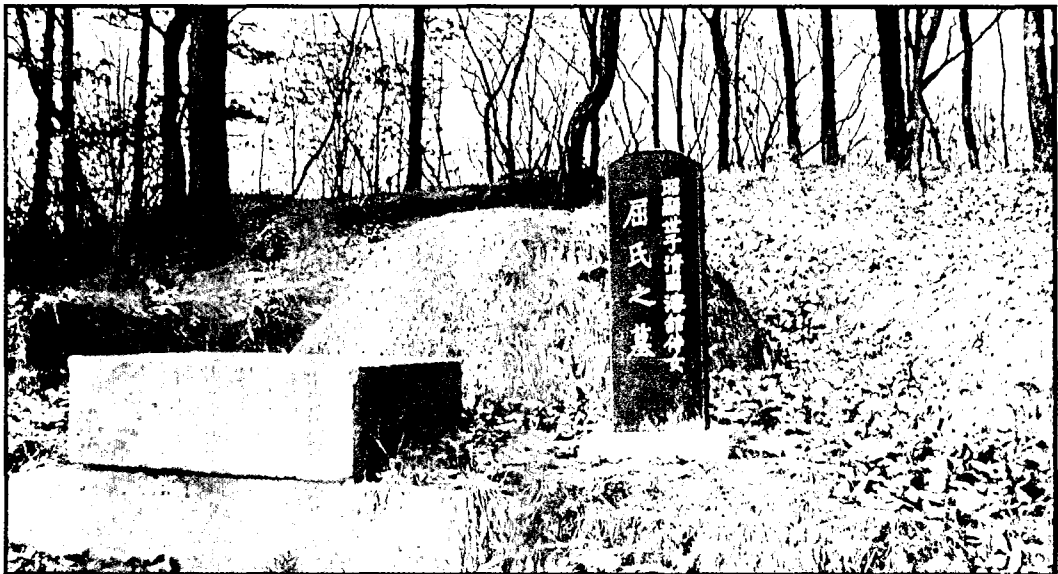
■ 굴씨녀 묘

굴씨녀의 묘는 대자골(대자동) 대자산(대보산) 줄기에 있다. 벽제 통일로변 필리핀 참전비에서 대자골로 들어서 간촌으로 향하다 400~500m 지점에서 고양동 향교 방향으로 가는 삼거리를 맞는다. 이 곳에서 향교방향 언덕길을 오르다가 왼쪽 건너편 능선말 집 뒤 소나무숲 사이에 납작히 내려앉은 묘를 발견하게 된다.

굴씨묘가 이 곳에 있게 된 것은 그녀가 70세에 죽기까지 입버릇처럼 “명나라의 재흥(再興)을 보지 못하고는 눈을 감고 죽을 수 없다.” 말했는데 죽을때의 유언은 “내가 죽으면서도(西道-중국에 가는길)로 가는

큰 길 옆에 묻어 주오, 우리 임금(효종임금)이 청나라를 정벌하러 나가는 대열을 죽여 서라도 눈을 부릅뜨고 볼 수 있게끔 ……” 했기 때문에 지금의 대자산(대모산) 기슭에 마련해 주었다는 것이다.

주위에 펼쳐이는 나뭇잎은
그대의 비단치마 자락같고
빙그레 웃고 있는 풀꽃은
그대의 비녀와 같구나
이 언덕에 꽃다운 그대를 묻은 지가
몇해가 되는가
가히 슬프도다
한식·청명에 그대에게 술 한잔 전해볼까
-金疇曾의 시-



■ 굴씨녀(屈氏女)

굴씨녀는 명나라의 여인인데, 어릴시절 나라는 청나라의 침입과 더불어 통치의 기능을 잃고 부패의 길로 치달아 지방의 관리들은 온갖 행패를 하였으니, 약자에 대한 약탈과 부녀자에 대한 간음을 일삼았다. 굴씨녀의 어머니는 이런 상황속에서 몸을 더럽혀지느니 차라리 죽음의 길을 택하여 딸과 더불어 자살을 기도했다.

그런데, 굴씨녀의 어머니는 죽고 굴씨녀만 살아남게 되면서 명나라 황실의 궁녀로 끌려 가게 됐다. 그때 굴씨녀의 나이는 일곱 살이었다. 주황후(周皇后)의 궁녀가 되어 있을 때, 이자성(李自成)의 난이 일어나서 서울(북경)이 함락당하고 열황제(烈皇帝)가 죽게 되었다. 그래서 황후를 모시고 수황정(壽皇亭)으로 피신하였으나 황후마저 죽음을 면치 못하게 되니, 굴씨녀는 여염집으로 숨어들어 살게 됐다. 그러나, 청나라가 이자성을 쫓아내곤 북경을 점령하면서 굴씨녀는 잡히는 몸이 되어 청태종의 황실에 끌려가 궁녀가 되어야 했다.

그런데, 굴씨녀는 뛰어난 미모였기에 청태종의 아홉번째 동생이 온갖 사랑의 표현으로 접근하여 왔다. 그러나 명의 법통에 집착하고 호족을 멸시하는 정신이 박힌 굴씨녀는 오히려 그를 험담으로 매도하였다고 한다. 그때에 청나라로 인질되어간 소현세자와 그 아우 효종이 청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청이 북경에 진주하는 길에 북경까지 따라가게 됨으로써, 굴씨녀와 소현세자는 만남의 인연을 맺게됐다. 세자는 천주교 신부 아담샬을 만나게 되어 천주교를 이해하게 되어 “천주상을 벽에 걸어 놓았더니 이를 보는 자의 마음에 평화를 줄 뿐 아니라 속세의 매를 씻는 듯한 느낌을 준다.”라고 했으니, 사실상 천주교 신자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아담샬은 세자가 8년간의 볼모에서 풀려 한국할 때 포교에 일념이었던 까닭에 세례를 받은 환관과 궁녀를 조선에 팔려 보내게끔 청나라 황제를 설득하는데 성공하였다. 그리하여 세례를 받은 환관 다섯명과 궁녀 수명의 배종(陪從)을 받으며 한국하여 오게 되었다. 이 가운데 굴씨녀가 끼어 있었다.

그런데, 소현세자는 불행하게도 한국한 지 3개월만에 운명을 달리하게 됨에 따라 청나라 당국에서는 배종했던 사람들에게 대한 한국령이 내려졌다. 따라서, 모두 청나라로 돌아가게 됐지만, 굴씨녀는 돌아가기를 거부하고 조선에 살기를 위하여 조선의 궁중에 살게됐다.

-인조실록-

인조의 뒤를 이어 효종이 왕이 되니 굴씨녀로 하여금 명나라 황실의 법통, 예절을 시범케 하고 본을 받게 하였더니, 송시열은 이 굴씨의 법을 본으로 전국에 통일하도록 주청하기도 하였으니 조선조 중기 이후의 궁중법도 및 예절 정립에 큰 영향을 미치게 한 것이 굴씨녀였다고 하겠다.

김구(金球)의 시중 굴씨과묘(屈氏過墓)라는 아래의 시를 보면서 이 무덤 옆을 지나가는 후세의 선비들에게 한 감흥의 샘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한다.

풀은 앓은 비단 치마결 같고
언덕을 잘라 옥을 묻은지
아! 그 몇몇년 만인가
해마다 한식 청명날이면
오로지 관아(官娥)가 지전(紙錢)을 보냈기에
그 지전이 바람에 흩날릴 뿐이네

또한, 이 대자굴 굴씨녀에 대해 전해오는 얘기 가운데 왕실의 궁녀들이 이 무덤을 찾

Ⅳ. 고양시 문화 유적지

아 성묘하고는 지전을 놓고 감에 따라 주변에는 지전이 바람에 날렸다고 한다. 그리고 19대 숙종임금때는 나라에서 명나라에 귀화한 전회일(全會一)에게 세비(歲費)를 주어 굴씨녀 묘에 제사를 지내도록 했기 때문에 이후에 전씨 가문에 전승되어 내려오고 있었다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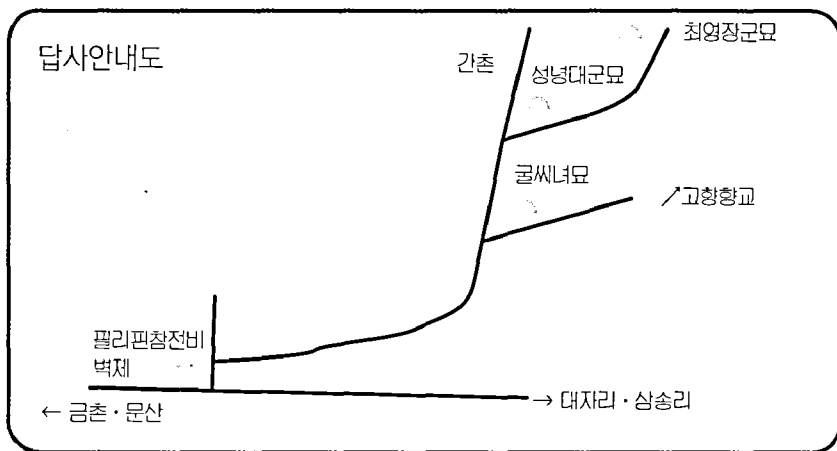
한편, 서도(西道- 중국을 가는 길) 길을 북판에 두고 좌우 홍분(紅墳)이 두 개 있어 원한을 영세(永世)에 못푼다 하였으니, 왼쪽에 있는 것이 굴씨녀 홍분이라면, 오른쪽에 있는 홍분은 누구의 무덤이던가? -신동국여지승람-

이 기록되어 있고, 고양군지에 대모산(大母山)에 여말의 충신 최영장군의 무덤이 있는데 원한 때문에 풀이 나지 않았다는 기록이 있으니, 오른쪽의 홍분은 최영장군의 무덤임이 분명하다. 최영장군의 묘가 홍분인 것은 이성계가 위하도에서 회군하여 고려왕조를 전복하고 조선왕조를 세우면서 최영장군을 회유하려 했으나, 최영장군은 고려왕조의 신하로서 죽어서 그 영혼마저라도 그 충절의 뜻은 변할 수 없는 증거로 무덤에 풀이 나지 않으리란 말을 했기에 그것

이 사실로 나타남이라고 전해왔고 굴씨녀의 묘가 홍분인것도 효종이 청으로부터 받은 굴옥과 고통의 한을 씻고자 극비리에 북벌계획을 세웠을 때, 궁녀로서 굴씨녀만은 유일하게 그 비밀을 알고 있었다고 한다. 그것은 명나라 궁녀로서 명의 멸망과 더불어 강제로 청의 황실에 궁녀가 됐던 굴씨녀는 명나라의 재흥을 간절히 원하던, 철저한 배청주의자로서 효종과는 뜻이 상통했다고 본다.

그러니, 굴씨녀가 청나라 황실의 궁녀였기 때문에 효종이 청나라 황실의 내막을 엿탐하는데 필요한 문제를 통모(通謀)했을 것이다. 그러나 것처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던 꿈을 흐르는 세월과 더불어 70세에 눈을 감을 때 서도(西道)곁에 묻어달라는 말에 붙혀 뜻을 이룰 때까지는 무덤에 풀이 나지 않으리란 말을 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홍분(紅墳)의 사실이 신동국여지승람에 기록된 것이라 본다. 굴씨녀의 청순 지극한 일심은 기심(欺心)을 벗어났기에 자연의 짐승과 새들까지도 손으로 불러 어루만지고 어깨와 손에 얹힐 수 있는 비술(秘術)이 있었다는 것이다.



Ⅳ. 고양시 문화 유적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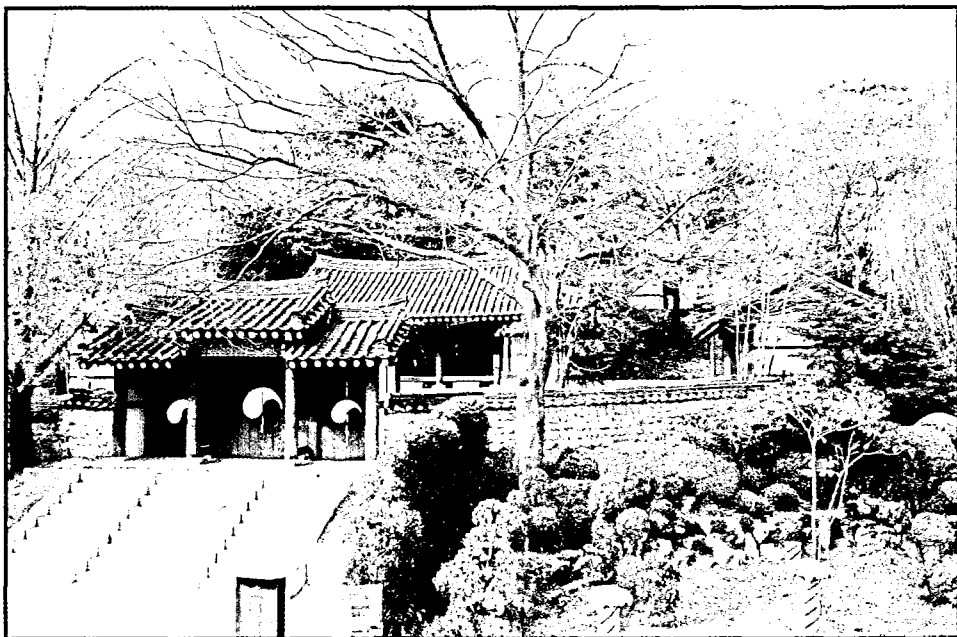
고양향교 (高陽鄉校)

- 지정 번호 : 문화재자료 제69호
- 지정년월일 : 1985년 9월 10일
- 시 대 : 조선시대
- 소 재 지 : 고양동
- 소 유 자 : 향교재단
- 관 리 자 : 이천기
- 규 모 : 대성전(大成殿) 17.73평,
 명륜당(明倫堂) 13.82평 등
 총 3,729㎡
- 재 료 : 목조와즙(木造瓦葺)

고양 문묘(高陽文廟)라 하여 옛 벽제면 대 자리 고읍(古邑)에 창건되었다. 그러나 임진왜란으로 소실되어 3년 후에 다시 지었는데 그후 원래의 위치인 이곳에 국장(國葬)을 지내게 됨으로써 향교 이전의 명이 내려져 현 위치로 옮겨지게 된 것이다. 당시 세워진 건물들은 대성전, 동·서무(東西廡), 전사청(典祀廳), 내·외삼문(內外三門) 등이 있었다.

고양 향교는 조선조 초기 태조 7년(1398)

그러나 6·25 전쟁 때 소실되어 1980년
대 이후 몇차례 중수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



고양향교의 대성전(측면)

Ⅳ. 고양시 문화 유적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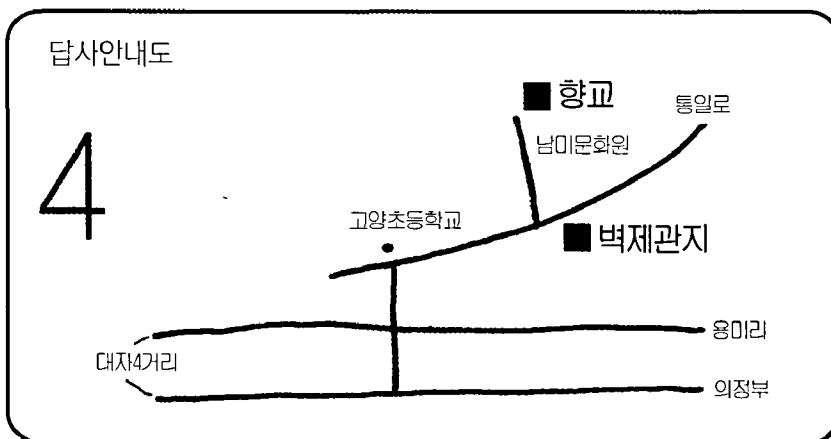
다. 향교의 정면에는 홍살문이 있고 그 뒤에 외삼문, 그 안쪽에 정면 4칸, 측면 2칸의 명륜당이 위치해 있다. 그 좌우에 동재, 서재가 있으며 정면 가장 중앙되는 곳에 공자(孔子)와 그의 제자들의 위패를 모신 대성전이 있으며 동·서무에는 우리나라 선현(先賢) 등 총 20위가 봉안되어 있다. 대성전은 장대석 바른층 쌓기 기단 위에 원형의 정평주추가 있으며 기둥은 나무로 만든 둥근기둥이다. 연등 천장에는 익공이 있으며 맞배지붕 외에 방풍판이 있다.

단청은 고풍스럽게 칠해져 있으며 규모는 정면 3칸, 측면 2칸으로 면적은 58.5㎡이다. 대성전 좌측에는 전사청 건물이 있다. 향교에서는 매년 음력 8월 27일 공자의 탄신일을 맞이하여 석전대제(釋奠大祭)를 봉행하고 있다.

■ 향교란 무엇이며 무엇을 하는 곳인가
유교 종단의 성균관에 속한 서당기구의 하나다. 유교란 중국의 춘추전국시대에 제자백가(諸子百家)라 하여 여러 학파가 있었는데

그 중 유가(儒家)라 불려진 학파의 학문이다. 이 학파의 사람들은 유림, 유생, 유자라고 불리었는데 이들은 유교를 인간이 행해야 할 도(道)라 하여 도학이라고 하며 즐겨 배웠다. 또한 현실을 강조한 학문이라 하여 실학(實學)이라고도 하였다. 향교는 이 유교 학문을 가르치는 곳으로 유생들은 사서오경(四書五經)을 경전(經典)으로 삼아, 양가의 자손을 모아 가르치거나 유생끼리 학문의 이치를 연구하고 논하였다.

조선왕조는 건국하자 제주도에 향교를 창건했다는 기록과 전 국토에 365곳에 향교를 두고 일년을 통하여 하루에 향교 한곳씩을 생각하게 했다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정치를 함에 있어서 백성을 가르쳐 옳게 다스린다는 것에 치중한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오늘날 나라의 장래는 교육이 어떠한가에 따라 국가의 흥망이 좌우되기 때문에 어느 국가도 교육을 중히 여기듯 향교란 옛날 국가체제에서 운영하던 교육기관이라고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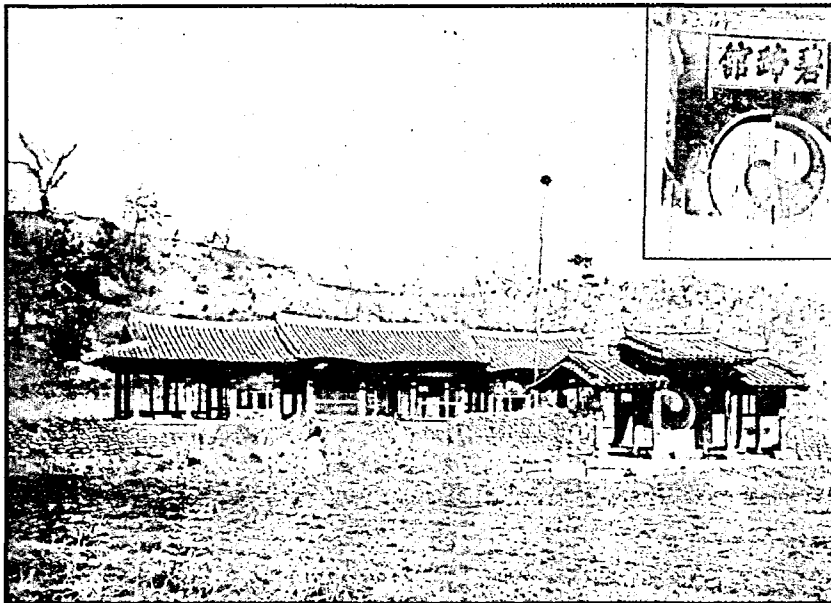


Ⅳ. 고양시 문화 유적지

14. 벽제관지 (碧蹄館址)

- 지정 번호 : 사적 제144호
- 지정년월일 : 1965년 2월 2일
- 시대 : 조선시대
- 소재지 : 고양동
- 소유자 : 국유
- 관리자 : 김인배
- 규모 : 1,265평
- 재료 : 화강암 및 기타 토사(土沙)

이 자리는 옛날 역관(驛館)이 있던 자리로 현재 고양동 사무소 북쪽 인접해 있다. 조선시대에 한성에서 중국으로 통하는 관서로(關西路), 또는 의주로(義州路), 연행로(燕行路)에는 이와 같은 역관이 10여곳 있었다. 이곳에서는 우리 나라에서 중국으로 가는 사절단이 숙박 휴식하였고 중국에서 오는 사신들에게는 여관에 머물러 휴식하는 공용 숙박시설(公用宿泊施設)이라 하겠다. 더욱이 이들 역관은 역(驛)을 동반하고 있어서 교통 통신의 편의를 최대한도로 이용할 수 있었다.



▲ 소실되기 이전의 벽제관

Ⅳ. 고양시 문화 유적지

그리고 벽제관은 한성에 인접하고 있었으므로 중국에서 오는 사신들을 한성에 들어 오기 전에 반드시 이 역관에서 숙박하고 다음 날 관복으로 갈아 입고 예의를 갖추어 들어가는 것이 정해진 예법이였다.

본래 고양시의 고읍치(古邑治)는 벽제관에서 서북방으로 5리 정도에 자리하고 있었는데 지금의 위치로 읍치를 옮긴 인조 3년(1625)에 이곳에 새로 세운 객관이 지금의 벽제관이다. 당시 규모는 면적 1,265평, 건물 601평에 달하였다.

그러나 그 후에 언제 다시 건물을 세웠는지는 확실히 알 수 없으며 일제 때 일부가 헐렸고 6·25때 완전 불타버렸다. 그러나 1960년경까지도 객관문(客館門)은 남아 있었으나 퇴락(頹落)해 무너져버린 현재에는

객가의 윤곽과 터, 그리고 7척(尺) 간격으로 원좌주초석(圓座柱礎石)의 장대석(長臺石)이 남아 있을 뿐이다.

이 곳을 지점으로 북방에 혜음령(惠陰嶺)과 동북방으로 있는 퇴패현(退敗峴)이 있다. 그리고 서남으로 이어진 도로를 이어 임진왜란 당시 명나라 이여송 군대와 왜군이 치열한 접전을 벌인 이른바 벽제관 싸움의 전장터 중심지가 되는 곳이기도 하여 많은 뒷 얘기를 남기고 있다.

벽제관은 관서로 연로(沿路)에 설치한 첫 번째 역이었다는 점 이외에도 임금이 중국 사신을 친히 맞았던 모화관(慕華館)에 버금가는 곳으로 반드시 하루전에 이곳에 머물러 입경하도록 된 객사 자리인 데에 보존과 복원의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MEMO

4. 고양시 문화 유적지

15. 고양동 송덕비(頌德碑) 7기(基)

- 시 대 : 조선시대
- 소 재 지 : 고양동
- 규 모 : 송덕비 7기
- 재 료 : 화강암 및 대리석

고양동 송덕비들은 옛 고양동사무소였 벽제관지 부근에 위치하고 있다. 유적은 특별한 비각이나 보호 난간없이 도로옆에 위치하고 있는데 총 7기의 비가 한 줄로 건립되어 있다.

비의 내용은 조선시대부터 근대에 이르기 까지 역대 고양군수(郡守) 및 관찰사(觀察使), 면장(面長)의 선정(善政), 치적(治績)을 기리기 위한 송덕비들이다.

■ 군수 정진묵 애민선정비 (郡守 鄭晉默 愛民善政碑)

이 비는 화강석의 대좌위에 세워져 있는데 총 높이는 167cm, 폭 54cm, 두께 24cm의 규모이다. 정진묵은 고종 12년(1875) 3월 2일부터 동왕 14년(1877) 8월 24일까지 고양군수를 지낸 인물이다. 한편 이 비는 1877년에 그의 선정을 기리기 위해 건립된 것이다.

■ 관찰사 이재원 영세불망비 (觀察使 李載元 永世不忘碑)

이 비는 정진묵 선정비 우측에 위치하고 있는데 총 높이는 184cm의 규모이다. 비는 고종 14년(1877)에 건립되었는데 화강석의 비신과 대좌를 갖추고 있다. 이재원은 당시

경기도 관찰사로 공덕을 영원히 잊지 않겠다는 의미로 영세불망비라 하였다.

■ 군수 유시증 청덕선정비 (郡守俞是曾淸德善政碑)

이 비는 관찰사 이재원 영세불망비 우측에 세워져 있는데 그 규모는 높이 162cm이며 재질은 화강석이다. 인조 14년(1636)에 건립된 이 비는 장방형의 대좌에 비신을 갖추고 있다. 유시증은 당시에 고양군수를 역임한 인물이다.

■ 군수 최창대 선정비 (郡守崔昌大善政碑)

이 비는 유시증 청덕선정비 우측에 위치하며 그 규모는 높이 153cm이다. 비는 화강석 대좌와 비신으로 되어 있는데 최창대는 숙종 40년(1714) 11월 7일부터 동왕 41년(1715) 5월 7일까지 고양군수를 지낸 인물이다.

■ 군수 영사비 (郡守永思碑)

이 비는 최창대 선정비 우측에 위치하며 화강석 대좌에 대리석 비신과 이수로 되어 있다. 비의 규모는 높이 192cm, 폭 58cm, 두께 16cm이다. 비는 조선조 인조 10년(1632)에 건립되었는데 비문의 마모가 심하여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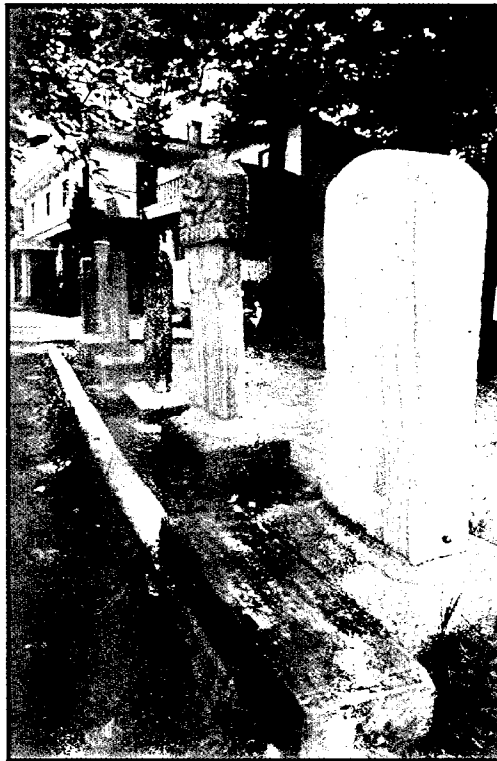
IV. 고양시 문화 유적지

▣ 군수 홍진유 청덕애민선정비 (郡守洪晉猷 淸德愛民善政碑)

이 비는 군수 영사비 우측에 위치하고 있는데 총 높이는 162cm이다. 영조 9년(1734)에 세워진 이 비는 대리석 비신에 장방형의 대좌로 되어 있다. 홍진유는 영조 6년(1730) 11월 27일부터 동왕 7년(1731) 10월 21일까지 고양군수를 지냈다.

▣ 면장 신규선 치적비 (面長 申圭善 治績碑)

이 비는 홍진유 선정비 우측에 위치하며 높이 142cm의 규모이다. 화강암 대좌에 오석의 비신을 갖추고 있는데 비문에 의하면 벽제면 유지들이 건립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신규선은 1932년 1월 30일부터 1939년 10월 13일까지 벽제면장을 역임했다.



Ⅳ. 고양시 문화 유적지

16 고양동 은행나무 1그루

- 지 정 번 호 : 경기도 나무 5-106호
- 지정년월일 : 1982년 10월 15일
- 수 령 : 500년
- 소 재 지 : 고양동 34
- 소 유 자 : 마을 공동
- 관 리 자 : 김 영 덕
- 나 무 크 기 : 높이 24m,
가슴높이나마 둘레 6.7m,
나무가지직경 20m
- 학 명 : Ginkgo biloba Linne

고양시 고양동 향교 마을에 위치해 있다.
은행나무과에 속하며 총면적 350㎡에 이르는

다. 나무의 주위로 보호대가 둘러쳐져 있는 이 나무는 2개의 기둥가지가 남북으로 길게 이어져 있다. 50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 은행이 열리는 매우 튼튼한 나무이다.

나무 밑등으로부터 2m 지점에서 두 갈래로 나뉘어지고 있으며 표피가 매우 울퉁불퉁하다. 현재 북쪽의 나무가지 하나가 갈라져 나와 지주대를 설치하여 보호하고 있다. 이 나무는 조선시대에 나무 아랫쪽 고양 관아에 부임한 어느 원님이 심은 것이라 전해지고 있다. 현재 은행은 남쪽 가지에만 치우쳐져 열린다고 한다.



Ⅳ. 고양시 문화 유적지

한 해음령 고개와 순이 이야기

옛날 옛날에!

에헴, 에헴!

우리 고양땅 해음령 고개가 멀리보이는 밤나무골에 나이 열다섯의 아리따운 소녀 순이가 흠아버지, 오빠와 함께 살고 있었다. 함께 사는 흠아버지 양서방은 힘이 세고 부지런하기로 소문난 아주 성실한 사람으로 이 때문에 순이는 별 가난없이 오빠인 절름발이 순태와 행복하게 살아왔다.

순이는 어머니를 대신해 밥도 짓고 빨래도 하며 집안일을 행복스런 마음으로 잘 해냈고 동네 여자 계집애들과 함께 마을에서 멀리 보이는 해음령 고개 아래까지 놀러 다녀오곤 했다.

한편 오빠인 순태는 어린시절 동산에서 전쟁놀이를 하다 발목을 삐었는데 옷마을 코주부의 침을 잘못 맞아 한쪽발을 절룩거리는 절름발이였다. 그러나 본래 착하고 부지런한 집안이라 순태도 집안일을 돕기 위해 열심히 일하며 세식구는 행복하게 세월을 보냈다.

그러던 어느날!

에헴 에헴!

저녁 무렵, 멀리 해음령 고개 쪽에서 뿌우연 흠먼지가 일어나더니 변방을 지키는 장군 복장의 장수가 한양땅으로 내달리며 오랑캐가 쳐들어 왔다고 소리쳤다. 마을 사람들은 산으로 오르는데…….

순이네는 절름발이 순태가 있어 산으로 오르지 못하고 그냥 집에 있을 수밖에 없었다.

순이네 식구와 노인, 어린아이만 있던 밤나무골에 다음날 새벽 오랑캐가 쳐들어 왔다. 오랑캐를 지휘하던 배불뚝이 때보는 총각 장수로 순이를 보는 순간 청나라로 데려가기로 마음먹고 양서방과 순태를 마을 어귀의 느티나무에 묶어놓고 해음령을 넘어 파주를 지나 청나라 만주땅으로 데려갔다.

이곳은 압록강을 지나 수백리를 들어온 만주땅!

배불뚝이 때보에게 끌려온 순이는 조선에서 끌려온 몇사람과 함께 온갖 고생과 수모를 견디며 항상 고양땅 해음령과 밤나무골을 생각하고는 눈물을 흘렸다. 어떤 때는 전혀 마음에도 없이 청나라 오랑캐의 시중을 밤낮없이 들어주었다.

그러던 어느날 때보집에 끌려온 양주땅의 옥담이가 견디지 못해 우물에 몸을 던져 자결하고 말았다. 이럴 때마다 순이도 죽음을 생각했으나 그때마다 해음령의 희미한 모습이 이러한 생각을 그만두게 해 주었다.

세월이 지나 1년후!

조선에서 끌려온 왕자가 청나라 황제에게 간청하여 청나라에 끌려온 아녀자들을 고국으로 돌려 보내기로 해 순이도 이 행렬과 함께 압록강을 건너 고국으로 돌아오기 시작했다. 임진강을 넘어 멀리 고향땅으로 넘어가는 해음령 고개가 보이자 순이는 그동안 참고 참던 설움과 울분이 폭발쳐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런데 그 길고 긴 행렬이 해음령 고개 밑

에서 멈춰 움직이지 않았다. 앞에서 행렬을 인솔하던 관리가 묻길

“왜 갑자기 멈추는 것이요?” 하니 순이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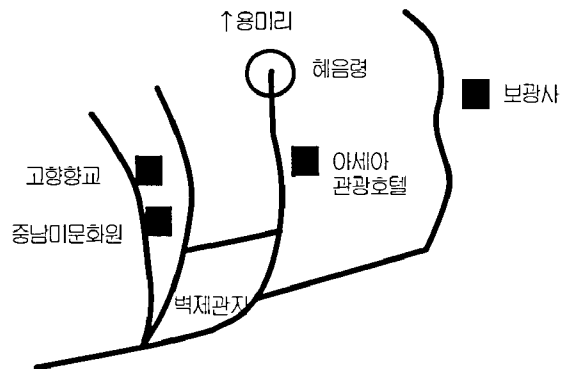
“부모, 형제를 떠나 멀리 타국에서 몸을 모두 망쳤으니 차마 이 고개를 넘어 고향 땅으로 갈 수 없습니다. 이러한 더러운 몸으로 어찌 부모, 형제, 임금님을 뵈 수 있겠습니까?” 했다. 이에 관리가 고민하다 파발을 띄어 임금께 아뢰니

“내가 워낙 우둔하여 나라의 힘을 키우지

못해 당한 수모이니 고개밑 샘물터에서 깨끗이 몸을 씻고 보름만 마음을 깨끗이 하고 넘어오면 용서하리라.” 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행렬과 순이는 보름동안 깨끗이 몸을 닦고 고개를 넘는데 모든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해음령 고개를 넘어왔다. 그후 순이는 순태의 친구 우성이와 혼인해 해음령 고개 밑에서 행복하게 살았다고 한다.

해음령의 악도



해음령은 고양동에서 북쪽으로 파주시 광탄면과 접한 사고개를 말하는데 옛날에는 높은 고개로서 고개에 올라 땀을 씻고 그늘에 쉬어가는 은혜로움이 있다하여 은혜 ‘혜’자 그늘음을 써서 혜음(惠陰)령이라 부르게 됐다는 유래로 전하기도 한다.

IV. 고양시 문화 유적지

고양시 문화유적지 소개

- 시 대 : 조선시대
- 소재지 : 삼송동(三松洞)
- 소유자 : 고양시
- 관리자 : 고양시
- 규 모 : 높이 141cm, 가슴둘레 85cm
- 재 료 : 화강암

석상은 삼송동 숫돌고개 중턱의 통일로변 도화공원 내에 위치하고 있다. 현재 이 공원 내에는 이 석상 이외에도 3기(基)의 비석(碑石)이 세워져 있다.

총 4기의 석물 중 가장 동북쪽에 위치한 밥할머니 석상은 다른 석물과는 달리 북한산을 바라보며 45도 정도 옆으로 세워져 있다. 최근에 만들어진 대좌를 포함하여 총 높이 155.5cm의 석상은 현재 얼굴 부분이 소실된 상태이다.

본래 이 석물들은 동산동(東山洞) 능 모퉁이에 있었으나 통일로 확장사업으로 1993년 현 위치로 옮겨지게 된 것이다.

석상의 팔목과 어깨 등은 매우 풍만하며 전체적으로 얇은 곡선들이 몸을 휘감은 듯 보인다. 왼손은 손가락을 펴 하늘 방향으로 하였다. 오른 손은 수평으로 손은 좌측을 향하고 있는데 손등이 아랫쪽을 향하고 있다. 석상의 아랫부분은 특별한 조각이나 문양없이 대좌에 꽃은 형태이며 뒷부분은 자연석에서 볼 수 있는 갈라짐과 굴곡을 발견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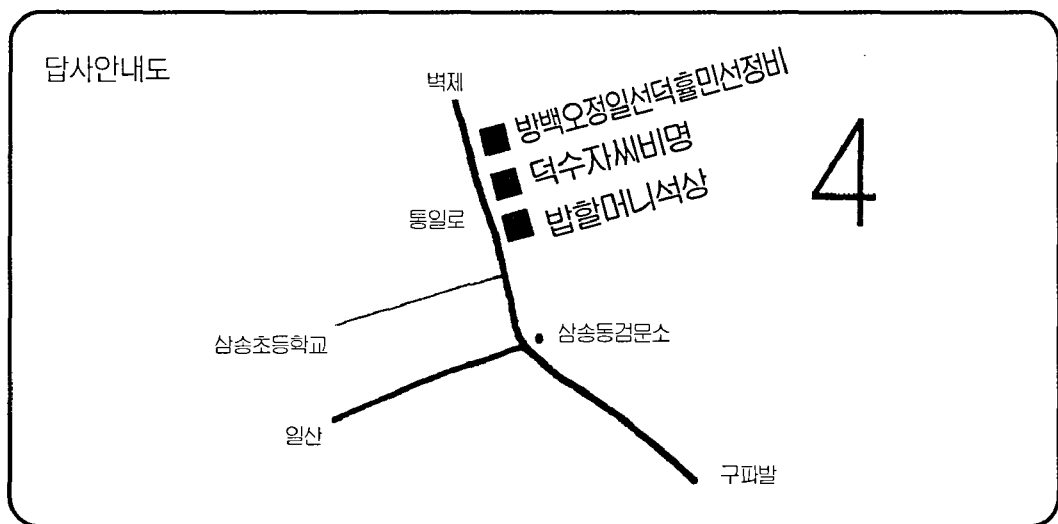
목부분에는 시멘트가 약간 보이는 것으로



보아 잘려진 머리 부분을 복원하려는 작업이 이루어진 것 같다. 이 석상의 주인공을 고양지역과 서울시 일부 지역에서는 밥 할머니라 부르고 있다. 이 밥 할머니는 임진왜란 당시 아군을 전멸의 위기에서 구한 슬기로운 할머니의 화신(化身)이라 여겨지고 있다. 고양시 내에서는 보기 드문 석상이라는 의미에서 그 가치가 높다고 하겠다.

■ 북한동의 노적봉(露積峯)과 밥할머니

왜국이 아무런 명분도 없이 병화를 일으켜 우리나라의 산천을 피로 물들인 지 8개월이 지난 선조 26년 정월, 조선의 조정은 명에 원군을 요청했고 이 요청에 따라 명은 이어송을 파견했다.



총병관 이여송은 양국의 연합군을 총 지휘하여 왜군에게 함락되었던 평양성을 탈환하고 그 여세를 몰아 한양을 향해 남진하였다.

그러나 그해 정월 26일 한양을 눈앞에 둔 옛 고양군 벽제면의 남쪽 숫돌고개 전투에서 연합군은 왜군에게 참패를 당하여 북한산으로 뿔뿔이 패주, 이여송과 장수들의 일부는 노적봉 밑에 집결하게 되었다.

왜군이 포위망을 좁혀오자 이여송은, “길은 이제 두 갈래뿐, 이대로 앉아서 죽느냐 아니면 적에게 투항하여 목숨이라도 살려 달라고 애걸하느냐, 어느 길을 택하는 것이 낫겠는가?”

하고 말하면서 답답한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자 조선 관군의 총사령관격인 부원군 김명원은,

“길은 또 있습니다. 하나는 혈로를 뚫고 적진으로 돌파하여 흩어진 병력을 재정비하는 길이외다.”

라고 말했다.

“김부원군의 말씀이 좋기는 하나 아시다시피 아군은 이번의 패전으로 다수의 병력을 상실했

고, 적군은 의기양양하여 날뛰면서 시시각각으로 포위망을 굳히고 있으니 혈로를 뚫기는 고사하고 쥐 한 마리 빠져나갈 구멍조차 찾기 어려운 형편이 아닙니까?”

이여송은 침통하게 대답했다. 이에 김명원도 더할 말이 없어 장막 밖으로 나왔는데 한 노파가

“장군께 여쭙 말씀이 있습니다.”

하고 다가왔다. 이 노파는 숫돌고개 남쪽의 진거리에서 떡장사를 하는 할머니였다. 초조해하던 김명원은 그 노파가 귓속말로 속삭여주는 소리를 듣고 난 김명원의 안색이 금새 밝아졌다.

그는 즉시 산으로 들어가서 이여송에게 노파의 말을 전했다.

“하늘이 우리를 도우려고 보낸 여신인지도 모른다.”며 이여송은 김명원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휘하의 장졸들에게 명령했다.

“이 근처의 마을에 내려가서 쫓단이란 쫓단은 있는대로 다 모아 오도록 하라.”

얼마후 노적봉 기슭을 휘돌아 진거리 앞으로 흘러가는 냇가에는 수많은 왜병들이

모여들어 술렁대고 있었다.

“목이 타서 죽겠는데 마실 물이 있어야지.”

“글세 말이야. 저 냇물이라도 마셨으면 좋겠지만 물빛이 저렇게 뿌여니...”

왜병들이 원망스럽게 바라보는 냇물은 어떤 까닭인지 흐려 있었다.

그때 한 노파가 함지박에 흰 쌀을 수북히 담아 이고는 산에서 내려왔다. 조금 전에 아군 진영으로 김명원을 찾아갔던 그 노파였다.

한 왜군이 노파를 불러 세워 물었다.

“여보 할멈! 이 냇물이 왜 이렇게 흐리오?”

노파는 그 왜병이 바보스럽다는 듯이 툭 쏘아주었다.

“아무리 남의 나라에 쳐들어 왔기로 그까짓 것도 모르고 무슨 싸움을 한다는 거요? 저 산에 수만 명의 군사들이 집결해 있는데다 군량미가 남아서 처치하기 어려운 형편이라고 하오. 그 흔한 쌀을 씻어 수많은 군사들의 밥을 지으니 당연히 냇물도 흐려질 게 아니요?”

“저 산에 그렇게 군량미가 많소?”

왜병들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이르다 뿐이오, 정 내 말이 믿어지지 않거든 저길 똑똑히 보시오.”

노파는 손을 들어 노적봉을 가르켰다. “저기 저 산봉우리처럼 쌓여진 짚단이 뭔지 아시오? 그게 바로 노적가리란 거요.”

“노적가리가 뭐요?”

왜병들은 고개를 갸우뚱했다.

“아따! 무식한 왜나라 사람들이라 할 수 없다니깐. 우리나라에선 밖에 쌓아둔 곡식더미를 노적가리라 부른단 말이오.”

노파는 왜병들을 핀잔하고 나서

“자. 이걸 또 봐요.”

하고는 머리에 이고 있는 함지박을 왜병들 앞에 내밀어 보였다.

“마침 산에 나무를 하러 올라 갔는데 군사들이 마음대로 갖다 먹으라고 이렇게 옥같이 흰 쌀을 퍼주는구랴.”

왜병들은 기가 막혔다. 노파는 그들을 싸늘한 눈조리로 훑어보고는 총총히 사라졌다. 그리고 이튿날 왜병은 멀리 도망가 보이지 않게 되었다.

“그 노파의 계략이 들어 맞았군. 아군의 병력과 군량이 엄청나다고 생각하여 도망친 것임이 틀림없어.”

부원군 김명원은 회심의 웃음을 지었다. 왜병들의 눈에 노적가리처럼 보인 것들은 노적봉에 둘러 처진 짚단들이었다. 그리고 냇물이 흐려진 것은 회를 탄 물을 흘려 보냈기 때문이었다. 이 모두가 노파가 제안한 계략이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아군은 즉시 혈로를 뚫고 전열을 재정비할 수 있었다.

지금도 삼송동 길가에는 머리없는 지방보살 모습의 석상이 있으며, 고양 사람들은 그것을 밥할머니라고 부르는데, 그 석상이 아군을 전멸의 위기에서 구출한 슬기로운 노파의 화신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한편 국문학자 김열규(金烈圭)는 그의 저서 『한국민속(韓國民俗)과 문학연구(文學研究)』에 실은 「민담(民譚)과 민속신앙(民俗信仰)-노적봉(露積峯) 전승(傳承)의 경우」라는 논문에서 목포의 유달산, 경주군 서면 천포리의 오봉산 등이 북한산의 노적봉과 함께 동일한 내용의 전설을 갖는 지명이라고 하면서 그중에서 북한산 노적봉과 함께 동일한 내용의 전설을 갖는 지명이라고 하면서 그중에서 북한산 노적봉 전설에 등장하는 할머니는 미륵할미로서 산모신적(山母神的)·지역수호신적(地域守護神的)·풍요신적(豐饒神的) 성격을 지닌다고 주장함으로써 그 전설의 민속신앙적인 측면을 부각시키고 있다.

Ⅳ. 고양시 문화 유적지

1. 덕수자씨 교비명(德水慈氏橋碑銘)

- 시 대 : 조선시대
- 소재지 : 삼송동(三松洞)
- 소유자 : 고양시
- 관리자 : 고양시
- 규 모 : 총높이 340cm, 비신평 105cm,
두께 29.5cm
- 재 료 : 화강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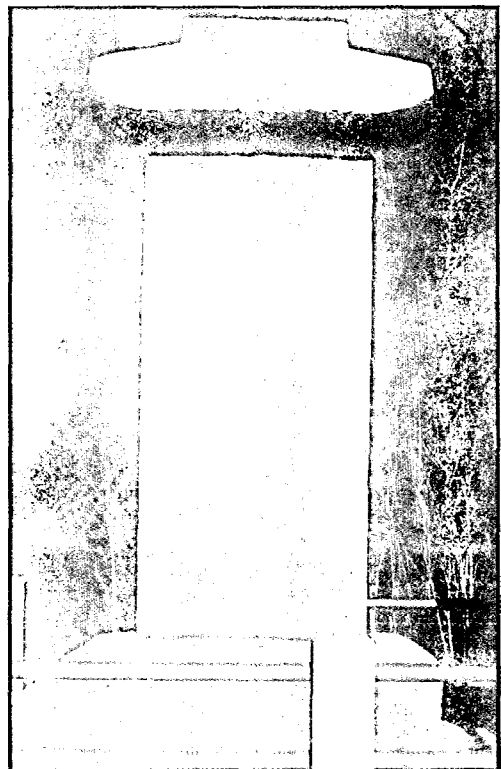
이 비는 삼송동과 오금동 사이에 위치한 통일로변 솟돌고개에 위치하고 있다. 본래 동산동 능모퉁이에 있었으나 1993년 도로의 확장으로 현위치로 옮겨놓은 것이다. 현재 비는 화강석 재질의 장방형 대좌 위에 대리석의 비신을 꽂는 형식인데 비신의 윗부분에 화장석의 옥개석이 있다. 이중 대좌와 옥개석에는 무늬가 문자는 보이지 않으며 비문은 비신의 앞면과 뒷면에만 기록되어 있다.

비의 앞면 윗부분에 ‘고양 덕수자씨 교비명(德水慈氏橋碑銘)’이라 새겨진 전(篆)이 있다. 이러한 전은 뒷편에도 같은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다. 전 아래의 비문 내용은 조선조 현종 1년(1660)에 이 비를 세우게 된 배경, 공사의 진행기간, 사용경비 그리고 여러 도움을 준 사람들의 많은 인명(人名)을 이두문자(吏讀文字)로 기록하여 둔 것이다. 즉, 이 비는 한양과 북부지방을 연결하는 관서로(關西路) 구간중 고양 덕수천(德水川, 또는 昌陵川) 위에 다리를 만들면서 세운 것이다.

한편 이 비와 성격이 비슷한 신원덕명교

비(新院德明橋碑)가 신원동에 위치해 있다. 위 2개소의 다리를 놓은 것은 조선남(趙善男)과 그의 아버지 조막쇠(趙莫金)였는데, 다리를 놓는데 따른 인력과 자금은 비문에 기록된 이 두문의 많은 남녀 이름에서 나타난 바로 보아 불교신자들의 기복신앙에 따른 보시로 이룩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다리를 놓은 목적은 백성들이 물을 건너는데 고통을 덜어주고 임금이 파주·탄현에 있는 장릉 행차에 지장이 없도록 한 뜻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진다.



IV. 고양시 문화 유적지

방백 오정일 청덕홀민선정비(方伯吳挺一淸德恤民善政碑)

- 시 대 : 조선시대
- 소재지 : 삼송동(三松洞)
- 소유자 : 고양시
- 관리자 : 고양시
- 규 모 : 높이 292cm, 비신폭 82cm,
두께 24cm
- 재 료 : 화강석 및 대리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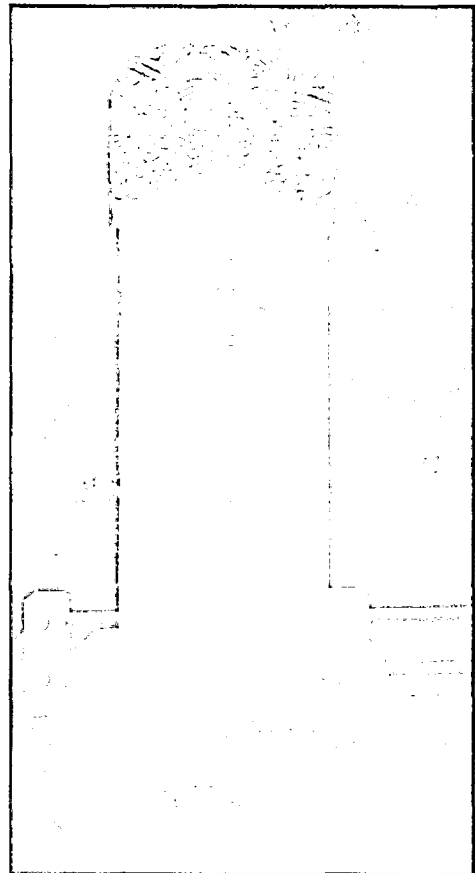
이 비는 삼송동과 오금동의 경계가 되는 솟돌고개(일명 여석령) 통일로변에 위치하고 있다. 비는 귀부(龜趺), 비신(碑身), 이수(螭首)로 되어 있다. 비를 받치고 있는 귀부는 가로 152cm, 세로 174cm, 높이 68cm인데 전체적으로는 좌우의 폭이 비슷하다. 귀부의 머리는 앞으로 돌출되어 위를 향해 들고 있는 모양인데 입을 좌우로 벌리고 있다. 귀부의 중앙에는 비신이 꽂혀 있고 꼬리는 우측으로 구부리고 있다.

비신의 앞면 비문에는 '방백 오정일 청덕홀민선정비(方伯吳挺一淸德恤民善政碑)'라 기록되어 있다. 또한 비의 뒷편에는 순치 17년 월 일(順治 十七年 月 日)이라 표기한 것으로 보아 1660년에 건립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방백은 지방장관을 부르는 것이므로 이 비는 당시 경기도 관찰사의 공덕을 기리기 위해 세운 선정비이다.

오정일(1610~1670)은 조선조의 문신으로

자는 두원(斗元) 호는 귀사(龜砂), 본관은 동북(同福)이다. 인조 5년(1627)에 진사에 합격한 뒤 1639년에 문과에 급제하였다. 이후 향해도 관찰사, 경기도 관찰사, 도승지를 거쳐 호조판서(戶曹判書) 등을 역임했다.



Ⅳ. 고양시 문화 유적지

十一 박태성 정려비 및 묘(朴泰星旌閭碑 및 墓)

- 시 대 : 조선시대
- 소재지 : 효자동
- 소유자 : 밀양박씨 종중
- 관리자 : 밀양박씨 종중
- 재 료 : 화강석 및 토분

박태성 정려비(효자비)는 북한산성에서 의정부로 이어진 63번 지방도로 제청말 입구에 세워져 있다. 오석(烏石) 재료로 된 바에는 “조선효자 박공태성 정려지비(朝鮮孝子朴公泰星旌閭之碑)”라 표기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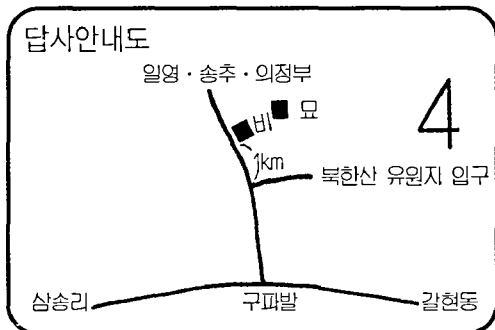
현재 비의 규모는 높이 117cm, 폭 40cm, 두께 12cm이며 비문은 증손 박윤묵(朴允默)이 썼다. 대좌까지 갖추어진 이 비는 조선조 후기 효자로 널리 알려진 박태성의 효행을 기리기 위한 것으로 조선조 고종 30년(1893)에 세워졌다.



효자비 뒷편 250m 지점에 위치한 박태성의 묘는 좌우로 배(配) 의인 완산 이씨(完山李氏)와 계배(繼配) 선인 김해 김씨(金海金氏)의 묘사 3기(基)가 있다. 봉분 앞으로는 상석 1기, 망주석 2기 그리고 문익석 2구가 있다.

또 정조 2년(1778) 5월에 건립된 묘비에는 “유명조선 효자통덕랑 밀양박공태성 자경숙지묘(有名朝鮮孝子通德郎密陽朴公泰星字景淑之墓)”라 새겨져 있다. 어석 묘비의 규모는 높이 145cm, 두께 30cm, 폭 60cm로 비문은 사면(四面)에 표기되어 있다. 묘비의 비문은 이성중(李聖中)이 짓고 후손 박홍제(朴弘悌)가 썼다.

박태성은 조선조 후기의 효자로서 「인왕산 호랑이와 박효자의 전설」의 주인공으로 자는 경숙(景淑)이며 본관은 밀양이다. 봉분 옆에 호랑이의 묘라 전해오는 민 무덤이 남아 있다. 한편 묘소 아래 50m 지점에는 박태성이 매일 찾아와 참배하던 아버지 박세걸(朴世傑)의 묘가 위치해 있다.



■ 인왕산 호랑이와 효자 태성이 이야기

옛날 옛날에!

우리 고양 땅과 한양 땅의 경계를 이루는 박석고개(구파발과 갈현동 사이)에 큰 상여 하나가 고개를 넘고 있었다. 상여 뒤로는 상제로 보이는 어린아이가 배옷과 두건을 쓰고 그 뒤를 따르고 있었다. 상여는 흔들 흔들거리며 슬프디 슬픈 상여소리에 맞추어 너울너울 고개를 넘어 야산에 당도해 무사히 장례를 마치었다.

다음날부터 태성, 즉 슬프고 슬프게 아버지 상여의 뒤를 따르던 그 소년 태성이는 매일 한양을 떠나 무악재, 박석고개를 넘어 아버지 무덤이 있는 고양 땅을 찾아와 아침 인사를 올리고 되돌아가곤 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태성이는 농사일이 시작되기 전 새벽이면 여지없이 일찍 일어나 험한 산길을 따라 아버지의 묘소에 다녀왔다.

어느 추운 겨울날!

효자로 알려진 태성이는 어김없이 아버지에게 아침인사를 드리기 위해 모화관(지금의 독립문)을 나서 험하기로 소문난 무악재 고개를 이르렀을 때다 갑자기 인왕산 쪽에서 얼룩무늬의 호랑이가 나타나 길을 막고는 머리를 좌우로 흔들며 자기등 위에 올라타라는 시늉을 하였다.

효자 소년 태성이는 너무 놀라 뒤로 물러서자, 호랑이는 태성이를 안심시키기 위해 발짓을 하면서 매일 고개 위에서 태성이의 효심을 확인한 후 아버지의 무덤까지 데려다 주기 위해 내려온 것이라는 설명을 해주는 것 같았다.

시간이 지나 태성이는 호랑이의 눈에 살기가 서리지 않고 그 울음소리 또한 부드럽게 느껴져 등에 기대니 호랑이가 일어난 것이 아닌가! 그래서 호랑이의 등가죽을 가만히 움켜 잡았다. 인왕산 호랑이는 일어서더

니 바람을 가르며 달리기 시작하였다. 눈깜짝할 사이에 벌써 북한산 기슭 태성이 아버지의 묘에 당도했다.

태성이가 머리를 조아려 아버지 무덤에 인사를 드렸다. 그리고 묘를 돌며 여기저기를 어루만졌다. 호랑이는 인사가 끝나기를 기다려 다시 태성이를 등을 태우고 무악재 고개에 내려주었다.

이렇게 매일 시작한 일이 40년!

효자 소년 태성이라도 나이가 들어 장가를 들고 열심히 살았으나 늙게 되니 자연히 병이나 죽게 되니 아버지의 무덤옆에 안장하게 되었다. 40년전 아버지의 상여가 가던 그 길을 효자 태성이 상여도 그대로 뒤따랐다.

따스한 봄날 진달래가 곱게 피고 새소리를 들으며 상여는 너울너울 북한산으로 향했다. 오후 2시쯤 태성이의 시신이 땅에 모두 묻혀 자손들이 집으로 돌아가려 할 때였다. 큰 늙은 호랑이 한 마리가 나타나 어흥, 어흥 큰 소리를 치더니 차차 가는 소리로 처절하리만큼 울부짖더니 효자 태성이의 무덤 앞에 쓰러져 죽고 말았다. 그 호랑이는 40여년간 효자 태성이를 등에 태우고 다닌 그 호랑이였던 것이다.

이에 자손들은 그 인왕산 호랑이를 정성 들여 효자 태성이 묘옆에 무덤을 만들어 주었으며 그 후 태성이 자손들도 이곳에 올 때마다 호랑이 무덤에도 제사를 지냈다고 한다. 그리하여 이 부근 마을의 명칭을 태성이와 같은 효자가 묻혀 있는 곳이라 하여 효자동이라 했다고 한다.

태성이의 효성을 하늘이 알고, 영물이라는 호랑이가 감동하여 박태성의 효행을 도왔던 것이다. 그 고귀한 혼을 흠모한 호랑이는 죽음까지 따랐던 것이 아니겠는가! 그 시대 나랏님도 그 효성을 높이 샀기에 백성들의 본이 되게 하리란 뜻으로 정려비를 세워준 것은 가치 크게 교훈을 삼아야겠다.

Ⅳ. 고양시 문화 유적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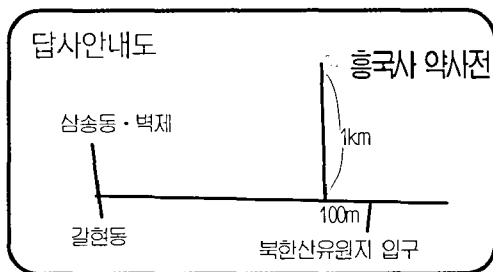
한미산 흥국사 약사전 (高尾山興國寺藥師殿)

- 지정 번호 : 문화재자료 제57호
- 지정년월일 : 1985년 6월 18일
- 시 대 : 조선시대
- 소 재 지 : 지축동
- 소 유 자 : 흥국사
- 관 리 자 : 흥국사
- 규 모 : 정면 3칸, 측면 2칸
- 재 료 : 토분 및 석물

한미산 아래에 있는 이 절의 본래 이름은 흥서암(興瑞庵)으로, 신라 문무왕 1년(661)에 창건되었다고 한다. 그후 조선시대 숙종 12년(1686)에 중창하였으며 영조 46년(1770)에는 왕이 친히 행차하여 잠시 머물렀다고 한다. 이때 산 이름을 노고산(老枯山)에서 한미산으로 고치고 절 이름을 흥국사로 바꾸었다. 다시 정조 9년(1785)에 북한산성을 쌓을 때에 참여한 승대장(僧大將) 겸 도총섭(都摠攝) 관선(觀禪)이 중창하였다. 또한 고종 4년(1867)에는 화주(化主) 광명(廓明)이 약사전을 중수하였으며, 그후에도 몇차례의 중수가 있었다. 현재는 경내에 약사전, 산신각, 칠성각, 요사채 2동, 강당, 범종각, 석등 2기가 있으며 입구에 만일회비(萬一會碑), 일주문이 있다.

약사전은 이 절의 본전(本殿)이다. 전 안에 약사여래상을 모시고 불상 뒤에 정조 16년(1792)에 제작된 약사후불탱화가 걸려 있다. 건물은 1867년에 중수되어 19세기 후반의 일반적인 건축 특징을 잘 간직하고

있다. 장대석 기단 위에 사각형의 잘 다듬은 초석을 놓았는데 초석의 높이가 36cm 정도로 비교적 높다. 기둥은 흘림이 거의 없는 둥근 기둥이며 기둥 머리에 창방(昌防)과 평방(平防)을 돌리고 그 위에 다포(多包)식의 공포(貢包)를 짜았다. 공포는 내외 1출목이며 살미첨자는 바깥 끝이 아래로 처지지 않고 수평을 유지하며 연꽃으로 장식되었고 내부 끝에 둥글게 조각되었다. 또한 어간의 양측 기둥 머리에는 용머리가 장식되고 공포의 각 살미 위에는 봉황 머리가 장식되었다. 내부는 중간에 고주(高柱)를 세우지 않고 앞 뒤 기둥 위에 대들보를 보냈으며 중보에 대어 우물천장을 가설하고 주변에 빗천장을 대었다. 처마는 겹처마이고 지붕은 팔작(八作) 지붕이다. 벽체는 전면 3칸 모두 분합문을 설치하고 나머지 3면은 판벽으로 처리하였다. 이상의 건축적인 세부 구성은 대체로 19세기 중반의 일반적인 불교 사찰 건축의 특징을 고루 반영하는 것으로, 특히 초석, 공포의 세부장식과 가공수법, 판벽 구성 등에서 그러한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 흥국사 약사전 후불탱화

- 시 대 : 조선시대
- 소재지 : 지축동
- 소유자 : 흥국사
- 관리자 : 흥국사
- 규 모 : 높이 5.50촌, 넓이 7.80촌
- 재 료 : 사지수회

탱화는 일반적으로 천이나 종이나 그림을 그려 족자나 액자를 만들어서 거는 불화(佛畵)의 한 유형이다. 우리나라에서 언제부터 탱화를 그리게 되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현존하는 탱화는 13세기 경의 고려작품이 국내에 5점 정도 전하고, 일본에 80여점, 구미지역에도 상당수 전하고 있다고 한다.

삼국유사에 의하면 삼국시대에 이미 불화를 그리고 있고, 석굴암 조각의 팔부신장상(八部神將像)·사천왕상(四天王像) 등의 구도가 현재의 팔부신장도와 거의 같은 점 등으로 보아 오늘날 불화의 사원은 이미 삼국시대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시대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것은 불화의 화폭에 각 존상을 배치하는 배열이나 여백의 이용방법 등이 다르고 기법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즉, 고려불화의 경우에는 여러 존상을 같이 배열할 경우 주존(主尊)을 돋보이게 상방(上方)으로 우뚝 솟게 배열하고 있으나, 조선시대 불화에서는 보살상이나 불제자상이 주존을 둘러싸게 배열하고 있는 등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조선시대 불교가 여러보살신앙을 발전, 전개시킨 데에서 연유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귀족불교에서 대중불교로 전개된 양상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다. 기법이나 예술적인 가치의 측면에서 보면



▲ 후불탱화 중앙 모습

고려시대 탱화가 훨씬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고려시대 탱화가 귀족적 취향을 나타내는 것이라면, 조선시대 탱화는 민중적 취향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탱화의 소재는 다양하나 시대에 따라 변천하는 신앙의 양상에 의하여 그 전개 양상도 달라진다. 이 탱화는 지축동의 흥국사 약사전 안에 보관되어 있다. 약사전은 이곳 흥국사의 본전으로 약사여래상을 모시고 있다. 탱화는 바로 이 약사여래상 뒷편에 있어 일명 흥국사 약사후불탱화로 알려져 있는데 정조 16년(1792)에 김여, 상훈, 최순에 의해 제작되었다.

탱화의 그림은 정 중앙에 가부좌한 부처와 그 좌우로 4약사여래가 그려져 있다. 약사여래의 옷 무늬는 매우 화려하게 표현되어 있다. 이 약사여래는 중생의 질병을 구제하고 법락을 준다는 여래이다. 이 약사여래는 주변에 신장을 거느리고 있다. 신장은 좌우에 2신만 그려져 있는데 거칠게 나 있는 수염과 부릅뜬 눈 그리고 입고 있는 옷에서 무시무시한 장군의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다. 이 후불탱화는 200여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보존 상태가 좋으며, 인근에서 쉽게 볼 수 없는 뛰어난 작품이라는 데서 그 문화재적 가치가 크다고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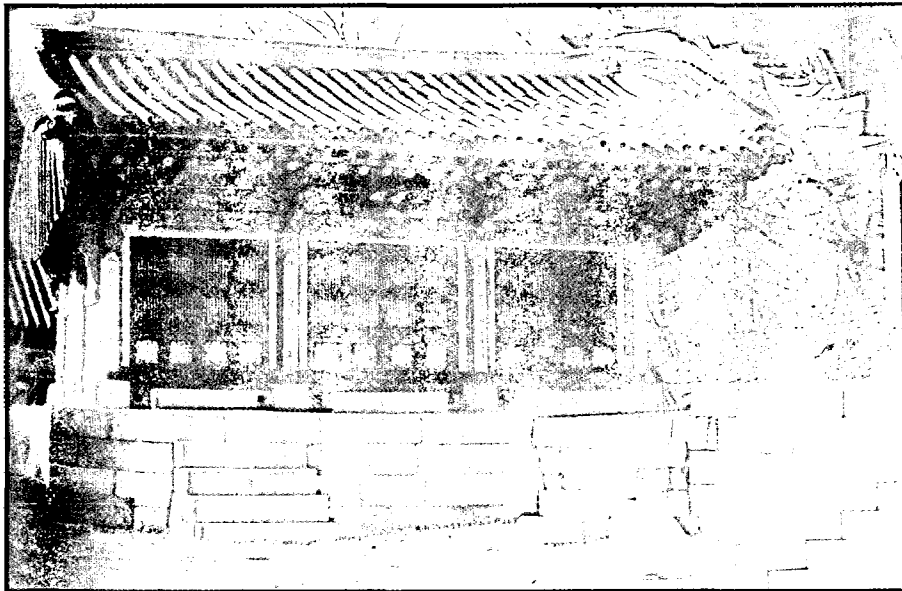
▣ 흥국사에 대한 전설

신라의 이름난 스님 원효대사는 신라의 통일 흥왕을 빌기 위하여 북한산 지금 원효봉의 암혈에서 도를 닦고 있었다. 어느날 암혈의 밖 서편 노고산을 내려보노라니 노고산의 골짜기에는 상서로운 기운이 일고 있었다. 그것을 본 원효는 이상스런 징조를 느끼게 되었다. 그래서 원효는 산을 내려와 그 곳을 찾아보게 되었는데, 그 곳은 들어오는 입구의 산허리를 앞에 두고 사방이 빙 둘러싸인 곳으로 평지의 형태를 이루었는데, 온화한 가운데 기화요초가 자생하고 맑은 샘물이 앞을 흐르는 동산 너머로 북한산을 바라보이는 아름다운 경관에 주악이라고 흘러듯이 소리내어 줄줄이 흐르고 있었다. 원효는 이 곳이 극락의 안식처처럼 아늑한 명지임을 생각하여 불도들이 머물러 기원을 하며 도를 닦음이 좋겠다고 생각되어 암자를 짓게 되었다.

그리고 암자의 이름을 흥서암(興瑞庵)이라 했다. 원효는 이 곳에 머물며 도를 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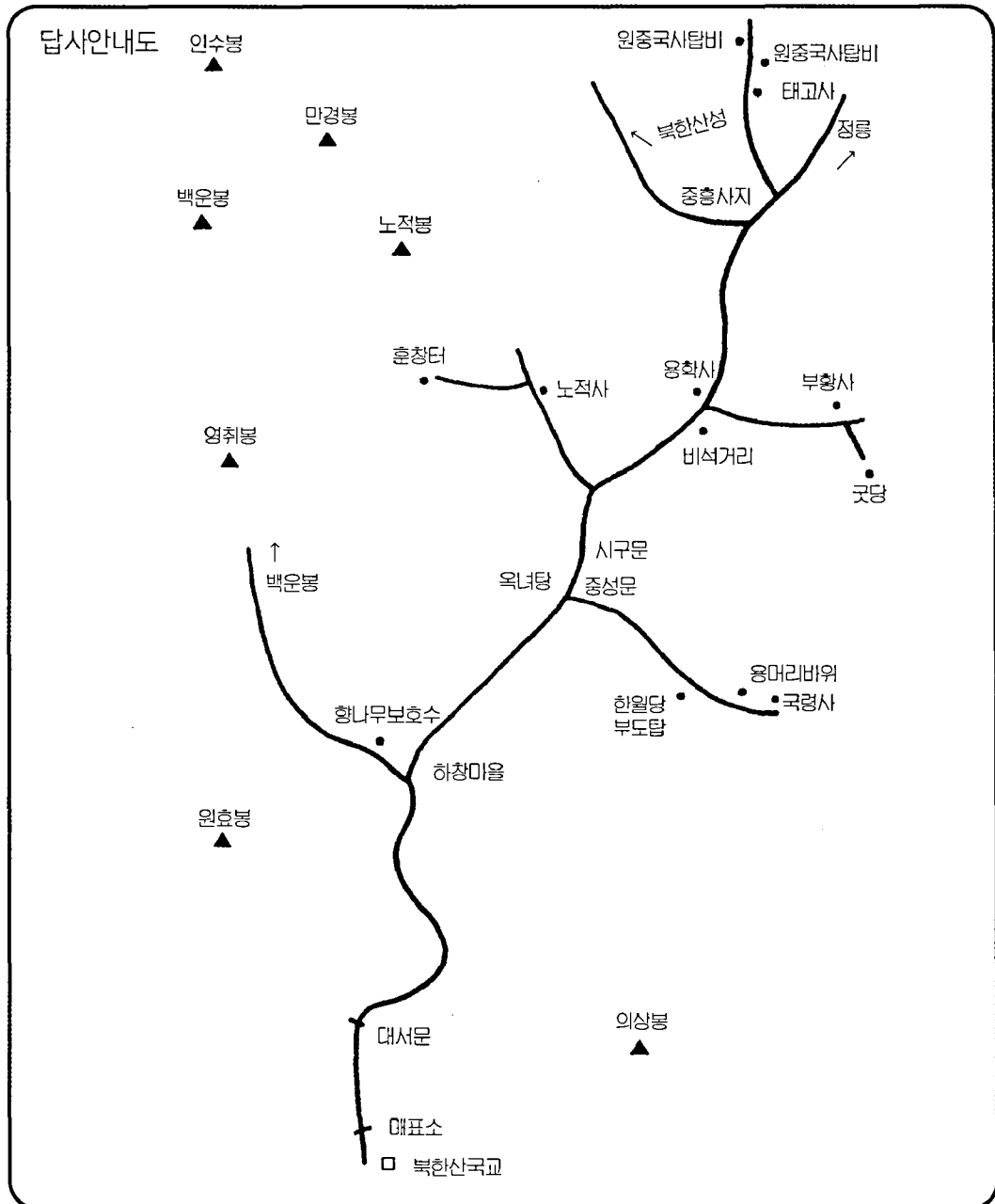
하다가 더 깊은 공부를 해야겠다고 생각하였고, 마침내 중국으로 갈 결심으로 이 암자를 떠나게 되었다고 한다. 중국으로 가던 중 어느 무덤가에 앉았다가 노곤히 잠들었다. 깊은 잠에 빠졌다가 깨어나니 밤이 되었다. 몸이 말라 두리번거리니 희미하게 비치는 달빛에 그릇이 보이기에 손을 뻗쳐보니 물이 담겼더라는 것이다. 그래서 그릇에 담긴 물을 맛있게 마셨다. 이후 곧이 잠들었고 아침에 깨어보니 해골바가지가 옆에 있었다. 어제 저녁 마신 물은 해골바가지에 담긴 빗물을 마셨음이 확인된 것이다.

원효는 해골에 담긴 물을 마셨다고 생각할수록 속이 뒤집혀 올라오는 구토를 일으켜 견딜 수가 없었다. 한편 이런 생각이 들었다. ‘마음은 요상한 것, 어제 저녁은 생각없이 맛있게 마셨었는데……. 아니, 마음 먹기에 따라 이렇게 다르단 말인가!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로다.’ 이렇게 깨닫고 나니 구토가 멈추었다는 것이다. 이런 관계로 유학의 길을 거두었다고 전해지고 있다.



IV. 고양시 문화 유적지

▶ 북한산(北漢山) 역사기행



■ 북한산 답사의 주안점

- ① 행정 구역상 서울시와 우리 고양시의 정확한 경계선을 살펴보아야 한다.
- ② 북한산성의 축조 방법과 산성으로서의 지리·지세적 여건을 답사를 통해 살펴보아야 한다.
- ③ 북한산성의 처음 축조 시기(백제 초기)의 성과 조선조 숙종 당시의 산성을 비교하여 차이점을 살펴보아야 한다.
- ④ 산성 내의 여러 시설물을 살펴보면 사찰의 기능, 역할 그리고 지금의 현 상황을 살펴본다.
- ⑤ 답사 지역의 아름다운 자연 풍경을 살펴보고 우리 고양시의 단풍 모습을 피부로 느껴본다.
- ⑥ 희상봉 정상에 올라 고양시 지역의 지리, 발전 모습 등을 살펴보고 18개의 산성, 산의 우리 명칭을 숙지한다.
- ⑦ 북한산성 내의 전설, 설화를 듣고 북한동 주민들의 풍습, 민속을 이해한다.
- ⑧ 태고사 내의 원종국사부도탑, 부도비 등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서의 중요성과 화려함을 이해해야 한다.

■ 북한산(北漢山)

북한산은 고양시의 남동쪽 끝에 위치하며 대부분의 산등성이와 봉우리를 중심으로 서울특별시와 경계를 이루고 있다. 최고봉인 836.5m의 백운봉을 정점으로 험준한 준령이 이어져 있고 일명 삼각산(三角山)이라고도 한다.

산맥은 멀리 태백산맥에서 이어진 광주산맥의 지맥으로서 동북으로는 도봉산과 인접하고 서남으로는 관악산과 인접하고 있다. 현재 북한산에는 700m 이상의 백운봉, 인수봉, 만경봉(국망봉)이 주봉을 이루며 석질은 중생대 말에 형성된 것으로 보이는 연분홍색으로 화강암으로 이루어져 있다.

오늘날 북한산의 행정구역은 본 시와 서울특별시로 구분되며 본래는 양주군이었다. 1914년 일제가 행정구역을 개편할 때 고양시에 편입된 것이다.

북한산의 지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백운봉에서 시작하여 인수봉으로 이어지고 또, 한 갈래는 만경봉으로 그리고 다른 한 갈래는 영취봉, 원효봉으로 이어진다. 북한산의 22개 봉우리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원효봉, 백운봉, 인수봉, 만경봉, 노적봉, 용암봉, 일출봉, 월출봉, 장군봉, 반암봉, 시단봉, 덕장봉, 복장봉, 보현봉, 문수봉, 나한봉, 나월봉, 증취봉, 용혈봉, 용출봉, 미륵봉이다. 지도상으로 북한산은 북위 37° 37' 37" ~ 39° 30" 와 동경 126° 57' 30" ~ 126° 59" 사이에 포함된다. 산 능선의 총 길이는 10.39km로 그중 7km는 해발 500m 이상 지역에 위치한다.

■ 북한동(北漢洞) 마을 개관

경기도 고양시 북한동은 고양시의 정동(正東) 방향에 있는 법정동의 명칭으로 1993년 현재 행정구역상 1개의 법정동으로

형성되어 있다.

북한동의 위치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북한동의 동쪽으로는 서울시 도봉구와 경계하고 있으며 서쪽으로는 은평구와 고양시 효자동, 남쪽으로는 서울시 은평구와 종로구, 북쪽으로는 고양시 효자동과 양주군 장흥면과 경계하고 있다.

이 중에서 고양시 북한동과 서울시와의 경계는 인수봉 한 가운데를 지나 백운봉에서 우이동으로 내려가는 길목인 깔딱고개에서 만경봉 남쪽 성곽으로 이어지고, 다시 북한산성 성곽을 따라 계속 남동쪽으로 내려가다가 대성문이 있는 보현봉에서 다시 문수봉 정상으로 지나 나한봉·중취봉을 거쳐 의상봉 밑의 대서문에 이어지는 산성의 성곽을 그 경계로 삼고 있다. 따라서 쉽게 타 지역과 북한동의 경계를 구분해 보면 북한산성의 성 안은 북한동이 되고 성 밖은 서울시·양주군·고양시 효자동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서북쪽 성곽의 일부는 효자동이 되는데 효자동에 포함되는 지역은 대서문 북쪽 계곡의 성곽아래 하천이 북한동과 효자동의 경계되는 곳이므로 수문(水門)에서부터 영취봉까지의 지역이다.

지금의 북한동 마을의 취락 구조가 형성되기 이전에는 북한동이 크게 의창(대성암 주변), 중창 또는 훈창(지금의 노적사 부근), 하창(중성문~대서문 사이)으로 구분하였다. 북한동에는 90년 12월 통계로 72가구, 274명의 주민이 살고 있다.

■ 북한산성(北漢山城)

1. 개관

북한산성은 고양시 북한동 1-1번지에 위치하며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162호로 지

정되어 있다. 이 산성은 삼국시대 백제시대 초기에 처음 축성되어 고려시대, 조선시대에 걸쳐 수없이 증·개축이 있어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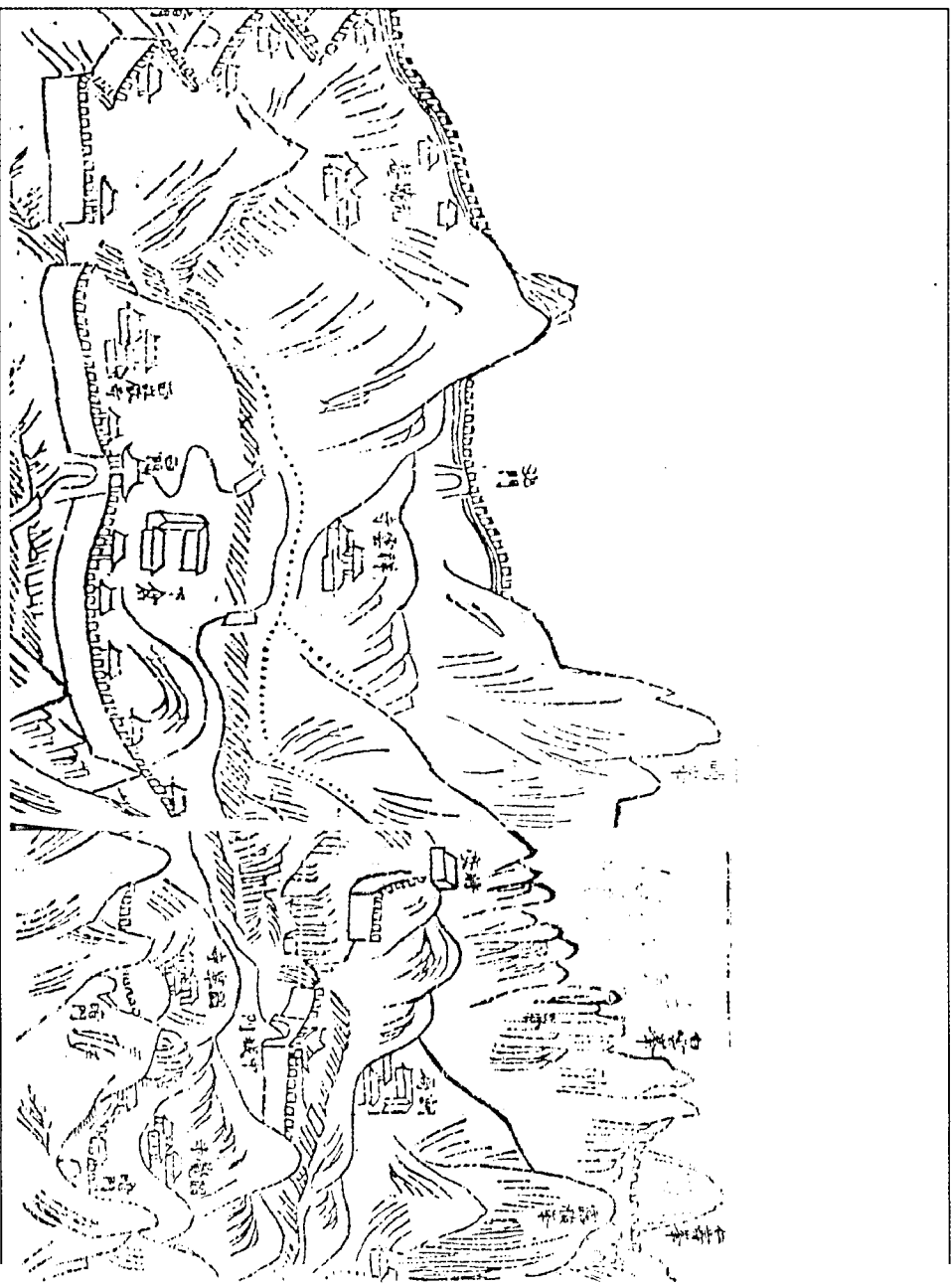
현재 남아 있는 산성의 대부분은 조선조 숙종 당시에 쌓여진 것으로 전면적 168,989평에 이르며 성벽의 높이는 3~5m, 총 길이는 9.24km에 이르고 있다.

현재 산성은 2종의 석성으로서 재질은 대부분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화강암이며 외곽의 산성에는 성문 13개(12개의 성문과 수문 1개)와 성내의 중성문 그리고 시구문, 암문, 위문 등 15개의 성문 일부와 유적지가 남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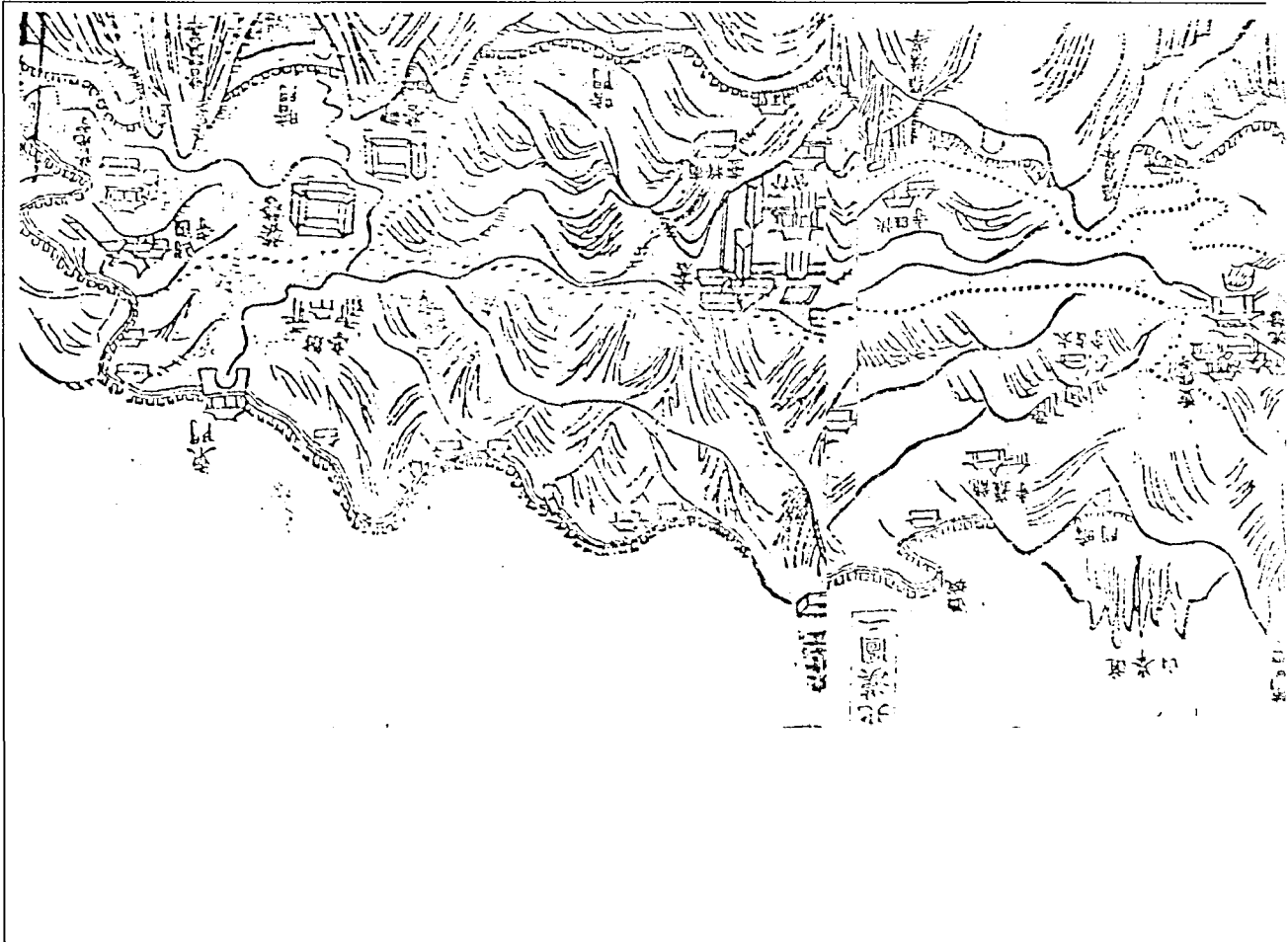
2. 역사

백제가 하남 위례성에 도읍할 때 도성을 지키는 북방의 성으로 개루왕 5년(132)에 축성되었다. 이때 백제의 주력군이 이 성에서 고구려의 남진 세력을 막았다. 그후 근초고왕(近肖古王)의 북진정책에 따라 북정군(北征軍)의 중심 요새가 되었다. 그러나 개루왕 21년(475)에 강력한 고구려군은 북한산성을 7일간 공격하여 치열한 공방전 끝에 성이 함락되자 백제의 도성도 유린되어 백제 개루왕이 고구려군에 잡혀 살해당했다.

이로 인하여 백제는 공주(公州) 웅진성(熊津城)으로 도읍을 옮기고 백제와 신라는 고구려 남진정책을 연합전선으로 막았다. 그러나 진흥왕 14년(553)에 신라는 백제의 영토였던 한성지역을 신라의 영토로 빼앗았다. 진평왕 25년(602) 8월 고구려 장군 고승(高勝)이 신라의 북한산성을 포위 공격하여 신라 진평왕이 1만의 군사를 거느리고 구원하였으며 무열왕 8년(610) 5월 고구려 장군 뇌음신(惱音信)이 말갈 장군 생개와 더불어 북한산성을 20일간 포위 공격하여



▲「북한지(北漢誌)」에 실린 북한도
이 지도에 보이는 건물 중에 현존하는 것은 없으며
6·25이후 중건된 건물만 남아있다.
여기에 보이는 성벽은 우리나라 최대 규모이며
속종 년간에 완성되었다.
지도제작자 : 정응스님



치열한 공방전이 전개되었다. 이때 북한산성 성주 동타천(冬陀川)은 성내 주민을 합해 2,800명의 인원으로 필사 결전을 감행하여 성을 방어하였다.

당시 신라는 당나라와 연합하여 백제를 멸망시킨 후 백제 부흥군이 일어나 곤란에 빠졌던 시기로 만일 북한산성이 고구려에서 함락되었다면 신라의 삼국통일 지역이 바뀌었는데 이 싸움을 삼국사기는 크게 기록하고 있다.

1232년 고려 고종 때는 몽고군과의 격전이 있었고 고려 현종 글안 침입을 피하여 이성에 고려 태조의 신궁(神宮)을 옮겨왔던 일도 있으며, 이때 성의 증축이 있었고 1387년 고려 우왕 때 개축 공사도 있었다. 조선 시대에 와서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등 외침을 자주 당하자 도성의 외곽성으로 축성론으로 축성론이 일어나고 1711년인 숙종 37년 왕명으로 대대적인 축성 공사가 시작되어 7620보(步)의 석성(石城)이 완성되었다.

성의 규모를 보면 대서문(大西門), 동북문(東北門), 북문(北門) 등 13개의 성문과 시단봉상(柴丹峯上)에 동장대(東將臺), 나한봉(羅漢峯), 동북쪽에 남장대(南將臺), 중성문(中城門), 서북쪽에 북장대(北將臺)가 있었고 중흥사(重興寺)는 136간의 행궁(行宮)이 있었으며 140간의 군창(軍倉)이 있었다. 성내에 승군(僧軍)도 배치하였던 것으로 중흥사는 136간의 대사찰이었다. 그리고 99개소의 우물과 26개소의 저수지가 있다.

숙종 때에 군제(軍制)를 보면 수성대장(守城大將)에 영의정이 겸하고 훈련, 어영(御營), 금위(禁衛)의 삼군문(三軍門)이 모두 배치되었다. 지금은 대서문이 남아 있고 성곽의 여장은 허물어졌으나 성의 모습은 완전히 보존되어 있다. 최근 대남, 대동문이 복원되었다.

3. 주요 유적지 및 명소

■ 대서문(大西門)

높이 11척, 넓이 13척의 무지개 형태의 큰 문이다. 축성 당시에는 성루가 있었으나 중간에 소실되어 1950년대에 복원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 문을 경계 서울시와 고양시가 경계하며 그 위치는 의상봉과 원효봉 사이이며 가장 서쪽 구릉지에 해당한다. 성벽의 기단부는 다른 성벽에 비해 매우 규모가 크며 출입구는 타원형으로 되어 있다. 친정은 나무를 사용하고 여장은 화강암을 깎아 만든었다.

■ 하창 향나무

하창 주차장 윗부분에 위치하고 있는 보호수 나무로 현재 시 지정 나무 5-18-1호로 지정되어 있다. 총 높이 7m, 둘레 2m의 규모이며 수령은 350년에 달한다. 아주 옛날부터 나무에 상처를 내면 마을에 큰 변고가 생긴다고 한다.

나무의 면적 80㎡주위에는 예전 북한산성의 여러 창고 중 가장 아래쪽에 해당하는 창고가 있다하여 하창이라 부르고 있다.

■ 중성문(中城門, 重城門)

중성문은 대서문에서 정동쪽으로 약 2km 가량되는 곳에 위치하고 있는데 북한산성의 한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다. 중성문은 외성과는 구분되는 내성의 하나로 좌·우로 높은 성벽이 축조되어 있다. 중문성 역시 축조방법은 대서문과 거의 비슷하여 0.8m 높이의 여장이 설치되어 있다. 출입 홍예의 총 높이는 3.3m, 폭은 2.7m 가량이다.

■ 시구문(屍軀門)

시구문은 중성문 좌측 10m에 위치하고 있으며 중성문에 비해 규모는 매우 작은 편

이다. 옥녀탕 위편의 시구문은 현재 무너져 출입은 불가능한 상태이다. 보통 이 문은 성안의 시체들이 이곳을 통하여 밖으로 나갔다고 하여 붙여진 명칭이다.

■ 옥녀탕

옥녀탕은 시구문 아래쪽 계곡에 위치한 소(沼)의 이름으로 맑은 물과 주변의 기암괴석 등으로 경치가 아름다운 곳이다. 또 주변에는 대규모의 폭포수가 굉음과 함께 떨어져 절경을 이룬다. 본래 옛부터 이곳에 하늘에서 내려온 옥녀가 목욕을 한 곳이라 하여 옥녀탕이라 불렀는데 얼마전까지 이 곳을 경비하던 군인들이 목욕을 했다고 한다.

■ 노적사(露積寺)

고양시 북한동 331번지로 중성문 안쪽 노적봉 아래에 위치하고 있다. 형재 대운정, 삼성각 등을 갖추고 있으며 옛 북한지의 기록을 보면 1712년 성능스님에 의해 창건된 것이다. 당시에는 진국사라 불리는데 완전히 소멸되어 1960년 10월 여러 승도들이 합심하여 건립하고 노적사라 하였다. 대웅전은 정면 3칸, 측면 2칸의 팔각 기와집인데 1980년에 조성된 것이다. 중앙에는 삼존불과 후불성화가 위치하고 있다. 경내에는 미륵불입상과 석사자상이 있다.

■ 훈련도감 유영지(訓練都監留營地)

- 시 대 : 조선시대
- 소재지 : 북한동
- 규 모 : 약 5천여명
- 재 료 : 화강암 및 자연석

이 훈련도감 유영지는 북한산성 내 노적

사 부근 노적봉(露積峯) 아래에 위치하고 있다. 현재 남아 있는 건물은 없으며 총 길이 200m, 높이 7m에 이르는 긴 석축과 각 건물에 사용되었던 주춧돌, 기단석, 대석과 우물, 연못자리 등이 남아 있다. 이중건물 자리는 노적봉과 북장대(北將臺) 사이의 능선 아래에 많이 발견되고 있다. 주축은 4각의 화강암으로 일정한 간격을 두고 8개 정도가 남아 있으며 간혹 원형의 주초석도 발견되고 있다.

이 유영지는 지금까지 3곳의 우물이 발견되었는데 자연석으로 보조석을 만들어놓아 지금까지도 물이 고여있는 상태이다. 건물 주춧돌 우측으로는 가로 7m, 세로 9m 규모의 연못이 현존하고 있는데 화강암 돌을 4각으로 깎아 쌓은 흔적이 뚜렷하게 남아 있다.

배수구는 왼쪽으로 들어와 왼쪽 아래로 흘러 내려가게 만들어져 있다. 화강암의 긴 석축은 모두 3단계로 쌓여져 있다. 가장 아랫부분의 3m 가량은 화강암의 돌을 투박하게 다듬어 서로 엇갈리게 쌓았고, 그 윗부분은 정교하게 다듬어진 장방형의 화강암으로, 그리고 가장 윗부분은 자연석의 잔돌로 쌓은 것이 특징이다.

훈련도감은 조선조 5군영의 하나로 도성(都城)의 수비를 맡았던 관청이다. 이 훈련도감 유영지를 달리 군사훈련을 하였던 곳이라 하여 훈국(訓局)이라 하기도 한다. 훈련도감은 임진왜란후 오위(五衛)의 군제가 무너지면서 생겼다가 1882년에 폐지되었다.

■ 백운동문 명문(白雲洞門銘文)

- 시 대 : 조선시대
- 소재지 : 북한동
- 규 모 : 가로 4.2cm, 세로 150cm
- 재 료 : 화강암에 음각

이 명문은 북한산 하창(下倉) 마을에서 정릉 방향으로 오르는 등산로 주변에 위치하고 있다. 즉, 중성문(中城門)을 지나 중흥사지(重興寺址) 쪽으로 오르는 계곡, 화강암 바위에 음각되어 있는 것이다.

명문이 새겨진 바위는 하나의 거대한 암석(岩石)으로 가로 7m, 세로 5m에 이르고 있다. 이 명문은 언제 누가 쓰고 새겼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1745년 성능이 지은 '북한지(北漢誌)'에 그 기록을 찾을 수 있어 그 이전부터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명문은 해서체로 '백운동문(白雲洞門)'이라 새겼는데 한번에 힘차게 써내려간 느낌을 준다. 글씨간의 각 간격으로 8cm 정도이다. 이 암각 명문은 이 지역의 지명을 표시하여 주는 표석(表石)으로 사용된 듯하다.

■ 비석거리 선정비(善政碑)

비석거리는 노적사에서 태고사로 올라가는 등산로 부근을 부르는 지명으로 현재 용학사 아래 지점이 해당된다. 이곳을 비석거리라 부르는 것은 이곳에 약 30여 개의 선정비가 혹은 쓰러지거나 세워져 있기 때문에 유래한 것이다. 현재까지 밝혀진 바에 의하면 이곳에는 약 50여 개의 비들이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지금은 많이 훼손되었으며 중앙에 무쇠비에 대한 구전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

■ 북한산성 승도절목명문(僧徒節目銘文)

- 시 대 : 조선시대
- 소재지 : 북한동
- 규 모 : 가로 226.5cm, 세로 107.5cm
- 재 료 : 화강암

이 명문은 북한산 용학사(龍鶴寺) 아래 비석거리내 화강암 암벽에 새겨져 있다. 명문의 기록을 보아 조선조 철종 6년(1855)에 만들어진 것임을 알 수 있다.

현재 모두 325자로 되어 있는 이 명문의 내용은 19세기 중엽 북한산성내의 사찰(寺刹)이 파폐하고 승도가 흩어짐이 승병대장인 총섭(總攝)의 책임인 바 그의 임용시 폐단을 없애기 위한 규칙을 새겨놓은 것이다.

'조선금석총람(朝鮮金石總攬)'에 수록되어 있는 승도절문 번역문을 보면,

"북한산성은 국가 보장의 重地이다. 사찰을 창건하고 승도를 募入하는 것이 어찌 헛되이 그리는 것이겠는가? 즉, 산성을 쌓아 수호하려는 뜻이거늘 최근에 승도가 잔멸하고 사찰이 파폐하여 朝夕을 보장하지 못한 것은 어떤 연유에서인가? 대개 승도들이 질고 마른 것을 꺼리지 않고 힘을 다해 奉公하는 것은 장수에게기대하는 바로서, 오직 總攝(산성 내 승군의 우두머리인 八道總攝) 한 사람에게 달려 있다. 그런데 매번 그를 差代할 때에 城外僧으로 임명하려는 폐단이 比比하니, 이로 인해 승도들은 성을 고수하려는 뜻없이 사방으로 흩어져 가게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지금 總攝을 교체할 때를 당하여 만약 定式을 밝게 펴서 永久함을 도모하지 않는다면 그 어찌 승도들을 위로하여 성을 수호하는 책무를 다하게 하는 것이겠는가? 하물며 受敎定式은 정중할 뿐 만이 아닌 것이니 그 받드는 것을 어찌 감히 소홀히 할 수 있겠는가? 이번엔 節目을 지어 바위 위에 새기니 이에 의해 준행할 것이며 결코 이루어진 법령을 어기지 말 것이다.

1. 총섭이 비어 差代할 때에는 이번의 예에 의거하여 먼저 缸痛(비밀 무서를 넣거나 하는 대나무로 만든 통)을 받고 다시 圈點을 행한 후에 점수의 많음으로써 시행하여 공평무사한 뜻을 알게할 것이다.

1. 이번에 이 정식을 천명한 후에 만약 城外僧중에 그 임명을 도모하는 자가 있다면 성내의 승도들이 수교 정식과 이번의 절목을 들어 영문

에 소송하여 그를 어기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 이번 정식은 진실로 승도들을 위해 보장하려는 뜻에서 나왔으므로 충섭은 이 마음을 알며, 寺弊는 바로잡고 奉公은 극진히 노력하여 앞으로 실효가 있게 할 것이다.

을묘년(1855) 5월 일 寺洞 金 等

이 금석문 명문은 당시 불교계의 단편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내용이라 할 수 있다.

■ 용학사(龍鶴寺)

비석거리 윗편의 장군봉 아래에 위치하며 현재 대웅전과 요사채, 대웅전, 석탑(5층)과 신장상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사찰 요사채 뒷편 화강암에 암각되어 있는 신장상은 부리부리한 눈, 역동적인 자세, 바람에 휘날리는 듯한 옷자락 등이 아주 뛰어난 솜씨를 보여 주고 있다. 사찰의 여보살 증언에 의하면 옛날 대장들이 말을 타고 이 부근을 지날 때 갑자기 말발굽이 땅에서 떨어지지 않을 때 이 신장상 앞에서 예의를 표하면 무사히 지났다고 한다. 그러나 지금은 시멘트로 전부분을 발라 옛 모습을 그대로 볼 수 없어 안타까울 따름이다.

■ 부황사지(扶皇寺址)

- 시 대 : 조선시대
- 소재지 : 북한동
- 규 모 : 2천여명
- 재 료 : 화강암

부황사지는 용학사 건너편 휴암봉(鵞巖峰) 아래에 위치하고 있는 사지로 현재 건

물이 남아 있는 것은 없다. 본래 부황사는 봉은사(奉恩寺)의 말사(末寺)로서 북한산성 축조후 산성의 수비를 위해 창건된 12개 사찰 중의 하나이다.

부황사는 조선조 숙종년간의 1717년 심운대사(尋雲大師)에 의해 창건되었다. 처음에는 부왕사(扶旺寺)로 창건되었으나 그후 부황사(扶皇寺)로 불리우게 되었다. 1939년 당시 주인인 상덕(尙德)스님이 영산전과 별당을 건축하였다고 하나 6·25전쟁으로 모두 파괴되고 현재는 그 터만이 남아 있다.

‘북한지(北漢誌)’에 의하면 부황사는 총 111간의 큰 사찰로 기록하고 있는데 다른 곳에서는 보기 드문 사다리꼴 입주형초석(立柱形礎石)이 대웅전 앞쪽에 위치해 있다. 초석의 윗부분은 십(十)자형으로 파여 있는데 문루(門樓)가 있던 곳으로 여겨지며, 현재 문루초석은 모두 12개가 남아 있다.

문루와 대웅전 사이에는 앞면에 ‘부황사(扶皇寺)’라 쓰여진 표석이 세워져 있는데 현재 높이 113cm, 폭 81cm, 두께 30cm의 규모이다. 이밖에 부황사지 내에는 부도탑, 대웅전터, 석축 등이 있다.

■ 용학사 암각신장상(巖刻神將像)

- 시 대 : 조선시대
- 소재지 : 북한동
- 규 모 : 가로 312cm, 세로 368cm
- 재 료 : 화강암

북한산성내 용학사 경내에 있다. 암각신장상은 용학사 요사채 뒷편의 화강암석 전면(前面)에 걸쳐 음각되어 있다. 화강암벽의 편편한 면에 새겨진 신장상은 모두 4구로 왼편으로부터 첫 번째와 세 번째의 신장상이 거의 비슷한 위치에 배치되어 있으며

두 번째, 네 번째 상은 그보다 1m 가량 아래에 배치되어 있다.

4구의 신장상은 모두 옆으로 얼굴을 향하고 있는데 공통적으로 부리부리한 눈, 역동적인 자세, 바람에 휘날리는 옷자락 등이 아주 뛰어난 솜씨임을 알게 해준다. 또 몸이 매우 비대하여 안정감이 드러나며 옷에서 연결되어 나온 옷자락이 길게 이어져 부드러운 곡선을 만들어내고 있다. 특히 두 번째 신장상에서는 귀면(도깨비의 얼굴)이 허리춤 위에 뚜렷하게 표현되어 있어 그 가치를 더욱 높이고 있다.

1991년 당시 이 지역 문화유적조사를 맡은 서울대박물관은 이 신장상의 제작 시기를 고려시대로 추정한 바 있다.

■ 중흥사지(重興寺址)

중흥사지는 장군봉 아래 태고사와 용학사 사이에 위치한 사찰토로 처음 창건 연대는 미상이며 고려말의 고승인 보우가 중수하였다. ‘북한지(北漢誌)’에 의하면 1713년 축성시에는 30여 칸의 퇴락한 사찰이었으나 증축하여 1715년(숙종 41) 136칸의 큰 절로 만들었다 한다. 이 중흥사는 북한산성의 수비를 위한 승려군의 주둔처로 창설된 10개의 사찰, 2개의 암자를 모두 관장하였으며 팔도도총섭겸 승대장 휘하의 승영이 설치되었다.

그후 중흥사는 만세루를 설치하여 1828(순조 28) 대웅전과 만세루를 중건하여 일제 초부터 서울-개성 부근의 유수한 사찰로 존속하였으나 1915년 경에 화재로 소실되었다. 현재 당시의 긴 축대와 도자기편 등이 남아 있으며 경기도 지정 문화재로 지정되어 보호되고 있다.

■ 태고사(太古寺)

태고사는 구암봉 아래 중흥사 뒷편에 위치한 사찰로 고려말인 14C 후반 명승 보우에 의해 창건된 것으로 처음에는 태고암으로서 중흥사 소속이었다. 구암봉 기슭의 긴 계단을 오르면 2단의 석축이 나오고 그 위에 서향의 대웅전과 원증국사부도탑비(보물 611호)를 모신 비각이 있다. 비각의 왼쪽으로는 돌로 지은 산신각이 있다. 산신각 뒷편에는 노적, 만경, 백운봉과 어우러져 멋진 모습을 가진 부도탑 3기가 남아 있다.

■ 태고사 원증국사탑비 1기 (太古寺 圓證國師塔碑 1基)

- 지 정 번 호 : 보물 제611호
- 지정년월일 : 1977년 8월 22일
- 시 대 : 고려시대, 1385년
- 소 재 지 : 북한동
- 소유 · 관리자 : 태고사
- 규 모 : 전체높이 3.42m
- 재 료 : 화강암

현재 북한산 태고사 법당 우측에 목조(木造)로 비각을 세워 보존하고 있다. 넓직한 장방형의 지대석(地臺石) 위에 귀부(龜趺)를 안치하고, 그 위에 비신(碑身)을 세웠으며 꼭대기에 이수를 놓은 통일신라시대 이래 고려시대까지 유행된 일반적인 탑비 형식(塔碑形式)이다.

큼직한 귀부의 뒷면에는 6각의 귀갑문(龜甲門)이 갈쭉하게 조각되었고, 용두화(龍頭化)한 귀두(龜頭)는 뒷부분을 향하였으며 두 눈을 부리부리하게 뜨고 입도 크게 벌렸으며 옆으로 벌려 이빨만 보인다. 모든 부분의 조각은 형식화에 이르고 있다. 뒷편

윗부분에 비좌(碑座)를 마련하고 석비를 세웠는데 아래쪽 끝을 꽃는 형식이다.

비신(碑身)은 장방형으로 앞면에 본문을 새기고, 뒷면에는 음기(陰記)가 있으며 앞면 윗부분에 원증국사탑명(圓證國師塔銘)이란 6자의 제액(題額)이 있다. 이수는 밑면에 낮은 1단의 받침이 있고 그 밖으로 앙련문(仰蓮文)이 둘러졌으며 위에는 운룡(雲龍)이 새겨 있다. 현재 전체 높이 3.42m, 비신 높이 2.27m, 옥개석(屋蓋石) 높이 0.55m의 규모이다.

이 석비는 고려말의 명승인 보우대사(普愚大師)의 부도탑비(浮屠塔碑)로서 대사의 출생부터 입적에 이르기까지의 내력을 적은 것이다. 이 비문에 의하면 원증국사의 이름은 보우이며 이르기까지의 내력을 적은 것이다. 이 비문에 의하면 원증국사의 이름은 보우이며 호는 태고(太古), 속성은 홍(洪)씨이다. 본관은 홍주(洪州)로서 아버지인 연(延)씨, 어머니는 정(鄭)씨이며, 충렬왕 27년(1301)에 출생하였다. 13세에 출가하여 회암사(檜巖寺)의 광지선사(廣智禪師)를 사사(事師)한 후 많은 사찰을 다니면서 수학에 전념하였고 영령사(永靈寺)에 개당(開堂)하여 금란가사(金爛袈裟)·심향(沈香)·불자(佛子) 등을 하사하였다고 한다.

공민왕이 광명사(廣明寺) 원융부(圓融府)를 세우자 왕사(王師)가 되었다가 신돈의 횡포를 미워하여 소설사(小雪寺)로 은거하였으며, 이후 그 곳에서 우왕 8년(1382)에 입적하였다. 태고사는 충혜왕 즉위 2년(1341)에 대사가 삼각산 중흥사(中興寺)에 주석(住錫)하면서 창건한 것이다. 비각은 석주(石柱)만 남아있던 것을 1979년에 복원한 것이다.

■ 태고사 원증국사탑(太古寺圓證國師塔)

- 지 정 번 호 : 보물 제749호
- 지정년월일 : 1983년 12월 27일
- 시 대 : 고려시대
- 소유 · 관리자 : 태고사
- 규 모 : 전체높이 4m
- 재 료 : 화강암

이 부도탑은 태고사 북쪽 봉우리 중턱에 서 있는데 대웅전 옆에 서 있는 태고사원 증국사탑비는 보물 제611호로 지정되어 있다. 탑비 지정 당시 이 부도는 도굴 때문에 쓰러져 있어 원형을 알 수 없는 상태였다고 하며, 1980년 10월에야 겨우 각 부재(部材)를 수습 복원한 것이다.

부도는 2단의 넓직한 축단(蹙壇) 중앙에 건조되어 있는데 하대(下臺) 위에 8각의 중대석(中臺石)을 놓고, 다시 그 위에 8각의 상대석(上臺石)을 놓아 탑신석(塔身石)을 안치했다. 탑신은 원형이지만 상부는 좁다. 8각의 옥개석(屋蓋石)은 모서리의 전각(轉角)마다 귀꽃이 장식되어 있는데, 그 사이에 장막을 돌린 시문(施文)이 고려시대 특유의 수법이다. 그 위에 편주형(扁珠形)과 보개 등 상륜부(上輪部)가 얹혀 있는데, 보개는 옥개석과 같은 수법의 형식이다. 현재 옥개석의 일부가 부서졌을 뿐 각 부재는 완전하다. 앙복련(仰茯蓮)은 대칭적이며 중대석 가면의 화문(花文)과 함께 고려시대 후기의 솜씨를 보여준다. 전체적으로 단정하고 하대(下臺)가 넓어서 안정감이 있으며 문양과 조식(彫飾)이 고려 후기의 특징이 두드러진다.

탑비에 의하면 원증국사는 우왕 8년에 입적(入寂)하였고 11년에 입비(立碑)를 하였으니 이 부도의 건립 하한을 우왕 11년(1385)으로 보아도 될 것이다.

■ 국령사(國寧寺)

국령사는 의상봉 남쪽에서 동북으로 열린 계곡의 윗쪽에 위치하며 북한산상 축성 후 승 청철, 철선이 창건했다고 한다. 본래는 86간의 사찰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현재는 부도탑과 전설이 담긴 용머리 바위만이 남아있을 뿐이다. 한편 사찰 입구에는 한월당 대선사의 부도탑이 남아있다.

■ 북한산성 행궁지(行宮址)

- 시 대 : 조선시대
- 소 재 지 : 북한동
- 소유관리자 : 고양시
- 규 모 : 약 3천여평
- 재 료 : 화강암

이 행궁지는 태고사에서 대성문(大成門)으로 오르는 등산로 우측에 위치하고 있다. 현재 행궁지는 땅위로 드러나 있는 건축물은 현존하지 않으며 건립 당시의 것으로 보이는 화강암 재질의 석축과 우물터, 그리고 약 3천여평에 이르는 지(地)만이 남아 있을 뿐이다.

행궁은 유사시 왕의 행재소(行在所)가 되는 곳으로 북한산성이 축성을 시작하기 한 달전인 숙종 37년 5월 25일에 당시 산성의 공사를 주관하던 감동당상(監童堂像)인 김우항(金宇杭)에 의해 건립이 제기되었다. 동왕 5월 왕의 윤허(允許)를 얻어 8월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다. 그러나 바위가 많고 지세가 험하여 공사에 큰 어려움을 겪자 조정에서는 영건청(營建廳)을 두고 호조판서 김수항과 공조판서 삼천동(三千洞)에서 얻어 지었는데 동왕 37년 10월까지의 내전의기와 외전(外殿)의 정조9정(定礎)가 공사에 들어갔다. 다음해 2월부터는 다시

내전의 창호(窓戶)·청판(廳板)·토역(土役) 등의 수장공사(修裝工事)와 외전의 입주상량(立柱上樑) 등의 일이 순서대로 진행되어 순종 38년 5월 낙성(落成)을 보게 되었다.

당시의 이 행궁 규모는 내전이 좌우 상방(上房) 각 2칸, 대청이 6칸, 사면퇴(四面退) 18칸을 합한 28칸이었으며, 이정 외에 또 좌우각방(左右閣房)·청·대문·수라소(水喇所) 등의 부속 건물이 35칸이나 되었다. 외전 역시 내전과 같은 규모의 정전 28칸, 내행각방 12칸을 위시한 루(樓)·청·고간(庫間)·대문 등 총 33칸의 부속 건물이 있었다. 이 모든 건물을 합치면 130여칸에 달하는 많은 건물들이 즐비하게 있어 그 위용을 자랑하였다.

그후 일제시대까지 그 건물이 보존되어 있었으나 언제 지금과 같은 모습의 터만 남게 되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다. 다행히 일제시대에 찍힌 사진이 남아 있어 당시의 모습을 알 수 있을 뿐이다.

■ 북한산 3·1운동 암각문

- 지 정 번 호 : 향토유적 제32호
- 지정년월일 : 1993년 4월 10일
- 시 대 : 근대(近代)
- 소 재 지 : 북한동
- 소 유 지 : 국유
- 관 리 자 : 고양시
- 규 모 : 가로 150cm, 세로 270cm
- 재 료 : 화강암

이 암각문은 북한산의 주봉인 백운봉 정상 화강암 바위에 새겨져 있다. 기록문은 독립운동가인 정재용이 3·1운동의 역사적 사실을 후세에 전하기 위하여 가로 150cm, 세로 270cm 정도의 평평한 바위 위에 ‘경

천애인'이란 네 글자를 새기고, 그 안에 "독립선언문은 기미년 2월 10일 최남선이 작성하였으며 3월 1일 탑동공원에서 자신이 독립선언만세를 도창했다."는 내용이 정자체로 새겨져 있다.

이 글을 새긴 시기 및 그 목적에 관하여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3·1운동 이후로 추정되며 그 목적은 거족적 독립만세운동의 역사적 사실을 후세에 영구히 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 글을 새긴 정재용은 1886년 해주에서 출생한 독립운동가이다. 그는 1919년 2월 19일 해주에서 상경하여 3·1운동 전날밤 서울역에서 100장의 독립선언서를 원산교회로 송달하고 남은 한 장을 가지고 있다고 탑동공원에서 이를 낭독하여 3·1운동의 불을 당겼던 장본인이다.

그후 해주로 귀향하여 독립을 하던 중 1920년 1월 21일 일제에 검거되어 2년 6개월의 형을 언도받고 평양감옥에서 옥소를 치렀으며 1976년 91세를 일기로 사망하였다. 이듬해인 1977년 건국포장과 1990년 건국훈장 애국장을 받았다.

4. 마을풍습

■ 북한산 도당굿

북한동의 도당굿은 마을의 안녕을 비는 의미에서 3년에 한 번씩 음력 4월 초하루

에 지낸다고 한다. 경비는 동네에서 집집마다 형편에 따라 주렴하고 음식을 준비하는데 도가는 몇칠전에 동네에서 정하고 음식을 만드는 사람은 몸을 정갈히 하며 부정한 것을 보지 않는다. 도당굿이 시작되기 며칠전부터 동네에서 사람이 나가는 것(大西門 밖)은 허락해도 들어오는 것은 불허했다 한다. 굿은 아침 10시에 시작하여 저녁 5시에 끝이 난다고 한다.

굿에 사용하는 제물로로는 흰 통돼지와, 과일, 떡 등이며 굿당 안에는 초상화가 모셔져 있다. 굿이 끝나기 전 대서문에서 마지막으로 굿판을 벌리고 굿이 끝나면 마을 사람 전체가 음식을 나누어 먹는다.

굿은 전통적인 12거리를 행하고 지금은 효자동에서도 뜻이 있는 사람은 참석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서울 사람도 제물을 내놓고 참석하고 있다.

■ 북한산 산신제

북한동 산제는 음력 8월 초하루와 음력 10월 초하루 두 번 지낸다고 한다. 제물로는 특이하게 동네에서 황소를 잡아 통째로 쓰고 있다고 하며, 제주와 집꾼(음식 및 도구를 나르는 사람)은 나이와 그 날의 운수를 맞춰서 절의 노스님이 뽑는다고 한다.

Ⅳ. 고양시 문화 유적지

24. 34대 고려 공양왕 고릉(高麗恭讓王 高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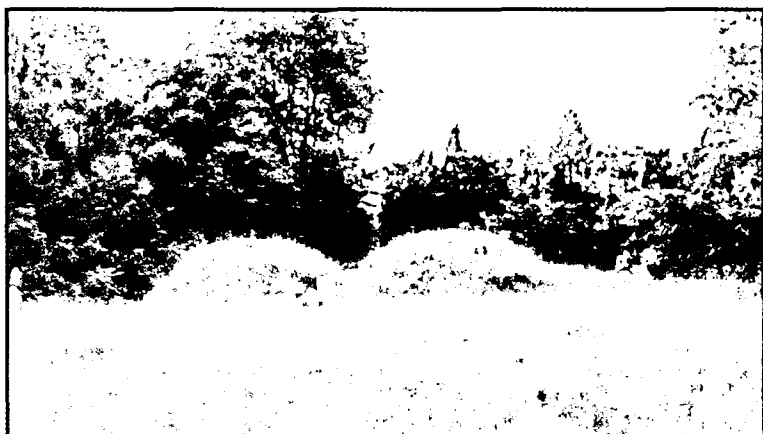
- 지정번호 : 사적 제191호
- 지정년월일 : 1970년 2월 28일
- 시 대 : 조선 태조 3년(1394)
- 소 재 지 : 덕양구 원당동 왕릉골마을
- 소 유 지 : 국유
- 관 리 자 : 이흥영

고양시에 유일하게 남아 있는 고려시대 능인 고릉은 1970년 사적으로 지정되었다. 이 능은 고려의 마지막 왕인 34대 공양왕과 순비 노씨(順妃盧氏)의 능이다. 폐가입진(廢假立眞)의 명분을 내세워 창왕(昌王)을 폐위(廢位)시킨 이성계(李成桂) 일파에 의하여 옹립되었던 만큼 그들 앞에서 바로 보좌에 앉지 못하였다는 평이 있을 정도로 허위(虛位)에 앉아 있었다. 제위 4년만에 나라의 멸망과 더불어 폐위되어 원주로 쫓겨났고 공양군으로 봉하여 간성군에 두었다가 강원도 삼척으로 옮겨져 조선 태조 3년 그곳에서 춘추 50세로 돌아갔다. 그뒤 태종 16년 공양왕으로 추봉(追封)하고 봉릉(封陵)하여 수호호(守護戶, 능을 지키는 집)을 두었다. 순비 노씨는 교하군인(交河郡人) 창성군(昌城君) 진(稹)의 딸로 공양왕 원년 1월 순비가 되고 1남 3녀를 두었으나 나라가 망한 뒤 왕과 함께 쫓겨나 돌아간 후에 이 곳에 묻혔다.

능은 왕과 왕비를 쌍릉형식(雙陵形式)으로 장(葬)하였다. 능 앞의 석물로는 비석일(碑石一座)식과 석상(石床)이 놓였고 장명

등(長明燈)이 일좌(一座) 놓여 있으며 양측에 석인(石人) 이쌍(二雙)이 서로 상대하여 정면으로는 석수(石獸) 일필(一匹)이 남아 있다. 석인은 모두 키가 1m 내외로 2종류가 있는데 능 앞쪽 것은 더 작으며 특물(特物)없이 공수(拱手)하고 있으며 그 옆 것은 키가 좀 크고 손에 활(笏)을 쥐고 있다. 양 능 앞 석상 뒤에 서 있는 비석은 봉릉당초(封陵當初)의 것으로 보이며, 양능 중간에 조선 고종(高宗) 때 세운 것으로 보이는 「高麗恭讓王 高陵」이라는 비가 서 있다. 석물은 양식과 수법은 고려의 여러 왕릉의 전통적인 왜소하고 소박한 것들이다. 장명 등은 옥개(屋蓋)가 8각(角)인데 체석(體石)이 4각인 점으로 보아 체석만 후에 만들어 맞춘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석수 옆에 크기도 옥개석과 걸맞는 8조각의 화대석(火袋石)인 듯한 돌이 놓여 있는데 옛 장명등의 잔석(殘石)이 아닌가 여겨진다. 석수 역시 건원릉(健元陵)과 헌릉(獻陵)에서도 보이는 고려 석수의 양식을 따르고 있다.

공양왕의 능은 이 곳 고양시의 고릉 뿐 아니라 유배지이며 사사지(賜死地)로 알려진 강원도 삼척군 근덕면 궁촌리에도 있는데 이는 당시 어수선하며 위약했던 고려 왕실의 마지막을 상징해 주는 것이라 하겠다.



■ 식사리의 공양왕 전설

공양왕이 이성계에게 왕위를 빼앗기고 그의 칼날을 피해 개성을 빠져나와 도망다니고 있을 때였다. 개성에서 도망친 공양왕이 이곳에 도착했을 때 더 이상 길을 갈 수 없을 정도로 날이 저물어 사방이 어두침침하게 되었다. 그래서 공양왕은 그 곳에서 지치고 피곤한 몸을 쉬게 하여 하룻밤을 묵었는데, 오늘날 그 곳을 바로 어침이라 부른다. 즉, 날이 어두침침하여 쉬어 갔기 때문에 어침(御寢)이라고도 부르며, 왕이 잠을 잔 곳이라 하여 어침이라고도 부르는 것이다.

어쨌든 왕은 인적도 없는 어두운 밤에 노숙(露宿)하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저 건너편을 바라보니 한가닥 불빛이 보였다. 반가운 마음에 그 불빛이 비치는 곳을 찾아가 보니 그 곳은 마침 절이었다. 이 절 근처를 현재는 박적굴(혹은 박절)이라고 부른다. 고려는 국가의 시책으로 불교의 발전을 도모하였기에 공양왕은 하룻밤 유숙하기가 쉬운 줄 알았으나, 이미 왕조는 바뀌었고 새 왕조는 불교를 탄압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하룻밤을 절에서 자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다. 절의 입장에서도 쫓기는 구(舊)

임금을 숨겨 주었다가는 자칫 화를 입을 지도 모를 일이었다.

그래서 이 절의 스님은 공양왕에게 “저희 절은 인적이 단절되어 임금을 모실 수가 없으니 이 곳에서 동쪽으로 10리 정도 떨어진 곳의 한 누각(樓閣)에 가 계시면 저희들이 매일 수라를 갖다 드리겠습니다.”하고 말하였다. 그 누각이 있는 곳이 바로 다락골인데, 이 말을 들은 공양왕이 절에서 다락골로 가기로 마음먹고 다시 발길을 돌려 길을 재촉했으나, 밤은 여전히 깊고 산도 험하여 힘든 일을 해 보지 않았던 왕으로서로는 제대로 길을 갈 수가 없었다. 결국 발도 부르르고 기운도 빠진 공양왕은 도중의 길목에서 하룻밤을 지내니, 임금이 주무신 장소는 대궐이나 마찬가지라 하여 이 고개를 대궐고개라 부른다.

아직도 여기에는 성황당이 있다. 하룻밤을 대궐고개에서 지내고 날이 밝아 다락골에 도착한 왕은 누각에 숨어서 절에서 날라다 주는 음식으로 연명하였다. 이로 인해 절(寺)에서 밥(食)을 날라다 주었다는 뜻으로 식사리(食寺里)의 명칭이 유래하는 것이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공양왕이 보이질 않았다. 밥을 날라다 주던 스님이 이상히

이상히 여긴 사람들이 그 못의 물을 모두 퍼내어 보니까 그 안에는 옥새를 품은 왕이 왕비와 함께 죽어 있었다. 쫓겨 다니는 신세와 세상사의 하릴없음을 비관한 끝에 투신 자살한 것이었다. 친족들은 비통에 잠겨 왕의 시신(屍身)을 꺼내어 연못 바로 뒤 한 20여m쯤 떨어진 곳에 조그마한 봉분(封墳)을 만들어 안장(安葬)하였으니, 이때부터 이 곳을 왕릉(王陵)골이라 부르게 되었던 것이다.

한편 일설(一說)에는 쫓겨난 공양왕(恭讓王)이 공양군(恭讓君)으로 강등(降等)되어 처음엔 원주(原州)로 추방되었다가 다시 삼척(三陟)으로 옮겨갔다고 하기도 하고, 혹은 왕과 왕비 그리고 태자의 부처가 함께 강원도 간성(杆城)으로 귀양갔다가 삼척으로 옮겨갔다고 하기도 한다. 이들이 마지막으로 머문 곳은 오늘날 강원도 삼척군 근덕면 궁촌리로서, 궁촌리(宮村里)라는 이름도 왕이 머문 곳이라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그리고 궁촌리 일대를 살해(殺害)골이라고도 부르는데, 그 이유는 이곳에 머물던 공양왕 일가가 이태조(李太祖) 3년(1394) 4월 한양에서 내려온 정남보(鄭南普)와 함전림에 의해서 살해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Ⅳ. 고양시 문화 유적지

서삼릉(西三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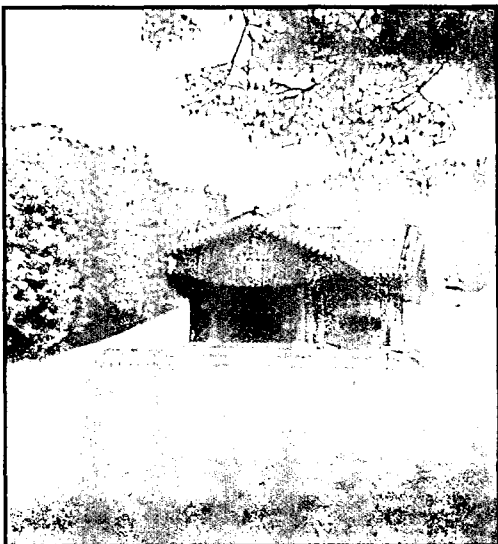
- 지정번호 : 사적 제200호
- 지정년월일 : 1970년 5월 26일
- 시대 : 조선시대
- 소재지 : 원당동
- 소유지 : 국유
- 관리자 : 문화재관리국 서삼릉 관리사무소
- 규모 : 65,970평
- 재료 : 화강암 및 토분

총 규모 65,970평의 서삼릉은 1970년 사적으로 지정되었으며 문화재관리국에서 관리하고 있다. 서울 서쪽의 세 개 능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왕릉지이다. 중종(中宗) 계비(繼妃) 장경왕후(章敬王后) 희릉기(禧陵基)로 택해진 이후 한때 중종의 정릉(靖陵)이 이 곳에 있었고 그 아들 인종(仁宗)의 효릉(孝陵)이 쓰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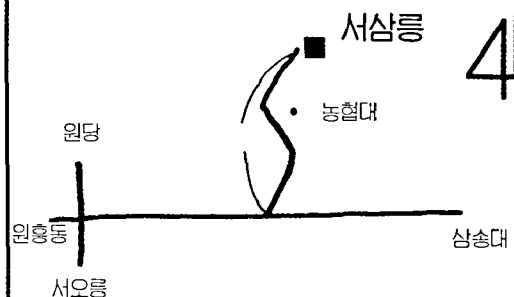
져 중종과 인종 2대 능기(陵基)의 관(觀)이 보이더니 근처에 왕실 묘지가 이루어져 명종, 숙종, 이후 조선 말기까지 역대의 후궁(後宮), 대군(大君), 군(君), 공주(公主), 옹주(翁主)의 묘가 만들어졌고 고종 원년에 철종의 예릉(睿陵)이 들어서면서 서삼릉이라 명칭을 얻게 되었다.

1. 희릉(禧陵)

조선 11대 중종 10년 4월에 광주군 현릉의 오른쪽에 있었는데 중종 32년(1537)에 현 위치로 옮겼다. 8년 뒤 중종의 정릉(靖陵)을 희릉의 곁에 썼으나 명종 17년(1562)에 선릉(성종의 릉) 곁으로 천장으로 희릉으로만 불리게 됨. 이 릉은 중종의 계비 장경왕후의 릉인데 장경왕후는 파평 윤씨로 경기 파주 파평부원군 정헌공 여필의 딸



답사안내도



로 1491년에 출생하여 처음에는 공녀로 입궐해서 1506년에 숙의(淑儀)가 되고, 중종의 단경왕후 폐출됨에 따라 왕비가 됐으나, 중종 10년에 세자(인종)을 낳은 후 산후병으로 25세에 승하함.

2. 효릉(孝陵)

이릉은 12대 인종과 그의 비 인성왕후의릉이다. 이릉의 모양이나 구조물은 대체로 조잡한 모습인데, 이유는 인종원년에 인종의 외가인 대군(大君)과 명종의 외가인 소윤(小尹)이 심한 권력다툼에 의한 관계로 보아진다.

중종은 왕이 된 지 8개월만에 31세로 승하했다. 효성심이 강했고 어진 성품에 우애심도 컸다. 중종의 상을 마치지 못한 송구스런 마음에 죽어서라도 부모님을 지켜 모시겠다고 하여 정릉 곁에 묻히겠다는 유언에 따라 이 곳에 모시게 됐다고 함.

인종의 비는 인성왕후로 나주 박씨, 중종 19년(1524) 11세의 나이에 세자비로 책봉되어 가례했으며, 인종이 왕위에 오르자 왕비가 됐으며 64세에 승하하심.

3. 예릉(睿陵)

이릉은 제25대 철종과 그의 비 철인왕후의릉이다. 철종은 가족과 함께 강화도에 유배생활을 하던 중 헌종이 후사가 없이 승하하자 1849년 대왕대비 순원왕후의 명에 따라 19세의 나이로 왕에 즉위했다. 대왕대비가 수렴청정을 했다. 1963년 12월 승하하심.(후사가 없었음.) 철인왕후는 안동김씨 영은부원군 김문근의 딸로 철종 2년에 비로 책봉되어 고종 15년(1878) 42세로 별세함. 안동김씨의 세도정치를 시작하게 하는 계기가 됨.(왕비 책봉)

서삼릉의 비공개지역

1. 태실(胎室)

서삼릉역의 서쪽에 위치해 있는데 이곳에는 전국에 여러 곳에 안치되어 있던 조선조 임금 21위(位)와 대군, 세자 및 공주의 태(胎) 32위를 모아 놓은 곳으로 일명 태봉(胎封)이라고도 한다. 조선시대에는 태실도감(胎室都監)을 두어 이를 관장토록 했다. 일반 능과 마찬가지로 풍수지리설에 의해 문을 땅을 물색하고 안태사(安胎使)를 보내어 문게 했다고 한다. 전국 각처에 있던 태묘를 이 곳으로 모으게 된 것은 거의 일제시대에 행해졌다고 하는데 태를 넣었던 항아리의 도굴과 왕실의 정기를 훼손케 한다는 목적에 의한 소행으로 여겨진다.

2. 회묘(懷墓)

서삼릉역의 서쪽 끝에 소재하고 있는데 이 묘는 조선 제9대 성종의 원비(元妃)인 폐비(廢妃) 윤씨의 묘이다. 원래 동대문구 회기동(현 경기도 교내)에 있는 것을 이곳으로 옮긴 것이다. 묘의 앞에는 표가 없이 상세한 내력은 아직 못밝혔으나 석물은 대형이고 양도 많으며, 대형 분묘(墳墓)임을 볼 수 있으니 연산군의 명에 의해 이룩된 것으로 보여진다.

3. 군묘(群墓)

이조 왕조의 여러 대에 걸친 몇 분의 왕자, 공주 그리고 왕의 후궁인 숙의(淑儀), 숙원(淑媛), 귀인(貴人) 등 수십 기의 묘가 있다.

IV. 고양시 문화 유적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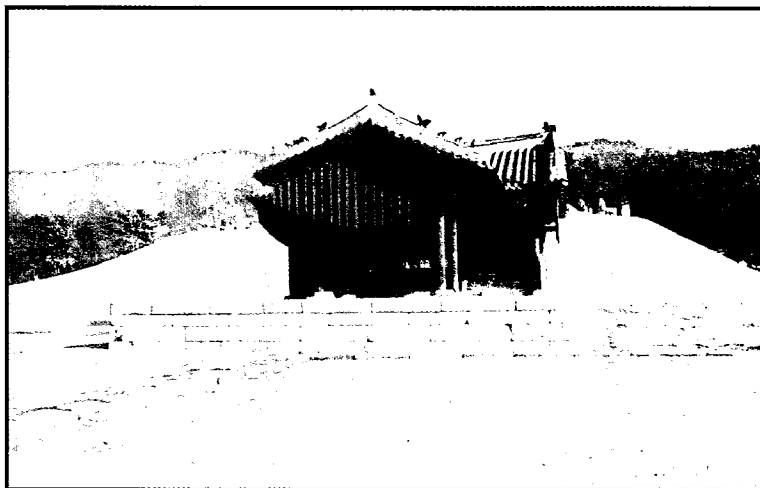
서오릉(西五陵)

- 지정번호 : 사적 제198호
- 지정년월일 : 1970년 5월 26일
- 시대 : 조선시대
- 소재지 : 용두동
- 소유지 : 국유
- 관리자 : 문화재관리국 서오릉 관리사무소
- 규모 : 553,616평
- 재료 : 화강암 및 토분

高陽市 德陽區 龍頭洞 山30의 1에 위치하며 사적(史蹟) 198호로 지정되어 있다. 총면적 553,616평의 광대한 영역을 차지하고 있어 현재 楊洲郡 九里邑 仁昌里에 위치한 東九陵 다음으로 큰 조선왕조 왕실의 가족분을 이루고 있다.

서오릉이릉자리로 선택된 계기는 世祖 3년(1457) 세자였던 元子 璋(후에 德宗으로

추존)이 돌아가자 풍수지리설에 따라 陸地로서 좋은 터를 찾다가 이 곳이 추천되어져 부왕인 세조가 친히 답사한 뒤 경릉터로 정하여 짐으로부터 비롯되었다. 그후 成宗 元年(1470). 덕종의 아우인 睿宗의 昌陵이 들어섰고 肅宗 7년(1681) 2월 肅宗妃 仁敬王后의 藏匿과 숙종의 明陵이 景宗 원년(1720) 10월 20일에 그리고 英祖의 貞聖王妃 弘陵이 영조 3년(1757) 6월에 각각 들어 서면서 일대왕족의 능이 무리를 이루어 서오릉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다. 그밖에 이곳에는 제13대 명종의 첫째 아들인 順懷世子の 順昌園이 경내에 있으며 또한 숙종의 후관으로 많은 역사적 일화를 남기고 있는 禧嬪 張氏의 墓가 1970년에 廣州郡 五浦面 文衡里에서 이장되었다.



■ 경릉(敬陵)

서오릉의 릉터에 제일 먼저 조성된 것으로 朝鮮 제7대 세조의 원자인 덕종(추존)과 그의 妃 昭惠王后의 릉이다. 경릉의 陵制는 同原異岡形式의 變陵으로 되어 있으나 일반 릉제와는 다른 몇가지 특색을 지니고 있다.

우선, 쌍릉인 경우 대개 오른쪽이 왕의 릉이고 왼쪽이 왕비의 능으로 되어 있으나 경릉은 왼편이 왕이고 오른편이 왕비로 된 同原異岡形式의 쌍릉이라는 점이다. 그 이유는 왕비는 생전에 仁粹大妃에 冊封되어 릉제가 왕릉형식을 갖추게 되었으나, 반면 덕종은 세자로 있을 때 돌아가서 사후에 추대된 明목상의 왕이었다는 사실과 또 부왕인 세조의 薄葬主義와 儀禮에 준하여 莎臺石과 3面의 곡담과 3계 砦砌를 설치하지 말라는 명령 때문으로 보인다. 물론 덕종으로 추대된 후 다시 왕릉제로 바뀔 것을 아뢰었으나 “神道가 安曆한지 오래인데 儀象雜物을 動搖함이 不可하다” 고하여 릉의 확장을 반대한 대왕대비의 명으로 결국 경릉은 세자묘제로 남게 되었다. 따라서 석강비의 릉은 왕릉제도에 따라 의상을 갖추었으나 左降의 왕릉만이 欄干石이나 望柱石 및 石獸 등의 호위없이 단지 릉앞의 魂遊石과 長明燈, 文人石 1軀가 릉을 지키고 있을 뿐이다.

다음 왕비릉의 石欄干柱頭가 睿宗의 창릉식을 따랐으므로 太祖의 건원릉 등에서 보이는 조선시대 왕릉의 전형적인 석난간과는 그 형태가 다르게 되어 있는 것이 또 하나의 특징이라 하겠다. 이와 같이 독특한 릉제를 지닌 경릉이지만 이에 사용된 화강암의 질이 좋지 못하여 오랜 풍화작용으로 부식되어 섬세하게 조각해 놓은 文樣을 식별하기가 어렵게 되었다.

덕종은 세조의 장자로서 세종 20년(1438) 9월 25일에 출생하여 세조 2년(1456) 9월 2일에 昇遐하였다. 諱는 璋이며 初諱이며 崇字는 原名이다. 세조 27년(1445) 조원군에 封해지고 端宗 1년(1453) 癸酉靖難 때의 공으로 興祿大夫에 올랐으며 세조 즉위와 함께 왕세자로 책봉되어 西原府院君 韓確의 딸을 맞이하여 月山大君과 제9대 成宗, 明淑公主를 낳았다. 그러나 왕위를 계승하지 못하고 춘추 20세의 어린나이에 세상을 떠났는데 왕세자의 죽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전해진다. 즉 세조가 단종을 없애려고 마음먹은 날 밤 세조의 꿈에 뜻밖의 단종의 어머니되는 顯德王后 權氏가 분노한 얼굴로 나타나 세조를 향해 꾸짖기를

“너는 흉악한 성품과 표독한 심술로 내 아들의 왕위를 빼앗고 그것으로도 부족하여 벽지로 내쫓더니 이제 또 목숨까지 끊으려 하는구나. 네가 나와 무슨 원한이 그리 심하기에 이다지도 악착스러우냐? 너는 나의 아들을 죽이니 나는 네 자식을 살려두지 않겠다.”

하며 세조의 얼굴에 침을 뱉고 사라졌는데 마침 東宮의 내시가 황급히 달려와서 아뢰기를

“동궁마마께서 낮잠을 주무시다가 꿈에 취해서 매우 위중하시나이다.”

하므로 세조가 급히 달려가 보니 벌써 동궁은 숨이 끊어져 있었다고 한다. 이처럼 덕종의 죽음은 비명에 간 悲運의 왕 단종의 어머니인 현덕왕후의 혼령의 殺을 맞았기 때문이라고 전해진다. 諡號는 懿敬이다.

덕종비 昭惠王后 韓氏는 세종19(1437)에 출생하여 燕山君 10년(1504)에 승하하였다. 本貫은 淸州로 左議政 서원부원군 襄節公 確의 딸이다.

세조즉위년에 粹嬪으로 冊封되었으며 아들 성종이 즉위한 후 성종 2년(1471) 인수 왕비로 進封되고 연산군 10년(1504) 昭惠로 改封되었다. 불경에 조예가 깊어 梵語·漢語·國語의 3字體로 된 불서와 부녀자들의 예의범절에 대한 敎訓書인 「女訓」을 저술하여 후세에 귀중한 연구자료를 제공해 주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자녀들의 교육을 엄격히 하였기 때문에 시아버지인 세조로부터 “暴妃”라는 농담조의 별명을 들었다는 일화를 남기고 있어 실로 이론과 실제에 있어 가정교육의 중요성을 강조 실천한 분이라 하겠다. 그러나 손자인 연산군의 생모인 윤비가 모함으로 폐출·사살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어 참혹한 보복을 하던 연산군 10년 甲子士過로 政局이 불안해지자 병상에 있던 인수대비가 왕에게 선정을 타하니 화가난 연산군은 머리로 대비를 들이받았는데 이때의 충격으로 대비는 춘추 60세로 세상을 떠났다.

■ 창릉(昌陵)

창릉은 서오릉의 릉역에 제일 먼저 조성된 경릉(덕종과 소혜왕후의 릉)의 북쪽 언덕에 위치한, 조선 제8대 睿宗과 계비 안순왕후 한씨의 릉이다.

창릉의 릉제는 왕릉과 왕비릉이 同原異岡型式의 쌍릉으로 되어 있으며 특히 석물배치가 「國朝五禮儀」의 전통적인 예에 따르고 있다. 그리고 양식상의 특징으로는 고석의 문양과 石欄干과 大石柱의 柱頭樣式을 들 수 있다. 즉 고석이란 이름 그대로 그 모양이 북모양을 하고 있는, 석상아래 다리 역할을 하는 족석을 말하는데 다른 릉에 있어서도 羅魚頭를 조출하였으나 창릉의 고석은 문고리 모양을 하여 악기의 북과 똑같

이 제작되어 있는 점이 특이하다.

또 대석주의 윗부분인 柱頭는 둥그런 圓首아래 還狀받침을 마련하고 4角石柱로 변천되어 가는 형식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태조의 건원릉이나 태종의 현릉 아래 대석주의 주두양식과 다른 양식이 창릉에서 나타나고 있는 사실은 당시 일부에서 쓰이고 있던 고려시대 석주양식의 반영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왜냐하면 고려왕릉 가운데 개풍군 청교면 양릉리 안릉동에 소재한 定宗의 릉인 안릉 등의 석주에서 유사한 그 예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예종은 세조 23년(1441)에 출생하여 1469년에 세상을 떠났으며 재위기간은 불과 1년이었다. 諱는 광, 字는 名姬이며 初字는 평포이다. 세조의 제 2왕자이며 비는 영의정 韓明澮의 딸 章順王后와 繼妃 우의정 韓伯倫의 딸 안순왕후이다. 처음에는 해양대군에 봉해졌으나, 세조 3년(1447) 왕세자 조원군 장이 병으로 일찍 죽자 그를 대신하여 8세에 왕세자에 책봉되었다. 세조 4년(1458) 세조가 위독하므로 12년간의 代理廳政을 받았으나, 그해 세조의 승하로 즉위하였다. 그러나 예종 역시 재위 13개월 만에 경복궁 紫薇堂에서 춘추 20세로 별세하였다. 비록 짧은 재위기간이었으나 세조 때부터 추진되어온 「경국대전」을 완성시켜 조선시대 모든 문물제도의 법적 기준을 마련케 하였다. 뿐만 아니라 職田收祖法을 제정하고 屯田의 民耕을 허락하였다. 한편 南怡·康純 등의 獄事와 민수의 事獄 등이 일어나기도 하였다. 諡號는 昭孝이다.

예종의 계비인 안순왕후 한씨는 출생시기는 불확실하며 연산군 4년(1498)에 昇遐하였다. 본관은 청주로 우의정 청주부원군 한백륜의 딸이다. 처음 동궁에 선입되어 소혼으로 있다가 예종이 즉위하자 왕비에 책봉

되었다. 그 뒤 성종은 인희대비라 진봉했으며 슬하에는 제안대군과 두숙공주가 있다. 연산군때 다시 명의대비라 尊號되었으나 연산군 4년에 별세하므로 창릉에 부장되었다.

■ 익릉(翼陵)

서오릉의 릉중에 제일 먼저 조성된 경릉(덕종과 소혜왕후의 릉)의 동쪽 언덕에 위치하며, 조선 제19대 숙종의 묘제는 숙종년간에 조성된 것이면서도 릉석물 간소화敎令이 내리기 이전의 릉석물을 갖추고 있어 기본적으로 「國朝五禮儀」의 제도를 따르는 한편 부분적으로는 壬辰倭亂 이후의 양식을 쫓고 있다.

즉, 정자각은 당시 유행하던 齋室이 달려 있어 측면과 전면 등이 1칸씩 더 큰 측면 5間, 전면 5間の 규모로 세워져 있으며, 또 長明燈과 望柱石에는 꽃무늬를 세겨 냈다는가 망주석 상단부에 단순히 구멍을 뚫는 대신 上向하는 細虎를 새겨넣은 점 등은 임진왜란 이후 릉양식을 반영한 것이라 하겠다. 그리고 릉표의 표면은 당대의 巨儒 尤庵 宋時烈이 撰하고 明筆家 竹鴻 沈益顯이 書하므로써 翼陵의 화려함을 더해주고 있다.

숙종비인 인경왕후 김씨는 顯宗 2년(1661)에 출생하여 숙종 6년(1680)에 세상을 떠났다. 본관은 光州로 光域府院君 金萬基의 딸이다.

현종 12년(1671) 세자빈에 책봉되어 嘉禮를 올렸고 숙종즉위와 함께 왕비에 진봉되었다. 슬하에 두딸을 낳았으나 모두 어렸을 때 잃어버렸으며 왕비 역시 숙종 6년에 20세의 젊은 나이로 별세하였다. 숙종 39년(1713) 光烈, 景宗 2년(1722) 孝莊明顯·英祖 29년(1753) 宣穆, 영조 52년(1776)에 惠聖의 존호가 각각 追上되었다.

■ 명릉(明陵)

경릉의 동쪽, 翼陵의 남쪽언덕에 위치하며, 조선 제19대 숙종과 繼妃 인현왕후 민씨의 쌍릉과 제2계비 인원왕후 김씨의 單陵을 통틀어 일컫는다.

명릉의 터는 숙종 27년(1701) 인현왕후의 릉터로 택정되어 인조의 장릉의 예를 따라 왕비릉 우측을 비워 두면서 비롯되었다. 경종 즉위년(1720) 숙종이 昇遐하여 이곳에 장사하고 릉호는 인현왕후때 것을 그대로 쓰기로 하였다.

명릉의 릉제는 「續五禮儀」의 골자가 되며 조선왕조 後期治葬의 근간이된 「喪禮補編 山陵儀」의 기초를 이뤄 가히 조선시대의 릉제상의 한 분수령이 된다.

숙종은 일찍이 인현왕후 國喪에 있어 릉상석물제도를 일체 厚陵制를 쫓아 儉約할 것을 명하여 恒規를 삼게 하였다. 이러하여 이때부터 모든 석물은 尺數를 줄여 석인은 等身大, 石獸는 寶物大에 가깝게 작게하게 되었으며 副將되는 明器도 그 수량이 감소되었다. 따라서 명릉의 제도로 눈에 띄는 예로는 健元陵이래 屋蓋가 8角인 장명등을 대신하여 옥개가 4각형의 장명등이 출현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장릉이나 思陵을 封陵할 때 옥개가 4각인 장명등을 세운 예도 있으나 이것이 제도화된 것은 명릉에서부터이며, 결국 조선후기 릉석물의 한 양식으로 발전을 보게 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명릉의 석인 彫刻은 장릉의 石人像을 따르고 있으며 석인의 古拙한 미소와 武人石의 늘어진 투구, 이마에 刻出한 투구의 피상전 등 역시 조선후기 특히 18세기 석인양식의 특징을 이루고 있다.

인현왕후의 릉도 영조 33년(1757) 정성왕후의 弘陵과 거의 동시에 조성된 것으로 欄

干 이외의 모든 石物樣式이 거의 동일하여 弘陵과 함께 당시의 조각수법의 특색을 보여주고 있다.

숙종은 제18대왕 현종의嫡子로서 동왕 2년(1661)에 출생하여 숙종 46년(1720)에 승하하였다. 재위기간은 1674년부터 1720년까지 46년 동안이며,諱는 焞 字는 明善이다. 어머니는 明聖王后 金氏이며 妃는 領敦寧府事 金萬基의 딸 仁敬王后와 繼妃 영돈령부사 閔維重의 딸 仁顯王后 및 제2계비 慶恩府院君 金桂臣의 딸 仁元王后가 있다. 현종 8년(1667) 王世子에 책봉되고 1674년에 즉위하였다. 숙종의 재위 46년간은 대동법의 확대 실시 등 정치·경제·문화 등 다방면에 걸쳐 위대한 업적을 이룩하였다. 즉,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의 양란으로 폐폐된 토지제도를 정비하여 선조말 이래 계속된 사업인 대동법을 전국적으로 확대·실시하여(평안남도과 함경도는 제외) 토지개혁을 종결지었으며 鑄錢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여 중앙과 지방관아에서 통용토록 하는 등 경제정책의 결실을 보았다.

뿐만 아니라 廢閑地로 버려졌던 압록강변의 茂昌·慈城의 2鎮을 신설하여 영토회복운동을 벌였다. 한편 동왕 28년(1712) 백두산 정상에 定界碑를 세워 누적되어온 중국과의 국경문제를 일단락짓게 하였다. 그리고 종래 4營이던 軍制에 禁衛營을 만들어 5營으로 하여 국방 및 치안을 튼튼히 하였다.

그밖의 들 수 있는 것으로 「璿源錄」「大明集禮」를 간행하고 「大典續錄」「新增東國輿地勝覽」 등을 편찬하여 문화사업도 활발히 하였다. 특히 그의 治世동안 쟁쟁한 학자들이 배출되어 조선말기 성리학의 전성기를 이루었다.

그러나, 政局을 볼 때 이미 1674년 즉위

당시부터 南人과 西人의 派黨間의 대립은 교화의 수단인 禮學의 服喪問題를 둘러싼 제2차 禮訟을 일으켜 남인 許穆 등의 大功說(9個月說)과 非年說을 주장한 서인의 대립에서 서인이 제거·배척되고 남인이 집권하게 되고 이어 남인들은 서인의 처벌문제로 다시 強穩派로 분열되자 許積 등 濁南을 지지하였다가 숙종 6년(1680) 許堅 등이 福善君을 추대하려던 음모가 발각되는 庚申大黜陟으로 남인들이 축출되고 서인이 등용되었다. 그러나 당시 서인 金錫胃가 몇몇하지 못한 수법으로 남인박멸을 기도하자 그 방법이 졸렬하다 하여 같은 소장파에서 이를 비난, 결국 3년도 못되어 서인이 老·少論으로 분열하게 되었다.

그리고 왕은 당시 용모가 출중한 淑媛 張氏를 총애하여 숙종 9년(1683)에 昭儀로 승격시켰고, 이듬해 장씨에게서 출생한 왕자(景宗)의 名號를 둘러싸고 일련의 숙청사건인 己巳換局이 일어나 왕자의 명호 결정을 반대한 宋時烈·金壽恒 등 서인들을 모두 유배하고 남인을 등용시켜 왕자의 명호를 정하고 왕비 민씨를 庶人으로 폐위시킨 뒤, 嬪嬙 張氏를 왕비로 책봉하였다. 그러나 차츰 폐비사건을 후회하던 왕은 閔黈 등이 폐비복위운동을 꾀하는 서인을 박멸하고자 음모를 획책하는 기미를 알고 숙종 20년(1694) 남인을 추방하고 서인을 등용시킨 후 폐비를 복위케 하고 장씨를 희빈으로 강등시켰으며, 드디어 1701년에는 희빈 장씨를 誣告罪 賜死하였다.

이후 차츰 政界는 안정되어 소론이 우세한 집권 체제로 확정되었으나 1717년 俞樾의 「家禮源流」가 간행될 때 鄭誥가 소론 尹拯을 공격한 내용이 跋文으로 노론·소론간의 당쟁이 격화되자 그가 노론을 지지함으로써 이후 노론이 重用되었다. 이같이 사색당

파의 소용돌이 속에서 王位를 지켜온 숙종은 말년 병환이 심해지자 세자에게 代理聽政케 했으며 1720년 재위 46년으로 승하할 때 史官의 입회없이 李頤命 등에게 延祔君 昡(뒤의 英祖)을 경종의 후계자로 삼도록 하라는 유언을 남겨 辛壬士禍의 화근이 되게 하였다. 이처럼 가장 당쟁이 격심했던 숙종 재위기간은 대외적으로는 전쟁이 없던 태평안일한 시기였으며 그의 愛憎의 감정 노출이 심한 것을 당인들이 교묘히 조종하여 끝없는 숙청이 계속되었던 시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정치·경제·문화 등 여러 방면에 걸친 개혁 및 추진성과도 주목해야 할 것이며 또한 鮮初 세조의 즉위로 희생된 死六臣을 복권시키고(왕 24년), 魯山君으로 강봉된 端宗을 복위시켜(왕 24년) 端宗妃와 함께 莊陵 및 思陵에 각각 안장시켰으며, 44년(1718)에는 昭顯世子の 嬪 姜氏의 복위를 단행하여 政變으로 억울한 죽음을 당한 先靈들을 위로하는데도 세심한 배려를 하였던 것도 숙종의 업적을 더욱 빛내게 한다. 諡號는 顯義이다.

仁顯王后 민씨는 현종 8년(1667)에 출생하여 숙종 27년(1701)에 승하였다. 본관은 驪興으로 驪陽府院君 閔維重의 딸로 숙종 7년(1681) 가례를 올려 繼妃가 되었다. 그러나 당시 희빈 장씨가 왕의 총애를 독점하여 왕비는 왕의 관심 밖에 있어야 했고 더구나 己巳換國이 일어나 희빈 장씨의 무고로 廢庶人으로 쫓겨나는 불행을 겪어야 했다.

그러나 곧 누명은 벗겨지고 왕의 뇌우침으로 甲戌獄事 때 復位되었으나 숙종 27년(1701) 35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슬하에 자녀는 없으며 尊號는 孝敬淑聖莊純이고 徽號는 懿烈貞穆이다. 왕비의 성품은 예의가 바르고 정숙한 國母로서 조선의 전형

적인 여인이었다 한다. 더구나 민비를 주인공으로 하여 당시 역사적 사건을 줄거리로 한 宮中 艷情哀史의 대표적인 내간체 소설인 「仁顯王后傳」(원명: 仁顯聖后行錄)이 전해지고 있어 그의 훌륭한 덕행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숙종의 제2계비 仁元王后 김씨는 숙종 13년(1683)에 출생하여 영조 33년(1757)에 승하하였다. 본관은 경주로 慶恩府院君 金桂臣의 딸로 숙종 28년(1702) 왕비에 책봉되었다. 슬하에는 자녀가 없다. 徽號는 定懿章穆이다. 陵은 明陵의 오른쪽에 정함으로써 숙종과 인현왕후의 雙陵과 더불어 同原異岡을 이루고 있다.

인원왕후는 평소애 숙종의 명릉 곁에 묻히기를 소원하였으므로 생전에 명릉에서 400보 떨어진 언덕에 자리를 정해놓고 있던 관계로 별도로 丁字閣을 세우자면 많은 松材가 벌목될 것을 염려하여 영조가 현 위치에 정하여 명릉과 같은 정자각에서 제사케 하여야 한다.

■ 흥릉(弘陵)

西五陵의 능터에 제일 나중에 조성된 것으로 서오릉 내의 위치는 창릉의 왼쪽 언덕에 있으며, 조선 제20대 영조의妃 貞聖王后 徐氏의 單陵이다.

흥릉의 陵制와 樣式은 기본적으로 인현왕후의 명릉 양식을 따르고 있으나 몇가지 독특한 양식상의 변화를 보이고 있다. 즉 4角의 屋蓋 형식인 長明燈은 명릉에 비해 약간 차이를 보이며 望柱石에 있어서도 細虎의 꼬리가 완전하게 「國朝喪禮補編」의 式대로 왼쪽의 石柱는 올라가는 陞形을 취하고 있으며 반대로 오른쪽 석주는 내려오는 降形을 취하고 있다.

IV. 고양시 문화 유적지

또 다른 점은 柱頭樣式으로 欄干石柱의 圓道 아랫부분은 伏蓮瓣으로 변형되어 있고 石人의 얼굴은 입 양끝이 추겨져서 古拙한 미소를 띠고 있으며 남바위모양을 한 武人石의 투구라든가 그 등근 선은 이조후기 17~18세기에 일반화되는 무인석의 특징을 나타낸 것이라 하겠다. 더구나 이러한 후기 「續五禮儀」와 「國朝喪禮補編」의 山陵制의 檢討性은 난간석주에 間方만 표시하고 四方石 등을 폐지한 점에서도 볼 수 있다.

정성왕후 서씨는 숙종 18년(1692)에 출생하여 영조 33년(1757)에 세상을 떠났다. 본관은 達城으로 達城府院君 徐宗悌의 딸이다. 숙종 30년(1704)에 가례를 올려 達城君夫人에 봉해지고 경종 1년(1721) 세자빈에 책봉된 후 1724년 영조의 즉위와 함께 왕비가 되었다. 영조 33년 춘추 66세로 별세하였는데 슬하에는 자녀가 없다.

영조는 왕비의 陵地를 이 곳에 정할 때 장차 함께 묻히고자 하여 王妃陵 오른쪽에 있는 正穴의 돌 「+」字로 새겨 묻도록 虛右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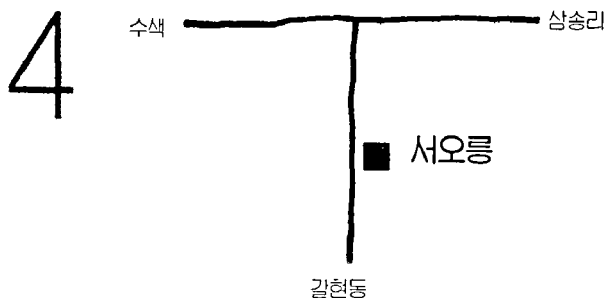
制를 명하였으며 陵上의 石物도 쌍릉을 예상하여 배치하게 하였다. 그러나 계획과는 달리 영조의 능이 東九陵에 자리하게 되자 현재 홍릉의 오른쪽 공간은 빈 상태로 남게 되었다.

■ 순창원(順昌園)

龍頭洞 山 30의 1에 소재한 서오릉 경내의 경릉(덕종과 비 소혜왕후 한씨의 능) 왼쪽 언덕에 위치하고 있으며, 조선 제13대 명종의 장남인 順懷世子和 비 共懷嬪 尹氏의 묘가 합祔되어 있다. 원래는 順懷墓라 하였던 것을 순창원으로 改號하였다.

순희세자는 명종 6년(1551)에 출생하여 명종 18년(1563)에 사망하였다. 어머니는 仁順王后 沈氏이다. 명종 12년(1557) 세자로 봉해지고 참판 尹玉의 딸을 맞아 가례를 올렸으나 13세의 어린나이에 세상을 떠났다. 諡號는 順懷이다.

답사안내도



IV. 고양시 문화 유적지

청자요(靑磁窯)

- 지 정 번 호 : 문화재자료 제64호
- 지정년월일 : 1985년 6월 18일
- 시 대 : 신라말 ~ 고려초기
- 소 유 자 : 원흥동
- 고 유 자 : 사유
- 관 리 자 : 정경선
- 규 모 : 3,3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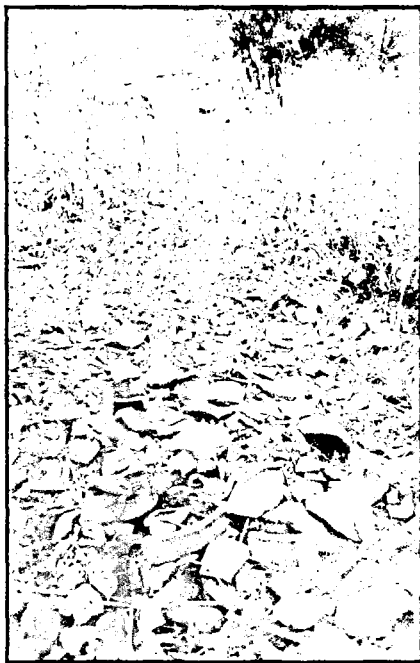
이 가마터는 1937년 당시 조선총독부에 근무하던 일본인 도자사학자인 ‘야수건(野手健)’에 의해 발견된 이래로 우리나라 초기 청자 가마터 중의 대표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국당(唐)나라시대 월주요(越州窯)청자와의 관련으로, 통일신라말기 내지 고려초에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우리나라 초기 청자 가마터들은 지금까지 서해안, 남해안 일대에서만 10여곳 발견되고 있는데 그중에서 원흥동 가마터는 경기도 용인군 이동면 서리 가마터, 충남 보령군 서연면 오사리 가마터, 전북 고창군 아산면 용계리 가마터와 더불어 대규모의 퇴적을 갖춘 것으로 유명하다.

이 가마터는 건지산의 동쪽 기슭에 위치하며 전체 유적의 면적이 역 3,330㎡에 달하는데 비교적 보존상태가 좋은 편이다.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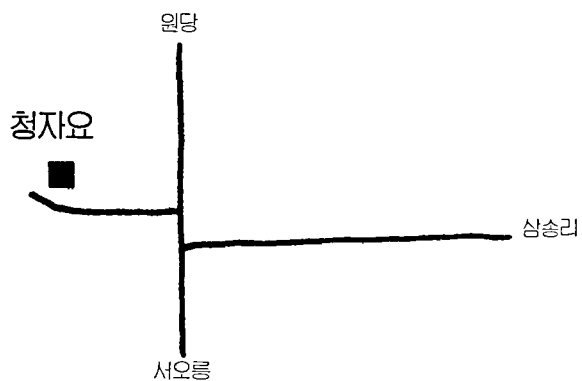
개의 구릉처럼 보이는 거대한 퇴적터미는 대량의 갑발(匣鉢)과 소량의 자기 조각 및 폐기물로 이루어져 있으며 남동쪽에서 북서방향으로 놓여 있다.

아직 발굴조사를 하지 않아 정확한 양상을 알 수는 없고, 지표조사에 의해 채집된 출토품으로 대체적 성격을 파악하고 있는데 갑발류는 일반적인 원통형과 초기의 특징적인 갑발 받침대가 있으며 자기 조각은 거의 무늬가 없는 청자 조각으로 짙은 암록색이나 황갈색을 띤다. 그릇의 형태는 완류(碗流)가 대부분이고 극소량의 향아리나 주전자 조각이 있는데 이중 청자 완류는 중국당나라시대의 모습이 많이 반영되어 굽 바닥 폭이 약간 넓고 내저원각(內低圓刻)이 없으며 내화토(耐火土) 받침으로 포개 구운 것이 많다. 이런 양상은 용인 서리 가마터 발굴조사에서 출토된 최고식(最古式)청자와 같은 양상이다. 한편 장방형(長方形) 벽돌의 존재로 보아 이곳에서는 벽돌로 만든 가마를 운영했던 것 같은데 역시 용인서리 가마터의 최초 가마터가 벽돌 가마였던 점을 보아 이곳에서도 월주지방의 등요식(登窯式) 벽돌가마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고려초기 청자요의 파편

답사안내도



IV. 고양시 문화 유적지

세 시 영글이(永文里)와 단산부원군 묘

- 지 정 번 호: 향토유적 제9호
- 지정년월일: 1986.6.6
- 시 대: 조선시대
- 소 재 지: 주교동
- 소 재 자: 단양이씨종중
- 관 리 자: 이완보
- 재 료: 토분 및 석물

시청에서 일산으로 가는 도로를 따라 300여m를 가게 되면 원당중학교에 다다르는데 이곳에서부터 학교 뒤 북쪽으로 연결되는 골짜기 및 전야(田野) 지대를 영글이(永文里)라고 부르는데 1987 고양군지의 소지명(所地名)유래담 란에는

「영글이(永文里): 이곳은 예전에 글공부하던 글방(書堂)이 있었던 골짜기여서 영문리로 명명된 것으로 짐작된다. 조선조 세종 때 단산부원군에 봉군된 이무(李茂)의 묘가 있으며 그에게 사패지(賜牌地)로 내려진 땅이 산야의 전체에 이르렀다고 한다」라고 소개되어 있다.

이 묘(墓)는 配 貞敬夫人海平尹氏와 繼配 貞敬夫人綾城具氏가 합편되어 있는 사각묘(四角墓)로서 석대(石帶)가 둘러 있다. 정조 9년(1785)에 건립된 묘갈(墓碣)은 윤득관이 지었고 글씨는 이희현이 썼으며 묘 앞의 석물로는 상석외에 석양(羊) 2, 문관석 2, 장군석 2, 장명등 1 망주석 2기가 갖추어져 있으며 100m 전방 입구 쪽에 신도비와 영모비가 세워져 있으며 1986년에는 고양군에서 향토유적 제9호로 지방문화재로

지정하였다.

지금도 이곳은 지형이 산자수명(山紫水明)하여 봄가을 소풍계절이면 초·중·고등학교들의 소풍처로도 이용되곤 하는데 자고로 명당자리에는 샘(泉)이 같이한다라는 고사(故事)에 걸맞게 오래된 약수터도 영묘비 아래쪽에 있다.

이곳에 묻힌 단산부원군 이무(李茂) 선생은 고려말(高麗末) 조선초 인물로 자(字)는 돈부(敦夫) 호(號)는 중정(中亭) 본관은 단양(丹陽)이며 판서 거경(居敬)의 아들이다. 공민왕 때 문과급제하여 1390년도에 전라도 도절제사로 왜구를 격멸할 때 무려 70여급이나 참하여 논공행상시 국왕으로부터 의주를 하사받았으며 그 공적을 영구히 기리기 위하여 그 주둔지(駐屯地)였던 주계(朱溪) 지방을 이름의 무(茂) 자를 따서 개칭하였의 오늘날 무주군(茂朱郡)이 바로 그곳이다.

조선 태조 때에는 개성윤을 거쳐 중추원사가 되어 서강(예성강) 및 강화도의 병선을 점검하는 등 문관으로서 국방문제에 주력하였다. 이 해에 사은사로 명나라에 갔다가 이듬해 귀국하여 왜구의 침입에 대비하였으며 도체찰사가 되어 5도의 병선을 거느리고 일지도와 대마도의 왜구를 토벌하여 국위를 크게 선양하였다.

2년 뒤 왕자의 난 때 참찬문학부사로 있으면서 정사공신1등으로 단산부원군에 봉해졌으며 그후 동북면 도순문사로 영흥부

Ⅳ. 고양시 문화 유적지

운을 겸임하고 판 삼군부사를 거쳐 좌명공신1등으로 우정승에 승진하였고 영승추부사 우정승겸 판병조사를 역임하고 조선개국초에 기로소(耆老所)에 들었다.

태종2년(1402)에는 김사형 이회등과 함께 지리에 관계되는 자료를 수집하여 세계 최초의 세계지도인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混一疆理歷代國都之圖)를 편찬하여 세계를 향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지리학적인 업적을 남겼다.

오늘날 이 지도는 국내에는 없고 일본요코 대학에 소장되어 있는데 아마도 임진왜란 때에 유출된 듯하다. 이 지도는 콜럼버스가 아메리카대륙을 발견하기 보다 90년 전에 제작되었기 때문에 남북미주대륙은 표기되어있지 않으며 서울대학교 규장각에 모사본이 보관되어 있으며 중고등학생 지리부도에 소개되어 있을 뿐이다.

이 지도의 아랫부분에는 양촌 권근(權近) 선생의 발문이 기재되어 있는데 그 일부를 우리말로 옮겨 보면

「천하는 대단히 넓다. 안으로는 중국에서부터 밖으로는 사해(四海)에 이르기까지 몇 천만리인지 모른다. 지도는 수척지폭에 요약하여 그리는 관계로 상세하게 함이 극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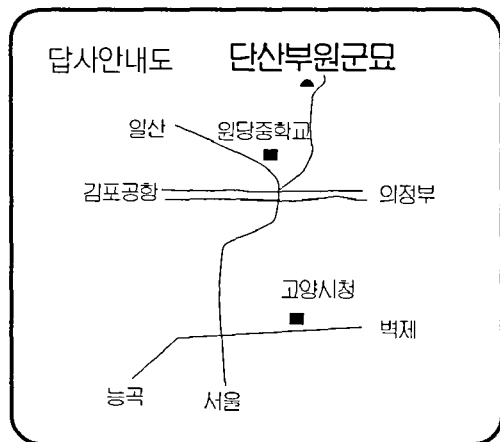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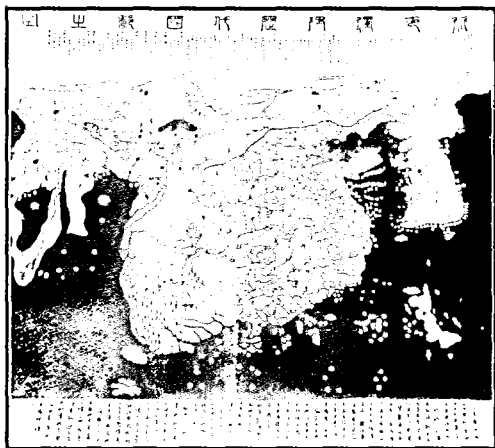
어렵다.(중략) 진문4(1402년) 좌정승 상락 김사형 우정승 단양이공 무(茂)는 나라 다스리는 여가에 이 지도를 참고하고 연구하여 신도(新圖)를 만들었으니 정연함이 가히 불만하다. 진실로 문 밖에 나가지 않고도 천하를 알 수 있게 되었다. 지도를 보고 지역의 멀고 가까움을 아는 것은 또한 다스리는데 도움을 주기 위함이다.」

두 사람(金士衛, 李茂)이 지도에 대하여 마음 깊이 생각함에 있어서 그 규모와 국량(局量)이 큰 것을 가히 알 수 있다 하였으니 이 지도가 일본으로 유출되지 않고 국내에 현존한다면 국보(國寶)가 되기도 남음이 있었을 것이다.

2002년에는 후손들이 사당을 묘하(墓下)에 재건하여 선생의 넋을 더한층 기리고 있는 곳이다.

참고자료

- 국조인물고
- 태조·태종실록
- 연려실기술
- 양촌집
- 이찬(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에 대하여)
- 한국학보제2집(1976)



IV. 고양시 문화 유적지

제 9 월산대군 묘와 신도비 (神道碑)

- 지 정 번 호 : 향토유적 제1호
- 지정년월일 : 1986년 6월 16일
- 시 대 : 조선시대
- 소 재 지 : 신원동
- 소 유 자 : 전주이씨종중
- 권 리 자 : 이경호
- 재 료 : 토분 및 화강암 석물

신원동 능골에 자리잡고 있으며 뒤에 부인 순천박씨(順天朴氏)의 봉분을 두었다. 월산대군의 큼직한 봉분 앞에는 묘비와 상석(床石), 문인석(文人石), 망주석(望柱石), 장명등(長明燈)과 신도비 등의 석조물이 배치되어 조선시대 묘제(墓制) 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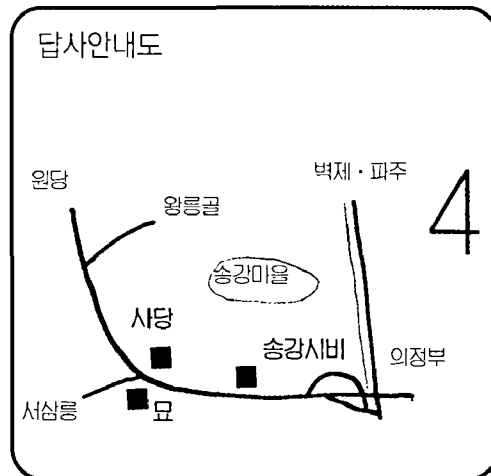
상석 뒤편의 묘비는 운문(雲文)이 조각된 비두(碑頭)와 장방형의 대석을 갖추었고, 규모는 높이 180cm, 폭 74cm, 두께 32cm이다. 상석은 3매의 장판석(長板石)을 놓았는데, 정면 270cm, 측면 155cm의 규모이다. 성종 20년(1489)에 왕명에 의해 세워진 신도비는 90cm의 이수(螭首)와 장방형의 비좌(碑座)를 갖추었는데, ‘▷大君碑銘’ 이런 전자(篆字)가 새겨 있다. 비신(碑身)의 높이

는 218cm, 폭 94cm, 두께 32cm의 규모이고 비문은 임사홍(任士洪)이 짓고 썼으며, 전액도 함께 썼다. 현재 신도비는 전액을 제외하고는 판독하기 어려울 정도로 마멸되어 있다.

월산대군 이정(李婷)은 추존된 덕종(德宗)의 장남으로 단종 2년(1454)에 출생하여 성종 19년(1488)에 돌아갔다. 대군의 자는 자미(子美)이며 호는 풍월정(風月亭)이다. 어린시절은 궁중에서 보냈으며 일찍이 월산군에 봉해지고 좌리공신(佐理功臣) 2등에 책록되었다. 문장이 뛰어나고 책을 좋아하여 그의 작품은 중국에까지 널리 알려졌다. 지금의 덕수궁은 월산대군의 옛집이었으며 친아우인 성종이 자주 대군의 집에 드나들며 집의 정자를 풍월정이라 이름 짓고 근체오언오율시(近體五言五律詩)를 지어 주었다. 현재의 고양 북촌(北村)에 별장을 두고 자연을 벗하며 일생을 보냈다.

시호는 효문(孝文).

Ⅳ. 고양시 문화 유적지



IV. 고양시 문화 유적지

④ 송강정철시비(松江鄭澈詩碑)와 송강마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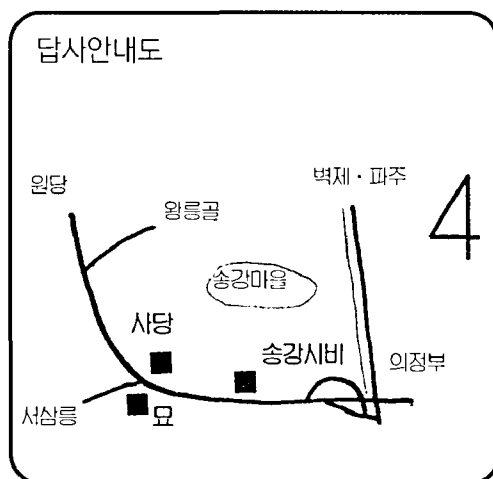
송강 정철이라면 우리나라 역사상 국문학계에 큰 획을 그은 분으로서 가사(歌辭)인 관동별곡, 성산 별곡, 사미인곡, 속미인곡, 장진 주사 등과 단가 70여 수를 풍부한 정서를 담아 절절히 풀었던 문학가요, 불같은 의기(義氣)와 밝은 논리로 직언(直言)을 삼가지 않으므로써 파란이 많은 세월을 보낸 정치가였다는 사실은 누구나 아는 바이다.

그러나 이 분이 이 고장에 살았었고, 이 고장의 자연과 더불어 10여년 풍류를 하면서 시음(詩吟)을 쏟아놓았다는 사실을 아는 이는 별로 없을 것이다. 송강은 여러 곳에서의 벼슬살이와 유배생활 그리고 풍류를 하는 성품으로 인해 여러 곳에 머무시르던 행장(行狀)이 많다. 송강은 지금의 고양시 덕양구 원신동(舊 : 원당읍 신원리 송강마을)에 10여년간 살면서 송강마을 뒷산에 있는 부친(정유침) 묘에 시묘(侍墓)하면서 이 마을 앞 냇가(曲陵川)에서 낚시를 드리우며 시를 읊었다고 한다. 이 마을뒷산에 또한 송강을 애모(愛慕)하기에, 선조대왕이 의주에 몽진(蒙塵)하실 때 강계의 기생 '강아'란 여인이 따라와 살다가 죽었기에 그녀의 무덤이 또한 이 마을의 뒷산에 있으니, 이 마을은 역시 송강의 정취와 애정이 서린 곳이라 보아질 때, 송강이 살던 때부터 오늘 날에 이르기까지 우리들의 심금을 감싸안

고 울리어 주는 송강의 사상은 그 옛날부터 구태여 '송강마을'이라고 한 것으로 보아진다. 이 마을에는 송강고개가 있고, 송강보가 있고 송강 낚시터의 이름이 유래한다. 송강의 발자취를 새기고 그 체취가 고양땅에 있음을 남겨야겠다는 지극한 마음의 결집이 '송강시비'란 표석으로 시문과 더불어 이 마을입구 도로변 공원 잔디밭에 세우고 단장했다. 이 시비는 1997년도 '고양신문'을 이끌어왔던 사장 이은만 씨의 정성에 의한 것이었다. 원당과 의정부를 오가는 차량 속에서 바라보아 아늑하고 단아한 풍경과 아울러 유서깊은 사연을 나타내주는 듯한 인상을 갖게 해준다. 3m여의 높이 에 폭 2m여의 밑바탕에서 위로 올라가며 좁아지고 폭포에 깎인 듯 미끄러져내린 산의 봉우리 모양을 한 시비다. 그 바로 옆에는 송강의 시문 한 수가 조각된 금석문이 있다.

이 마을에서 원당으로 가는 고개(송강고개-낙타고개) 오른편 윗마을에는 성종대왕의 형으로 왕위도 동생 성종에게 사양하였으면서 남달리 동생과 우애가 깊었고 시문에 뛰어났던 월산대군의 사당이 있고, 맞은편 길 건너 산 능선으로 200m쯤 오르면 월산의 묘와 신도비가 있다. 신도비의 두전은 '大君碑銘'이라고 써 있으니 월과 산이 그림으로 그려진 것이 더욱 특이하다.

Ⅳ. 고양시 문화 유적지



IV. 고양시 문화 유적지

1. 도내동 은지 및 이축 유적(池洞 隱池 및 李畜)

- 문화재명 : 지방문화재 제36호
- 소 재 지 :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847-3
- 소 유 자 : 한산 이씨 종중
- 관 리 자 : 이세준
- 시 기 : 조선 세조때
- 규 모 : 2,500여평

도내동 은지는 홍도동 사무소에서 화전 방향으로 이어진 도로중 은못이 마을 입구에 위치한 연못의 이름이다. 은지 연못의 총 규모는 현재 2,500여평으로 남아 있으며 수초 등과 물방개, 잉어 등 여러 생물체들이 살고 있다. 이 은지는 1456년에 만들어 졌고 약540년 동안 샘물에 의해 유지되어 오고 있다. 이축은 이 곳에서 계유정란에 의해 쫓겨난 단종을 그리워하며 그에 대한 일편단심의 충의를 다짐하였다. 은지는 서남쪽 200m 부근에 위치한 묘소는 배 이천서의 묘와 합부되어 있고 묘비, 망주, 상석 등이 배치되어있다. 은못이[은무시, 隱池洞]라는 이름은 조선조 때의 충신인 망월암 이축(李畜) 공이 벼슬을 버리고 낙향하여 이곳에 숨어 지내면서 연못을 하나 팠는데, 그 연못의 이름을 ‘숨을 은(隱) 자, ‘못지(池)’를 써서 ‘隱池[은못이]’라고 하였다는 것이고, 거기에서부터 이 마을의 명칭이 유래하였다. ‘숨을 은(隱)자’를 안쓰고 ‘은은(銀)’자를 써서 ‘銀池洞’이라고 표기하는 사람도 있다.

이축(李畜) 1402(태종2)~1473(성종4).

조선 초기의 문신. 본관은 한산(韓山), 자는 윤보(潤甫), 고려말의 목은(牧隱)·이색(李穡)의 둘째 아들 인제 이종학의 손자로서 광주목사(光州牧使) 숙야(叔野)의 아들이다. 그가 처음 제수된 관직은 계성전직(啓聖殿直)이었는데, 그의 나이 16세 때였다. 그 뒤 사선주부(司膳主簿)를 거쳐 외직으로 광주판관(廣州判官)을 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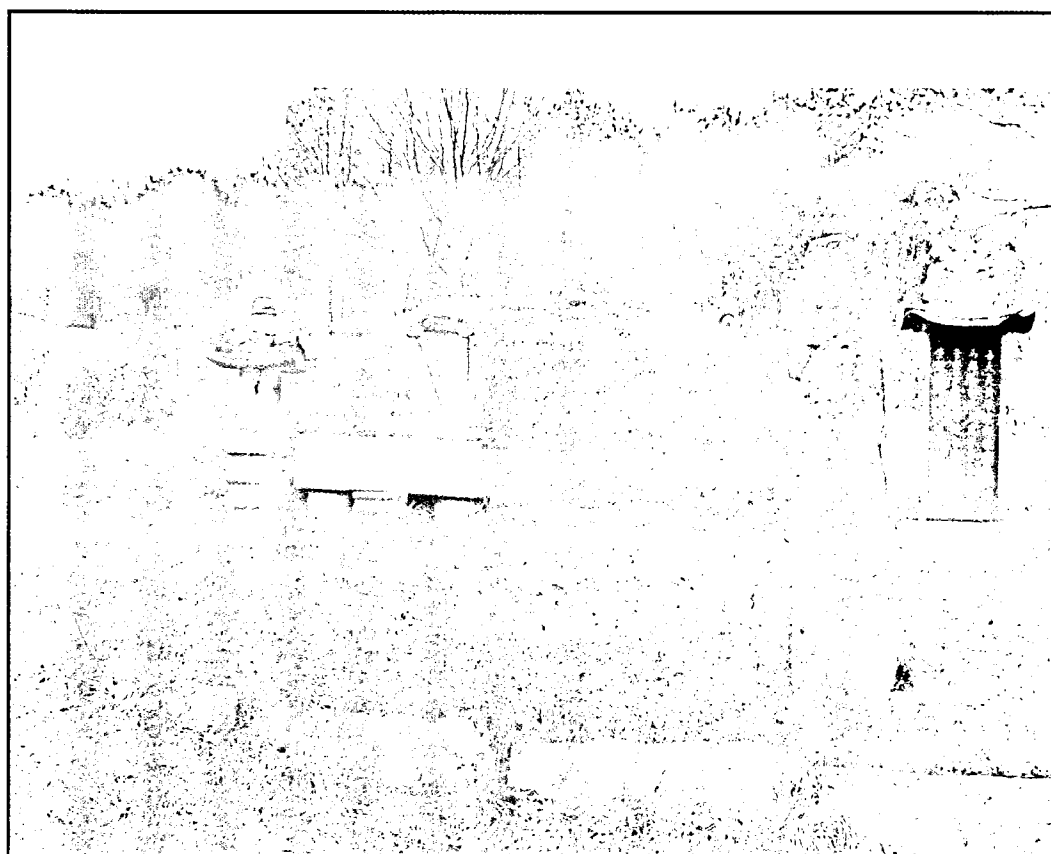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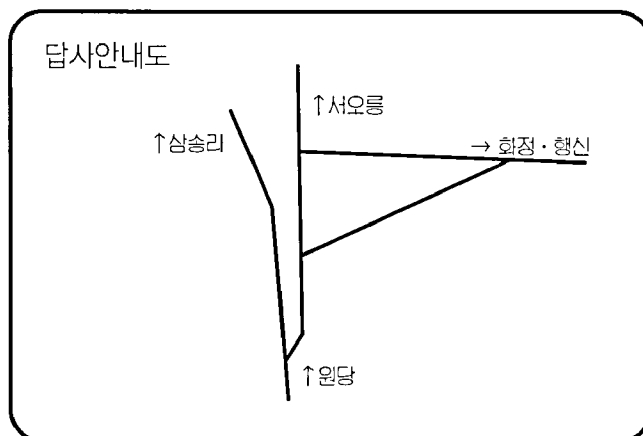
사헌부의 감찰과 호조의 좌랑 및 정랑, 전농사(典農寺)의 소윤을 지냈으며, 사헌부장령·지사간원사·판선공감사(判繕工監事)·봉사시사(奉常寺事)·첨지중추부사 겸 지병조사를 거쳐 이조참의에 올랐다. 1453년(단종 1)에는 황해도관찰사에 제수되었다.

그러나 어린 단종이 왕위에 오른 지 얼마 후 수양대군에 의해 폐위되고 김종서 등이 살해되자, 이축은 벼슬을 버리고 이곳으로 내려와 두문불출하였다. 공은 단종이 유폐되어 있는 영월(寧越)을 향해 매일 망배하고 그의 처소에도 망월당(望越堂)이라는 옥호(屋號)를 달아 놓을 정도로 전왕에 대한 충절이 깊었다고 한다.

1455년(단종 1년) 9월에 사직하고서 高陽으로 내려가 여생을 마쳤다.

〈참고문헌〉 世宗實錄, 文宗實錄, 端宗實錄, 世祖實錄, 韓國人物考, 國朝人物志, 淸船選考. 〈趙炳魯〉

Ⅳ. 고양시 문화 유적지



IV. 고양시 문화 유적지

3. 문봉서원(文峰書院)과 고양팔현(高陽八賢)

1. 문봉서원의 창건과 발전

일산구 문봉동 빙석촌 입구에 있던 문봉서원은 성리학이 최고로 발달한 조선시대에 건립된 대표적인 서원 중의 하나이다.

서원(書院)은 16세기 사대부층의 공론(公論)에 의해 향촌사회가 운영되고 성리학적 지배 질서가 고양되던 조선 유교사회의 역사적 산물이었다. 그러나 임진왜란 이후 점차 그 본질이 변질되기 시작하여 서원의 난립현상이 야기되었다. 따라서 그에 따른 각종 폐해는 서원의 목적 및 기능을 외면한 채 농민 수탈의 기관으로 변하고 당쟁의 소굴로 변모하였다. 이것은 조선후기 대원군의 서원철폐령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으며, 이때 문봉서원도 함께 철폐되고 말았다.

고양시에는 현재 덕양구 행주외동에 행주서원(幸州書院)과 일산구 성석동에 용강서원(龍江書院)이 남아있다. 이 중에서 행주서원은 권율장군의 행주산성 전공을 기리기 위해 조선 현종 7년(1841)에 왕명에 의해 건립되면서 바로 사액되었다. 그리고 용강서원은 설립연대는 알 수 없으나 1980년에 일산구 성석동에 중건되었다. 이 서원에는 고려 고종 때의 무신 충정공(忠靖公) 박서(朴喜)와 조선 태종때의 충민공(忠愍公) 박순(朴淳)선생과 조선조 영조때 경헌공(景獻公) 조상경(趙尙綱) 선생을 제향하고 있다. 따라서 이 두 서원과 문봉서원을 비교할 때 양자는 서원 본래의 역할이 상이함을 알 수

있다.

즉, 행주서원과 용강서원은 정부의 교화적 인물존숭책이면서 문중(門中) 조상의 위업을 기리는 개인에 대한 의례적 성격이 강한 반면, 문봉서원은 강학(학문을 배우고 익히며 토론하는 학문) 및 지방 향촌사회의 장수처로서의 역할과 선현의 유덕을 본받자는 뜻도 있어 전자보다는 정치적·사회적 역할이 더욱 강했던 것이다.

2. 문봉서원의 창건

문봉서원은 조선조 숙종 14년(1688)에 건립되어 숙종 35년(1709)에 왕으로부터 사액을 받은 고양시 최초의 서원이지만 현존하지는 않으며 문봉동 빙석촌에 그 흔적만이 남아 있다.

이러한 건립과 사액 시기는 신증동국여지승람과 동유서원총록(東儒書院叢錄)의 경기도편에 의거해 기록되어 있으며 또 서원가교(書院可攷)에도 그 기록이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서원승록을 보면 숙종 17년(1691) 10월 21일 고양유생 유하익이 밝힌 바에 의하면 고양유생들이 남효온·김정국·기준·민순의 祠宇에 정지운·홍이상을 배향하고 사액해 줄 것을 진소(陳疏)하고 있다(서원가고 권3, 숙종 17년 10월 21일자)는 기록이 있다.

이 기록에 의하면 유하익이 남효온의 외손으로 사실 외선조인 남효온이 배향된 사우의 추배와 사액을 청할 경우 문제가 생길

듯 싶어 소관을 대행코자 했던 것이며 이때는 정지운과 홍이상의 추배만 이루어지고 사액은 허락되지 않았다. 그후 문봉서원에 대한 사액이 숙종 35년에 이루어졌다고 하나 이때 숙종이 지어준 제문을 보면 건립과 시기에 있어 몇가지 의문점이 노출되고 있다.

문봉서원에는 소위 ‘고양8현’이라고 불리는 유학자들의 위패가 봉안돼 있는데 행촌 민순, 추강 남효온, 사재 김정국, 복재 기준, 추만 정지운, 모당 홍이상, 석탄 이신의, 만회 이유겸 등이 바로 그들이다.

그러나 서원에는 배향은 그 선후가 있게 마련이며 지역적 세력 기반의 성쇠에 따라 변화가 있게 마련인데 문봉서원도 예외는 아니었다. ‘경기지(京畿誌)’(1842~1843)의 고양군편을 보면 문봉서원에는 8현이 아니라 신효(申曉)가 추가되어 9현이 배향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다른 기록들에도 그의 추배에 대한 관계 기록이 없을 뿐만 아니라 구전되거나 군지의 기록에 없는 노릇이다.

3. 고양팔현의 사회적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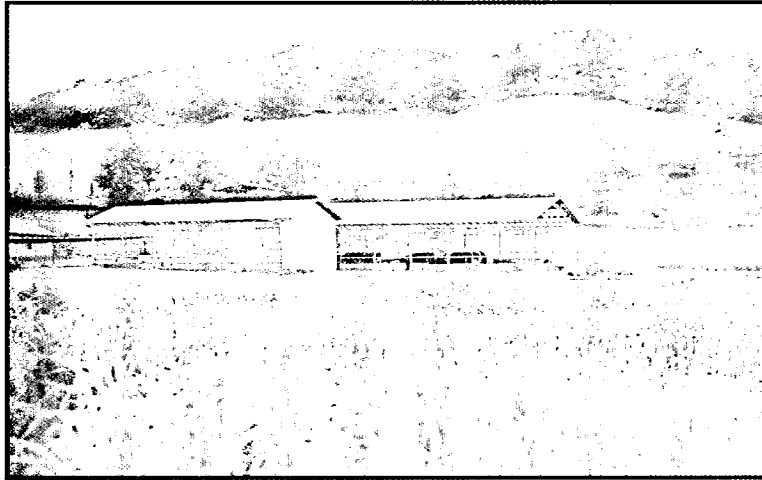
고향팔현은 도학적 연원이 바르고 깊은 관인이요 학자로서 존경받고 어진 스승이 될만한 인물이었으며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이들이 문봉서원에 제향될 수 있었다. 그리하여 추만과 모당 그리고 석탄과 만회의 추배가 향촌의 의논에서 나왔으며 많은 선비들이 존경받는 스승의 공을 기리는 의미에서 사액이 이루어졌던 것이다.

또 서원은 향교를 대신하여 향촌교화의 역할을 충실히 이루어냈다. 즉, 향교가 피역(역을 피하는 일)의 소굴로 변화하면서 양반 자제들은 향교의 입학을 기피하였다. 그리하여 양반들은 관학의 부흥과 교화의 구심체로서 서원의 설립과 보급이 활발하였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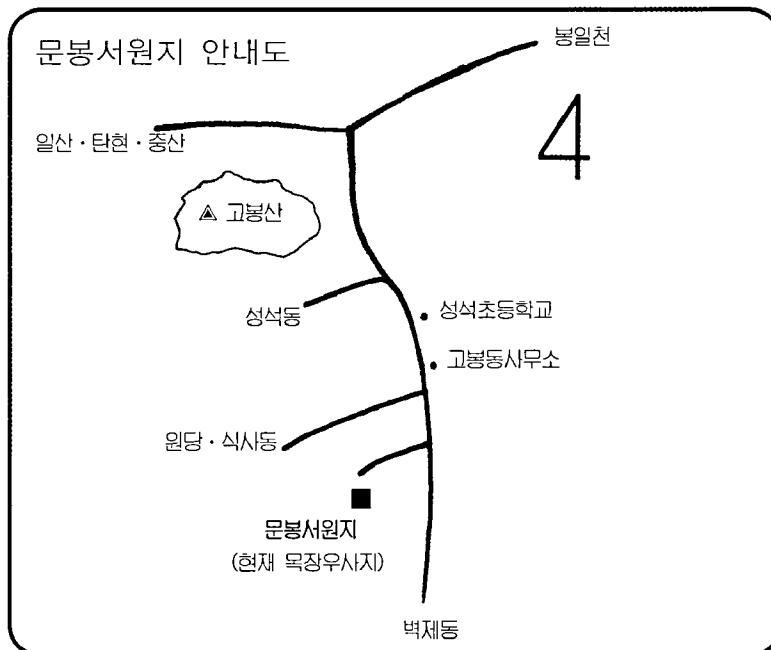
4. 맺은말

문봉서원에 제향된 고양8현은 도학적 성리학자요, 지치(至治)의 구현을 추구하는 관인으로 후학의 양성과 학생으로서 사람의 모범을 보였다. 이런 이유로 그 제자들은 8현의 유덕을 본받으면서 강학과 교화를 위해 유림의 중의를 모아 서원을 건립하게 되었고 이는 서원의 본래 목적과 의의에 부합되는 것이다.

그러나 간혹 문중(가문)적 성향이 필요 이상으로 강하게 나타난 것을 계기로 씨족 혹은 가문간의 대립과 경쟁을 유발하는 부정적 측면도 노정되어 왔음을 부인할 수 없다. 즉, 서원은 어느 특정한 한 가문의 위상을 높이려는 이기적 목적물로 이용되기 보다는 반대로 존현을 통한 교화의 수단임을 알고 서원 전통을 올바르게 계승해야 한다는 것이다. 바로 이점에서 서원을 복원하는 진정한 의미와 그 존재가치 및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 문봉서원지 원경



5. 고향 팔현(八賢)

■ 남 효 온(南孝溫)

1454(단종 2)~1492(성종 23)

자는 伯恭, 호는 秋江·杏雨·最樂堂, 본관은 宜寧, 愼의 아들.

金宗直의 문인으로 金宏弼·鄭汝昌·金時習·安應世 등과 친교가 있었다. 어려서 아버지를 여의고 편모 슬하에서 자랐는데 효자라는 칭송을 들었고 뜻이 크고 기개가 있어서 남에게 구속을 받지 않았다.

앞서 世祖가 顯德王后(단종 모)를 폐하고 그 능(昭陵)을 물가에 移葬했었는데, 그는 18세의 어린 나이로 1478년(성종 9) 소릉의 복위를 상소했다. 그러나 당시 都承旨 任士洪과 영의정 鄭昌孫의 저지로 上達되지 못하자 이로부터 세상 일에 흥미를 잃고 유랑생활로 39세의 짧은 일생을 마쳤다.

時事를 한탄하여 산에 올라 통곡을 하기도 하고 타인과의 대화에 당시 忌諱하는 말도 거리낌 없이 하였으므로 知己인 金宏弼·鄭汝昌 등까지 그를 꺼렸다. 한번은 金時習이 ‘나는 世宗의 厚恩을 입었으니 이런 고생도 마땅하거니와 그대는 나와는 다른데 어찌하여 世道를 위한 계책을 세우지 않는가?’ 하니, ‘소릉에 관한 일은 천지의 대변인데 소릉이 복위된 뒤에 과거에 나아가도 늦지 않다’고 하여 김시습도 더 이상 강권하지 못하였다.

1504년(연산군 10) 甲子士禍 때 김종직의 門人이었다는 것과 소릉 복위를 상소했다 하여 剖棺斬屍되었다. 許筠(1551~1588)의

『海東野言』에 의하면 그의 무덤이 狩獵場 禁標 안에 있어 楊花渡 江邊에 가져와 刑을 행하고 시체는 모래 위에 두고 갔는데 가족들이 수습하지 않아 소재를 알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는데 예전 葛頭里(現 大壯洞)에 있던 묘는 그 뒤에 찾아 다시 쓴 것인지 알 수 없다.(묘는 종친회에 의해 김포군 하성면으로 천묘됨.)

그에게 忠世라는 아들 하나가 있었는데 미친 증세가 있어 推官은 살려두려고 했지만 燕山君은 ‘미친 자가 세상에 있으면 무엇하랴. 반드시 죽여라’ 하여 죽음을 당했다. 晩年에 六臣傳을 지어 단종을 위해 충절을 바친 여섯 신하의 사적을 드러내자 이 후부터 死六臣의 이름이 유행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 육신전은 오랫동안 햇빛을 보지 못하고 묻혀 있다가 肅宗 때 비로소 간행되었다.

1513년(중종 8) 소릉이 追復되면서 伸冤되고, 左承旨에 追贈, 長興의 納陽書院, 咸陽의 西山書院, 宜寧의 鄉祠서원, 고양의 文峯書院 등에 祭享되었다. 그 뒤 1782년(정조 6)에 다시 이조판서에 加贈되고 文貞이란 시호가 내려지며 생육신의 彰節祠에 다른 생육신과 함께 제향되었다.

저술로는 앞서 말한 『六臣傳』 외에 成宗·燕山朝 文人들의 일화와 연산군의 弊政 일화를 소재로 한 『秋江冷話』, 자신과 친히 지낸 師友 50여인에 대한 言行·文章·逸話 등을 기록한 『師友名行錄』이 있고, 문집으로 『秋江集』이 전한다.

묘는 대장동에 있었으나 신도시 개발무렵 김포시로 이장되었다.

■ 김 정 국(金正國)

1485(성종 16)~1541(중종 36)

자는 國弼, 호는 思齊, 본관은 義城, 參奉 璉의 아들, 慕齊 安國의 동생.

형과 함께 寒暄堂 金宏弼에게서 수학하여 문장과 학술이 어깨를 나란히 했고, 正事에는 형보다 낫다는 칭송이 있었다. 1507년(중종 2) 小科에 합격한 뒤 1509년의 別試 文科에 장원, 1514년 賜暇讀書를 했으며, 舍人·吏曹正郎·典翰·承旨 등을 거쳐 1518년 黃海道觀察使로 나가 교육에 큰 관심을 두었다.

이듬해 己卯土禍가 일어나자 疏章을 草해 올리려고 하다가 조금 뒤 사태가 급박하여 소를 올려 보아도 유익함이 없고 한갓 禍만 激하게 될까 염려하여 중지하였는데 대간이 이 일을 알게 되어 탄핵받아 파직되었다.

파직 후 본군 中面 芒洞으로 퇴거, 정자를 지어 이름을 思休라 하고, 자연을 벗하여 학문에 전심하니 많은 선비들이 문하에 모여들었다. 그리고 自號를 八餘居士라 하였다. 그의 형 안국 역시 파직되어 驪州에 퇴거해 있었는데, 형이 얼마 남지 않은 餘生

을 함께 모여서 살자고 권했지만 부녀자들이 모여 살다보면 友愛가 형클어지기 쉽다는 이유로 계속 高陽에 눌러 살았다.

野人 생활 20년만인 1537년(중종 32)에 복관, 이듬해 全羅道觀察使가 되어 便民祛弊라는 시정책을 건의, 대부분 시행케 했으며, 2년 후 兵曹參議·工曹參議를 역임, 이어 慶尙道觀察使로 나가 善政을 베풀었으므로 1년의 관찰사 임기를 연장하자는 논의까지 있을 정도였다.

1540년 병으로 사퇴했다가 후에 禮曹·兵曹·刑曹의 參判을 지냈다. 그는 형 안국이나 領相 鄭光弼의 至治主義를 지지했으나 급격한 개혁에는 반대하는 온건론자였다. 뒤에 左贊成에 추증되었다.

고양팔현의 한 사람으로 고양의 문봉서원을 비롯, 長湍의 臨江書院, 龍岡의 鰲山書院에 제향되었다. 시호는 文穆. 저서로는 「撫言」, 「性理大全節要」, 「己卯黨籍」, 「歷代授受承統之圖」, 「村家救急方」, 「警民編」, 「思齋集」 등이 있다.

이분의 묘는 현 파주시 장단면 전진교 건너에 있으나 군의 특별허가를 얻어야만 참배할 수 있다.

■ 기 준(奇遵)

1492(성종 23)~1521(중종 16)

문관. 자는 敬中, 호는 服齋·德陽, 본관은 幸州, 虔의 손자. 應教 讚의 아들, 趙光祖의 문인.

1513년(중종 8) 司馬 兩試에 합격하고, 이듬해 別試文科에 丙科로 급제, 史官을 거쳐 弘文館正字로 37세 미만의 堂下文官 중에서 선발되는 抄啓文臣이 되었고, 湖當에 선발되어 賜暇讀書 했다. 1516년 著作으로 天文隸習官을 겸했고, 檢討官 修撰을 지낸 후 檢詳·掌令·侍講官을 역임하고 1519년(중종 14) 應教를 거쳐 典翰에 올랐다. 이해 11월 己卯士禍가 일어나자 하옥되었다. 趙光祖 등의 과격한 논의에 아부하였다는 이유로 국문 받을 때의 供招는 다음과 같다.

신은 나이 28세입니다. 소년 적부터 옛사람의 글을 읽어 집에서는 孝道와 友愛를 정성스레 하고, 조정에서는 忠誠과 義理를 힘껏 행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뜻이 같은 사람과 옛도를 講究하여 나라를 堯舜시대의 다스림과 같은 경지에 이르도록 기약하였습니다. 착한 자는 상대하고 착하지 않은 자는 미워하였습니다. 光祖는 어렸을 때부터 交遊하였고, 金湜·金絳·金淨은 근래에 상종하였는데 그들의 논의가 과격한 줄 모르고 상종했을 뿐이며 아부하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튿날 본래의 죄명대로 牙山으로 귀양갔다가 얼마 뒤 穩城으로 옮겼는데, 이듬해에는 모친상을 당하여 다시 유배지로 돌아왔다. 그런데 전일 牙山の 유배지에 있을 때 울적한 심정에 그곳 산에 올라 고향 하늘을 바라보며 어머니를 그리워한 일이 있었는데 그 사건이 뒤늦게 발각되었다. 그리하여 당시의 그 고을 縣監 裴鐵重은 죄인을 마음대로 놓아두었다고 문책을 당하게 되자 겁이나서 도망쳐 갔다가 스스로 돌아왔다고 供招하였다. 이 때문에 곤장을 맞고 園籬安置되었다가 自決하라는 명이 내려는데 絞殺되었다.

뒤에 吏曹判書에 추증되고, 己卯名賢의 한 사람으로 고양의 문봉서원을 비롯 穩城의 忠谷書院, 아산의 牙山書院, 鐘城의 鐘山書院에 각각 祭享, 시호는 文愍이다. 저서로는 『德陽遺稿』, 『戊寅記聞』, 『德陽日記』가 있다.

고양팔현의 한 사람으로 모는 예전 知道邑 葛頭里에 있었으나 지금은 移葬하여 德陽區 星沙洞 先塋下에 있다. 아들 大恒은 文科에 급제하여 벼슬이 漢城府判尹에 올랐고, 曾孫 自獻은 領相을 지냈으며, 四端七情論爭으로 李滉과 대등한 입장에서 性理學을 討論했던 高峯 大升은 조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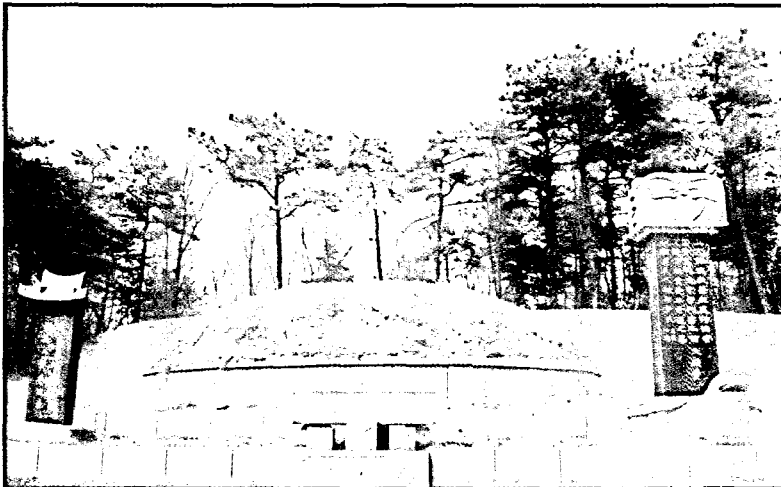
▣ 기준 선생 묘(奇遵先生墓) ▣

- 지정번호 : 향토유적 제17호
- 지정년월일 : 1986년 6월 16일
- 시 대 : 조선시대
- 소 재 지 : 성사동
- 소 유 자 : 행주기씨 종중
- 관 리 자 : 기도
- 재 료 : 토분 및 석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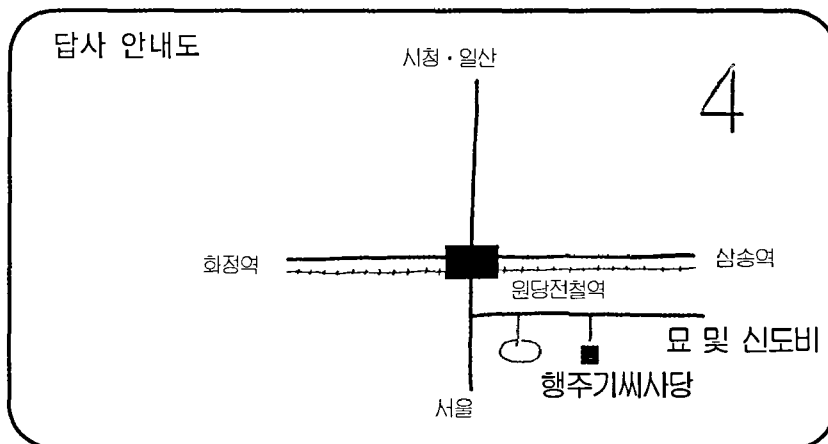
묘는 성사동 사근절 마을 뒷편에 서향하

여 위치하고 있다. 현재 봉분은 부인 尹氏와 쌍분을 이루고 있다. 묘 앞에는 옥개를 얹은 대리석 묘비와 상석, 향로석, 그리고 좌우에는 망주석, 문인석, 동물석 등이 각각 배치되어 있다.

‘服齋先生奇遵之墓贈貞夫人尹祔左’라고 쓴 묘비는 1962년 4월에 세운 것으로 비신은 높이 128cm, 폭 43cm, 두께 20cm의 규모이다. 묘소에서 서남쪽으로 1km 지점 아래에 선생을 제향하는 祠宇 德陽齋가 1985년에 건립되었다.



▲ 기준 선생묘



■ 정 지 운(鄭之雲)

1509(중종 4)~1561(명종16)

학자, 자는 靜而, 호는 秋巒, 본관은 慶州, 仁弼의 아들.

金安國·金正國 형제의 문하에서 학문을 닦았다. 中面에서 성장했으나 장성해서는 서울로 이사했다. 그러나 家勢가 빈한하여 집을 마련할 돈이 없었으므로 도성 안의 방을 빌려 살았으며 벼슬도 하지 않아 아내가 길쌈으로 살림을 꾸려갔다. 따라서 끼니를 잇지 못할 때가 많았으나 이런 것은 과념하지 않고 학문에만 정진하여 性理學을 깊이 연구했다.

그는 造化의 理로 天命圖說을 저술했는데, 그 說이 10節로 나누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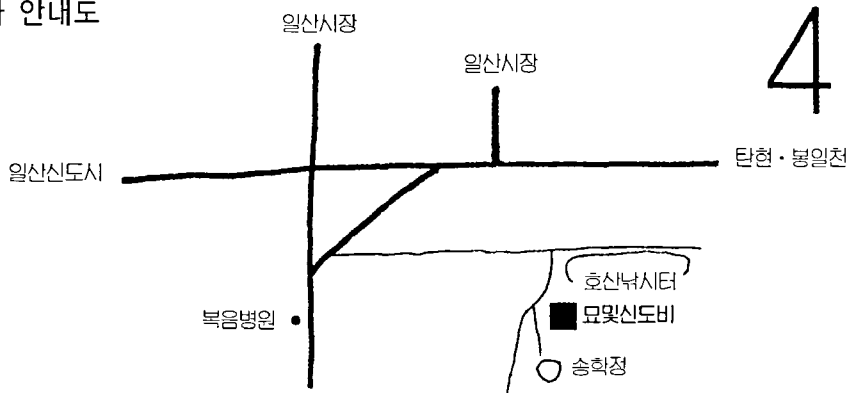
그 내용을 보면, 첫째 天命의 性, 둘째 五行의 氣, 셋째 理氣의 分, 넷째 生物의 本原, 다섯째 人과 物의 차이점, 여섯째, 人心

의 具, 일곱째 性情의 目, 여덟째 善惡의 機, 아홉째 氣質의 品, 열째 存省의 요점이다. 그리고 각 節에는 이를 해설한 論이 붙어 있다. 이 천명도설이 완성되자 이웃에 사는 당대의 碩學 李滉에게 이의 訂正을 청하였다. 秋巒의 학문연구 방법이 차례차례 단계를 거치지 않았고, 치밀하지 못하고 거듭 반복하지 않았으므로 투철한 견해도 있었으나 성긴 곳 또한 많았다.

이에 이황이 周濂溪와 子思의 설을 참고하여 그릇된 곳을 고치고 모자라는 곳을 보충하니, 무릇 사람과 사물의 타고난 성품과 理와 氣가 化해서 생김을 손바닥을 보듯 한 하게 알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이황과의 인연으로 학자적 명성을 얻게 되었다. 그리고 이것이 또 기고봉과 이황 사이에 벌어진 四端七情論爭의 발단이 되었다. 뒤에 문봉동에 있는 文峯書院에 제향되었다.

고양팔현의 한 사람

답사 안내도



MEMO

▣ 정지운 선생 묘(鄭之雲先生墓) ▣

- 지 정 번 호 : 향토유적 제11호
- 지정년월일 : 1986년 6월 16일
- 시 대 : 조선시대
- 소 재 지 : 일산동
- 소 유 자 : 경주정씨종중
- 관 리 자 : 정영흥
- 재 료 : 토분 및 석물

묘는 일산동 中山마을 고봉산 남쪽 기슭에 위치하고 있으며 配 貞夫人 忠州安氏의 묘와 쌍분을 이루고 있다. 묘 앞에는 모두 3基의 묘비와 상석, 향로석, 그 좌우에는 망주석, 문인석을 각각 설치했다.

명종 17년(1562) 5월에 건립한 墓碣에는 '秋巒居士鄭之雲之墓'라 새겨져 있는데 비문은 퇴계 李滉이 짓고 宋寅이 썼다. 비의 규모는 높이가 157cm, 폭 61cm, 두께 32cm이다. 1981년 2월에 건립한 2기의 묘비는 대리석 비신에 화강암 이수를 갖추었다.

정지운은 조선시대 중기 고양(高陽)이 낳은 대표적인 성리학자로서 고양 8현 중의 한 사람이다. 중종 4년(1509)에 출생하여 명종 6년(1561)에 돌아갔다. 자는 靜而며 호는 秋巒이다. 본관은 慶州로서 仁弼의 아들이다.

일찍이 慕齋 金安國과 思齋 金正國의 문하에서 학문에 힘써 성리학을 깊게 연구하였다. 성리학의 대가로서 일찍이 「天命圖說」을 저술하여 조화의 이치를 규명한 뒤에 한성에서 퇴계를 만나 수정을 받았다. 이것은 훗날 사칠논쟁의 발단이 된 중요한 학설인데 이 천명도설의 眞本은 일본에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단지 마이크로 필름화한 것이 국립중앙도서관에 보관되어 있을 뿐이다.

추만은 주희의 성리론을 한층 심화시켜 '四端은 理에서 發하고 七情은 氣에서 발한다.'고 주장하며 사단은 리에 그리고 칠정은 기에 배분하여 설명했던 것이다. 고양의 文峰書院에 祭享되었다.



▲ 정지운 선생 묘 전경

■ 민 순(閔純)

1519(중종 14)~1591(선조 24)

자는 景初, 호는 杏村·習靜, 본관은 驪興. 高陽八賢의 한 사람, 幸州(오늘날의 현천동)에 살았다.

일찍이 駱峯 申光漢의 門下에 출입하여 문장으로 자못 이름을 얻었으나 이는 儒者의 爲己之學이 아님을 깨닫고 花潭 徐景德에게 나아가 性理學을 배웠다.

宣祖初에 孝行으로 천거되어 孝陵參奉이 되고, 主簿를 거쳐 刑曹·工曹의 郎官, 兎山縣監을 거쳐 司憲府 持平에 제수되었다. 이때(1575) 仁順王后(명종비) 沈氏의 상을 당했는데 禮官들이 모두 烏帽黑帶로 상복을 정하자 宋나라 孝宗의 白帽三年의 제도에 따라 素冠에 素衣와 素帶를 착용하도록 건의하여 실행케 했다.

그 뒤 龍岡·淸風의 郡守로 나갔다 들어와 掌令에 제배되고, 이어 遂安郡守로 나갔으나 오래지 않아 사임했다. 다시 白川·延安·成川府使에 제수되었으나 모두 나가지 않았고 工曹·正郎·宗廟令·掌樂僉正·禮賓寺正·左通禮 등에 제수되어 간혹 출사하기도 했으나 대부분 사퇴하고 향리에서 후진 양성과 학문 연구만 몰두했다.

고양의 문봉서원을 비롯한 開城의 花谷書院에 제향되었다. 문집으로 「杏村集」이 있다.

▣ 민순 선생 묘 및 묘갈 ▣

(閔純先生墓 및 墓碣)

- 지 정 번 호 : 향토유적 제8호
- 지정년월일 : 1986년 6월 16일
- 시 대 : 조선시대
- 소 재 지 : 현천동
- 소 유 자 : 여흥민씨종중
- 관 리 자 : 민갑식
- 재 료 : 토분 및 석물

현천동 거무내 마을에 위치하고 있으며 配 淑人平壤趙氏와 淑人全州李氏가 함께 3基의 봉분이 나란히 자리잡고 있다.

민순의 봉분 앞에는 「通訓大夫通禮院 右通禮 習靜先生 閔公之墓」라고 쓰여진 묘비가 있으며 우측에 烏石의 墓表가 1983년 9월 18일 宗中에 의해 건립되었다.

묘 앞에는 석물로 망주석, 상석, 향로석이 갖추어져 있다. 묘소 아래 50m에 있는 墓碣銘에는 「習靜先生 閔公墓碣銘」이라는 篆字만 확인될 뿐 비문은 판독하기 어려운 정도로 마멸이 심하다. 비문은 門人 洪可臣이 짓고 글씨는 金玄成이 썼으며 篆字는 盧稷이 썼다. 흰 대리석으로 된 이 비의 규모는 높이가 220cm, 폭 80cm, 두께 25cm이다.

민순은 조선 중기의 학자로 文峰書院에 제향된 高陽八賢의 한 사람이다. 중종 14년(1519)에 출생하여 선조 24(1591)에 돌아갔다. 자는 景初, 호는 杏村 또는 習靜으로 본관은 驪興이다.

처음에는 낙봉 申光漢에게 글을 배운 뒤 화담 서경덕을 찾아가 그의 門人이 되었다. 鄉試에 장원을 하였으며 선조 초 효행으로 조정에 알려져 孝陵參奉으로 발탁되었다. 그 뒤 典牲署 主簿로 특진되고 형조·공조

의 佐郎을 거쳐 兎山縣監으로 있다가 사직하였다. 그러나 곧 조정의 부름으로 司憲府 持平이 되었다.

이때 마침 仁順王后의 喪禮가 있었는데 禮官들이 烏帽黑帶로 상복을 정하자 상소하여 송나라 효종의 白帽三年의 제도를 준수하도록 건의하여 실시케 했으며 그 뒤 龍岡縣令, 淸風郡守로 외직을 받은 후 司憲府 掌令을 역임하고 遂安郡守로 나가 善政을 베풀고 그 덕망을 내외에 펼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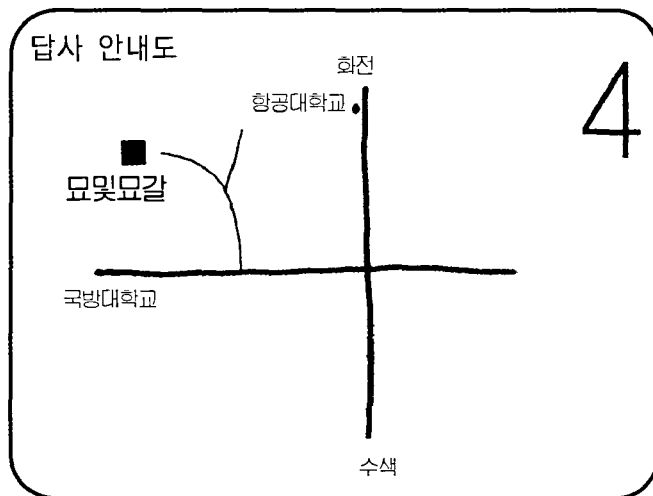
그 뒤 工曹正郎, 禮賓寺正, 通禮院 禮通

등에 임명 되었으나 학문에 정진할 수 없다가 하여 모두 사퇴하고 향리에서 후진 교육과 학문 연구에만 전심하였다. 특히 어버이에 대한 효성이 지극하여 將仕郎公이 瘡病을 앓자 밤낮으로 간호하며 곁을 떠나지 않았으며 상을 당하여 예를 준수하므로 보는 이마다 감동하여 時服하였다고 한다.

75세를 일기로 幸州里 자택에서 돌아갔으며 개성의 花谷書院과 高陽 文峰書院에 제향되었다. 저서로는 『행촌집』이 있다.



▲ 민순 선생 묘 전경



■ 홍 이 상(洪履祥)

1549(명종 4)~1615(광해군 7)

문관, 자는 元禮 혹은 君瑞, 호는 慕堂. 본관은 豐山, 10세에 小學을 통독한 뒤 조금 장성하여 閔純의 門人이 되었다가 다시 李珥의 門人이 되었다. 1573년(선조 6) 司馬試에 합격하고 1579년 式年文科에 壯元하여 禮曹·戶曹의 佐郎과 正言·修撰·知製敎·兵曹正郎을 역임한 후 賜暇讀書했다.

校理가 되었을 때 經筵席上에서 鄭汝立이 일찍이 師事했던 李珥를 심히 혈뜬는 것을 보고 이를 반박함으로써 宣祖의 지지를 받았다. 이어 直提學·同副承旨를 역임, 吏曹參議가 되고 1592년(선조 25)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禮曹參議로서 왕을 호종하던 도중 副提學으로 옮겼다가 平壤에 이르러 兵曹參議에 제수되었다.

1594(선조 27) 聖節使로 明나라에 다녀온 후 그해 慶尙道觀察使로 나가 備邊司와 서로 연락, 倭將 小西行長과 加藤清正간의 離間策을 강구, 추진했다.

그후 들어와 大司成을 역임하고 大司憲에 移拜되었을 때 嶺南儒生 文景虎 등이 鄭仁弘의 사주를 받아 成渾 배척 상소를 올리자 이를 반박하고 성혼을 변호하다 安東府使로 좌천되었다. 1607년 淸州牧使가 되고, 1609년(광해군 1) 대사헌에 在任되고, 1621년 開城府留守에 올랐다.

고양팔현 중의 한 사람, 시호는 文敬, 저서로는 「慕堂遺稿」가 있다.

▣ 홍이상 선생 묘 및 신도비 ▣

(洪履祥 先生 墓 및 神道碑)

- 지 정 번 호 : 향토유적 제13호
- 지정년월일 : 1986. 6. 16
- 시 대 : 조선시대
- 소 재 지 : 성석동
- 소 유 자 : 豐山洪氏宗中
- 관 리 자 : 豐山洪氏宗中
- 재 료 : 土墳 및 石物

묘는 성석동 城洞 高峰山 기슭에 동향하여 위치하고 있다.

配贈貞敬夫人 安東金氏의 봉분과 雙墳을 이루었는데 봉분의 둘레는 각 15m이고 높이는 240cm, 묘앞에는 묘비, 상석, 향로석이 있으며 그 좌우에는 망주석, 문인석이 각각 배치되어 있다. 봉분 앞으로 李穡이撰한 묘비가 있는데 크기는 높이 170cm, 폭 65cm, 두께 25cm이다.

신도비는 묘소에서 약 150m 아래 지점에서 있는데 인조 8년(1630)에 건립하였다. 현재 화강석의 귀부는 작은 평형으로 마멸이 심하며 이수에는 조각이 정교하고 뚜렷하게 볼 수 있다. 비문은 李廷龜가 짓고 李玟이 썼으며 金尙容이 篆을 하였다. 대리석 비신의 규모는 높이 200cm, 폭 115cm, 두께 29cm이다.

홍이상은 조선 시대 중기의 문신으로 명종 4년(1549)에 출생하여 광해군 7년(1615)에 돌아갔다. 처음 이름은 麟祥이며 자는 元禮 또는 君瑞이다. 호는 慕堂이며, 본관은 풍산으로 修의 아들이다.

高陽八賢의 한 사람인 杏村 閔純의 문인으로 선조 6년(1573) 司馬試를 거쳐 6년 뒤 식년문과에 갑과로 급제하였다. 예조와 호조 좌랑, 파랑을 거쳐 정언 수찬, 知製敎를

거쳐 兵曹正郎을 지냈다. 사가독서를 한 후에 교리, 직제학, 동부승지 등을 거쳐 이조참의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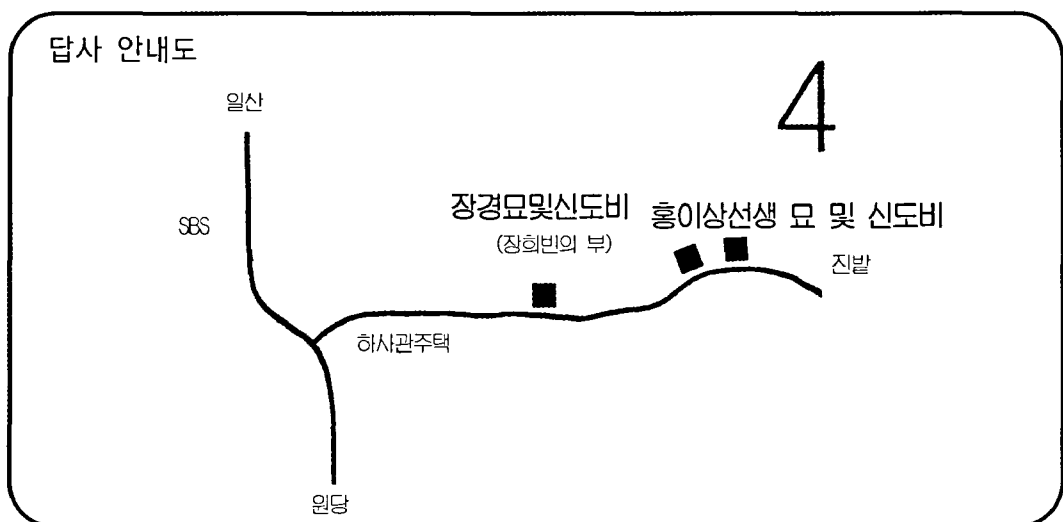
선조 25년(1592) 임진왜란 때는 예조참의로서 왕을 평양까지 扈從하였으므로 병조참의에 전임되었다. 선조 27년(1594) 聖節使로 명나라에 다녀온 뒤 곧 경상도 관찰사로 외직을 맡았는데 備邊司와 긴밀한 연락을 취하여 왜장끼리의 이간책을 강구하여 성공시켰다. 전란이 끝난 뒤 大司成이 되었

으나 영남의 유생 文景虎 등이 올린 成渾배척상소를 극구 반박하여 성혼을 변호하다가 안동부사로 좌천되었다. 이후 청주 목사가 되고 광해군 즉위년에 대사헌이 되었으나 당파간의 계속되는 옥사에 염증을 느끼고 모든 관직을 버리고 송도에서 돌아갔다.

시호는 文敬이며 저서로는 『慕堂遺稿』가 있다. 고양의 문봉서원에 제향된 고양팔현의 한사람이다.



▲ 홍이상 선생 묘 전경



■ 이 신 의(李愼儀)

1551(명종 6)~1627(인조 5)

자는 景則, 호는 石灘, 본관은 全義, 刑曹參議 元孫의 아들.

閔純의 문하에서 20여 년이나 수업하면서 사람들이 간혹 과거에 응시하라고 권고하면 ‘일찍 부모를 여의었으니 과거에 급제한다 한들 무엇이 영광스럽겠는가?’ 하면서 출세에 뜻을 두지 않았다. 1582년(선조 15) 學生으로 천거를 받아 禮賓寺參奉에 제수되었으나 나가지 않았고, 조정에서 1584년 다시 陵參奉을 제수하니 閔純의 권고에 의해 나아가 謝恩하고, 이어 宗廟署奉事가 되었다.

1592년 壬辰倭亂이 일어나자 鄉軍 3백명을 거느리고 적과 싸워 공을 세우고 司憲院直長이 되고 主簿로 승진하였다. 外職으로 나가 稷山縣監이 되었을 때 李夢鶴의 반란이 일어나자 天安郡守 鄭好仁 등과 더불어 군사를 이끌고 兵使에게 달려간 공으로 資級을 올려 주었다. 그 뒤 工曹佐郎·古阜郡守 등을 거쳐 1604년(선조 37) 林川郡守, 南原府使, 洪州·海州의 牧使로 지냈다. 光海君이 즉위하고 大北派가 집권하자 永昌大君을 죽이고 仁穆大妃를 유폐하려는 논의가 일어났을 때 副護軍으로서 「舜임금의 마음을 법받고, 순임금의 법도를 실천하라」는 말로 유폐를 반대했다. 이 때문에 會寧에 유배되었다가 이때 북쪽에서 後金의 동태가 심상치 않자 興陽으로 移配되었다.

1623년 仁祖反正으로 풀려나와 1627년(인조 5) 刑曹參議·刑曹參判을 역임하고 이해 丁卯胡亂으로 왕을 護衛하여 江華로 가던 도중 수원에서 병사했다. 뒤에 吏曹判書에 추증, 시호는 文貞이다. 文集으로 『石灘集』이 있다. 묘는 옛 도내동 將臺 동쪽에 있다. 고양팔현의 한 사람임.

■ 이신의 선생 묘 및 신도비 ■

(李愼儀先生墓 및 神道碑)

- 지정번호 : 향토 유적 제14호
- 지정년월일 : 1986. 6. 16
- 시대 : 조선시대
- 소재지 : 道乃洞
- 소유자 : 全義李氏宗中
- 관리자 : 이교응
- 재료 : 土墳 및 石物

묘는 도내동 西村마을 도래울산 기슭에 위치하며 配 貞夫人 慶州李氏의 묘와 쌍분으로 되어 있다. 묘 앞에는 상석, 향로석이 있으며 좌우에 망주석, 문인석이 갖추어져 있다. 묘 좌측의 대리석 묘비는 영조 25년(1749) 7월에 건립한 것으로 높이 250cm, 폭 60cm, 두께 20cm의 규모이다. 비문은 李匡師가 썼으며 장방형의 비좌와 팔작지붕형 옥개를 갖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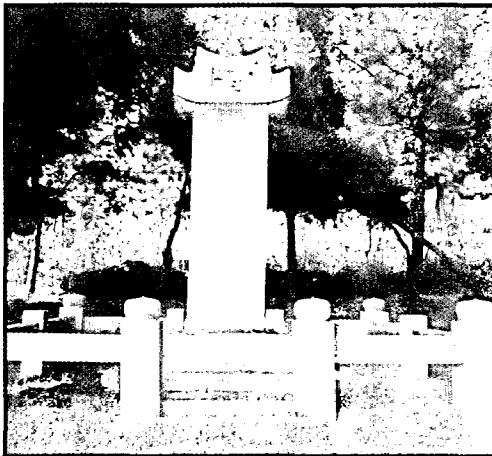
신도비는 4면 刻字로 앞면 상단에 ‘贈吏曹判書 文貞公 石灘 李先生 神道碑銘’이라 篆字되어 있다. 비문은 우암 宋時烈이 지었고 尹用求가 追書했으며 김영한이 追篆하였다. 옥개가 갖추어진 비의 규모는 높이 160cm, 폭 56cm, 두께 27cm이다.

이 신의는 조선조 중기의 문신으로 명종 6년(1551)에 출생하여 인조 5년(1627)에 돌아갔다. 자는 景則이며 호는 石灘이다. 본관은 全義로서 參議 元孫의 아들이다.

杏村 閔純의 문인으로 선조 15년(1582) 학행으로 추천을 받아 禮賓寺奉事가 되고 參事 宗廟署奉事를 지냈다. 1592년 임진왜란때 향군 300명을 거느리고 적과 싸워 공을 세워 司憲院直長이 되었다. 그후 司宰監主簿, 工曹佐郎, 古阜郡守 등을 거쳐 선조 37년(1604) 林川郡守가 되었다. 이어 南原

府使, 洪州, 海州 牧使를 지냈으나 광해군 때 영창대군을 죽이고 仁穆大妃를 유폐하려는데 대해 항소를 올렸다가 회령에 유배되었다. 1623년 인조반정으로 풀려나와 刑曹參議, 刑曹參判을 역임하였다. 인조 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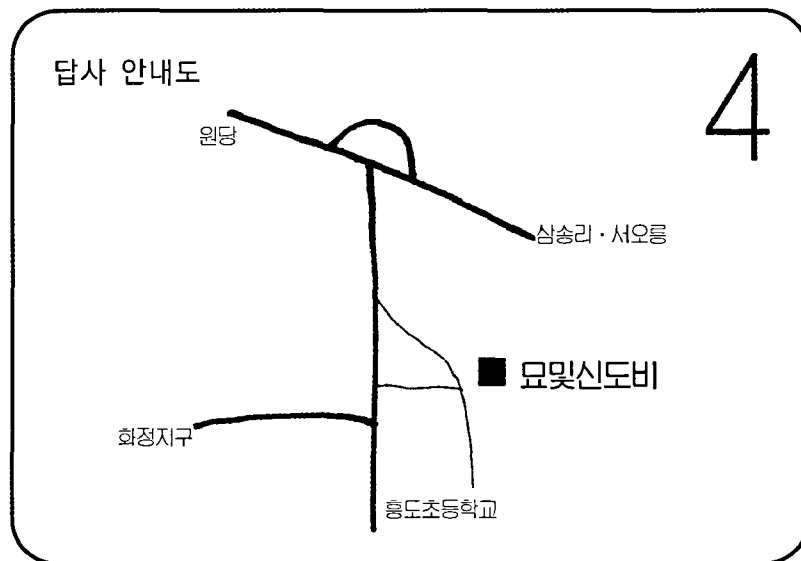
정묘호란 때 왕을 호종하여 강화로 가던 도중 수원에서 병사하였다. 吏曹判書에 추증되고 시호는 文貞, 문봉서원에 제향된 고양 팔현 중의 한 사람이며 저서로는 『石灘集』이 있다.



▲ 이신의 선생 신도비



▲ 이신의 선생 묘 전경



■ 이 유 겸(李有謙)

1586(선조 19)~1663(현종 4)

문관, 자는 受益, 호는 晚晦松灘, 본관은 牛峯, 관찰사 之信의 손자.

趙守倫·成渾의 門人으로 俗學보다는 存心養性에 주력했다. 1612년(광해군 4) 金直哉의 誣獄이 일어나 스승 趙守倫이 연루되어 옥사하니 다른 사람들은 모두 피하는 데도 두려움을 무릅쓰고 禮로써 殮襲하여 장례를 치루었다.

곧이어 廢母論이 일어나자 이를 반대하는 상소를 올렸다가 禁錮되었다.

1623년 仁祖反正이 일어나자 學行으로 천거되어 新寧縣監이 된후, 工曹佐郎·咸興判官을 역임했다.

1636년(인조 14) 丙子胡亂이 일어나자 의병을 일으켜 江華에서 싸웠으며, 벼슬은 戶曹參議에 이르렀다. 아들 翽의 공으로 영의정에 추증되었다.

고양의 문봉서원에 제향되었다. 묘소는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에 있다.

MEMO

IV. 고양시 문화 유적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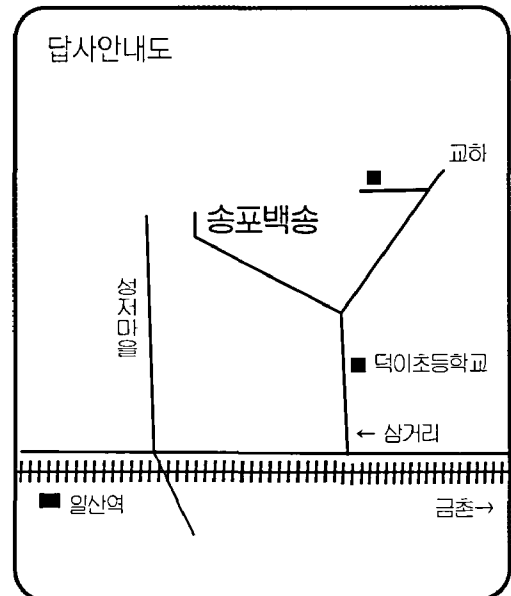
III : 송포백송(松浦白松)

- 종 류 : 천연기념물 제60호
- 소재지 : 일산구 송산동(덕이) 산 207번지
- 관리자 : 고양시
- 규 모 : 높이 10m, 둘레 2.9m
- 송포백송의 특징은
 - ① 줄기는 어려서 회청색(灰青色)이고 자라서는 회백색(灰白色)
 - ② 본줄기가 없이 가지가 많다.
 - ③ 솔잎이 셋씩 나온다.
 - ④ 희귀종 식물로 우리나라에는 서울에 4그루, 경기의 광주, 이천, 경남의 밀양, 충남의 예산, 충북의 보은에 있을 뿐이고 고양시에는 10여년전 관공서 학교에 어린 묘목을심었을 뿐이다.

- 심은내력 : 세종때 김종서가 함경도에 육진을 개척하여 그 곳에서 종사하던 최수원(崔壽元) 장수는 세조 13년(1468) 이시애(李施愛)가 난을 일으키자 이를 진압하는데 큰공을 세우고 고향(덕이)으로 돌아오면서 희귀목(稀貴木)인 백송에 교훈적인 뜻을 생각하여 가져다 심게 됐다. 그것은 이분의 비문(碑文)에서 알 수 있다. “白者表清白之志”요 “松者青青不變忠誠之心 須勿望白松之氣像” - ‘흰 것은 清白한 의지를 뜻함이요, 소나무가 靑靑한 것은 변함없는 충성심을 뜻함이니, 모를 지기 본받아 잊지말 것은 白松의 기상이다’ 라고 하였기 때문이다.



▲ 송포백송전경



IV. 고양시 문화 유적지

■ 14. 고봉 봉수대(高峰烽燧臺)

- 지정번호 : 사적 제191호
- 지정년월일 : 1970년 2월 28일
- 시대 : 조선시대
- 소재지 : 성석동 · 일산동
- 소유지 : 국방부
- 관리자 : 국방부
- 규모 : 높이 5m, 총길이 120m
- 재료 : 자연 석재(石材)

고봉 봉수대는 일산동 성석동이 경계를 이루고 있는 고봉산 정상 부분에 위치하고 있다. 이곳 고봉산은 해발 208.8m로 옛부터 별칭으로 테미산, 태산 등으로 불리우고 있다. 옛 문헌에는 이곳에 고봉산성이 있어 봉수대가 설치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현재의 봉수대는 산 정상 봉우리를 중심으로 직사각형으로 돌 석축의 총 둘레는 약 120m에 달하며 높이는 약 5m에 이르고 있다. 고봉 봉수대는 주변의 자연돌을 쌓아 만든 봉수대로 특별히 무너진 곳 없이 비교적 보존 상태가 양호하다.

이 고봉봉수대는 조선조 인조 14년(1636) 병자호란 때부터 고종 31년(1894)까지 봉수망 제4노선의 직봉(直烽)으로 파주군 교하면의 형제봉(兄弟峰)에서 봉화를 받아 해포 봉수대, 서울의 무악(安山) 봉수대에 전하는 역할을 하였다.

지금의 상태로 보아 그 규모나 구조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세종 29년(1447) 5월에 제정된 규정으로 그 규모를 유급해 보면 봉수

의 높이는 25척, 둘레 70척, 봉수대 아래쪽의 사면에는 30척의 규모로 여겨지고 있다. 고봉 봉수대 정상에서는 멀리 개성의 송악산, 강화의 마니산, 서울의 남산과 파주의 감악산 등이 조망되어 봉수대로서의 지리적 여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듯하다. 봉수는 봉수대를 중심으로 봉화를 올려 그 신호로써 다음 봉화대에 전하는 제도인데 옛부터 전통적인 통신수단 가운데 가장 신속하고 간편한 일반적인 송신 수단이라 할 수 있다.

■ 고봉산(高峰山)

산의 정산을 중심으로 남북으로 뻗은 능선 북동쪽으로 고봉동이며 남서쪽은 일산동과 탄현동을 경계 짓는다. 그리고 북쪽 능선 끝으로는 파주시 교하면에 닿는다. 일산역에서 정상까지는 4km에 위치하며, 파주시 교하면의 심학산을 제외하면 적어도 10km 이상에는 산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의 낮은 동산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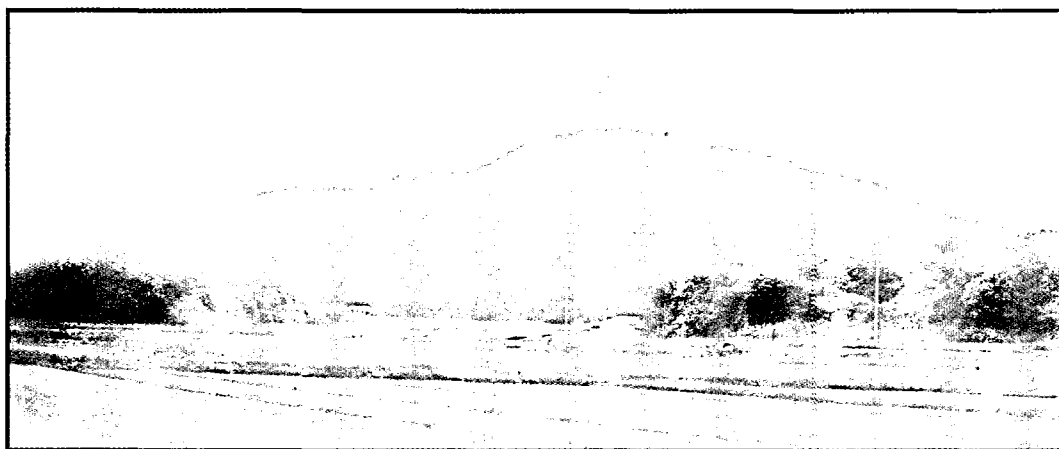
그래서 이 산의 꼭대기에서는 굽이치는 한강을 발아래 볼 수 있고 맑은 날은 개성의 송악산도 눈에 조망된다. 이 산의 꼭대기는 운동장 만큼이나 넓은 평지가 있고 평지의 가운데 남쪽지점에는 10여미터의 봉우리를 이루어 흡사 머리 위에 상투를 뭉개어 얹은 꼴로 구산동이나 가좌동에서 바라보면 산 정상에 떠를 두른 모양을 보게 된다. 그래서인지 일명 대위산(帶圍山), 대산

(帶山)이라고 부르며 방음으로는 ‘태미산, 텨미산’이라고도 한다.

한편 산의 정상에는 봉수대의 흔적이 있고 산 둘레에는 성을 쌓았던 흔적도 보이며, 산의 중턱에서는 와마석물(瓦馬石物) 등이 더러 출토되고, 묘의 봉분으로 보이는 것도 있다. ‘한씨미녀 설화’의 내용 중 봉화 이야기가 있는 것으로 보아, 삼국시대에는 이곳이 격전장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일제시대 때 왜놈들이 조선인의 정기를 꺾는다는 뜻으로 쇠말뚝을 박았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 산에서도 흔적이 나타난다. 6·25동란때는 치열한 전투가 이 곳에서 있었고, 정전 협정 이후에 이 산의 비탈에서 유골을 수없이 보았으며 이 산의 능선 홀트고아원 뒤쪽 산에는 일명 ‘금정굴’이 있어 수많은 주검이 가슴 아프게 역사의 뒤안길에 있으니 이 산은 민족 수난의 흔적을 지닌 산이라 하겠다.

이 산의 서쪽 산발치 중산마을 저수지 옆에는 천명도설(天命圖說)이란 역사적 학설로 유명하여 지금도 일본에서 연구되고 있다는 고양팔현의 한 분인 정지운의 묘가 있고, 남쪽 능선을 내려와 왼쪽으로는 고양팔현 중의 한 분인 홍이상 선생의 묘와 신도비가 있다. 또한 소개울쪽 도로 변에는 인동장씨 장경묘 및 신도비가 천묘되어 있다.

산의 동쪽 중턱에는 ‘만경사’, 산의 서쪽 중턱에는 ‘영천사’란 절이 있다. 물 맛이 괜찮은데 산 뒤쪽 수연약수의 맛이 더욱 좋다. 이 산은 봄이면 진달래, 여름이면 활엽수 수풀, 가을이면 낙엽을 밟으며 울창한 송림과 활엽수의 오솔길을 오르는데서 오는 흥취는 자못 흥겨운 기분을 주니, 산을 한바퀴 도는데 약 2시간이 소요되는 등산로로 우리 현대인의 휴식처요, 안식처가 되는 산이라 하겠다.



▲ 고봉봉수대 전경

IV. 고양시 문화 유적지

고봉산 한씨 미녀 이야기 (謠 講)

아주 옛날이었다. 사람들의 생활은 오직 의식주에 매달려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이 곳에서 저 곳을 가려면 수풀을 뚫고 산을 넘고 강을 건너는 수단이 쉽지 않았던 때이다. 사람들은 곡식이나 물고기 등 식량을 쉽게 생산할 수 있는 평야지대요, 배를 통한 교통이 좋은 강가를 찾아 모여살게 마련이었다. 세계 문명의 발상지가 강가였듯이 한강유역 중 한강하류 고양시 지역은 물자가 풍부하고 사람이 많이 모여사는 문명지였다. 그것은 역시 한강을 통한 교통로요, 식량이나 물고기 등 식량이 풍부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한반도는 백제, 고구려, 신라 삼국이 나라를 처음 세우면서 좋은 곳을 경략하기 위하여 으르렁거리며 뺏고 빼앗기고 앞치락 뒷치락 싸우는 요충지였다. 처음에는 이 곳을 백제가 차지하고 다스렸다. 고구려는 장수왕(長壽王) 때 국력을 길러 백제를 물리치고 다스리게 되었다. 그후 백제는 다시 힘을 쌓아 이 곳을 다시 수복하고는 철통같은 방어의 태세를 갖추게 되었다.

이때 고봉산과 한강 주변의 어떤 고을에는 한(韓)씨 성을 가진 부자가 살았는데, 그 집에는 봄바람에 너울이는 아름다운 꽃잎이라고나 할 자태와 가을하늘의 드높은 맑은 하늘처럼 청아한 눈동자를 지닌 18세의 고운 '주'라는 딸이 있었다. 아버지는 “허, 귀여운 여식에게 배필을 구해주어야겠는데……. 저 곱고 심성이 착한 여식의 상대

를 누구로 해야 한담.” 한탄하듯 추억이었다. 한주는 그 나름 “나도 어느 낭군을 맞아야 하나”하는 생각의 나래를 펼쳐 길가에 돌아핀 노오란 민들레를 하늘거리는 나비의 춤에 실어보곤 했다.

그러던 어느날 화창한 날 봄기운이 물씬 넘쳐 녹아나는 자연의 생각에 동화되어 담밖 동산의 오솔길을 거닐게 되었다. 그때 마침 그 곳을 두리번 사면을 살피며 지나가는 젊은 사나이가 있었다. 이 젊은이는 오솔길에서 사람을 만난다는 생각만으로 흠칫 놀란듯한 행동을 취하였다가 태연하려는 듯한 자세로 한주의 앞을 다가서 지나려 했다. 한주는 당황하듯 빨갛게 달아오른 볼을 다소곳이 숙여 멈춰 길을 비키고 있었다.

기꼴이 장대하나 이마가 넓고 서글서글한 눈에 충기가 서린 그러면서도 다정한 인품을 지닌 듯 후덕한 입술과 용모를 가진 젊은이는 그녀의 앞을 다가와서 그녀의 자태를 보는 순간 났을 잃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만 발이 얼어붙은 듯 멈춰지고 정신이 금방 혼미해지는 것이었다. 그는 소녀 한주를 지나쳐 서너걸음도 못가서 멈춰서고 말았다. 그도 그럴것이 그녀의 아름다움에 대한 첫눈에 느껴지는 감각은 금세 사나이의 정신을 아득한 혼미속의 착각으로 몰아넣어 눈은 아득한 현기증에 사로잡힐 지경이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틀림없이 하늘에서 지금 막 인간미담의 선경에 선녀가 나뭇이 내려온 것이

라는 착각에 빠져서 한동안 말문이 막혀 멍하니 서 있어야 했다. 한참만에 한주를 향하여 떨리는 음성으로 “낭자!”하고 불렀다. 한주는 깜짝 놀라 뒤돌아 젊은 사나이를 바라보았다. 굵고 무게가 있으나 인자함이 서린 음성은 자비라는 이름으로 우러러 무릎을 꿇어 존엄한 경의를 표하고 싶은 마음에 닿는 부름이었다. 젊은 사나이는 정신을 가다듬는 듯 눈을 지그시 떠서 한주를 바라보며 다가서서 “낭자는 대체 누구시오니까? 선녀가 아니시오니까?” 역시 떨리는 음성이었다. 한주를 바라보는 젊은 사나이는 비록 천민의 복장을 하고 있었지만 준수한 용모와 늙름한 자태는 보통사람이 아니요, 위엄있는 음성은 기를 압도하는 힘이 있음에 한주 역시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낭자, 낭자의 모습이 너무도 아름다워 황홀한 감정을 누를길 없어 무례함을 무릅쓰고 이렇게 여쭙습니다.”

“예, 소녀는 이 길아래 동네에 한씨 성을 가진 집의 여식입니다.”

한주는 낮으나 또렷하고 산울림의 여운 같은 음성으로 대답했다. 이 말을 들은 젊은 사나이는 말했다.

“나는 첫눈에 소녀와는 천상에서 인연을 맺고 이곳에서 다시 만난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라고 절절한 하소연과 절규같은 음성으로 사랑을 고백하고 자신의 신분을 밝혔다. 한주는 어느 사이 꽤 오랜동안 정을 나누어온 사이처럼 느껴졌다.

“소인은 고구려의 태자입니다. 부왕께서 이 곳을 백제에게 빼앗긴 후, 실지(失地)를 다시 찾기 위한 목적으로 정탐을 하려고 숨어들어온 것임을 낭자에게는 숨길 수 없어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임무를 끝내고 고구려로 돌아가 부왕을 뵈어야만 합니

다. 만나자마자 낭자와 헤어져야 된다는 것에 눈앞이 캄캄하고 정신이 아득하오 그러나 앞날의 영광과 행복을 위하여 떠나야만 되겠구려. 돌아가 전력을 펼쳐 즉시 군사를 동원하여 이 곳을 탈환하고 낭자를 만나 아 내로 맞이할테니 그때까지 부디 기다려주시오.”하고 젊은이는 떠나가고 말았다.

그후 고구려는 여러 차례 백제를 공격했으나 매번 실패 뿐이었다. 물론 한주는 식음을 전폐하다시피 근심과 한숨으로 안타까움에 몸이 여위게 됐다. 이런 중에 한주의 미색은 소문에 날개를 달고 고을 고을에 찾아들었다.

“누가 직접 선녀를 본 사람이 있어? 선녀가 있다면 아마도 한부자택 낭자를 일컫는 말일꺼야!”하는 이야기였다.

이 말은 이 고을 태수(太守)의 귀에까지 들어갔고, 태수는 청혼을 하기에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한주는 결혼을 언약한 사람이 있다는 말로 거절했다. 이 고을에서는 태수의 한마디 말이 법이요, 절대절명이었다. 그러자 태수는 화가 머리끝까지 올랐다. 태수는 한주를 강제로 잡아들였다.

“네가 장래를 약속한 사람이 누구인지 밝히려다.”

한주의 눈에는 땀동같은 눈물이 불을 타고 흘러내릴 뿐, 지그시 깨문 입술은 일자로 된 채 대답이 없었다.

“네가 장래를 약속한 사람이 누구인지 밝히지 못하는 것을 보니 틀림없이 적의 첩자와 장래를 약속하고 내통하고 있음이러다. 네가 사실을 토할 때까지 옥에 가두어 두겠노라. 여봐라! 이 계집을 하옥하라!”

한주는 옥에 끌려가면서 ‘적의 첩자’라는 말에 가슴이 울렁이고 뜨끔했다. 한편 고구려의 젊은 태자는 부왕의 서거로 왕위에 오르며 ‘안장왕’이란 직함을 갖게 되었다. 한

주가 처한 소식을 들으니 심회는 안전부절하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날 막료들을 한자리에 모이게 했다. 그리고는,

“짐은 계백현(階伯縣)을 회복하고 ‘한주’라는 여인을 구해오는 사람에게 후한 상을 내림은 물론 그 공을 높이 사겠노라. 한주라는 여인은 내 그 곳에 정탐 갔을 때 크게 협조하고 정보를 얻게 한 여인이었노라. 누가 짐의 마음을 기쁘게 하겠느냐? 그런 공을 서울시 짐은 공을 세운 사람에게 어려운 소청이라도 들어주리라.”

막료들은 들뜬 꿈과 걱정으로 웅성거렸다. 이때 을밀(乙密)이라는 장수가 부복하여 아뢰었다.

“아뢰옵기 황공하오나 소장에게 20명의 병사만 택하게 해 주시면 이들과 힘을 합하여 소기의 뜻을 이루겠사오니 청허하여 주옵소서.”

“장군이 짐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겠다니 내 다시 없을 기쁨이오.”

하고 허락하였다. 사실 을밀은 안장왕의 여동생 안학공주를 마음속 깊이 사모하고 있었기에 소청을 들어주신다는 왕의 말에 따라 그 같이 말했던 것이다. 을밀은 20명을 이끌고 계백현으로 잠입했다. 모두는 평복에 광대모양을 하고 칼은 옷속에 품어 숨겼다. 태수가 있는 마을에 이르러서는 춤추며 광대놀이를 하여 전혀 의심을 사지 않게 하며 관아에까지 왔다. 한편 태수는 생일을 맞이하여 잔치를 베풀어 풍악을 잡히고 즐겼다. 옥에 갇힌 한주를 데려오게 하고는 다시 마음을 돌리려 간절히 말했다. 그러나

한주는 일편단심 고개를 가로저었다. 화가 난 태수는 화가 치밀어 얼굴은 핏대가 서며 눈에는 광기가 발하여 벼락치는 소리를 질렀다.

“저 악귀같은 녀를 단칼로 저승에 보내리라. 여봐라!”

죽음을 찰나에 둔 한주였다. 불의 양쪽에는 눈물이 강줄기가 될 뿐이었다. 바로 이때, 자객으로서 광대로 위장한 을밀과 부하들이 품속에서 칼을 일제히 꺼내며 뛰어나와 “고구려의 대군이 익돛에 쳐들어왔다.” 천지를 진동할 큰 소리로 “와- 저기- 여기- 하니 술에 취한 사람들과 백제의 병졸은 혼비백산하여 고양이에게 쫓기는 쥐모양이거나 매에게 쫓기는 꿩의 형극이었다. 이 기회를 놓칠세라 활달하고 민첩한 고구려의 병사들이 칼을 번쩍이며 백제의 병사를 베고 찢러 처절한 황천객으로 만드니 나머지 도망치기에 바빴다.

드디어 을밀은 백제군을 몰아내고 한주를 구하였다. 대군과 접경지대에 주둔했던 안장왕은 이 소식을 듣고 기뻐하며 한주를 만나고 싶었다. 을밀에 의해 구출된 한주는 젊은 왕자가 말하기를 “고구려군이 이곳에 오거든 저 높은 산봉우리에 봉화를 올려 신호를 보내시오.”하던 말을 기억하고는 산에 올라 봉화를 밝혔다.

마침내 안장왕은 한주를 만나러 왔고 한주는 그 넓은 가슴에 한없이 기쁜 흐느낌으로 안겨 울었다. 그리고 한주는 안장왕의 왕비가 되었다고 한다. 물론 을밀도 안학공주를 아내로 맞았다고 한다.

Ⅳ. 고양시 문화 유적지

三十八 용강서원(龍江書院)

- 시 대 : 조선시대
- 소재지 : 일산구 성석동(감내)
- 소유자 : 진천 박씨 종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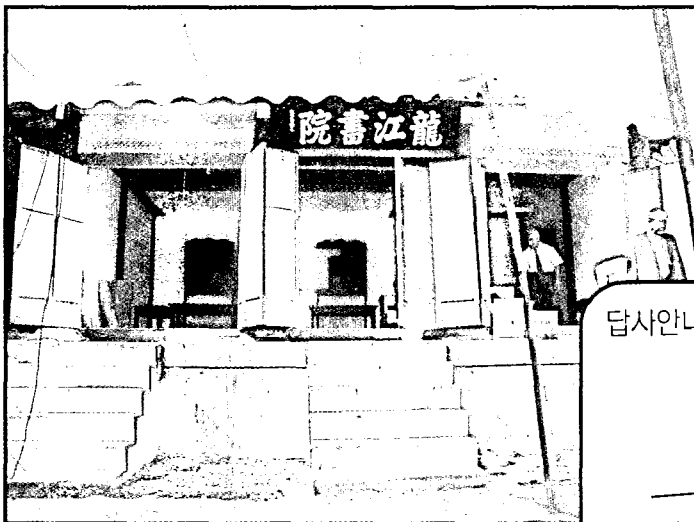
용강서원은 원래 함경도 유림의 발의로, 충민공 박순 선생(忠愍公 朴淳 先生)께서 함경도 용흥강변에서 함흥차사로서 충성을 다하다 돌아가신 것을 기려 봉향(奉香)토록, 조선조 숙종 12년(1686년)에 건립 사액(賜額)되었고, 그후 역시 함경도 유림의 발의로 경헌공 조상경(景獻公 趙尙綱) 선생이 추배(追配)되었는데 용흥강변에 세워져 있었다.

6·25사변이나 국토분단으로 봉향을 못

하게 되니 안타깝게 생각한 후손과 사림(士林)의 발의로 각계인사가 협조하여 1980년 5월 6일 성석동에 서원을 중건하게 되었고, 박순 선생의 고조이신 고려때의 명장 충정공(忠靖公) 박서(朴犀) 선생의 위패를 모시게 됐다. 박서 선생은 평안북도 구성에 정공사(旌功祠)에 봉향되었었다.

용강서원 뒤쪽 200m지점 황룡산 중턱에는 박순 선생의 부인 장흥 임씨의 묘가 있다.

※ 이 마을의 이름은 감내(甘川)이라는 것과 부사문촌(婦死門村)이란 내력을 살펴 알아야 하겠고, '황룡산과 두껍바위'의 전설이 서려 있음도 알아야 겠다.



▲ 용강서원

답사안내도

황룡산



IV. 고양시 문화 유적지

1. 부사문촌(婦死門村)과 열녀임씨

서울역에서 북쪽으로 향하는 경의선에는 일산(一山)역이 있다. 이 역에서 내려 파주시 봉일천을 향하여 2km를 좀 지나면서 감내(甘川)란 마을에 이르게 된다. 이곳은 물이 달다고 하여 옛날부터 불려진 이름이다. 일명, 한 여인이 지아비에 대한 정성어린 기구가 부족하여 지아비가 참혹한 죽임을 당하게 됐다고 자책하여 스스로 목매어 죽음으로써 왕이 열녀문을 내려주었었기 때문에 이 마을을, 부사문촌(婦死門村)이라고도 했었다는 것이다.

이 마을은 숲이 우거진 황룡산자락 동남방향의 양지바르고 수려한 경관과 감천이 있었기 때문에 조정에 높은 벼슬을 하는 사람이 살게 됐는데, 인근 마을에서는 박대감댁이라 불렀다는 것이다. 이 댁의 안방 마님 장흥 임씨는 성품이 겸손 온후하였기 때문에, 고을 주민은 우러러 사모와 칭송이 자자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장흥 임씨에게는 태산같은 근심이 생기게 됐다. 그것은 박대감께서 함흥에 차사로 가기를 자청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수차에 걸쳐 함흥에 차사로 간 사람은 살아서 돌아온 사람이 한사람도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임금의 명이 “경이 함흥에 차사로 다녀오시오”할 때는 죽으러 가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여기는 판인데 대감이 함흥지사를 자청했다니 말이다.

궁중에서 어전회의가 열리던 날, 문무백관이 어전에 부복하여 왕(태종)의 옥음을

기다리고 있을 때, “경들은 들으시오. 짐이 옥좌에 앉은지도 어언 3년여 세월이 흘러 국태민안이 어느정도 이룩됐건만 함흥에 계신 대왕(태조)을 모셔오지 못함이 어찌 자식된 짐의 도리겠는가? 더구나, 나라의 이념이 효를 바탕으로 한 충이거늘……. 지금까지 차사로 갔던 사람이 부왕마마의 노여움을 사고 모셔오는 뜻을 이룩하지 못했으니, 짐은 밤낮으로 근심을 놓을 수 없소! 경들은 누가 짐의 근심을 풀어줄 수 있는가, 숙의하여 차사를 천거해 주기 바라오”

모두들 고개를 들지 못하고 공포에 찬 겉눈질을 하며, 혹시 자신이 지적을 당하게 될까 전전긍긍하는 순간 “신 박순 아뢰오. 신은 일찍이 상왕마마(이성계)를 모셨던 사람으로 상왕마마를 친히 알현코자 하는 심저의 뜻이 있어오니, 노구이오니 소인에게 직책을 맡겨주시옵소서. 상감마마!” 만족백관은 깜짝놀라 고개를 들어 박대감을 바라본다. 왕은 놀라움과 기쁨속에 입가에 웃음을 띄우며 “경께서 친히 중책을 자임하시니 충성스런 뜻에 감복할 따름이오!”

“상감마마! 황공무지로소이다. 하온데 한가지 소청을 드리고자 하오니 윤허하여 주시옵소서.” 왕은 만면에 미소를 띄우며

“어서 말을 하오. 무슨 소청인들 못들어 주겠는가”

“저에게 새끼가 달린 어미소를 한 마리 주시옵고 별배가 따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여 박대감은 차사로서 여장을

꾸러 함흥을 향한 장도에 오르게 되었다.

◆◆◆

한편, 아내 장흥 임씨는 함흥차사라는 죽음의 길을 자청하여 그 험하고 먼 길을 외로히 떠나는 남편과 작별해야 하는 심회는 어찌해야 할 바를 몰랐으나, 오직 한마음 신령님께 남편의 무사귀환을 축원하는 것 뿐이라 생각했다. 그래서 대감이 함흥을 향해 떠나던 날 밤부터 온갖 사물이 깊이 잠들고 고요가 무겁게 내리는 1경을 가리키는 별빛을 따라 뒤란 우물물을 손수 떠서 목욕제계를 끝마친 다음 단정한 옷차림으로 장독대 위에 정화수를 찰랑이게 담은 사발을 고이 놓고 백배를 하며 “칠성님! 신령님! 우리 박대감을 굽어살피사 무사귀환케하여 주옵소서” 조아리곤 했다. 그리고, 집안의 가솔에게는 물론 이웃에게도 대감의 안녕을 비는 마음과 연계하여 마음쓰기에 한순간도 벗어난 때가 없이 더욱 덕을 끼치려 했다.

◆◆◆

함경도 용흥강에 박대감을 여러날을 지나서 이르게 되었다. 지금껏 차사들은 많은 별배들을 거느리고 이 용흥강에 이르렀고 강을 건너다가는 선왕을 모시는 병사의 화살에 맞아 죽게 되었으니, 떠나간 즉 소식이 없는 사람을 일러 함흥차사란 속담을 만든 결과를 만들었던 것이다. 그러나, 박대감은 한낱 길손이요, 농부가 되어 어미소를 몰아 용흥강을 아무일 없이 건넜다. 송아지는 목을 묶어 강가 말뚝에 동여매고 말이다.

박대감은 어미소를 몰고 상왕이 거처하시는 별궁에 도착하여 마당의 말뚝에 소를 매어 놓고 문으로 다가가 병사에게 말하기를 “내 일찍이 상왕마마를 모시던 별장 박순이니라, 박순이 팔도를 유람 중 상왕마마를 알현코자 왔노라 아뢰어라!”

그래서 병사가 상왕께 아뢰다.

“일찍이 상왕마마를 모시던 박순이 상왕마마를 알현코자 하옵니다.”

이 말을 들은 상왕은 벌떡 일어나 밖으로 뿔듯이 나오며

“아니, 박순이 나를 보러왔다고 박순이!”

버선발로 대문까지 뛰어 나와 박대감을 얼싸 앉으며 눈에 눈물이 어린다.

“박대감! 어 어찌 여기까지 왔고?, 나를 보러왔어! 어서 안으로 들라”

박대감은 상왕과 주안상을 마주하며 지난 시간의 많은 이야기를 꽃피우며 거나히 취했을 때 석양은 어둠을 재촉하기에 이르렀다.

밖에서 새끼 송아지를 찾는 어미소가 처절히 울부짖는 음매 소리를 연거퍼 내는 것이었다. 상왕은 역정어린 음성으로

“어찌, 밖이 저리 소란하는다?”

그때, 박순대감은 급히 일어나서는 엎드려 배하며 말한다.

“대왕마마! 불경한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소인이 팔도의 산천을 구경하는 길에 오르지 벌써 오래됐사온데, 이제는 말이 겁이나 순한 암소를 골라 타고 다녔사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송아지를 낳아 여기까지 이르렀사옵니다. 선왕마마를 뵈어야겠다는 생각으로 용흥강을 건너려니 송아지는 위험하여 강건너에 매어두고 어미소등에 타고 강을 건넜사옵기 어미소가 새끼 송아지를 애타게 찾는 소리옵니다. 이점 통촉하옵시옵고 용서하시옵소서!”

대왕의 눈길은 먼 길을 바라보듯 초점이 허공을 향하고 낮은 음성으로

“세월이 많이갔구려! ……”

이때 박대감은 더욱 깊이 부복하며

“상왕마마! 아뢰옵기 황궁하오니 만물도 어미와 새끼의 정이 저러하거늘 상왕께서

는 한양의 자손들에 대한 그리움이 얼마나 깊으시겠아옵니까? 한양의 저하마마께서는 상왕마마에 대한 경모에 애끓는 감회가 극한 줄 아옵니다. 상감마마! 한양으로 회정하시옵소서. 신은 간청하여 상주드리옵니다.”

상왕마마의 눈에서는 눈물이 어린다. 시각을 격하여 “내, 생각하리다. 공은 이제 지체 말고 어서 이 곳을 드도록 하시오!”

상왕의 뜻을 안 박대감은 행장을 수습하여, 소를 몰 필요없이 급히 나루터로 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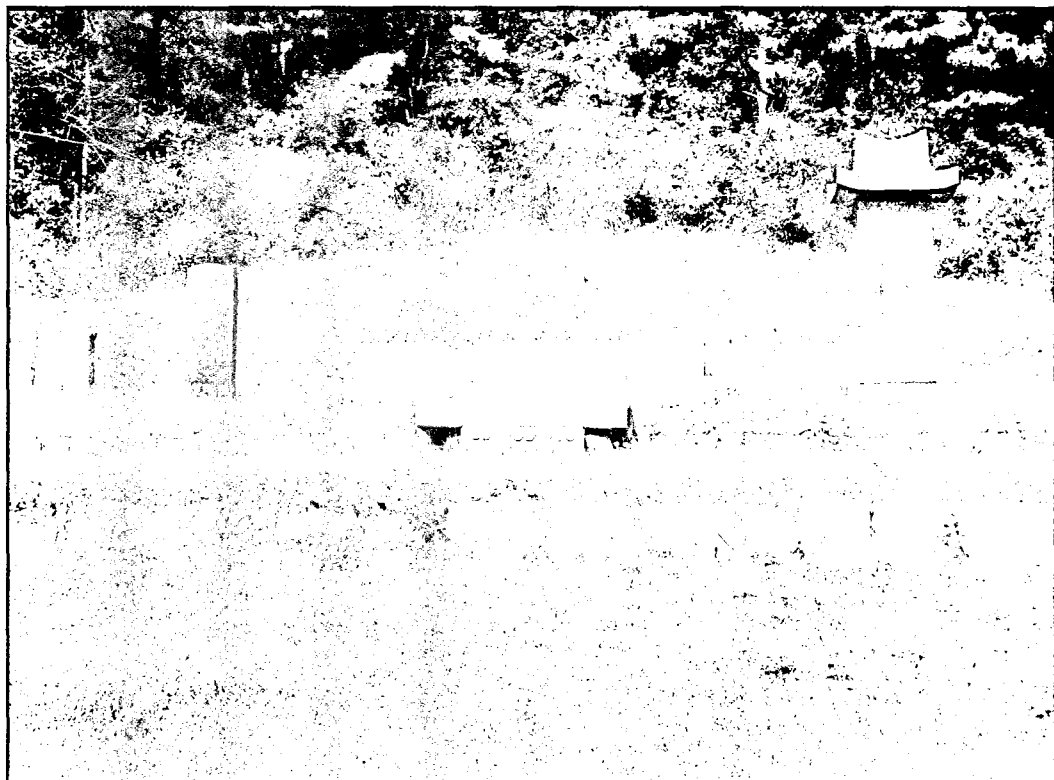
◆◆◆

박대감이 상왕마마의 별궁을 나온 후 상왕마마를 모시는 별장은 상왕마마께 부복하여 노기찬 음성으로 상주한다. “상왕마

마! 아뢰옵기 황궁하오나, 상왕마마께서 한양에서 보낸 차사가 용흥강을 건너려거든 그 누구를 막론하고 사살하라 하셨습니다, 박순 그는 한양에서 보내온 차사임에 틀림 없사옵고 상왕마마의 심금을 미물에 비유하는 망언을 하였으니, 그를 처단토록 하명하시옵소서, 상감마마…!

충성어린 애절한 말에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왕마마는 상당한 시간이 흘렀다고 생각이 들었고 박순이 용흥강을 건넌 으리란 생각이 미치자 “그대의 충성스런 말을 내 받아들이노니, 그를 죽이라,

그러나 만약에 그가 용흥강을 건넌 때는 절대 뒤를 쫓지말라” 하며 장검을 빼어 별장에게 내려준다. 별장은 급히 물러나 말



Ⅳ. 고양시 문화 유적지

한글서 일산 땔기씨초가

- 종 류 : 경기문화재 제8호(민속자료)
- 소 재 지 : 일산신도시내 27블럭
(일산4동 1313번지)
- 연 대 : 약 150년 전
- 관람시간 : 매주 월요일과 매월 10일을
제외한 10:00~17: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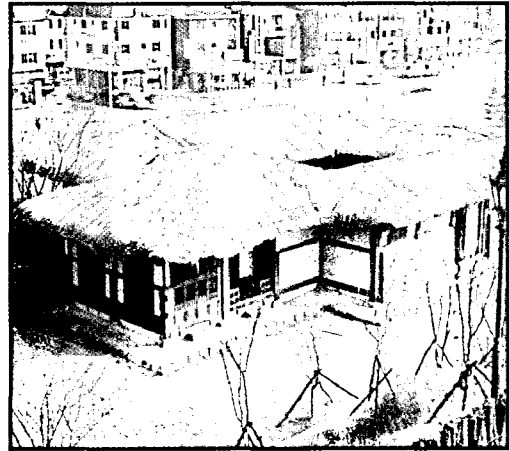
일산신도시내 정발산 동북쪽 기슭에 위치한 이 초가는 조선시대 후기 우리나라 중부 지방의 전형적인 서민농촌주택의 형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이 집은 약 150년전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ㄱ”자형 안채를 중심으로 행랑채가 맞은편에 대칭적으로 지어져 있어 전체적으로 “ㅁ”자형으로 구성되어 있고 특히 지붕 형태가 또아리 모양으로 되어 있어 특이하며 전체적으로 소박하면서도 튼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이곳에 1997년 봄부터 ‘민속전시관’이 개관되어서 일산신도시가 개발되기 전의 생활모습이 전시되어 있으니, 농촌생활에서 사용되던 모든 농기구와 사육되던 동물(소, 병아리, 닭)의 모형과 농촌 중류가정에서의 부인의 안방, 건넌방, 부엌, 대청마루 등을 마네킹과 여러 도구와 시설로 섬세하게 표현하고 제작 설치하여서, 변화와 변형이 심한 현대에 근세인 생활과 사상, 모습을 선명하게 볼 수 있어서 성인에게는 그리운 과거에 대한 선명한 회상의 장이 되고, 자라나는 세대에게는 신비감으로 옛날을 배우게 만드는 장이 되고 있다. 특히, 이곳 전문위원 정동일 씨의 세심한 교육적 배려에 의한 설명과 열정적으로 놀이의 재현과 시범, 그리고 정서어린 평론적 조명은 방문객의 삶을 뜻 있게 하고 거듭나게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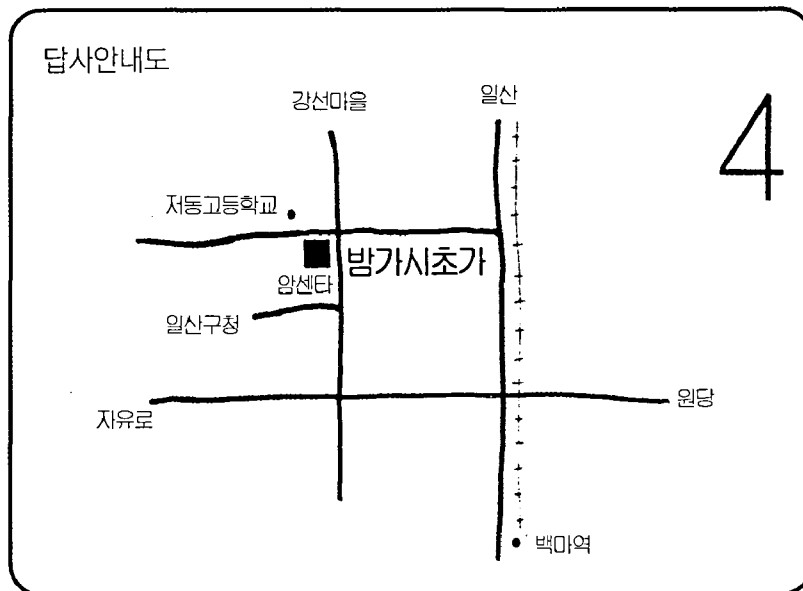
MEMO



(경기도 중요민속자료 제8호)



밤가시 초가 민속 전시실



IV. 고양시 문화 유적지

백석동의 흰돌 이야기

옛날 옛날!

에헴 에헴, 아주 오래전 한강에 대보퉁(제방)이 쌓이기 이전의 이야기란다.

당시 고양땅의 모든 고을에 이름을 처음 만들기 시작해 38개 마을이 모두 각기 마을의 특색을 자랑 삼아 이름을 지었다. 모든 고양사람들이 기우제를 지내기 위해 건달산에 오르면 다들 마을이름에 대한 자량이 대단하였다.

그러나 한강 옆 용채이별판 윗마을 사람들은 기우제를 지낼 때는 물론 한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마을 이름을 짓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마을 사람들은 다른 마을 사람들을 만나면 창피해 마을밖 출입도 끊고 매일 나무 밑에 모여 이름 만들기 위해 모여 들었다. 그러나 항상 짓지 못하고는…….

그러던 어느날!

건달산의 기우제가 효험이 있었는지 큰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가뭄이 모두 해소되고 이제는 한강이 넘치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은 짐을 꾸려 마을 뒷편으로 올라가 이제는 비가 그치기를 빌었다. 이때, 멀리 강의 상류에서 반짝, 반짝거리며 무엇인가가 떠내려오고 있었다.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그 밝기는 더욱 강해졌고 마을 사람들은 호기심으로 모두들 놀라 모여들었다.

자세히 보니 반짝거리는 것은 흰돌이었고 그 위에는 조그마한 아기가 고추를 내놓고는 웃고 있었다. 온통 백색 돌의 아기는 신비스럽게 보이기까지 했다. 잠시후 흰돌은 용채이별판을 몇바퀴 돌더니 마을 앞 도당산 끝에 멈추었다. 그런데 이때부터 갑자기 비가 그치고 물이 줄었고 그 흰돌과 아기는 그대로 마을에 남게 되고 마을 사람들은 이상히 여겨 돌을 만져보기도 하고 아기를 돌

봐 주기도 했다. 그러나 이상한 것은 돌위의 아기에게 젖을 먹이기 위해 불과 10척만 떨어지면 울기 시작해 그치지 않았다. 또 추울까봐 옷을 입혀 주어도 울기는 마찬가지였다.

이러니 아녀자들은 매일 흰돌 주위에 모여있어 흰돌을 닦고 아기에게 젖을 먹이곤 했으며, 남자들은 큰나무 밑에 모여 앞으로 일들을 논의했다. 이 중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고 존경을 받는 흑뿌리 지씨 할아버지는 “저 신비스러운 돌과 아기가 떠내려온 후 그 큰 빗줄기와 홍수가 멈추었으니 이는 분명 신령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이에 내 생각에는 에헴 에헴! 저 돌의 모습을 따서 우리마을 이름을 백석으로 짓고 돌을 보호하며 저 아이를 훌륭하게 키우면 우리 마을에 좋은 일이 있을 듯 합니다.” 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이야기에 모두 찬성하고는 곧 사람을 시켜 마을이름을 백석촌(白石村)으로 정한 것을 다른 마을에 널리 알리게 하였다.

마을 사람들이 자랑스럽게 여기며, 섬기고, 아끼고 평화스럽게 살던 어느날…….

에헴 에헴!

이 마을 사람들은 흰돌에 대한 고마움을 표하고 마을의 영원한 안녕과 평화를 빌기 위해 도당산 도당나무 아래에 제물을 차려놓고 깊은밤 조용히 정성을 드리게 됐다. 맑고 밝은 하늘에는 무수한 별들이 반짝반짝 속삭였고 숲에는 풀벌레의 숨결만이 들렸다. 그때 동편 하늘에서 번쩍하는 한줄기 빛이 눈깜짝할 사이에 젖상에 비추는가 했더니 어느덧 선녀 셋이 웃음을 담뱃담은 채 고운 백색비단으로 감싼 아기를 안고 있었다. 물론 아기는 빙그레 웃음을 얼굴에

담았고, 옥쟁반에 구슬 굴리듯 그러나 밝고 맑고 나직한 음성이 들렸다.

“그대 마을 사람들이 어진 마음으로 소원이 지극하기에 천상에서 시험을 했거늘 그 뜻과 정성이 변함이 없으니 앞날에도 큰 복락과 평화를 누리리라.” 하더니 마을 사람들이 정신을 차릴 사이도 없이 이미 아기와 선녀는 하늘 멀리 사라져 갔단다. 그런 후에 마을 사람들이 이 도당산을 신성시 여기고 치성을 드리고 소원을 비는 것이 오래오래 계속된 것이다.

〈흰돌 이야기의 유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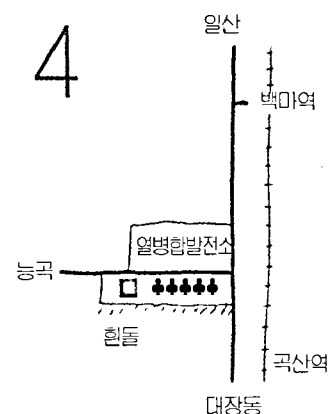
현재 자유로가 되는 한강 제방은 1927년부터 1934년 사이에 쌓여진 것이다.

이 제방이 쌓여지기 전에 한강의 물줄기는 행주 덕양산 동남향 서울쪽 절벽에 부딪고 현재의 물길과 창릉천이 만난 물줄기가 능곡역 앞으로 거치고 백석동(흰돌이 있는 곳) 산비탈을 돌아 하류로 흘렀다고 한다.

그러니 이 이야기는 한강 제방이 이루어지기 전 고양 향토의 자연과 삶의 모습을 엿볼 수 있으며, 우리 선조들의 애환이 담긴 설화임을 알게 해준다.



흰돌 답사 안내도



IV. 고양시 문화 유적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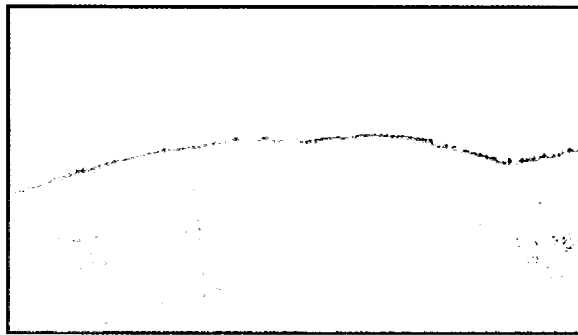
4. 독산 봉수대(문봉동)

- 종 류 : 도문화재 제8호(민속자료)
-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193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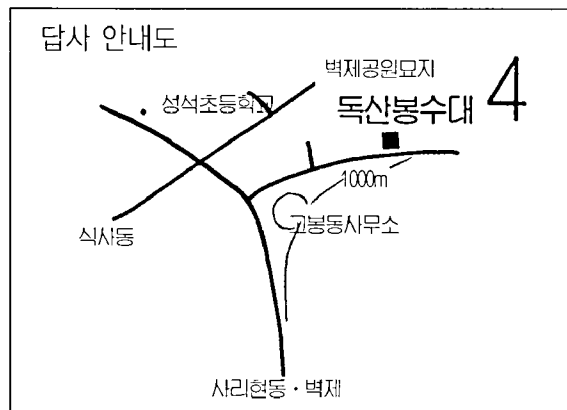
문봉동, 사리현동, 지영동에 둘러쳐져 있는 독산(일명 문수산)의 정상에 있는 봉수대이다. 문봉동에 있어 문봉 봉수대라고도 하며 이 산의 옛 이름을 솟달산 또는 소아달산이라고 하며 솟달봉수, 소아달산 봉수라고도 부른다.

인조 14년(1636)부터 고종 31년(1894)까지 국방상 중요 임무를 띤 속보, 경비, 전신의 역할을 한 제3노선의 봉수대이다. 파주 대산으로부터 연결을 받아 동쪽으로 서오릉 뒷편의 봉산 봉수를 거쳐 서울 무악의 안산으로 전달하였다.

이밖에 고양에는 고봉봉수, 해포봉수, 앵봉봉수, 봉산봉수대 등이 있었다.



• 독산 정상의 지름이 약 20m, 둘레는 석축으로 쌓여 있고, 봉화를 하던 대(台)의 흔적도 일부 남아있다.



우리나라의 봉수(烽燧)

차용걸 교수(충북대)

1.

봉수(烽燧)는 햇불(烽)과 연기(燧: 본디는 불을 만드는 기구 이름 日光鏡)에 의한 통신을 일컫는 역사적인 용어이다. 중국 고대인 주(周)의 유왕(幽王) 때 이미 적이 습격하여 음을 알리기 위해 높은 곳에 만들어 딸감을 불살랐음에서 생겨 봉화(烽火)는烽燧로 썼다.

〈목자〉 호령편에는 낮에는 봉(烽)을 들고 밤에는 화(火)를 들었다 하고, 〈사기〉 사마상열전에 봉거수번(烽舉燧燔)이라 하고 그 주(注)에는 봉(烽)은 적을 보면 드는 것, 수(燧)는 난리 때 분(焚)하는 것으로 낮과 밤에 행하던 통신이다. 〈後漢書〉 광무제기(光武帝紀)하의 수봉수(修烽燧)의 주(注)에 이르러 낮에는 수(燧), 밤에는 봉(烽)으로 통신했음이 이후의 봉수와 같은 체계적인 시설로 되었음을 암시한다.

우리나라도 삼국시대부터 봉화가 있어 왔으나, 당시의 유구가 어떤 것인지 아직 분명하지 못하다. 봉수규식이 정해진 것은 고려 의종 3년(1149)으로 이때는 평시에는 하나로부터 4개까지 4등급으로 구분하고 방정(防丁) 2인과 백정(白丁) 20인씩 배치 되었으며 운영비로 1결씩의 토지가 분급되었다.

봉수제도의 정비는 세종 4년 윤12월(1422)에 이룩되었다. 그리고 1895년 윤5월 9일 공식적으로 폐지되었다. 조선시대의 봉수는 병조(兵曹) 무비사(武備司)에서 관장하였다. 하나의 내지 봉수대에는 별장(別將)·감관(監官)·오장(伍長)·봉군(烽軍, 卒)·보인(保人)으로 구성되었고, 대개 책임자 아래에 5개의 조로 나뉘어 25명의 봉군이 5교대하고, 경제적 기반으로 보인이 봉졸 1명당 5명씩 딸려 있었다. 물론 경(京)과 연변(沿邊)은 배수로 그 중요성을 더하였다.

조선시대의 봉수는 5등급으로 긴급의 정도를 나누어 신호하였다. 평상시는 1거(炬), 적이 국경 근처에 출현하면 2거, 국경에 접근하면 3거, 경계를 넘어오면 4거, 접전하면 5거가 그것이다. 모든 연변의 봉수는 몇 개의 통신로를 따라 서울의 목멱산(木覓山) 봉수대로 집결되었다. 따라서 봉수로의 인근에 사는 사람들은 봉수의 숫자를 보고 어떤 상태인지를 알 수 있었고, 중앙에서는 남산을 바라보면 어디에서 어떤 상태인지를 알 수 있었다.

봉수대는 일정한 거리는 아니지만, 대략 눈으로 보이는 가물거리는 시계끼리 산봉우리를 연결하고 있다. 20리 혹은 30리 쯤의 거리마다 있는 봉수대는 래봉(來烽)을 보고 있다가 거봉(去烽)을 향하여 신호하였다. 날씨가 흐리거나 비·눈이 와서 보이지 않을 경우에는 거봉쪽으로 봉졸이 뛰어가서 릴레이식으로 연락하였다.

2.

세종 때의 경우에 연변 봉수는 방벽은 높이 쌓고 방어 시설을 갖추게 하고 있다. 세종 29년(1447)에는 연변지역 봉수대의 시설을 전국적으로 규정하였다. 이 때의 규정은 봉수대의 높

IV. 고양시 문화 유적지

이가 25척, 둘레가 70척, 봉수대 아래의 4면은 30척으로 하여 바깥에는 참호를 파되 너비와 길이가 10척씩 되게 하고, 이 참호의 바깥으로는 3척짜리 나무말목을 위쪽을 뽕족히 깎고 겹 짚을 벗겨 10척 너비로 박아 세우게 하였다. 그리고 봉수대 위에는 임시의 건물을 지어 각종 병장기를 저장하고 식사를 위한 물과 불, 그릇도 시설해 두고 지키는 봉졸은 10일씩 교대 근무하였다.

내지의 봉수는 연변에 비교하여 시설이 간략하였다. 봉수대는 모두 석축을 원칙으로 하고, 봉수(불피우는 아궁이)에 이어지는 봉돈(烽墩)도 3척 이상으로 높이지 않으며, 봉돈은 아래는 네모꼴이고 위로 둥글게 좁혀진 모양이었다. 봉수대는 둘레를 쌓은 위에 작은 여장(女牆)을 둘러 외부에서 사나운 짐승이 뛰어들지 못하게 하며, 동시에 불뚱이 외부로 튀지 않도록 해자(孩子)를 마련하기도 하였다.

봉수대는 대략 불을 피우기 위한 동물의 배설물, 쭉, 싸리나무, 해, 풀로 만든 해, 숯 등을 마련하였다. 때로는 간단한 전투장비가 마련되어 있었다. 전국의 봉수는 서울 목멱산 봉수에서 5개의 길로 연결되었다. 목멱산 봉수는 동쪽부터 1·2·3·4·5봉으로 정해져 있었으며, 이는 전국의 5개의 봉수로의 최종 종점이었다.

- ① 함경도 경흥 서수라보에서 시작하여 아차산봉수로 직봉 120군데, 간봉 60군데
- ② 경상도 동래 용봉봉수에서 시작하여 총북을 거쳐 광주 천림산봉수로 직봉 40군데, 간봉 123군데
- ③ 평안도 강계·만포진에서 시작하여 고양 모악동봉으로 직봉 78군데, 간봉 22군데
- ④ 평안도 의주 고정주에서 황해 해안을 거쳐 모악서봉으로 직봉 71군데, 간봉 35군데
- ⑤ 전라도 순천 돌산도에서 서해안을 거쳐 양천 개화산봉으로 직봉 50군데, 간봉 35군데

충청도의 경우 음성 망이성봉수에서 경상도 남해안의 6군데 봉수로가 집결되었는데, 직봉은 죽령산 → 단양 소이산 → 청풍오티 → 충주 심향산 → 충주 마산 → 음성 가섭산 → 음성 망이산

간봉은 문경 탄항 → 연풍 마골점 → 충주 주정산 → 충주 대림성 → 충주 마산
또 하나의 간봉으로 김천 고성산 → 황간 놀이향상 → 영동 소이산 → 영동 박달산 → 상주 소산

이원 월이산 → 청산 덕이산 → 보은 금적산 → 회인 용산점 → 청주 것대
↳ 옥천 환산 → 회덕 계족산 → 문의 소이산 → 청주 것대 → 진천 소아산
→ 음성 망이산으로 죽령이 직봉, 조령 방면과 추풍령 방면은 간봉이었다.

이중 영동에서 청산·보은·회인을 거쳐 청주 것대로 통하여 간봉은 조선전기에 정리되었다.

3.

봉수를 담당하는 봉군은 본디 양인에게 할당된 군역의 하나였다. 그러나 봉군은 고역으로 차츰 천시되어 이른바 칠반천역(七班賤役)이라는 신양역천(身良役賤)으로 신분적 지위가 하락하였다.

봉수가 국가안보에 있어 차지하는 중요성에 비추어 산꼭대기를 오르내리고 시탄(柴炭)을 마련하는 고역으로 차츰 봉수제도는 위기를 맞았다. 국가에서는 봉수에 대한 엄격한 법률이 있어 상벌이 엄하였다. 예컨대 적이 출현했는데도 제대로 거화하지 못하면 봉줄만 곤장 80인 것이 아니라 감독자인 수령도 곤장 70, 적이 접근했는데도 거화하지 않으면 곤장 100에 변경총군, 적과 교전하는 데도 거화하지 않으면 참형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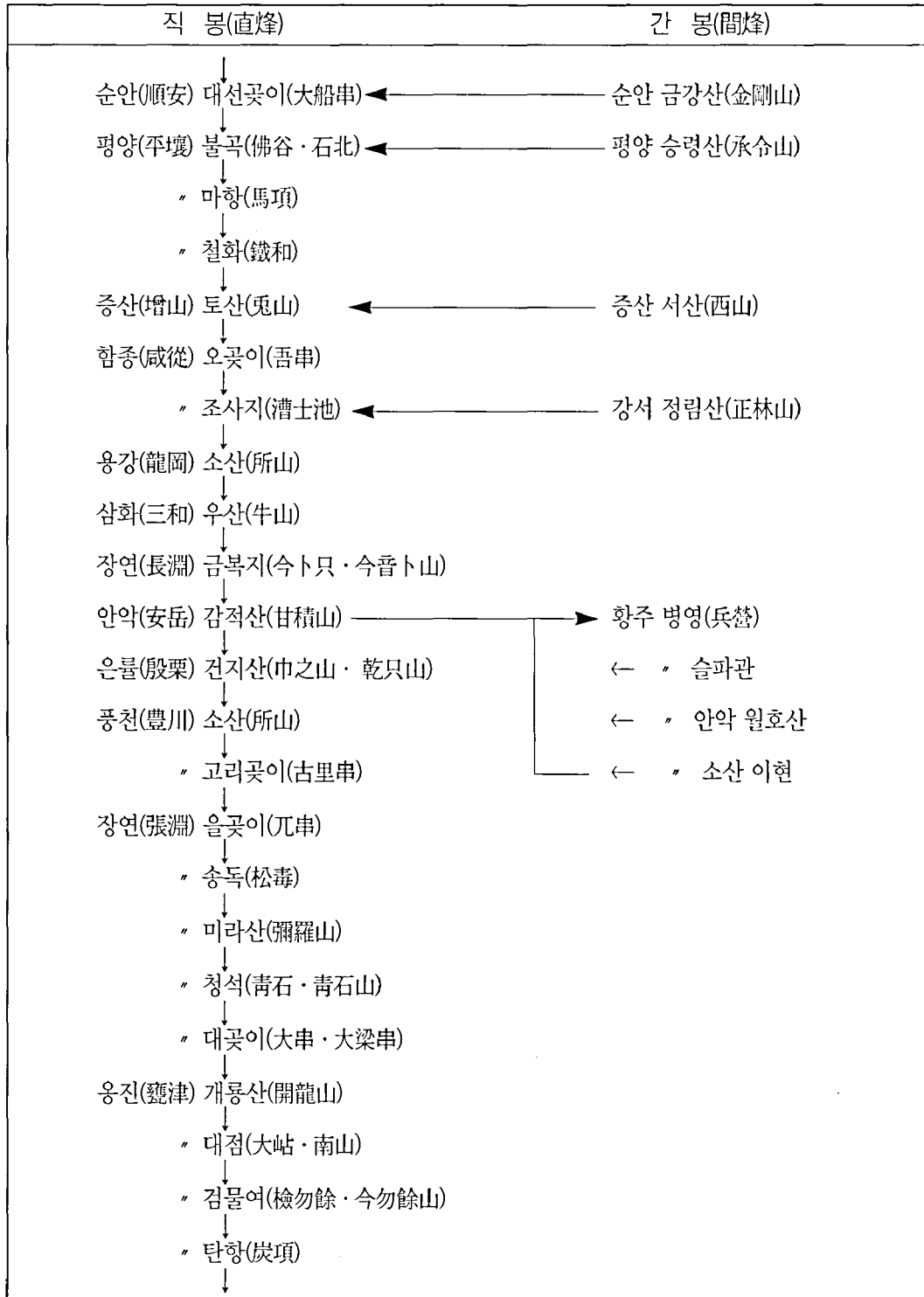
조선시대를 통해 보면 남북에서의 크고 작은 변방소요에 봉화가 제대로 오른 적이 없었다. 연산군(1495)때는 야인이 삼수(三水)에 침입했으나 거화하지 않아 해당자를 처벌하고는 봉수가 없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해서 1504년 11월에는 남산 봉수를 폐지한 적도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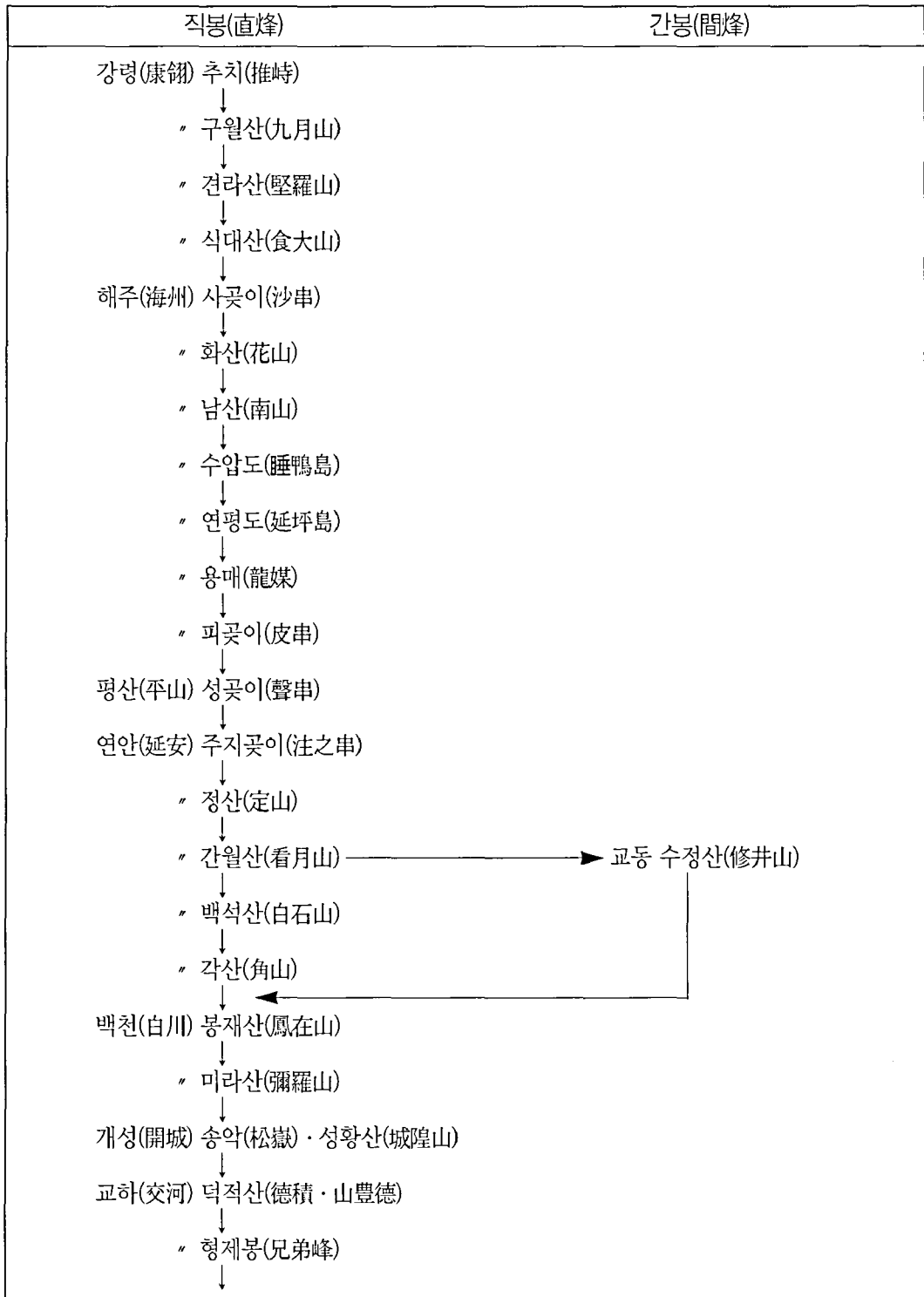
중종반정에 의해 1506년 10월 봉수제는 부활되었으나 중종 5년(1510) 이른바 삼포왜란 때에도 봉수는 오르지 않았고, 1544년 사랑진왜변 때도 그러하더니, 임진왜란 때도 그러하였다. 이처럼 봉수는 중간에 한두곳만 근무가 태만하면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었다.

MEMO

직 봉(直烽)	간 봉(間烽)
숙천(肅川)	도연산(都延山·都迎山)
영유(永柔)	미두산(米豆山)
순안(順安)	독자산(獨子山)
	“ 부산(斧山)
평양(平壤)	잡약산(雜藥山·藥山)
	“ 화사산(晝寺山)
황주(黃州)	운봉산(雲峰山)
	“ 천주산(天柱山)
	“ 고매치(古每峙·古梅峙)
봉산(鳳山)	건지산(巾之山·乾之山)
서흥(西興)	소변산(所卞山·所乙磨山·所了山)
	“ 회산(回山)
평산(平山)	독발산(秃鉢山)
	“ 봉자산(奉子山)
	“ 남산(南山)
금천(金川)	고성산(古城山)
개성(開城)	송악(松嶽)·국사당(國師堂)
장단(長湍)	도라산(道羅山·都羅山)
파주(坡州)	대산(大山·大母山)
	“ 독산(秃山·所叱達山)
고양(高陽)	해포(醢浦·蜂峴)
	“ 모악(母嶽)·동봉(東蜂)
한성(漢城)	목멱산(木覓山)

직 봉(直烽)	간 봉(間烽)
제 4 횃불(第四煙)	의주(義州)-(해안) -경성(京城)
위주(義州) 고정주(古靜州)	
↓	
“ 기이성(岐伊城·岐里山)	
↓	
“ 우리암(于里巖·丁音山巖)	
↓	
용천(龍川) 용안산(龍眼山) ←	용천 용호봉(龍虎烽)
↓	
“ 진곶이(辰串·彌串鎭)	
↓	
“ 소위포(少爲浦·沙爲浦)	
↓	
“ 석을곶이(石乙串)	
↓	
철산(鐵山) 소곶이산(所串山)	
↓	
“ 취가산(鷺家山)	
↓	
선천(宣川) 백량산(白梁山·栢梁山)	
↓	
“ 동소곶이산(東所串山) ←	선천 대목산(大睦山)
↓	
“ 해안(海岸)	
↓	
곽산(郭山) 청엄산(靑俺山·靑巖山)	
↓	
“ 방축포(防築浦) ←	곽산 금노곶이(金老串)
↓	
“ 도치곶이(都致串)	
↓	
정주(定州) 진해곶이(鎭海串·陣海串)	
↓	
“ 자성산(慈聖山)	
↓	
“ 사음산(舍音山)	
↓	
“ 사음동음(沙邑冬音) ←	가산 고당현(古堂峴)
↓	
“ 호혈(虎穴)	
↓	
“ 동을랑산(冬乙郎山·老山)	
↓	
숙천(肅川) 식포(息浦)	
↓	
“ 여을외(餘乙外·餘外浦)	
↓	
영유(永柔) 소산(所山·臥龍山)	





IV. 고양시 문화 유적지

▣ 봉수의 화(炬)의 수(數)

봉수의 횃불 수는 정세의 느리고 빠름 즉, 완급 및 내지(內地)와 해변에 차이를 두었으며 전보의 격식인 거화(炬火: 횃불)는 고려시대의 4회에서 후퇴하여 무사시에는 1화, 유사시에는 2화로 하던 2거구분법(二炬區分法)으로 세분화되어, 1회에서 5회까지 구분하였다.

그 내용을 보면 평분(平分) 즉, 평상시에는 1개의 횃불로 하고 적의 형적(形跡)이 나타나면 2개의 횃불(二炬), 적이 국경선에 접근하면 3개의 횃불(三炬), 적이 국경을 침범하면 4개의 횃불(四炬), 적과 접전하면 5개의 횃불(五炬)을 올리게 하였는데 제주도의 해안에서는 약간 방법이 달랐다. 그것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시대	횃수	구분	1화	2화	3화	4화	5화
고려	4		평상시	보통위급 (적이 나타남)	정세가 긴급 (적이국경에접근)	정세가 초긴급 (전쟁이 일어남)	
조선	5	내지	평상시	적의 흔적(형적) 이 나타남	"	적군이 국경을 침범	적과 접전(교전) 을 할 때
		해안	태평과 평화가 계속될 때	바다위에 적(황 당선)이 출현	적선이 해안에 접근할 때	적선과 우리 함 대가 접전할 때	적군이 육지에 상륙
		제주	평상시	적선(황당선)의 형적이 나타남	적선이 국경에 접근할 때	적선이 경계를 침범할 때	적과 접전(교전)을 할 때

이 화를 들어 불을 올리는 거화법이 좀더 발전된 모습으로 변화되지 못한 이유 및 봉수통신의 전보 방향이 기점에서 종점인 목역산의 단일방향으로 국한된 이유는 이 봉수방법이 국방에 대한 안위(安危)의 정보를 전달하는 군사적인 목적에만 한정되었을 뿐, 서민의 생활과는 거리가 멀었다는 점이 가장 큰 이유였을 것이다.

▣ 봉수의 관장(管掌)

봉수의 중요성이 인식될수록 그것을 차지해서 맡아보는 부서가 문제였다. 중국에서는 병부(兵部)의 직방랑(織方郎) 중 원외랑(員外郎)이 지도·성황(城隍)·진술(鎭戍)·방인·도로의 멀고 가까움 등을 맡는 중에 봉후(烽堠)를 맡았다. 그 임무는 적의 진지나 거처를 수색해 살피기 위해 봉화를 올리던 돈대(墩臺)와 척후(斥候)를 말하는 것으로 행정적인 것은 병부의 소관사항이고 거기서 임무를 관장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중앙의 경우 병조의 무비사(武備司)가 봉수를 관장하고, 지방의 경우에는 관찰사·수령(守令)·병사(兵使)·수사(水使)·도절제사·순찰사 등 모든 군사 책임자가 그 임무를 맡았다.

여기서 관찰사의 수령은 행정상의 책임자로서 실제의 직무를 맡았다기 보다는 겸임직무였던 군사 책임자 직무의 일환으로 담당하였다. 수령은 봉화군이나 오장(伍長) 즉, 감고(監考)의 망보는 임무가 성실한가를 감독, 감시하여 이와 연대책임을 졌다. 이들의 사무를 맡기는 것과 출근은 물론 봉화대 시설의 이상 유무를 살폈다.

봉수대에 직접 배치되어 있는 자는 하급

장교인 오장과 봉졸(烽卒)인 봉수군으로서 그들은 모두 봉수대 근처에 거주하는 자를 임명하고 다른 군역에 종사할 수 없으며, 오직 망보는 일에만 전념하도록 하였다.

오장은 봉수군과 같이 생활하면서 봉수대의 이상 유무를 수령, 즉 진장(鎭將)에게 보고하였는데 이를 받는 수령은 유사시에는 즉시, 무사시에는 월말마다 관찰사에게 보고하는 한편, 매 분기말인 3월·6월·9월·12월에 병조에 보고하였다.

이때 봉수의 연락이 끊어졌을 경우, 수령은 곧 그 사유를 병조에 보고해야 하는데 관찰구역 안에서의 봉수와 정보 송신과 시설 상태가 양호한가의 여부는 수령의 공적과 과실에 직접 관련이 있어 경우에 따라서는 상벌이 행해지기도 하였다.

연변봉수는 봉수대마다 군사 10명과 감고(오장) 2명 내지봉수에는 군사 6명과 감고 2명을 배치하여 봉화를 올린 뒤, 혹 구름이 덮혀 어둡거나 바람이 세차서 연기나 불로 신호가 통할 수 없을 때에는 봉수군이 차례로 달려가서 보고하게 되어 있다.

경봉수(京烽燧)인 목멱산 봉수에는 군사(봉수군) 4명과 오장 대신 오원(伍員) 2명이 있었다. 이는 목멱산이 중앙 봉수소이며 다른 봉수와는 달리 5개의 봉수소가 있어 이에 상응하는 조치로 볼 수 있겠다. 이 경봉수에는 병조에서 따로 사람을 배치하여 경봉수인 남산봉수를 바라보고 있다가 무사한 경우에는 그 다음날 아침 승정원에 보고하여 임금에게 상주(上奏)하게 하고, 변란이 있으면 밤중이라도 곧 승정원에 보고하였다.

■ 봉수대의 시설(施設)

1422년(세종4) 윤8월, 연변봉수에 아무런 의지할 방벽 즉, 보벽(堡壁)이 없기 때문에

적의 침습을 당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시설 개선을 위해 연대(煙臺)를 높이 쌓고 그 위에 궁가(弓家) 쌓으라고 명했다. 또, 1447년 3월 4일(丙寅)에 시설에 관한 제도가 확립되었다.

이때 확립된 연대의 규모는 높이가 영조척(營造尺)으로 25척(7.5m), 둘레가 70척(21m)에 봉수대 밑의 4면이 30척(9m)이며, 그 밖에 깊이와 폭이 각 10척(3m)인 참호가 있었다. 또 길이 약 3척(90cm) 정도되는 나무끝을 뾰족하게 깎아서 만든 말뚝을 박아 일종의 목책(木柵)을 만들어서 말뚝지대를 설정(넓이 3㎡ 정도)하여 적군의 침입이나 맹수의 습격에서 근무자의 생명을 보호하였다. 그리고 표주(標主)를 세워 경계를 삼아서 연대 자체를 방위하기도 하였다.

이런 표주 경계선의 100보(步) 이내에서 거짓 봉화나 단순한 방화를 막론하고 불이 났을 때에는 병조에서 관찰 단속하였다. 그 밖에서 일어났을 때에는 해당 진영에서 단속하게 하였는데, 이들은 대개 극형인 사형에 처하였다. 또 봉수대 근처에는 촛불에 의한 실화(失火)를 염려하여 무당의 굿이나 토속에 의한 잡신 제사를 금하였다.

이런 일들은 봉수대 자체는 물론 인근지역의 방위까지 하기 위해 그곳에 병기·신포(信砲)·소화포 등을 배치하여 유사시에 사용하였다. 주위에 적의 무리가 나타나면 신포를 쏘아 널리 알려줌으로써 생명의 위협을 덜고 안전하게 하려는 요새와 같은 성격도 띠었다. 이것은 거짓 봉화로 인해 잘못 전하는 경우가 미리 없애기 위한 조치이기도 했다. 봉수대 위에는 임시로 사는 집을 짓고 봉군들이 필요한 각종 병기와 생활에 필요한 기물을 저장하였다. 그러나 내지(內地)의 봉수에는 위험도가 적으므로 연대(煙臺)를 쌓지 않고 연조(아궁이)만을 설치

IV. 고양시 문화 유적지

구분	내 용	단 위	위천 봉수	금성 봉수	내 용	단 위	위천 봉수	금성 봉수
거 화 시 설 (舉 火 施 設)	연대(烟臺)	柄 · 筒	1	5	쑥(艾)	柄 · 同	5	5
	연굴(烟窟)		5	5	말통	섬(石)	5	5
	망덕(望德)		1	1	쇠통	"	5	5
	약승(藥升)(大)		1		화통(火桶)	筒 坐 柄	5	5
	화전(火箭)	"	9	9	통아(桶兒)		1	5
	당화전(堂火箭)	"	9	9	종화분(種火盆)		5	1
	화약(火藥)	沙里	5	5	싸리패(사거)		50	50
	화승(火繩)	兩	1	1	해(同炬)	待沙里	3	3
	화철(火鐵)	"	2	2	센(積紫)		5	5
	화석(火石)	섬(石)	2		토목(土木)		5	5
	석회(石灰)		5	5	회초(蛔草)		5	5
	세사(細沙)	"	5	5	교주을(僑注乙)		1	1
	초거(草炬)	柄	50	50	이탄(里炭)		5	
	조통(槽桶)	槽	5	5				
방 호 시 설 (防 護 施 設)	장전(長箭)	部	5		색표기(色標旗)	面	5	
	편전(片箭)	"	1	1	삼혈총(三穴銃)	柄	1	
	궁지(弓子)	張	1	5	도끼	"	20	20
	교궁자(校弓子)	坐	1	5	방패(防牌)	木 筒 柄 件 箇	6	6
	엄심(掩心)		1	5	전각(戰角)		1	1
	엄두(掩頭)		1		연환(鉛丸)		30	30
	지갑주(紙甲冑)		15		낫		5	3
	늑쇠천	柄	1		조소(條所)	件 箇	3	3
	작은북(小鼓)		1		이기장(里機杖)		20	20
	말복(抹木)		무정수		고월라(古月羅)		15	10
	도(刀)			2	법수목(法首木)	"	5	5
	승자총(勝子銃)	面			사다리(前梯)	"	1	1
	백기(白旗)		1	1				
생 활 용 구 (生 活 施 設)	초가(草家)	間		2	물독(水瓮)	指 竹 立 坐 件	5	5
	가가(假家)	"		2	좌반(坐盤)		5	
	기와집(瓦家)	"	2		수저		5	5
	곳집(庫舍)	"	2		지접(指接)		1	
	공석(空石)	立	10	5	사발(沙鉢)		5	5
	표주박		5	5	노구(爐口)		1	1
	가마(釜子)	坐	1	1	횡자(橫子)		1	
	밥술(食鼎)	"	1		무릉석(無稜石)		5	5
	대변량(待邊糧)	石	1	10	화주을(花注乙)		5	3
	초석(草石)		5	2	물통(水樽)		6	6
	입류기(立柳器)	部	2	1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아주 위험한 곳에는 연대를 쌓았다. 연조는 위가 뾰족하고 아래는 크게 네모 혹은 둥근 모양으로 만들되, 그 높이는 10척(3m)을 넘지 않게 하였고 사나운 짐승의 위험이 있을 때에는 둘레에 담장을 쌓아 막았다.

연대나 연조 위에는 반드시 연통을 만들어 바람으로 연기가 흩어짐을 방지하였다. 경봉수의 설비는 내지봉수의 그것과 유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각 봉수대에는 봉수를 올리기 위한 연대의 시설과 뜻밖의 돌발사태에서 방호하기 위한 무기류 및 취사용구 등이 있어야 했는데, 그 내용을 「여지도서」의 기록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불피우는 방법

중국에서 봉화는 낭연(狼煙)으로서 변사(變事)가 있을 때 신호로 올리던 불인데, 이리 랑(狼)이란 글자가 있는 것은 땀감이나 쏘 속에 이리의 똥을 섞어서 불을 피우면 연기가 똑바로 올라간다고 하여 생긴 이름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이리가 많지 않아서 그 똥을 구하기 어려우므로 대신 쇠똥이나 말똥을 구해 섞어서 썼고, 후대에는 연대(煙臺)에 연조(아궁이)를 만들어 쓰다가 내지봉수 중 중요한 곳에는 연통을 만들어서 쓰기도 하였다.

초기에는 이 불을 전달하던 시설을 길고(桔槔)라 하였다. 이것은 높은 망대위에 버팀목(기둥이나 立木)을 세우고 거기에 지렛대같이 긴 나무를 달아 그 끝에 무거운 돌을 매달고 다른 한쪽 끝에는 두레박을 달아 돌을 무게로 물을 퍼내는 장치로서 이처럼 만들었다. 그리고 그 끝에 땀감을 넣는 바구니를 매달아 두었다가 적이 오면 거기에 불을 붙여 점화하여 오르내리게 하여 신호

하는 장치로서, 물을 퍼내는 기계라기보다는 오히려 오르락 내리락 하는 봉화와 연기를 말하는 것이 더 합당한 표현이 아닌가 생각된다.

▣ 봉수의 도달 시간

국경 즉, 변경의 초소에서 올린 봉수가 차례로 전보되어 경봉수인 서울 목멱산 중앙봉수소에 상보(詳報)되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 하는 점은 당초부터 큰 관심거리였다. 시대와 거리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정상적인 봉수대의 설비와 확실하고 성의있는 봉수군이 봉수대를 맡아서 헛불을 든다면 그 소요시간을 산측(算測)하는 데서 큰 차이가 없을 것이다.

변방에서 헛불을 올리는 시간은 대개 한 낮이었으므로 어느 노선이든 서울(한성)에서 멀리 떨어진 곳일수록 낮에 올리는 연기 즉 주연(晝煙)이었고, 서울에 가까워지면 밤에 올리는 헛불 즉 야화(夜火)로서 한밤에 경봉수인 남산에 도달하였다.

조선 세종 1년에 봉수가 성실하지 못할까 염려하여 몰래 변방에서 시험적으로 봉수를 올리게 해 보니, 과거 5~6일에 서울에 이른 것이 이제는 1개월에도 통하지 않음을 걱정하여, 각별히 깨우쳐 밝히자는 의견이 나온 것을 보아도 초기의 봉수의 소통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육진(六鎭)의 경우 처음 국경에서 오후에 봉화를 올리면 저녁 해질 무렵에 경봉수 직전 봉수인 아차산 봉수에 도달했다고 함은, 12~13시 도달을 17~18시까지로 본다면 5~6시간이 걸린 셈이다. 이를 목멱산 직전 봉수대인 아차산 봉수대에서 종성까지의 거리를 550km(dir 1,400리)로 측정할 때 1시간당 110km를 전달했다는 계산이 되어 당시의 그 어느 통신수단 보다는 신속한 것이었다.

또 1770년(영조 46) 7월에는 봉화를 올리는 시각을 매일 해질녘으로 정하여 1,000여리를 연이어 응하면 아차산까지의 소요시간이 12시간 정도여서 경봉의 시한에 맞추지 못하였다. 따라서 좀더 일찍 화저(火底)에서 봉화를 올리므로써 단천을 훨씬 지나 천령에 도달하여 야화(夜火)로 서로 응하도록 조치하라고 하였다.

국경지방의 연대에서 해가 저물 무렵에 봉화를 올린 시간을 16~18시 경으로 가정하고 경봉수대에 도착한 시간을 초경에서 3경 사이인 23~01시로 보고, 산세가 험악하고 지형이 고르지 못한 길로 뛰어가서 전하는 치보(馳報)가 1개월 정도 걸렸을 것으로 보면 이 봉수의 전보가 신속한 방법이었다고 하겠다. 그러나 봉수가 제대로 소통이 안되고 중절(中折), 불보(不報)되는 문제가 있었다.

▣ 봉수군의 근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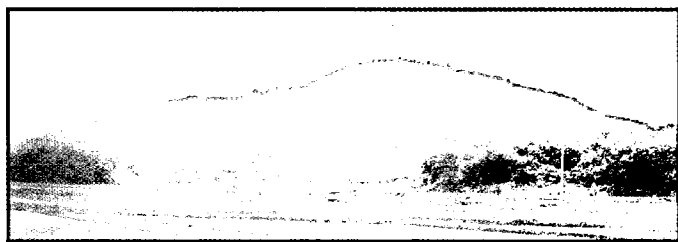
봉수군은 항상 봉수대 위의 정위치에서 근무하여 망을 보아 신속히 알리는 임무를 완수하는데 여러 가지 애로와 불편을 겪어야 했으며 그들의 긴장된 후망(候望)을 위해 몇가지의 방법이 고안되었다.

세종 때에는 각 도의 가장 변방 초면(初面)하는 곳에 연대를 높이 쌓고 가까이 사는 백성 10여명을 모아 봉졸(烽卒)로 하고, 3명씩 이 병기를 휴대, 연대 위에서 주야로

정탐하여 찾아내는데 5일마다 교대하였다. 그러나 9년 후인 1446년 2월 우찬성 김종서의 말에 의하면 각 봉수소에 패하여 멸망한 곳이 12명 뿐이므로 각 처에 6명을 늘려, 18명을 3번으로 나누어 6명이 8시간씩 근무하게 하였다.

또 연방봉수대에는 감고(監考) 2명씩을 배정하여 상하 2번으로 근무하였고, 내지 봉수에는 봉수소마다 봉졸 6명과 감고 2명으로 양번 교대하여 봉역을 담당하였다. 연변 봉수군은 해안 및 국경지방의 봉수군을 말하는 것으로 남쪽의 왜구와 북쪽 여진 등 이민족의 침입을 막기 위해 10명을 배치하였으나, 내지봉수에는 반도(叛徒)들의 반란을 걱정하여 급히 전보할 목적으로 6명이 근무하게 하였다.

봉수군이 노약하거나 질병으로 그 임무를 감당할 수 없어 대신 사람을 번(番)서게 할 때에는 개인이 사사로이 할 수 없었다. 만일 개인적으로 다른 사람을 세운 때에는 대명률(大明律)에 의해 처벌하였다. 진(鎭)에서 외환을 막는 군인이 사사로이 이름을 거짓으로 꾸며 근무하게 한 사람은 장(杖) 60에 직(籍)을 거두어 충군(充軍)케 하였으며, 정신(正身)은 장 80에 역시 충군하였다. 그리고 그 자손제질(子孫弟姪)이 동거하는 친속의 봉족(奉足) 중에서 능히 그 소임을 감당할 사람이 있어 대체하기를 자원하면 이를 허락하였다.



고봉봉수대전경사진

IV. 고양시 문화 유적지

四十一 충신 이정암 정려각(忠臣 李鼎範 旌閭閣)

- 시 대 : 조선 인조 원년(1623) 하사(下賜)됨
- 소재지 : 사리현동 22번지
- 소유자 : 경주이씨 문중
- 규 모 : 높이 210cm, 폭 250cm
- 재 료 : 목조와가(木造瓦家)

선생은 문신(文臣)으로 중종 36년(1564)~선조 33년(1600)의 생애를 누렸으며 본관은 경주로 시호는 충목공(忠穆公), 호는 사유제(四留齊) 또는 퇴우당(退憂堂), 월당(月塘)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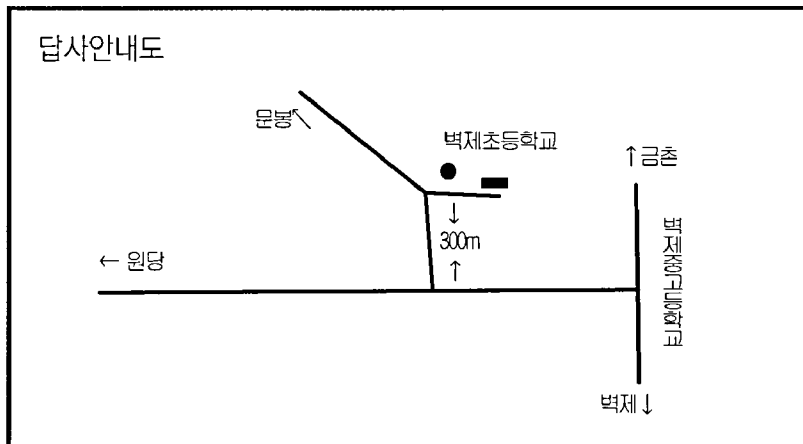
선조 11년 양주목사로 도봉서원을 중수하여 유학의 진흥에 힘썼고, 대동법(大同法) 실시의 치적을 남겼고, 대사헌·승지를 역임했으며, 이조참의로 선조 25년 임진란에 선조의 서행(西行)하다가 황해도로 들어가

의병을 일으켜 연안(延安)에서 왜군 600명을 격파하였고, 선조 30년(1597) 정유재란 황해도 초토사로 연안수비에 노력했다. 이러한 공로로 1604년 2등 선무공신(宣武功臣)으로 되었고 월천부원군(月川府院君)에 추봉(追封)됐다.

저서로 상례초(喪禮抄), 독이공(讀易功), 왜변록(倭變錄), 사유제집(四留齊集), 서정일록(西征日錄)이 있다.

현재의 현판은 1980년 14대손 이장희가 짓고 12대손 이영우씨가 쓴 것이다.

※정려(旌閭) : 충신, 효자, 열녀, 효부에게 임금이 그 선행을 백성이 본받고 기리게 하기 위하여 내리는(하사) 문(門), 각(閣), 비(碑) 등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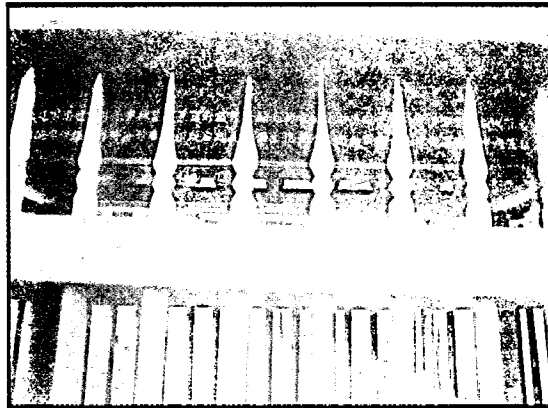
이 정려문은 1592년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때 큰 무공을 세운 충목공(忠穆公) 이정암의 충군애국정신(忠君愛國精神)을 기리기 위해 1623년 조선조 인조 원년, 황명천개 3년에 하사된 조선기와 목조(木造) 건물이다.

문의 정문 상단에는 총 78자의 정려문 목판 글씨가 남아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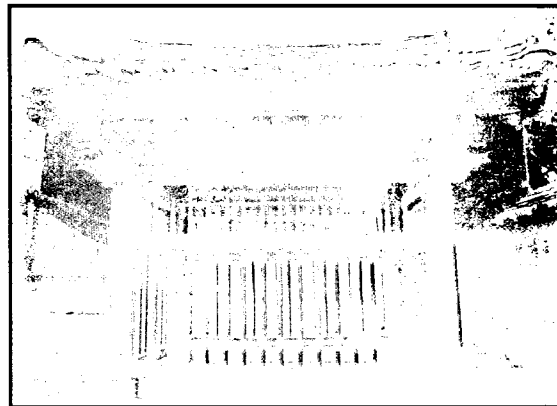
그 내용은 '충신자헌대부지중추부사겸항해도관찰사병마절도사도순찰사증효충장의

협력선무공신대광보국숭록대부의정부좌의정겸영경연감춘추관사세자부원군시충목공이정암지려(忠臣資憲大夫知中樞府事兼黃海道觀察使兵馬節度使都巡察使贈效忠杖義協力宣武功臣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左議政兼領經筵監春秋館事世子傳月川府院君諡忠穆公李廷樞之闕)'라 되어 있다.

정려문의 문자는 청색 바탕의 목판에 흰 글씨로 쓰여져 있는데 문은 땃돌 위에 올려져 일반적인 홍살문의 모습과 비슷하다.



정려문 근경



이정암 정려각

Ⅳ. 고양시 문화 유적지

태극단묘(太極團墓)

태극단묘는 일산구 송산동에 있다. 일산에서 금촌으로 가는 지방도변 서북쪽으로 10m 지점 송산아파트 바로전에 위치해 있는데, 전적비와 더불어 54위의 영혼을 모신 것이다. 매년 현충일에는 관내 기관과 몇 학년 학생들은 경건한 자세로 우러러 이곳에 향을 올리고 헌화하며 기념식을 가진다.

우리 민족은 국난을 당하였을 때마다 정규군이 아닌 민간이나 승려 등이 결집하여 투쟁하는 호국의 정신을 행동으로 나타냈던 것이다. 6·25사변이 일어나자 국운이 경각에 달렸음을 깨닫고 경기도내의 여러 곳에서도 학생, 청년들이 뭉쳐서 맨주먹으로 반공투쟁을 하였던 것이다.

태극단이란 북한 공산당의 남침에 의해 서울을 빼앗기고 정부는 부산으로 피난을 가게되자, 경의선의 각 지역 학생, 공무원, 청년들은 몇 명씩 회동하여 의거(義舉)에 들어갔다. 태극단(일명 T·K)은 1950년 7월 2일 고양군 중면 일산리의 삼정부락에서 이장복(李章馥 26·交通部 陸運局 근무)을 중심으로 안영근(安榮根 22·서울검사사무소)·홍원식(洪元植 20·경성전기중 5년)·김복환(金福煥 21·서라벌예술전문)·최희성(崔熙成 20·성동공업 5년)·박정양(朴正良 21·교통부)·이승국(李承國·서울공고 4년) 등이 조직했다. 각자혈서로써 목숨을 바쳐 반공구국운동을 벌이기로 맹세한 단원들은 단장에 이장복을 추대하고 총무에 안영근, 조직에 홍원식, 정보에 김복환,

동원에 최희성, 연락에 박정양, 감찰에 이승국 등 1인부의 책임부서를 정한 뒤 각종 정보를 신속히 입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보책임자인 김복환을 고양군 민청(民靑)에 위장 투입시켰다. 이와 함께 김영배(金英培 24·일산역 근무)·장기범(張基範 28·기관사)·이응수(李應洙 26·기관수)·유재국(俞在國 20·중학 5년) 등 철도국 직원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10여명의 동지를 포섭, 단원으로 가입시켰으며, 아울러 군인가족으로 이곳에 피해와 있던李家가다(25·金炳隣 소령부인)와 김병숙(金炳淑 19·김병린 소령 여동생) 등 두명의 여성까지 조직에 가담시켜 본격적인 투쟁을 위한 陣列을 정비했다.

다른 지역(수색, 능곡, 행주, 금촌, 문산, 송포, 산남, 교하, 청석)에서 활동하던 조직들은 일산을 본단(本團)으로 일원화(一元化)함으로써 힘을 강화했고, 대원들도 공무원, 농민, 노동자, 교사, 경찰, 낙오장병 등이 합류하여 크게 활동하였고, 현재 확인된 당시의 단원이 400여명에 이르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투쟁 내용은 적의 무기 탈취, 유격전을 통해 통신방해를 위한 전화선 절단, 수송차량 탈취, 화물열차 탈선 조성과 폭파, 사살과 포고문 살포 등이 있다.

태극단은 끝내 공산당에 발각됨으로써, 무참한 희생을 당했으나 그 일부의 내용을 여기에 소개한다.(고양군지 참조)

Ⅳ. 고양시 문화 유적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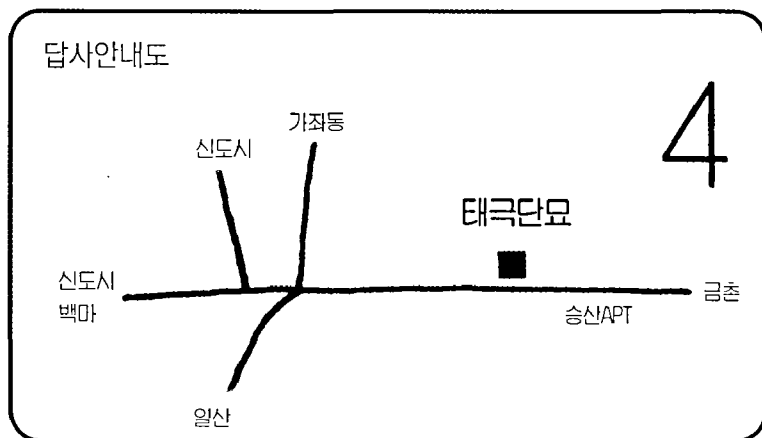
「고문을 이기지 못한 이두영(李斗永)의 입을 통해 마침내 점조직된 태극단원들의 신분이 하나씩 둘씩 밝혀지기 시작했다. 조사가 더욱 진행되면서 태극단의 지하조직은 완전노출을 피할 수 없게 되었고, 그에 따라 수많은 단원들이 적의 손에 붙들려 들어갔다. 체포된 단원들은 단내에서는 역할이나 비중, 과거행적 등이 심사되는 대로 학살을 당하거나 강제 북송(北送)의 처분을 받았다.

그리고 본단에서 붙잡혀 온 10명을 비롯하여 별동대 6명, 백마지단 1명, 송포지단 12명, 산남지단 13명, 교하지단 2명, 청석지단 4명, 황탄지단 1명 등 모두 49명에 달하는 태극단원들이 적의 마수아래 무참히 학살되었다. 특히 39명의 단원들이 집단으로 처형된 송포면 덕이리 운장에서는 차마 눈뜨고 보지 못할 끔찍한 만행이 연출되었다. 본단 조직부장 홍원식과 청석지단장 윤석만(尹錫萬)은 태극단원 중에서도 주동적인 역할을 해 온 핵심 요원이라 하여 팔, 다리를 잘린 뒤 창으로 무수히 찔리고 입까지 찢겨 살해되었으며 도망치다 다시 체포된 이응만(李應萬·33·농업)은 낮으로 얼굴에서

두점, 엉덩이에서 두점씩 살을 도륙당하고 끝내 다리까지 잘려 참혹하게 죽어갔다.

본단 총무부장 안영근도 단원명부 숨긴 곳을 추궁하는 적에게 끝까지 입을 열지 않고 버티다가 그의 부모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칼로 전신을 난자당하고 입을 찢긴채 살해되었다. 그 밖에 청석의 윤자영(尹滋英), 정태경(鄭泰慶), 송포의 이태영(李泰永) 등도 사후 시체 수습이 어려울 정도로 참혹한 죽음을 당했다. 이외에도 치열한 항쟁으로 산화한 사람이 많았으나 상세히 못 밝힌 바 있음을 말해둔다.」

우리는 자기 조상에 대한 얼과 뜻을 숭엄히 받드는 가정이나 가문은 우애롭고 평화로운 것을 본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산화한 분들의 얼과 뜻을 소중히 받들고 이어받으려는 그 국민, 그 민족은 영원하다는 것을 안다. 우리 고양인은 태극단의 정신을 행주의 얼과 더불어 고양인의 정신으로 승화하도록 해야겠다.



V. 참고 자료



고구려	달을성현(고봉), 개백현(행주, 덕양)
646(신라)	한산주
757(신라경덕왕16)	고봉현(교하군령현), 우왕현(한양군령현, 일명 왕봉현)
1018(고려현종9)	고봉(양주속현), 행주(양주속현, 일명 덕양), 부원현(원 과천군 용산호 충열왕때 편입, 황조향(원 부평부 소속)
1394(조선태조3)	고봉감무 설치, 고봉과 행주통합, 부원현은 한성부 소속
1413(조선태종13)	고양현 설치, 6품 관직
1471. 10. 13	현내 경릉과 창릉이 있으므로 현을 고양군으로 승격
1895. 5. 26	칙령 제98호로 23부제 실시에 따라 한성부 고양군이 됨
1906. 9. 24	칙령 제49호로 양주군 신혈면이 고양군에 편입됨
1911. 4. 1	경기도령 제3호에 의해 고양군은 9면 50개리 관할, 사리대면 신혈면, 원당면, 하도면, 구지도면, 중면, 구이면, 사포면, 송산면
1914. 4. 1	경기도령 제3호에 의해 고양군은 12면 155개리 관할, 용강면, 연희면, 은평면, 송인면, 독도면, 한지면, 벽제면, 신도면, 원당면, 지도면, 송포면, 중면
1936. 4. 1	부령 제8호(1936. 2. 24. 공포)로 용강, 연희, 한지의 3개면이 경성부로 편입
1949. 8. 15	법률 제159호와 제160호로 은평, 송인, 독도의 3개면이 서울특별시로 편입
1961. 8. 7	각령 제87호(1961. 8. 7. 공포)로 군청 위치를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가 18번지에서 고양군 원당면으로 이전
1963. 3.	원당면 주교리 97의 1번지의 신축청사로 이전

1973. 7. 1.	법률 제2596호에 의거 신도면의 구파발리, 진관내, 외리가 서울시로 편입
1973. 7. 1.	1973. 3. 12 대통령령 제6543호에 의거 신도면이 신도읍으로 승격 (1읍, 5면, 1 출장소)
1979. 5. 1.	대통령령 제9409호(1979. 4. 7 공포)로 원당면이 원당읍으로 승격 (2읍, 4면, 1출장소)
1980. 12. 1.	대통령령 제10050호(1980. 10. 21 공포)로 중면이 일산면, 벽제면이 읍으로 승격
1985. 10. 1.	대통령령 제11772호(1985. 9. 27 공포)로 지도면이 지도읍, 신도읍 화전 출장소가 화전읍으로 승격(6읍 1면)
1992. 2. 1.	법률 제4417호에 의거 고양군이 고양시로 승격
1993. 5. 18.	시조례 제171호에 의거 주엽동 신설(17개동) 분동(29개동)
1995. 3. 13.	시조례 제237호에 의거 일산3동 신설(30개동)
1996. 3. 1.	고양시 조례 제303호에 의거 덕양구, 일산구 설치
1996. 10. 21.	시조례 제357호에 의거 화정동을 화정1,2동으로 분동(35개동)
1997.	세계 꽃 박람회 개최
2000.	한국고양국제종합전시장 등 고양시 미래사업 계획추진
2002.	2개구 35개동에 시민 83만여명 거주
2003.	2개구 37개동에 시민 863천여명거주

군수

역대	성명	본적	생년월일	재직기간	최종학교	비고
1	이택수	경기		19~19		
2	정장해	경기		1949. 1. 12~1951. 1. 6		
3	김건열	충남천안	1908. 7. 9	1951. 1. 7~1953. 1. 14	일본 조도전대학 중퇴	
4	방치호	경기 파주	1986. 5. 27	1953. 1. 15~1953. 11. 18	황해도 사리원 공립 농업학교 졸	
5	최흥구	경기	1916. 12. 11	1953. 11. 19~1954. 3. 16		
6	신현중	충북 진천	1914. 3. 13	1954. 3. 17~1956. 7. 18	양정고등보통학교 졸	
7	남승희	서울 종로	1908. 5. 26	1956. 7. 19~1958. 1. 15	국졸	
8	윤만혁	경기 양주	1916. 2. 7	1958. 1. 16~1958. 11. 23	남연공립보통학교 졸	
9	강치화	서울	1915. 11. 24	1958. 11. 24~1960. 5. 22		
10	구자운	경기 여주	1908. 8. 17	1960. 5. 23~1960. 11. 27	대졸	
11	우종봉	경기	1914. 5. 19	1960. 11. 23~1960. 11. 22		
12	이영호	경기		1961. 11. 28~1962. 1. 5		
13	조남인	경기 안성	1919. 12. 8	1962. 1. 15~1965. 12. 2	정치대학 경제학부 졸	
14	박상필	서울 동대문	1920. 4. 15	1962. 12. 3~1964. 2. 20	건국대 정치대 3년 수료	
15	오운영	경기	1921. 4. 3	1964. 4. 8~1966. 3. 18	국학대학 법과 졸	
16	이원선	서울	1917. 3. 25	1966. 3. 19~1966. 11. 31	일본대학 전문부 법과 졸	
17	문일수	서울	1927. 9. 28	1966. 12. 1~1967. 12. 9	고려대 경영대학원 수료	
18	이병달	서울 성북	1919. 11. 24	1967. 12. 10~1968. 6. 14	동경청산학원고상부 경제과 졸	
19	오건식	경기포천	1918. 9. 2	1968. 6. 15~1969. 5. 4	경성공립농업학교 5년 졸	
20	윤자순	경기김포	1928. 8. 25	1969. 5. 5~1970. 3. 2	건국대법과 졸	
21	유석보	서울 마포	1929. 1. 12	1970. 3. 3~1971. 8. 20	고려대 법과 졸	
22	유춘복	서울	1923. 1. 21	1971. 8. 21~1973. 7. 9	서울대 사법대학 졸	
23	강도희	경기	1925. 3. 31	1973. 7. 10~1975. 9. 9	건국행정대학원연구생과정 수료	
24	김학기	경기고양	1930. 12. 29	1975. 9. 10~1976. 8. 4	개성공립상업학교 졸	

역대 시장·군수

역대	성명	본적	생년월일	재직기간	최종학교	비고
25	서병목	경기 안성	1920. 11. 10	1976. 8. 5~1977. 10. 19	대원치화상업학교4년/충남익산외국고졸	
26	신태섭	서울 종로	1929. 10. 27	1977. 10. 20~1979. 11. 14	대구청구대학경제과 2년 수료	
27	구연우	서울 종로	1926. 9. 17	1981. 7. 6~1982. 3. 2	서울대 치과대학 치의학부	
28	김남두	경기 사흥	1925. 3. 15	1982. 3. 3.~1983. 1. 26	철원중학 5년 졸	
29	이재원	경기 화성	1926. 2. 10	1983. 2. 1~1984. 6. 13	건국대 행정과 졸	
30	권호장	경기 이천	1944. 10. 8	1984. 6. 14~1986. 3. 7	서울대 법과 졸	
31	조재호	서울 성북	1934. 5. 12	1984. 6. 14~1986.3. 7	건국대 경제학과 졸	
32	송달용	경기 파주	1934. 3. 11	1986. 3. 8~1988. 6. 10	동국대 농학과 졸	
33	백성운	서울 서대문	1949. 6. 16	1988. 6. 11~1991. 1. 13	고려대 행정학과 졸	
34	조재호	서울 성북	1934. 5. 12	1991. 1. 14~1992. 1. 27	건국대 경제학과 졸	
35	송달용	경기 파주	1934. 3. 11	1992. 1. 28~1992. 1. 31	동국대 농학과 졸	



시장

역대	성명	본적	생년월일	재직기간	최종학교	비고
1	송달용	경기 파주	1934. 3. 11	1992. 2. 1~1992. 11. 25	동국대 농학과 졸	
2	최병호	경기 이천	1942. 8. 6	1992. 11. 26~1995. 6. 29	성균관대 행정학과 졸	
3	신동영	경기 고양	1944. 6. 9	1995. 7. 1~1998. 6. 30	건국대 정치외교학과 졸	민선시장
4	신동영	경기 고양	1944. 6. 9	1998. 7. 1~1999. 6. 24	건국대 정치외교학과 졸	민선시장
5	황교선	경기 고양	1938. 9. 1	1999. 8. 20~2002. 6. 30	고려대 경영학과 졸	민선시장
6	강현석	경북 의성	1952. 12. 6	2002. 7. 1	고려대 국문과 졸	민선시장

고양시 문화재 목록

1	국가지정 문 화 재	국보	고산구곡시화병	제 237 호	개인소장
2			소원화개첩	제 238 호	개인소장
3		보물	태고사원증국사탑비	제 611 호	북한동
4			태고사원증국사탑(부도탑)	제 749 호	북한동
5		사적	행주산성	제 5 6 호	행주내동
6			벽제관지	제 144 호	고양동
7			북한산성	제 162 호	북한동
8			고려공양왕릉	제 191 호	원당동
9			서오릉	제 198 호	용두동
10			서삼릉	제 200 호	원당동
11		천연기념물	송포백송	제 6 0 호	덕이동
12			두루미(단정학)	제 202 호	호수공원
13	도 지 정 문 화 재	유형문화재	행주대첩비	제 7 4 호	행주내동
14			북한산성금위영 이견비	제 8 7 호	북한동
15			흥국사극락구품도	제 143 호	지축동
16			고양봉성암전성능대사부도	제 188 호	북한동
17			고양흥국사괘불	제 189 호	지축동
18			고양상운사목조아미타삼존불	제 190 호	북한동
19		기념물	최영장군묘	제 2 3 호	대자동
20			류형장군묘	제 5 0 호	행신동
21			북한산 중흥사지	제 136 호	북한동
22			북한산성 행궁지	제 160 호	북한동
23			고양독산봉수대지	제 193 호	문봉동
24		명승지	북한산 국립공원 삼각산일대	제 1 0 호	효자동, 북한동
25		문화재자료	한미산 흥국사 약사전	제 5 7 호	지축동
26			고려초기 청자요	제 6 4 호	원흥동
27			고양향교	제 6 9 호	고양동
28			행주서원지	제 7 1 호	행주외동
29			월산대군사당	제 7 9 호	신원동
30			연산군시대금표비	제 8 8 호	대자동
31			흥국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제 104 호	지축동
32		민속자료	일산 밤가시 초가	제 8 호	일산4동
33		무형문화재	고양송포호미걸이악사	제 2 2 호	일산동
34			경기소리, 휘몰이 잡가	제 31-1 호	전수회관

고양시 문화재 목록

1	시지정	향토유적	월산대군 묘 및 신도비	제 1 호	대자동
2			성녕대군 묘 및 신도비	제 2 호	신원동
3			계원군 묘 및 신도비	제 3 호	대자동
4			이성군 묘	제 4 호	성석동
5			경안군 및 임창군 묘	제 5 호	대자동
6			이천우선생 묘 및 신도비	제 7 호	대자동
7			민순선생 묘 및 묘갈	제 8 호	현천동
8			이무선생 묘 및 신도비	제 9 호	주교동
9			김명원선생 묘 및 신도비	제 10 호	관산동
10			정지운 선생묘	제 11 호	인산동
11			김전선생 묘 및 신도비	제 12 호	원흥동
12			홍이상선생 묘 및 신도비	제 13 호	성석동
13			이신의선생 묘 및 신도비	제 14 호	도내동
14			유여림선생 묘 및 신도비	제 15 호	관산동
15			이지신선생 묘 및 신도비	제 16 호	향동동
16			기준 선생 묘	제 17 호	성사동
17			김주신 선생 묘 및 신도비	제 18 호	대장동
18			박세영선생 묘 및 신도비	제 19 호	오금동
19			박대립선생 묘 및 신도비	제 20 호	오금동
20			한계미선생 묘 및 신도비	제 21 호	관산동
21			기견선생 묘 및 신도비	제 22 호	성사동
22			기응세선생 묘 신도비	제 23 호	성사동
23			김홍집선생 묘	제 24 호	대자동
24			한규설선생 묘	제 25 호	원당동
25			박충원선생 묘 및 신도비	제 26 호	주교동
26			강지선생 묘	제 27 호	오금동
27			유진동선생 묘	제 28 호	행신동
28			유림선생 묘	제 29 호	행신동
29			유구선생 묘	제 30 호	행신동
30			유겸선생 묘	제 31 호	행신동
31			북한산 3·1운동 암각문	제 32 호	북한동
32			강매동 석교	제 33 호	강매동
33			흥국사 나한전	제 34 호	지축동
34			박태성 정려비 및 묘	제 35 호	도내동
35			은지연못 및 이축선생 묘	제 36 호	도내동
36			심희수 묘 및 교지	제 37 호	원흥동
37			권희선생 묘	제 38 호	성사동
38			이석탄장대	제 39 호	도내동

고양의 얼과 역사

- 발행일 2003년 12월 28일
- 발행인 오수길
- 편집인 강선구(고양문화원 사무국장)
이건진(고양시사편찬위원회 상임위원)
정동일(고양시 향토문화재 전문연구위원)
- 발행처 고양문화원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600 T.031-963-0600

〈비매품〉

〈고양의 얼과 역사〉의 원교 내용은 고양시 문화대관 및
『고양군지』를 기초로 하여 고양시의 보조금으로 발행한 책자임

